

제 31 회 한 말 연 구 학 회

전 국 학 술 대 회

일시 : 2010년 2월 5일(금요일)
 장소 : 건국대학교 서울캠퍼스 산학협동관 322호(제1발표장)/102호(제2발표장)
 주제 : 【지정주제】 한국어 어휘에 대한 새로운 모색과 한국어 교육
 【자유주제】 국어사, 국어음운, 응용언어학
 주최 : 한말연구학회

개회식		사회 : 이근영(부회장)
10:30 ~ 10:50	(등록 및 접수) 개회사 회장 인사	
특 강		사회 : 구현정(상명대)
10:50 ~ 11:50	전정예(건국대)	형태소 분석의 중요성에 대하여
< 점심 식사 >		
	<제1분과> 주제: 국어 어휘와 문법 연구	<제2분과> 주제: 국어 변화 연구
	제1발표장 사회: 강흥구(공주대)	제2발표장 사회: 허원욱(건국대)
1:00 ~ 1:40	방법론 어휘 담론과 교육 발표: 김슬옹(동국대) 토론: 이동혁(포항공대)	'-다고'류 어미의 형성과 의미 발표: 남미정(서강대) 토론: 김건희(충남대)
1:40 ~ 2:20	개화기 신문 광고 어휘의 사용 양상 연구 발표: 서은아(상명대) 토론: 김준희(건국대)	문자 사용 양상에 따른 국어 문체 변화사 발표: 허재영(단국대) 토론: 서정미(안양대)
2:20 ~ 3:00	신분별 부부 간의 상대존대법 종결어미 연구 -신소설을 중심으로- 발표: 박철주(서강대) 토론: 전정미(상명대)	우리 민족의 문자 발달사 -구결을 중심으로- 발표: 이전경(성신여대) 토론: 김양진(고려대)
	<제3분과> 주제: 한국어 교육	<제4분과> 주제: 국어 음운 연구와 응용언어학
	제1발표장 사회: 이만식(경동대)	제2발표장 사회: 방운규(평택대)
3:10 ~ 3:40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어 어휘 교육 -쓰기에 나타난 어휘 오류를 중심으로- 발표: 전영옥(상명대) 토론: 김용경(경동대)	21세기 국어의 어두 경음화 실태 발표: 한명숙(건국대) 토론: 김유권(대진대)
3:40 ~ 4:10	표준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방법론 기초 연구 -영어 원어민 보조교사를 대상으로- 발표: 정태섭(한국외대) 토론: 김경주(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어 ㅎ구개음화에 대한 통시적 고찰 발표: 안대현(연세대) 토론: 이준환(성균관대)
4:10 ~ 4:40	한국어교육에서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글쓰기 치료적 접근 발표: 정성미(강원대) 토론: 고석주(연세대)	15세기 변동평성 동사의 성조 변동 발표: 최영미(호서대) 토론: 최중호(동의대)
4:40 ~ 5:10	대학 교양수업에서 수행되는 발표의 피드백 방안 발표: 김남미(서강대) 토론: 박동근(건국대)	이야기 패러디 광고의 텍스트성 고찰 -공주 이야기가 차용된 텔레비전 광고를 중심으로- 발표: 윤재연(건국대) 토론: 한성일(경원대)
< 폐 회 >		

차 례

■ 특 강

전정예(건국대)	형태소 분석의 중요성에 대하여	3
----------	------------------------	---

■ 제1분과

김슬옹(동국대)	방법론 어휘 담론과 교육	11
이동혁(포항공대)	토론	34
서은아(상명대)	개화기 신문 광고 어휘의 사용 양상 연구	37
김준희(건국대)	토론	50
박철주(서강대)	신분별 부부 간의 상대존대법 종결어미 연구-신소설을 중심으로- ...	52
전정미(상명대)	토론	76

■ 제2분과

남미정(서강대)	‘-다고’류 어미의 형성과 의미	81
김건희(충남대)	토론	92
허재영(단국대)	문자 사용 양상에 따른 국어 문체 변화사	94
서정미(안양대)	토론	114
이전경(성신여대)	우리 민족의 문자 발달사-구결을 중심으로-	115
김양진(고려대)	토론	124

■ 제3분과

전영옥(상명대)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어 어휘 교육-쓰기에 나타난 어휘 오류를 중심으로-	129
김용경(경동대)	토론	144
정태섭(한국외대)	표준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방법론 기초 연구-영어 원어민 보조교사를 대상으로-	145
김경주(한국교육과정평가원)	토론	162
정성미(강원대)	한국어교육에서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글쓰기 치료적 접근	164
고석주(연세대)	토론	175
김남미(서강대)	대학 교양수업에서 수행되는 발표의 피드백 방안	177
박동근(건국대)	토론	196

■ 제4분과

한명숙(건국대)	21세기 국어의 어두 경음화 실태	201
김유권(대진대)	토론	220
안대현(연세대)	한국어 ㅎ구개음화에 대한 통시적 고찰	221
이준환(성균관대)	토론	231
최영미(호서대)	15세기 변동평성 동사의 성조 변동	233
최종호(동의대)	토론	257
윤재연(건국대)	이야기 패러디 광고의 텍스트성 고찰-공주 이야기가 차용된 텔레비전 광고를 중심으로	258
한성일(경원대)	토론	278

【 특 강 】

형태소 분석의 중요성에 대하여

-선어말어미 '-오-'의 예-

전정예 (건국대학교)

□ 차례 □

1. 머리말
2. '-오-' 형태소의 분포 기준
3. 동일형태소의 설정 기준
4. 맺음말

1. 머리말

언어학 연구에서 음소 분석이나 형태소 분석에 대한 이론이 정립된 것은 20세기에 와서이다.¹⁾ 철저한 음소 분석이나 형태소 분석에 의한 구조주의학자들의 언어 연구는 그 후 생성 문법학자 Chomsky의 통사이론의 대두로 20세기는 그야말로 언어학 연구에 눈부신 발달을 가져왔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형태소의 분석이 형태.통사론 연구의 출발점임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여기서는 우리 문법사 연구에서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는 선어말어미 '-오-'의 객관적이고 정확한 형태소 분석을 시도해봄으로써, 아직도 해묵은 논란이 되고 있는 '-오-'의 문법적 기능을 규명하는데 그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국어학사상 그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오-' 연구에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결론은 '-오-'의 문법적 성격을 선어말어미로 보는 것이다.

2. '-오-' 형태소의 분포 기준

기준 1 : 선어말어미 '-오-'는 동명사형어미 '-ㄴ', '-ㄹ', '-ㅁ' 앞에 온다.

'-오-'는 선어말어미이므로 어미와 결합하는데, 이 때 '-오-'가 결합하는 어미에 어떤 형태론적 조건을 줄 수 있는지가 검토되어야 한다. '-오-'가 결합하는 어미 형태들을 자료에서 찾아 보이면 다음과 같다.

종결어미

- 오라, -오이다, -오니라; -노라, -노이다, -노니라; -오리라, -오리이다
-논가, -노닛가; -온가, -오리잇가; -오리잇고²⁾

1) 음소에 대한 개념은 유럽의 구조주의 프라그마에 의해 처음으로 인식되었으며, 음소와 형태소의 분석은 미국의 구조주의 블룸필드학파에 의해서 활발히 이루어졌다.

-오마
 연결어미
 -오니, -노니, -오리니
 -오딧
 -오려
 전성어미
 -온, -논
 -올
 -옴

위의 형태 중에서 ‘-오이다’와 ‘-오딧’을 제외한 모든 형의 ‘-오-’가 동명사형어미 ‘-ㄴ’, ‘-ㄷ’, ‘-ㄹ’ 앞에 나타난다. ‘-이-’는 어말어미가 아닌 선어말어미이다. ‘-오이다’는 ‘-오라’에, ‘노이다’는 ‘-노라’에 ‘-이’가 삽입된 것으로서 어말어미와 관련한 형태론적 분포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오딧’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다. ‘-딧’은 중세국어에서 이미 의존명사(N2) > 어미(N3)의 과정에 있었으므로 관형형어미 ‘-ㄴ’, ‘-ㄷ’이 ‘딧’ 앞에 존재하는 ‘-온딧’와 ‘-올딧’형이 어미화하는 과정에서 탈락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³⁾

그러므로 선어말어미 ‘-오-’의 형태소적 분포환경을 동명사형어미 ‘-ㄴ’, ‘-ㄷ’, ‘-ㄹ’ 앞이라고 설정할 수 있다.

기준 2 : 어간 형성의 ‘-오-’는 제외되어야 한다.

이승녕(1959), 강길훈(1972)에서 포함시켰던 사역형의 ‘-오-’와 이병선(1971)의 부사형의 ‘-오-’는 어휘적 기능을 갖는 파생접미사로서 선어말어미 ‘-오-’와는 별개의 형태소이다.

3. 동일형태소의 설정 기준

‘-오-’의 동일형태소를 설정하는 범위는 어디까지나 ‘-오-’ 형태소의 분포환경에 따른 정확한 형태론적 기준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객관적 기준이 없이 ‘-오-’의 기능 규명을 위한 통사.의미론적 기준에 의한 동일형태소의 설정은 바른 분석이라 할 수 없다.

기준 1 : 종결.연결어미의 ‘-오-’와 관형사형.명사형에서의 전성어미의 ‘-오-’는 동일형태소이다.

‘-오-’의 동일형태소 설정 문제에서 가장 논란이 심한 항목으로서 이는 ‘-오-’의 기능 규명과 얽혀 첨예하게 대립된 문제이다. 통사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허용(1959), 이인모(1975)에서는 이를 다른 형태소로 보고, 의미.서법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이승녕(1959),

2) 고영근(1981), 정재영(1985)에서는 의문범어미에 ‘-오-’가 선접한 형이 빠져 있다. 그러나 중세국어 자료에서 의문범에도 ‘-오-’가 나타나는 예를 다수 발견할 수 있었다.

3) 이에 대한 논의는 전정례(1994) ‘-오딧 구문 연구’에서 자세히 논의되었고, 백두현(1996)에서 고려시대 석독 구결 자료에서 ‘-온딧’과 ‘-올딧’이 확인되었다.

이남덕(1970)에서는 동일형태소로 본다.⁴⁾ 형태소적 분포환경이 동일한 종결.연결.전성어미의 모든 동명사형어미 ‘-ㄴ’, ‘-ㄹ’, ‘-ㅁ’ 앞의 ‘-오’는 위의 기준에 따라 모두 동일형태소이다.

기준 2 : 대립항의 유무에 의한 동일형태소 설정 문제는 통시적 관점을 고려해야 한다.

‘-옴’, ‘-오디’, ‘-오마’ 등과 같이 ‘-오’가 항상 나타나서 대립항을 찾을 수 없는 형에 대한 항목들도 학자들 간에 이견이 있다. 고영근(1981)에서는 형태소 분석의 계열관계와 통합관계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하여 이들의 ‘-오-’를 분석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옴’에서 ‘-오-’를 분석해 낼 수 있는 근거는 전정례(1990)에서 ‘여름, 거름’의 전성명사와 ‘여름, 거름’의 명사형의 비교에서 ‘-오-’의 변별적 기능을 추출할 수 있고, 전성명사 ‘깃뿔, 아뿔’과의 비교에서도 ‘-오-’의 추출이 가능하다.

또한 ‘-오디’는 ‘-온디’, ‘-올디’에서 통시적으로 변천된 형태라는 것을 밝힐 수 있으므로 ‘-오’의 분석이 가능하다.

‘-오마’는 15세기 문헌에서는 찾을 수가 없고 16세기 문헌에서부터 찾을 수가 있는데, 이는 ‘-오- + -ㅁ + 아’로 분석되며 ‘-옴’에 첨사 ‘-아’가 결합되었고 ‘-ㅁ’ 앞에서의 선어말어미 ‘-오-’를 분석해 낼 수 있다.

모두가 공시적 언어 자료만으로는 설명이 불충분하고 통시적 언어변천 과정을 고려해야만 잘 설명해 낼 수 있는 형태소 분석이다.

기준 3 : ‘-웃-’, ‘-똥-’의 ‘-오-’는 동일형태소가 아니다.

감탄, 감상, 감동, 강조, 영탄법 등으로 불리는 이 형태소에 대하여는 그 혼란이 매우 심하다. 우선 ‘-웃’, ‘-똥’에서 ‘-오-’를 추출할 수 있는가의 문제, 추출할 수 있다면 우리가 논하고 있는 선어말어미 ‘-오-’와 동일형태소인가 하는 문제이다. 중세국어의 감탄법어미에 대한 규명 자체가 대단히 복잡하고 아직 우리 국어학계에서 형태론적인 분석이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고영근(1981)에서는 ‘ㅅ’ 계열의 감탄법어미들을 감동법이라 이름하고 ‘-웃’, ‘-똥’, ‘-ㅅ’을 동일형태소로 설정하며 여기에 선접된 ‘-오-’를 선어말어미 ‘-오-’와는 다른 형태소로 설정하고 있다.

이를 선어말어미 ‘-오-’와 동일형태소로 보는 견해로는 이송녕, 이남덕, 이인모, 손주일(1980), 차현실(1981), 정재영(1985) 등이 있다. 이남덕(1971)에서는 ‘ㅎ노라, ㅎ놏다, ㅎ도다, 호라, 호리라’ 등을 설정하고 이들이 모두 동일형태소의 이형태 관계에 있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오-’의 이형태로 ‘-오-/-우-’뿐 아니라 ‘-도-, -로-’도 설정되었으며, ‘이로라’와 ‘이로다’의 ‘-로-’들을 ‘-도-, -로-’의 동일형태소로 구분하지 않고 있다.⁵⁾ 이는 물론 형태소의 분포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분석이다. 이는 형태소 분석에 형태론적 기준보다는 의미론적 기준에 치중하는 것으로 정밀한 형태소 분석이 되지 못함은 당연하다.

4) 문장구성에서의 ‘-오-’의 출현이 종결.연결어미와 전성어미 앞에서 표면적으로 달라 보인다면 이들에 대하여 일차적으로는 다르게 접근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접근 방식이야 이원적이다라든 종국에 가서는 동일형태소로 설정한 형태소들의 문법적 기능을 동일원리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5) ‘이로라’는 선어말어미 ‘-오-’가 선접한 형이며, ‘이로다’는 감탄법의 ‘-웃-’이 개입한 형이다.

허용(1975)에서는 강조-영탄법의 안맺음씨끝으로 ‘-도-’계, ‘-노-’계, ‘-소, 스-’계 등을 따로따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분석은 ‘흐노소라, 흐노소니, 흐도소이다’등의 분석에서 ‘흐+노+소+라, ’흐+노+소+니, 흐+도+소+이+다’로 강조의 안맺음씨끝이 중복하여 개입하게 되어 불합리하다. 이들은 ‘흐놏다, 흐똥다’등에 선어말어미 ‘-오-’가 선접된 형태로서 각각 ‘흐+늑+웃+오+라, 흐+늑+웃+오+니, 흐+똥+오+이+다’와 같이 형태소 분석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에서 만약에 ‘-웃-’, ‘-똥-’의 ‘-오-’가 우리가 논하고 있는 ‘-오-’라면 같은 형태소가 두 번 개입하는 결과가 되어 바른 분석이 되지 못한다. 설혹 ‘-웃-’, ‘-똥-’에서 ‘-오-’를 추출할 수 있을지라도 이 ‘-오-’는 우리가 논하고 있는 선어말어미와 형태소적 분포환경을 달리 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형태소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예의 분석에서 보면 한 형태소의 바른 분석은 주변 형태소의 바른 분석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준 4 : ‘-로-’, ‘-샤-’, ‘-다-’, ‘-가(아)-’, ‘-과(와)-’ 등은 음운론적으로 조건 지을 수 있는 ‘-우-’, ‘-요/유-’와 함께 선어말어미 ‘-오-’의 이형태들이다.

‘-오-’가 왜 ‘-로-’가 되는지가 음운론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아 문제가 되는데 이에 대한 접근 방법으로 두 가지가 제시되어 있다. ‘-오-’의 이형태로 ‘-로-’를 설정하는 방법(허용, 1963)과 어원을 ‘*일다’였을 것으로 추측하는 방법(河野六郎, 1979)이다.

‘-샤-’, ‘-다-’, ‘-가-’에 대해서도 음운론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샤-’를 ‘-시-’가 ‘-아, -오디, -옴’등과 같은 모음 앞에서 음운론적으로 교체되는 이형태로 다루는 연구는 안병희(1963)에서 이루어졌는데, 그렇다면 ‘-다-’, ‘-가-’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임홍빈(1981)은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오-’의 이형태로 ‘-아-’가 존재했다는 가설을 제기한다. 이 가설은 이러한 예들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간편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아, 어, 오, 우’로 끝난 어간 뒤에서 ‘-오-’가 나타나지 않고 성조만 상성으로 표기되는데 대한 설명에도 유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처리에는 문제점이 있는데 ‘-샤-’는 선어말어미 ‘-오-’앞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아-’, ‘-오-’로 된 다른 어미 앞에서도 나타나기 때문이다.

허용(1975)은 ‘-오-’의 이형태로서 ‘-아-’를 설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에 대하여 각각 개별적 설명을 한다. ‘-샤-’는 ‘-시-’+‘-오-’ → ‘-샤-’+ zero로 기술하고, ‘-다-’, ‘-가-’, ‘-과-’에 대해서는 ‘-오-’ 이외의 다른 인칭법을 표시하는 안맺음씨끝으로 설정한다.

‘-과-’에 대하여 허용(1963)은 ‘-니-’와 대립하는 1인칭 표시의 안맺음씨끝으로 설명하고, 고영근(1981)은 ‘-거-’에 선어말어미 ‘-오-’가 선접하여 종결어미 ‘-라’ 앞에서는 ‘-과라’로 실현되며 연결어미 앞에서는 ‘-가-’로 실현된 것으로 본다. 즉, 허용에서는 ‘-과-’를 ‘-가-’와는 별개의 것으로 따로 설정하며, 고영근에서는 ‘-과-’를 ‘-가-’의 ‘-라’ 앞에서의 실현으로 보는 것이다.

이렇듯 ‘-오-’의 이형태를 설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쟁점들이 있다. 그러나 본 논의에서 제시한 ‘-오-’ 형태소의 분포에 대한 기준에 의할 때에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로-’, ‘-샤-’, ‘-다-’, ‘-가-’, ‘-과-’가 모두 동명사형어미 앞에 나타남으로써 선어말어미 ‘-오-’와 형태소적 분포를 같이하는 이형태들임에 틀림이 없다는 것이다.

‘-로-’ : 이로라, 이로니, 이로디, 이론, 이롤, 이룸

- ‘-샤-’ : -샤디, -산, -살, -삼
- ‘-다-’ : -다라, -다이다, -다니, -단
- ‘-가-’ : -가라, -가니, -가니오, -가뇨
- ‘-과-’ : -과라, -과이다

4. 맺음말

‘-오-’의 문법적 성격 규명, 형태소 설정과 이형태 문제, 연구의 접근 방식, 통사적 기능 규명 등은 아직도 논의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오-’ 연구자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오-’의 문법적 기능의 규명에 있을 것이다. 한 형태소의 연구는 형태소 설정에서부터 기능규명까지 모든 연구가 유기적 관련성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하며 결국에는 동일형태소에서 동일 기능을 추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통사적 변천 과정을 통한 한 형태소의 의미.기능의 변화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중세국어 자료를 보면 오늘날에는 소멸해버린 ‘-오-’가 마치 이것 없이는 문장이 성립될 수 없을 만큼 무수히 나타나고 있다. 한 시대의 문장구성에서 꼭 필요했던 한 형태소가 다른 시대의 문장 구성에는 필요 없게 되었다면 이는 문법학자들에게 설명을 필요로 하는 문법사항이다. 즉, 형태소 ‘-오-’는 어떤 형태소적 환경에서 나타나며, 그 통사적.의미적 기능은 무엇이며, 왜 소멸하였으며, 그 소멸이 국어 문법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 왔는가? 이러한 근본적이고 집요한 물음이 ‘-오-’ 연구에서 필요하며, 어떤 주장을 견지하기 위한 부분적 설명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오-’에 대한 객관적이고 엄정한 형태소 분석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 제 1 분 과 】

방법론 어휘 담론과 교육

김슬옹(동국대학교)

□ 차례 □

- 1. 문제설정
 - 2. 방법론 어휘의 교육적 중요성과 접근 전략
 - 2.1. 방법론 어휘의 중요성
 - 2.2. 방법론 어휘의 주요 속성
 - 2.3. 방법론 어휘의 주요 갈래
 - 3. 방법론 어휘의 주요 교육 전략
 - 3.1. 교차 다중 구성 전략
 - 3.2. 중용 전략
 - 3.3. 상호 연계 전략
 - 3.4. 통념 극복 전략
 - 4. 마무리
- 참고문헌

1. 문제설정

모든 낱말은 근본적으로 맥락적 의미를 지닌 다의어이다(김슬옹: 1997). 비슷한 차원에서 모든 낱말은 관계와 집합에 의한 어휘로 쓰이고 있다. 그 어떤 낱말도 실제 언어생활에서 단독으로 쓰일 수는 없다. 누군가가 광야에서 한 낱말을 공허하게 외쳤다 하더라도, 그 낱말은 다른 낱말과의 관계 속에서 튀어 나온 것이다.

다의어는 보는 관점에 따라 수직적 다의어와 수평적 다의어로 나눌 수 있다. 수직적 다의어는 어원 관점이나 빈도 관점에서 어떤 특정 뜻에 더 우월한 가치를 부여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테면 특정 뜻에 사전적 의미나 기본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수직적 다의어 관점이다. 수평적 다의어는 맥락에 따른 다양한 의미를 대등하게 보는 관점의 다의어를 말한다. 수직적 다의어도 결국 맥락에 따른 것이므로 어휘 교육은 당연히 맥락과 담론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¹⁾ 수직적이든 수평적이든 나름대로 필요하고 가치가 있는 맥락이 있으므로 어떤 관점이 옳다고 얘기할 수 없다.

어휘가 낱말 관계요 집합이라면 일정한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 내가 좋아하는 어휘,

1) 이런 관점에서 필자는 주제별 어휘 분류를 바탕으로 맥락과 담론 중심의 읽기 교육과 어휘 교육을 결합한 어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독서평설>에 2년간 연재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용은 김슬옹(1994)로, 교사용은 허재영·김슬옹(1993: 6장)으로 펴낸 바 있다. 기존의 분류사전(남영신, 1987. 우리말 분류 사전. 한강문화사. 박용수, 1989. 우리말 갈래사전, 한길사)이 순우리말만을 대상으로 주제별 분류를 한데 반해 이 프로그램에서 필자는 한자어까지 포함한 분류를 최초로 하였다.

싫어하는 어휘와 같은 지극히 주관적인 분류부터 분류 사전이 지향하는 객관적 분류까지 천차만별의 분류를 할 수 있다. 본고는 기존의 어휘 분류에서 분류된 적이 없지만 실제로는 우리 삶을 지배하는 방법론 어휘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방법론 어휘란 두 개 이상의 낱말이 일정한 틀을 형성하거나 전체로 하여 대상에 대한 인식 방법이나 주체의 행동 전략에 영향을 끼치는 다음과 같은 어휘들을 말한다.

- 속성·상태: 형식/내용, 현상/본질, 부분/전체, 특수/일반(보편), 물질/정신, 양/질, 구체/추상, 감성/이성, 선/악
- 절차·방법: 비교/대조, 미시/거시, 상대성/절대성, 주관/객관
- 태도·성향: 긍정/부정, 찬성/반대, 능동/수동, 적극/소극, 낙관/비관, 외향/내성(내향), 보수/진보
- 관계·과정: 원인/결과, 우연/필연, 수단/목적

이들 낱말들은 1차적인 언어 사용이나 실천, 활용에 영향을 끼치는 일종의 상위(메타) 층위의 어휘들이라고 볼 수 있다. 사실상 거의 모든 낱말들은 맥락에 따라 실제 층위와 상위 층위로 쓰일 수 있다. 이를테면 “꽃은 아름답다.”에서 ‘꽃’은 실제 층위의 뜻으로 쓰인 것이지만, “꽃의 관점으로 바라보라.”와 같은 쓰임새에서의 ‘꽃’은 실제 층위와 달리 다른 대상에 영향을 끼치는 상위 층위의 뜻으로 쓰인 것이다. ‘랑그’는 언어의 여러 속성(체계성, 객관성) 중의 하나로 ‘실체’ 층위이지만, 언어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방법으로서의 ‘랑그’는 상위 층위로 쓰인 것이다. 다만 방법론 어휘들은 ‘꽃’과 같이 특정 맥락에서만 상위 층위의 어휘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그 어휘 자체가 상위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일반 어휘와 다르다.

이런 관점에서 방법론 어휘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맥락을 따져 볼 것이다. 또한 이런 어휘의 속성, 갈래 등을 살펴 보고 어휘 교육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따져볼 것이다. 아울러 국어사전에 이런 어휘들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술해야 함을 역설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본고에서 다루는 일부 단어에 한해 <표준국어대사전>은 ‘참고 어휘’로, <다음 국어사전>은 ‘연관 단어’로, <연세한국어사전>은 ‘<반(반의어)>’로 표시하고 있다. <네이버 국어사전>만이 관련 정보를 밝히지 않았다.²⁾ ‘참고 어휘’라는 말은 지나치게 포괄적이며, ‘반’이라는 표시는 지나치게 관습적이고 현재로서는 ‘연관 단어’라고 표시한 <다음Daum>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다.

미시【微視】 [명사] {일부 명사와 함께 쓰여} 작게 보임. 또는 작게 봄. <참고 어휘> 거시(巨視)
 거시【巨視】 [명사] {일부 명사와 함께 쓰여주로 일부 명사 앞에 쓰여} 어떤 대상을 전체적으로 크게 봄. <참고 어휘> 미시 _표준국어대사전

미시【微視】 (일부 명사와 함께 쓰여) 작게 보임. 또는 작게 봄. 연관단어 : 거시
 거시【巨視】 (주로 일부 명사 앞에 쓰여) 어떤 대상을 전체적으로 크게 봄. 연관단어 : 미시 - <다음> 국어사전

미시【微視】 (일부 명사와 함께 쓰여) 작게 보임. 또는 작게 봄.
 거시【巨視】 (주로 일부 명사 앞에 쓰여) 어떤 대상을 전체적으로 크게 봄. -<네이버> 국어사전

미시【微視】 (일부 명사와 함께 쓰여) 작게 보임. 또는 작게 봄.
 거시【巨視】 (주로 일부 명사 앞에 쓰여) 어떤 대상을 전체적으로 크게 봄. -<네이버> 국어사전

2) 표준국어대사전과 네이버, 다음의 온라인 전자 사전은 기본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있어 뜻풀이와 기본 정보는 같다. 그러나 보여주기 방식이나 연관 정보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시(微視) (주로 ‘미시 경제/세계...’의 꼴로 쓰이어) 큰 전체를 보지 않고 작은 부분들을 바라보는. <반> 거시
 거시(巨視) (주로 ‘거시 ~’꼴로 쓰이어) 작은 부분에 머물지 않고 큰 전체를 바라보는. <반> 미시 _<연세 한국어사전>³⁾

본고는 이러한 방법론 어휘를 집중적으로 교육시키면 사고력 향상과 더불어 바람직한 언어 생활을 통한 사회 실천 능력을 키우는 데 매우 유용하다는 전제 아래 핵심 교육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방법론 어휘의 교육적 중요성과 접근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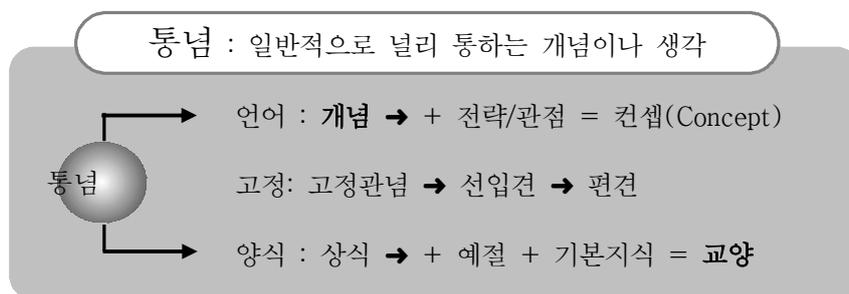
2.1. 방법론 어휘의 중요성

방법론 어휘가 왜 중요한지는 네 가지 측면에서 살펴 볼 수 있다. 먼저 이런 어휘들은 대상이나 삶의 문제들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이나 개념(통념)을 구성하거나 영향을 끼치는 일정한 틀이 된다. 틀 자체가 통념의 구성 요소가 되지만 다양한 부류의 대상이나 생각을 일반화시키는데서 통념 구성의 기반이 됨을 알 수 있다. 이를테면 수많은 부류의 진보 성향과 보수 성향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섬세한 차이보다는 공통 특성이나 비슷한 속성으로 일반화하여 특정 부류나 범주로 일반화한다.

통념을 언어로 명징하게 나타난 것이 '개념'이고 바람직한 양식으로 설정하거나 규범화시킨 것이 상식이다. 상식을 바탕으로 예절이나 기본 지식 차원에서 체계화시킨 것이 교양이다. 통념이 고정되면 고정관념이 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준거나 수단이 되는 고정관념이 선입견이요 편견이다.

통념의 영향력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리 삶의 바탕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림 1> 통념에 대한 어휘 분화



따라서 이들 어휘들은 사유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실 우리가 자유롭게 사유하는 것 같지만 대개는 방법론 어휘의 틀 속에서 고민하고 사유한다. 이를테면 누군가를 만나면 저 사람은 ‘진보 성향일까, 보수 성향일까.’와 같은 틀 속에서 생각을 진행한다. 또는 거시적으로 볼 것인가 미시적으로 볼 것인가 생각하거나 이러한 틀 속에서 무의식 속에서

3) 온라인 연세한국어사전에는 이런 정보가 나와 있지 않다.

작동되기도 한다.

이들 어휘들은 결국 우리의 생활양식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가 된다. 이는 통념구성 측면이나 사유과정 속에 내포되어 있다. 생활양식은 행동 전략이나 사유 태도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사회 여론 또한 마찬가지다. 여론은 근본적으로 특정 문제에 대한 찬성/반대 틀 속에서 형성된다. 또한 여론은 다양한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형성되는데 방법론 어휘들은 대개 관점의 축이거나 관점 실현의 전략으로 작동된다.

2.2. 방법론 어휘의 주요 속성

이런 방법론 어휘들은 대개 이항 대립어로 존재한다. 엄격히 말하면 중간항이 있는 등급 반의어이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진보냐 보수냐”처럼 중간 범주를 인정하지 않는 상보 반의어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결국 대상을 명확하게 인식하거나 규정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흑백논리에 빠져드는 단점이 있다. ‘수단-목적’과 같이 일반 반의어로 볼 수 없는 경우에도 실제 우리 삶속에서는 “수단이나 목적이냐”와 같은 식은 대립어처럼 쓰인다. 이러한 이분법은 반의어 연구 논문인 김슬옹(1998)에서 지적하였듯이 대개는 대상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발전한다. 곱은 빠른 곱도 있고 느린 곱도 있고, 빠른 곱은 때로는 느릴 때도 있지만 평생 곱은 느리다고 생각하다 한 생애를 마감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을 정도다.

따라서 한 쌍의 서로 다른 어휘는 배타성을 띠게 된다. 곧 어느 한 쪽은 어느 한 쪽을 인정하지 않거나 경멸하게 된다. 진보주의자는 보수주의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늘 사회적 쟁점에 대한 갈등의 축이 된다.

그러나 전체나 다양성 관점에서 보면 상보성을 띠게 된다. 미시적 관점은 거시적 관점의 도움을 받아야만 제 구실을 할 수 있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상보성은 이들 어휘들은 세트 메뉴처럼 늘 관계 속에서 쓰이는 속성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이들 어휘들은 맥락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가변성을 띤다.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항 방식으로 얽혀 돌아가는 사회적 언어생활 속에서 보면 이들 어휘들은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우리 삶의 변인으로 작동된다. 물론 이들 어휘들의 이분법적 성향은 역동적 사유와 언어 실천을 방해하기도 하지만 그로 인한 갈등과 서로 다른 파급 효과를 전체적으로 보면 역동적 현상으로 자리매김 된다.

2.3. 방법론 어휘의 주요 갈래

‘방법론 어휘’라는 말 자체가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 실체와 범주가 뚜렷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 다만 여기서는 일상 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무척 중요한 어휘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를 해 보았다.

- 속성·상태: 형식/내용, 현상/본질, 부분/전체, 특수/일반(보편), 물질/정신, 양/질, 구체/추상, 감성/이성, 선/악
- 절차·방법: 비교/대조, 미시/거시, 상대성/절대성, 주관/객관
- 태도·성향: 긍정/부정, 찬성/반대, 능동/수동, 적극/소극, 낙관/비관, 외향/내성(내향), 보수/진보, 현실/이상
- 관계·과정: 원인/결과, 우연/필연, 수단/목적

네 가지 기준은 관련 어휘들을 모아 귀납적으로 분류하는 과정에서 얻어낸 기준이다.

1) 속성·상태에 관한 어휘

이들 어휘들은 어떤 사물이나 사건의 속성이나 특성과 관련된 어휘들이다. ‘내용/형식’, ‘부분/전체’, ‘물질/정신, 구체/추상’이 비교적 정적 상태의 속성을 보여 준다면, ‘현상/본질’, ‘양/질’, ‘특수/일반(보편)’은 동적 과정을 통한 속성과 상태를 보여 준다. 곧 앞의 정적 어휘들은 평면적 1차 인식이나 과정을 통해 쉽게 판별되는 어휘들이다. 동적 어휘는 대상에 대한 분석이나 치열한 사유 과정을 거쳐 얻어지는 속성을 지녔다.

2) 절차·방법에 관한 어휘

이들 어휘들은 대상에 대한 인식이나 분석 방법이나 절차에 관련된 어휘들이다. ‘비교/대조’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내는 전략과 방법에 관한 어휘이다. ‘미시/거시’는 대상 범위에 따른 바라보는 관점을 보여주는 어휘이고, ‘상대성과 절대성’은 다양한 대상에 대한 인식 절차에 관한 어휘이다. ‘주관/객관’은 인식 주체와 인식 대상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대한 어휘이다. 대개 ‘대조, 상대성, 미시, 주관’ 등의 어휘가 차이나 특이성에 더 주목하고, ‘비교, 절대성, 거시, 객관’은 공통점이나 동질성, 일관성에 더 주목하는 특성을 지녔다.

3) 태도·성향에 관한 어휘

이들 어휘들은 주로 가치 판단이나 선호도에 관련된 어휘들이다. 대개는 어떤 문제에 대하여 긍정성이나 부정성의 생각이나 느낌, 판단이 형성되고 그런 성향을 나타나게 된다. 이런 긍정성과 부정성을 의견이나 주장으로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것이 ‘찬성/반대’이다. 대상에 대한 자발성의 정도 차이에 따라 ‘능동/수동, 적극/소극’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런 성향을 성격과 태도 차원에서 보는 어휘가 ‘외향/내성(내향)’이다.

전통을 더 긍정하느냐 새로운 가치를 더 긍정하느냐에 따라 진보와 보수로 나눈다. 이 세상에 대한 긍정 측면에 더 주목하느냐 부정 측면을 더 주목하느냐에 따라 ‘낙관’과 ‘비관’으로 나눈다.

4) 관계·과정에 관한 어휘

이들 어휘들은 어떤 사건의 과정이나 절차에 관련된 말들이다. ‘원인/결과’는 사건의 발생 과정에 따른 관계와 과정을 보여주는 어휘라면 ‘우연/필연’은 관계의 우발성과 긴밀성을 보여주는 어휘이다. ‘수단/목적’은 주체의 행위 의도와 전략에 따른 과정과 관계를 보여주는 어휘이다.

3. 방법론 어휘의 주요 교육 전략

방법론 어휘가 중요한 만큼 어떤 식으로 교육시킬 것인가가 문제다. 대립된 어휘 각각의 개념을 정확히 교육시켜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본고에서는 그런 전략은 제시하지 않는다. 여기서는 다양한 사고력과 합리적인 언어생활 차원에서 네 가지 전략을 제시할 것이다.

3.1. 교차 다중 구성 전략

이항 대립을 존중하되 서로 교차시켜 적용하게 하는 전략이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긍정 부정을 교차시키면서 그 의미관계를 다양하게 구성해 보는 것이다.

대하는 태도 역시 부정적이다.

어느 두 사람에게 자신이 사는 동네에 대해서 말해보라고 했을 때 한사람은 이웃이 친절하고 다른 사람을 위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그 이웃을 칭찬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이웃이 하나같이 서로 욕하고 비난하여 다투는 일이 빈번하다고 투덜댔다고 하자. 전자가 느끼는 이웃의 친절함과 후자가 느끼는 이웃에 대한 비난의 차이는 무엇 때문일까? 우리는 여기서 전자와 후자가 가진 생각의 근본적인 차이를 알 수 있다.

이웃이 친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진정 이웃이 친절하다는 것보다 그러하다고 느끼는 바로 그 사람이 항상 긍정적으로 이웃을 대하기 때문에 자연히 이웃이 친절해 보이는 것이다. 반대로 항상 동네에선 싸움이 끊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그 다툼의 시발점이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부정적인 태도로 이웃을 대하고, 타인을 보는 시각이 비뚤어졌다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웃은 당연히 불친절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낙관주의자와 비관주의자의 큰 차이가 바로 이런 것이다. 결국 자신의 태도가 어떠한가에 따라 주위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모습이 좋고 나쁨으로 가려지는 것이다. 우린 항상 긍정적인 태도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진명여고 3학년 조혜진

이 학생은 칼 지브란이 “낙관주의자는 장미에서 가시가 아니라 꽃을 보고, 비관주의자는 꽃을 망각하고 가시만 쳐다본다”라고 맥락과 비슷한 관점에서 낙관주의와 비관주의를 견주어 주고 있다. 사물의 어떤 측면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세계관이나 인생관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비관주의자를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다. 조혜진의 지적처럼 빼놓아진 사람이라면 정말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지만 칼 지브란 말에서처럼 단지 가시를 더 주목해 보는 것이라면 그것은 세계관의 차이일 뿐이라는 것이다. 어차피 우리네 삶이나 세상은 장밋빛과 잿빛이 공존할 수밖에 없는데 잿빛을 주목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다. 결국 긍정이나 부정이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긍정이나 어떤 부정이나가 중요하듯이 낙관주의자나 비관주의자나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낙관주의자나 어떤 비관주의자나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임을 주지시켜야 한다. 가시 없는 장미는 그 아름다움의 가치가 덜할 것이고 장미 없는 가시는 역시 외로울 것이다. 가시에 주목하더라도 그것에 찢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과 가시만 보고 마구 찢리면서 될 대로 되라고 사는 사람은 똑같은 비관주의자라 하더라도 그 삶의 질은 훨씬 다르다. 물론 안 찢리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엄밀히 바라면 낙관적 비관주의자라고 볼 수 있다.

조혜진 논리대로라면 부정적 태도보다 긍정적 태도가 그야말로 더 나은 삶의 태도가 된다. 그러나 역사발전이나 새로운 변혁과 창의성 차원에서는 부정적 태도가 훨씬 높은 가치를 지니게 된다. 단 중요한 것은 다원주의를 전제로 하지 않는 부정 정신은 단순한 흑백논리로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긍정이나 부정이나라는 이분법을 벗어나 어떤 긍정, 어떤 부정, 또는 긍정적 부정, 부정적 긍정과 같은 다양한 관점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형식과 내용의 관계는 아래와 같이 다양하게 설정함으로써 단순 이분법을 극복할 수 있다.

- (1) 가. 형식이 내용을 지배한다.
나. 형식이 내용보다 우선이다.
- (2) 가. 내용이 형식을 지배한다.
나. 내용이 형식보다 우선이다.
- (3) 가. 형식과 내용은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
나. 형식과 내용은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지만 내용이 더 중요하다.

‘형식이 내용을 지배한다.’는 것은 형식이 절대적 우위에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다. 그에 비해 ‘형식이 내용보다 우선이다.’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맥락에 따라 내용과 형식의 관계설정이 다양함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형식과 내용 관계설정 자체가 상대적이라는 주장을 내세울 수 있다. 우리가 양복을 입고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양인은 아니고 옛날 우리 선조들이 중국어인 한자를 사용했다 해서 그 사상이 중국적인 것은 아니다. 맥락에 따라 형식이 중요할 때도 있고 내용이 중요할 때가 있다. 결국 내용과 형식의 관계는 맥락에 따라 역동적이라는 것이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하느냐는 물음은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는 물음만큼이나 맴돌기식일지 모른다. 쉽게 말하면 형식이 더 중요한 맥락이 있고 내용이 더 중요한 맥락이 있고 둘 다 다 두루 중요한 맥락이 있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맥락에서 어떤 방식으로 관계설정을 해 우리 삶에 바람직한 관계설정의 효과를 거두느냐이다.

3.2. 중용 전략

‘중용’은 극단적인 관점이나 주장에 치우치지 않는 태도를 말한다. 다양성으로서의 제3의 관점이 지향하는 가장 이상적인 태도를 보여 준다.

‘주관/객관’의 문제에 적용해 보자. 객관적이라는 말과 대립적으로 쓰는 주관적이라는 표현은 보통 우리에게 부정적 느낌을 준다. 그 얘기는 객관적이라는 말이 대체로 긍정적 느낌을 준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물어보자. 주관적이라고 다 나쁜 것인가. 아니면 우리는 얼마나 객관적일 수 있는가. 도대체 주관과 객관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인가. 무엇이 주관이고 무엇이 객관인가.

주관과 객관이란 말을 일단 쉽게 풀어보자. 주관과 객관의 ‘관’은 ‘본다’ ‘관찰한다, 생각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떻게 바라보느냐이다. 주관은 주인 입장에서 본다는 뜻이고 객관은 손님 입장에서 본다는 뜻이다. 그런데 조심할 것은 주인이나 손님이나 모두 각자의 주관에서 바라본 것이다. 자기중심에서 자기 멋대로 바라본 것일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만일 주인이 손님의 입장, 다시 말하면 자기중심으로 바라보는 것을 벗어나려고 노력한다면 그것이 진정 객관적 입장이 될 것이다. 엄격하게 말하면 그것은 실제 주인의 입장도 아니고 손님의 입장도 아닌 제 3의 입장이 될 것이다. 진짜 손님의 입장이라면 그것은 또 다른 주관에 편입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옛날 중국 문화권에서는 ‘역지사지(易地思之)’가 객관적 태도를 취하는 좋은 방법이었다. ‘지(地)’는 입장이나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본다는 것이다. 내 입장과 상대방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는 과정을 통해 진정한 제 3의 방법이나 진리를 얻는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관’, ‘객관’이란 동양식 의미는 다분히 의식적이고 올바른 인식을 위한 노력을 담고 있다. 이에 반해 서양식 문자의 의미는 약간 다르다. 영어로 주관은 subjectivity 객관은 objectivity이다. 곧 주관은 주체를 나타내고 객관은 객체 곧 대상을 의미한다. 이런 문자풀이로 본다면 주관은 주체 중심의 역할을 강조하고 객관은 대상 위주의 인식을 강조한다. 그러니까 위 대문 이야기에서 대문이라는 대상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려는 자세가 객관적 자세라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서양은 과학이 발달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대상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손님이나 제 3장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대문의 재질과 페인트의 재질 등을 엄밀하게 분석하는 과학적 태도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동양식 풀이건 서양식 풀이건 둘 다 공통점은 주관적 관점은 범위가 좁고 객관적 관

좁은 범위가 넓은 것을 지향한다는 점이다. 제 3의 입장에서 보려는 태도는 나와 너의 좁은 주관에 벗어나 둘 다를 포괄하려는 전략이고 대상의 실체 위주의 관점은 대상을 바라보는 모든 주관적 관점을 포괄하려는 전략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두 말의 뜻넓이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 (1) 주관적 : 자기중심으로 보는 것, 좁은 범위, 의식하는 정신 작용에 따라 대상이 달리 파악이 되는 것
- (2) 객관적 : 자기 이외의 것에 의해 보이는 것, 실제 상황이나 대상 위주로 생각하는 것, 제대로 보려고 노력하는 것

객관적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올바른 판단과 인식의 주요 잣대로 자주 쓰이게 된 것은 역시 근대 이성을 바탕으로 한 과학의 발달과 서구식 민주주의 발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한 마디로 합리성이다.

그렇다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려는 노력 자체를 부정할 필요도 없다. 쉽게 말하면 주관적이란 말도 부정성뿐만 아니라 긍정성을 지닐 수 있는 것이고 객관성이란 말도 긍정성뿐만 아니라 부정성도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상호주관성(intersubjectivity)이란 새로운 말이 생겼다. 주체를 존중하는 주관성을 인정하되 서로의 독단적 주관성을 넘어서는 상호작용을 강조하자는 것이다. 그러면 주관성의 아집도 벗어나면서 객관주의의 타당성도 수용할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각자의 의식과 체험만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그것은 독단적인 아집이 될 것이다. 그러나 각자의 의식과 체험을 나누거나 교차시키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지혜나 근거가 될 것이다.

‘미시/거시’에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은 관점을 구성할 수 있다.

미시적 관점 : 이 세상은 다양성의 집합이다. 다양성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깨비라고 다 똑같은 도깨비가 아니므로 미시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거시적 관점 : 이 세상은 다양성의 집합이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다양성 가운데 흐르는 흐름이다. 거시적 관점으로 보아야 그런 일관성이 보인다.

중간적 관점 : 미시적 관점에서 보면 거시적인 흐름을 놓치게 되고 거시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미시적 흐름을 놓치게 된다. 그렇다면 양쪽을 포괄할 수 있는 중간적 관점이 좋다.

우리가 미시적 관점에 주목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이 세상은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결국의 부분의 집합이다. 미시적으로 부분 부분에 대한 구체적 인식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전체를 제대로 볼 수 없다. 문학작품의 경우도 문학 작품 하나하나를 제대로 인식해야 문학의 전반적인 흐름을 알 수 있다. 시 하나의 경우만 하더라도 시어, 운율, 이미지 등을 각각 집중적으로 바라보고 분석해야 시의 전체 흐름이 들어온다. 또한 미시적 관점은 각 사물의 개성과 평등성을 확보하는 관점도 된다. 거시적으로 보면 당연히 사물이나 인식 대상의 구성 요소의 개성이나 특이성 등을 놓치거나 일부가 무시될 가능성이 많다. 우리 교육이 바로 거시적 관점으로 주로 이루어지다 보니 각 개인의 개성이 무시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도 알 수 있다. 학생간의 차이가 무시됨으로써 획일화된 교육으로 인성과 창의성 모두를 놓치고 만 것이다.

미시적 관점은 인식 주체와 대상의 적극적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따뜻한 시선이다. 우리가 소풍을 갔을 때 그냥 나무를 보았다고 해서 나무와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없다. 소나

오히려 현상과 긴장 관계에 놓여있는 본질의 참모습을 놓치게 되는 것이다.

3.3. 상호 연계 전략

서로 다른 방법론 어휘를 서로 연계시켜 적용하는 전략이다. ‘상대주의/절대주의’에 적용해 보자.

상대주의는 진리, 가치, 인식 따위에서 상황(맥락)이나 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황이나 맥락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비해 절대주의는 진리, 가치, 인식 따위에서 보편적 잣대로 판단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다양한 색깔의 상대주의와 절대주의가 있다는 것이다. 때로는 유사 상대주의, 유사 절대주의까지. 그러니까 상대주의만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갈래가 있을 수 있다.

- (1) 주관적 상대주의 : 개인 위주로 판단하는 주의
- (2) 객관적 상대주의 : 상호 관계나 상호작용 위주로 판단하는 주의, 인식 대상의 상대적 차이를 존중하는 태도

주관적 상대주의는 편견이나 아집, 차별로 작동할 수 있는 상대주의이다. 객관적 상대주의는 문화상대주의가 대표적이다 절대주의도 나눠 볼 수 있다.

- (1) 주관적 절대주의 : 자기만의 생각이 절대로 옳다는 것
- (2) 객관적 절대주의 : 서로에게 좋은 보편적 잣대가 있다고 생각하는 주의

쉽게 말하면 주관적 절대주의는 제멋대로 하는 획일주의자일 가능성이 많다. 결국 파시즘이나 문화제국주의와 같은 집단적 광기를 낳은 사건 때문에 인류는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

어떤 손(客)이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어제 저녁엔 아주 처참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어떤 불량한 사람이 큰 몽둥이로 돌아다니는 개를 쳐서

-
- 4) 현상과 본질에 대한 이분법의 뿌리는 플라톤이라고 볼 수 있다. 플라톤은 본질에 절대적 가치를 부여했다. 플라톤은 감각을 통해 인식하는 현상은 참이 아니라고 보았다. 참인 본질(이데아)은 이 세상이 아닌 저 세상(천상계)에 있다는 것이다. 현상은 본질의 그림자(모방)에 불과하고 본질은 변하지 않는 완전한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본질의 참뜻을 잘 알 수 있는 철학자가 통치하는 이상 세계를 꿈꾼 것이다. 이에 반해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상과 본질은 분리될 수 없다고 보았다. 우리가 생각하고 경험하는 것은 ‘현상’들에서 출발하고 ‘본질’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것이다. 근대 철학은 이런 흐름 속에서 본질과 현상을 어떤 식으로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느냐를 고민한 것이다. 경험론은 현상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것이고 합리론은 본질의 일반론을 강조하는 것이다. 데카르트의 경우, 사물의 ‘본질’을 드러내는 일반적인 ‘보편법칙’으로부터 모든 ‘현상’의 구체적 모습을 설명하려 했다. 칸트는 감각 또는 지각으로는 본질을 알 수 없다고 보아 순수 이성에 의해서만 알 수 있다고 보았다. 김치 아무리 먹어봤자 김치의 본질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본질 위주의 근대철학을 뒤집은 것은 현상학에 의해서이다. 후설은 아예 본질과 현상은 동일한 것을 보았다. 본질은 사유를 통해 추론되거나 논리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지각되거나 파악되는 것이다. 의식의 안(본질)과 밖(현상)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김치 일부 맛보고 김치 전체를 지각하는 것은 사유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각 경험에 의한 것이라고 보았다. 메를루 뵈티는 이를 더욱 발전시켜, 상과 본질에 대한 이분법 인식은 육체와 정신에 대한 이분법에서 비롯된 것을 보았다. 육체라는 말은 정신을 전제하거나 대립물로 본 이분법적 실체지만 몸은 정신과 육체가 모여 있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 속에서 대상과 인식의 이분법을 비판했다. 하이데거는 존재(본질)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존(현상)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현상 위주의 철학을 폄했다. 사르트르는 이를 더욱 발전시켜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고 한 것이다. 이는 보드리야르가 이미지(현상)가 본질(실재)보다 더 본질답다(하이퍼리얼리티)라는 포스트모더니즘까지 흐르게 된 것이다. 들뢰즈가 이미지(현상) 운동과 물질(본질) 운동은 같은 것으로 본 것도 같은 맥락이다.

죽이는데, 보기에 너무 참혹하여 실로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맹세코 개나 돼지의 고기를 먹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어떤 사람이 불이 이글이글하는 화로를 끼고 앉아서, 이를 잡아서 그 불속에 넣어 태워 죽이는 것을 보고, 나는 마음이 아파서 다시는 이를 잡지 않기로 맹세했습니다.”

손이 실망하는 듯한 표정으로,

“이는 미물이 아닙니까? 나는 덩그렇게 크고 육중한 짐승이 죽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한 말인데, 당신은 구태여 이를 예로 들어서 대꾸하니, 이는 필연코 나를 놀리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대들었다.

나는 좀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를 느꼈다.

“무릇 피(血)와 기운(氣)이 있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소, 말, 돼지, 양, 벌레, 개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한결같이 살기를 원하고 죽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어찌 큰 놈만 죽기를 싫어하고, 작은 놈만 죽기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런즉, 개와 이의 죽음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큰놈과 작은 놈을 적절히 대조한 것이지, 당신을 놀리기 위해서 한 말은 아닙니다. 당신이 내 말을 믿지 못하겠으면 당신의 열 손가락을 깨물어 보십시오. 엄지손가락만이 아프고 그 나머지는 아프지 않습니까? 한 몸에 붙어 있는 큰 지절(支節)과 작은 부분이 골고루 피와 고기가 있으니, 그 아픔은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각기 기운과 숨을 받은 자로서 어찌 저놈은 죽음을 싫어하고 이놈은 좋아할 터이 있겠습니까? 당신은 물러가서 눈 감고 고요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하여 달팽이의 뿔을 쇠뿔과 같이 보고, 메추리를 대봉(大鵬)과 동일시하도록 해 보십시오. 연후에 나는 당신과 함께 도(道)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라고 했다. - 이규보, 슬견설

위 글에서 나의 태도가 바로 객관적 절대주의이다. 상대적 차이를 존중하면서도 생명이라는 보편적 잣대로 모든 동물을 똑같은 차원에서 대우한다. 그리고 여기서 조심할 것은 주관적 상대주의나 주관적 절대주의는 결국 개인의 주관적 세계관에 기댄다는 측면에서 서로 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니면 주관적 상대주의는 주관적 절대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많고 주관적 절대주의는 결국 넓게 주관적 상대주의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은 중간적 입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 (1) 절대적 상대주의 : 절대적으로 옳은 진리나 가치나 인식은 없지만 상대적으로 더 나은 가치, 진리, 인식은 있다는 주의
- (2) 상대적 절대주의 : 상대적인 것이 우리의 보통 현실이지만 절대적으로 옳은 진리나 가치나 인식이 있음을 믿는 주의

위와 같은 태도는 궁극적으로는 모두 이상주의자들이다. 다만 그 이상을 어떻게 설정하고 어떻게 실천하느냐는 다를 수 있다. 신앙인들 태도는 일종의 상대적 절대주의이다. 종교적 이상을 위해 종교에 귀의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상대주의와 절대주의 그 자체와 그 관계가 다양하고 복잡하지만 그런 생활양식의 일반적 차이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7> 상대주의와 절대주의 일반적 경향

상대주의 절대주의 나누는 것 자체가 거시적으로 보면 상대주의이다. 상대적 차이를 존중하는 상대주의도 상대적 차이 존중을 보편적 잣대로 내세운다면 절대주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두 생각과 태도는 서로 넘나들며 우리 삶을 규정하고 있다. 이 세상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기본 틀인 셈이다.

3.4. 통념 극복 전략

방법론 어휘에 대한 고정관념 가운데 어느 한 쪽에 우월한 가치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어휘 교육이 필요하다. 이 전략과 모형은 ‘양과 질’ 문제를 통해서 제시하기로 한다.

흔히들 양보다 질이라고 얘기한다. 마치 양과 질이 대립적인 것처럼 생각하는 태도다. 양이라고 다 똑같은 양이 아니고 질이라고 다 똑같은 질이 아닌데도 말이다.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많이 먹으면 독이 되기도 한다. 똑같은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열 표 차로 당선된 국회의원과 몇 천 표 차로 당선된 국회의원의 의미와 가치가 같을 리 없다.

뻘한 무협 스토리 하나. 아주 어린 나이에 부모가 악당에게 살해당한다. 이를 목격한 어린 아들(딸은 거의 없다). 절치부심(切齒腐心), 오랜 세월 무예를 닦는다. 신묘한 내공을 닦은 그는 부모의 원수를 갚는다.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오랜 세월 무예를 닦는 과정에 있다. 마음이야 하루아침에 원수를 갚고 싶겠지만 그렇게 될 수도 되지도 않는다. 몇 달을 마당 쓸고 물 길는 일부터 한다. 기본 칼 쓰기 훈련만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 어느 정도의 시간과 노력의 양이 쌓여야 진정한 질이 획득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충분한 양이 쌓여 질적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양질전화’라고 한다. 바뀌는 질에 따라 전혀 차원이 다른 질이 형성되기도 한다. 앞의 국회의원처럼 신분이 아예 달라지기도 하고 실과 천처럼 이름이 바뀌기도 한다. 우리가 호흡할 때 없어서는 안 되는 산소는 산소원자 2개로 이루어진 냄새가 없는 기체이다. 그러나 산소원자가 3개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오존은 우리가 호흡하는 산소 기체와는 달리 냄새를 풍기며 강한 살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오염에 의한 오존층 파괴는 결국 지구를 면역결핍증에 빠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앞의 무예 훈련에서 1단계의 질은 칼을 제대로 잡고 휘두르는 것이다. 2단계는 칼을 마음대로 휘두르면서 상대방의 칼을 막아내는 것이고 3단계는 눈감고도 목표물을 정확히 베는 것이다. 그런데 2단계의 양적 훈련은 1단계의 질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처럼 양과 질은 근본적으로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한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양에 의해 질이 이루어진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양 속에 질이 내포되어 있다. 적당히 설렁설렁 물을 길었거나 칼을 휘둘렀다면 질적 발전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충실한 양을 쌓았다 하더라도 질로 전환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매일 기타를 열 시간씩 연습한다고 해서 모두가 훌륭한 연주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연습의 양적 시간은 필요한 조건이지 충분한 조건은 아니기 때문이다. 가슴 아픈 얘기지만 이런 경우 타고난 소질이 많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작은 물방울이 아무리 많이 모인다고 해도 기름으로 바뀔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결국 양은 양이고 질은 질인데 그 관계가 상황에 따라 맥락에 달라지는 것뿐이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양은 안 좋은 것으로 질은 더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양적 사고나 생활양식은 저급, 질적 사고나 생활양식은 고급으로 여긴다. 쉽게 말해 양도 좋은 양이 있을 수 있고 질도 나쁜 질도 있을 수 있다. 이를테면 수많은 민중

(양)이 소수의 독재자(질)를 몰아낸 경우는 좋은 양이 나쁜 질을 몰아낸 것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상황에 따라 양을 중요하게 여길 때도 있고 질을 중요하게 여길 때도 있다. 특히 음식을 먹을 경우 돈 없고 배고프면 질보다는 양을 추구하고 그 반대의 경우라면 양보다는 질을 추구한다. 포식가나 운동선수들은 그 둘을 다 탐낼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양과 질의 문제가 중요한 대두된 적이 있다. 바로 민주주의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벤담[Jeremy Bentham, 1748 ~ 1832] 쾌락의 양과 질의 문제이다. 벤담은 영국 법학자이자 철학자로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은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다”는 공리(功利)의 원리를 법 분야에 적용한 ‘도덕과 입법의 제원리 서설(1789)’라는 책을 썼다. 이것이 이른바 쾌락은 양이 중요하다는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이다. 인간은 그의 모든 행위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간에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행위의 도덕적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은 그 행위가 얼마만큼 쾌락을 증진시켰는가 하는 결과에 있다. 동기관 그 자체로 아무런 도덕적 의미도 갖지 않는다. 오직 행위의 결과로서 나타난 쾌락 또는 고통만이 도덕적 선악을 결정하는 요인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질적 변화를 이루고자 하는가이다. 부모의 원수를 갚기 위한 그 마음은 절실하지만 결국 보복을 당한 그 악당의 자식은 다시 절치부심 비슷한 길을 걸어 또 보복의 악순환이 되풀이될 것이다. 보복이라는 절박한 목표에 의해 질적 변화를 이루었지만 정녕 그 변화가 그 사람에게 좋은 변화였냐는 것이다. 그래서 법이라는 제도가 생긴 것이고 정의의 질서가 생겼다. 악당의 응징은 법에 맡기고 다른 질적 변화를 이루었다면 보복의 악순환을 끊으면서도 삶의 승리자로 남게 된다. 다만 그 법과 제도가 힘 있는 자의 것이 될 때 비극은 다른 방식으로 되풀이 된다.

객관성, 실증성, 일반성(보편성) 등을 추구하는 과학적 태도는 양적 태도이다. 양은 부피와 크기를 주로 말하므로 주로 실제 눈에 보이는 증거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나타낼 수 있는 계량적 방법을 우선시한다. 뉴턴을 근대과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반해 갈릴레이를 근대 과학의 할아버지로 부르는 이유는 바로 갈릴레이가 근대적 시계와 객관적 관찰 기구인 현미경을 발명함으로써 과학적 방법을 가능하게 했기 때문이다. 일반화된 용어나 일반화된 개념을 강조하는 일반 언어학도 양적 태도의 전형이다. 무궁화마다 그 특성이 다르고 그 종류가 수백 종임에도 다같이 ‘무궁화’로 부른다. 무궁화마다 질이 다름으로 각각 하나씩을 똑같은 양으로 취급한 것이다.

현상성, 정신성, 구체성을 추구하는 태도는 질적인 태도들이다. 현상성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을 있는 그대로의 실체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뜻이다. 그것만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질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언어의 쓰임새를 중요하게 여기는 언어사회적 방법이나 구체적인 언어의 쓰임새를 맥락을 통해 살피고자 하는 화용론은 질적인 언어 인식 태도이다.

변화를 인정하되 그 변화를 서서히 이루자는 보수적 태도는 질보다는 양을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이다. 반면에 제도나 법, 운동 등을 통해 빠른 변화를 추구하는 태도는 양보다 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양적 태도와 질적 태도는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이며 양쪽을 모두 고려할 때 진정한 인식과 실천이 가능하다. 우리가 서로 다른 나무들을 다같이 ‘나무’라고 인식하는 것은 양적 태도이지만 ‘나무’로 부르기까지는 양적인 태도와 질적인 태도가 함께 숨겨져 있다. 아주 옛날 많은 사람들이 이 나무 저 나무를 어제와 오늘도 보고 내일도 보는 반복 행위(양적 태도)를 통해 상호 연관성(질적 태도)을 발견해 ‘나무’라는 이

름과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느 한 쪽만을 강조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서로 다른 학생들을 다 똑같은 학생으로 여기고(양적 태도) 개별 학생들의 개성을 무시한다거나 학생들의 개성을 살려준다(질적 태도) 해서 학생들의 일반 성향을 무시한다면 일반적인 교육은 불가능할 것이다.

봉건제가 자본제로 바뀐 것은 분명 차원이 다른 질적 변화이다. 이 과정에서 봉건제의 슬한 모순의 반복이 있었고 그 모순의 반복을 벗어나려는 노력과 희생이 있었다. 물론 자본제가 봉건제보다 훨씬 좋은 제도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자본제는 또 다른 모순을 불러일으키는 불완전한 제도일 뿐이다. 더 나은 자본주의(수정 자본주의)로 갈 것인가. 질적으로 다른 제도(사회주의)로 갈 것인가를 가지고 인류는 많은 갈등을 겪었다.

삶의 양과 질에 관한 묵상 -2시간 11분의 인생, 9시간 53분의 인생

지난 3월 21일에 열린 동아 마라톤 대회에서의 1등과 꼴찌가 결정되었다. 1등은 2시간 11분 34초를 기록한 형재영씨이고 꼴찌는 목발 짚고 뚝 장애인 허영진씨였다. 허영진 씨의 기록은 9시간 35분.

이 두 사람 차이는 기록만으로 볼 때 실로 엄청나다. 한 사람은 영광이고 또 한 사람은 수치일 터이다. 그러나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은 두 사람에게 똑같은 박수를 보낼 것이다.

두 사람 다 삶의 집념을 유감없이 불태워 올렸다. 그렇다. 내용이 아름답고 충실하다면 결코 꼴찌라도 부끄러워 할 일이 아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런 사람들의 삶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용기를 북돋아 주어야 한다. 얼마나 빠르거나 하는 것은 절대 가치가 아니다. 느려도 아름다운 삶의 내용이 함께 한다면 큰 박수를 보내야 한다. 적지 않은 장애인들이 이런 삶을 일구어 내고 있다.

위와 같은 경우는 형재영씨나 허영진씨나 양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나지만 비교 대상은 아니다. 질로 보더라도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형재영씨는 1등을 하였으니 가치가 있고 허영진씨는 불가능을 넘어 최선을 다하였으니 가치가 있다. 양과 질의 관계는 이처럼 결합이 되었을 때 진정한 의미가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자신이 선택한 양과 질이 우리의 삶을 규정한다는 것이다. 아무 죄 없는 사람을 빨갱이로 몰아 인권을 유린하던 이가 이번에 국회 의원에 당선되었다. 지역주의 때문이다. 그는 그 지역민들 힘에 의해 또 빨갱이를 조작하며 우리 국민을 분열시킬 가능성이 높다. 뺨은 사람이나 그 외 사람들 모두에게 고통이 아닐 수 없다.

다음으로는 ‘원인/결과’에 적용해 보자. 이 세상의 모든 사건과 상태는 원인이 있게 마련이다. 그리고 모든 결과는 그 자체가 또 다른 원인이 되어 새로운 결과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물론 인과 관계가 분명한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많다. 원인은 대개 복잡적이고 각각의 원인의 가치와 비중은 서로 다르기 마련이다 우리가 인과 관계를 따진다는 것은 결국은 이렇게 복잡적이고 다양한 층위로 구성된 원인을 밝힌다는 말과 거의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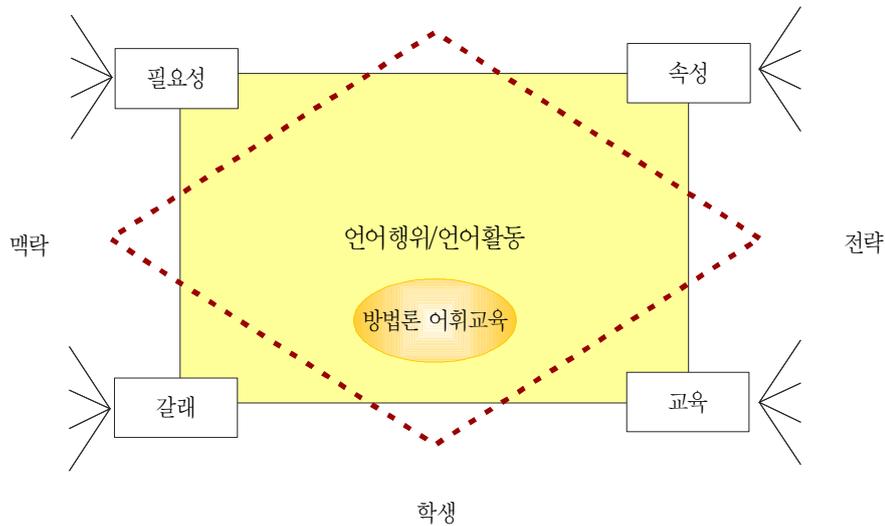
그럼 우리는 왜 원인을 따져야 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결과의 의미를 따지기 위해서이다. 왜 저런 결과가 벌어졌을까 그 원인, 맥락을 따지지 않으면 그 결과는 그냥 단순한 결과로 머물게 된다. 대부분의 단순한 사건은 원인을 따지지 않고 넘어가지만 특별한 사건이나 원인을 따짐으로써 진정한 의미가 부여되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결과나 현상만 보고 그 원인을 제대로 따지지 않고 의미를 부여하고 평가를 내린다. 이를 필자는 양치기 소년의 비극이라고 부른다. 양치기 소년이 왜 거짓말 했는지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들팔매질을 하는 바람에 양치기 소년은 계속 죽을 수밖에 없었다. 어른들은 속아서 곱탕을 먹어 피곤한 나날을 보냈지만 원인을 제대로 밝히지 않음으로써 똑같은 비극을 겪어야 했다.

물론 원인을 밝힌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다. 자기 멋대로 원인을 설정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은 마치 인과 관계가 분명한 것처럼 얘기한다. 분명한 것은 좋지만 자기들 멋대로 분명한 원인을 만들어 낸다. 좀 가슴 아픈 사건이지만 이런 예를 들어 보자. 몇 년 전에 세 명의 여중생이 15층 아파트에서 함께 투신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이 때 많은 언론들은 이들이 마치 결손 가정 아이들이기 때문에 자살한 것처럼 보도를 했다. 유서도 남기지 않았고 망자는 말이 없으니 그 원인은 알 수 없다. 결손 가정이 자살의 주요 동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확실히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특정 원인으로 몰아가는 것은 너무도 단순한 생각일 것이다. 친구 문제 성적 문제 아니면 또 다른 문제 원인뿐만 아니라 자살 충동을 억제하지 못한 나약한 성격까지 여러 가지 얽혀 있을 것이다.

인과 관계의 필연성을 부정했지만 그것도 확신할 수는 없다. 모든 인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강조하는 종교 관점으로 보면 더욱 그러할 것이다. 오히려 필연성을 더 강조하게 된다. 원인을 단순하게 바라보는 순간 인과 관계는 획일화되고 결과는 왜곡되고 의미와 가치는 빛을 잃는다. 더욱 중요한 것은 결과는 또 다른 원인으로 구성된다는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도형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3> 방법론 어휘



4. 마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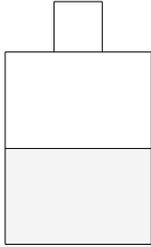
언어 자체가 양면적이다. 사고의 도구이면서 사고를 제한하는 역할도 한다. 본고에서 다룬 방법론 어휘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사고 확장의 도구가 될 수 있고 사고 억압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

[붙임] ‘긍정과 부정’에 대한 학생용 활동지

■ [초등-중저]

▶ 1단계 관심 트기

누가 긍정적 관점에서 얘기했습니까?



만돌 : 사이다가 반씩이나 남았구나.

순돌 : 사이다가 반밖에 안 남았구나

▶ 2단계 이해 트기

● 컴퓨터 게임의 긍정 요소와 부정 요소를 조사해 보자.

해 석 자	긍정	부정
근거		

▶ 3단계 생각트기

- 다음 이야기를 구성해 보자.

흥부	놀부	이이기
긍정	부정	
부정	긍정	
긍정	긍정	
부정	부정	

▶ 4단계 내삶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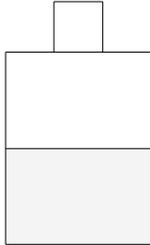
- 내 성격의 긍정성과 부정성을 나눠 써 보세요.

-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과 뼈뺏하게 바라보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아니면 비슷한 태도인가?

■ [중고 -고등용]

▶ 1단계 관심트기

- 누가 긍정적 관점에서 얘기했습니까?



만돌 : 사이다가 반씩이나 남았구나.

순돌 : 사이다가 반밖에 안 남았구나.

▶ 2단계 이해트기

- 긍정과 부정이라는 말을 이용하여 다음의 칼 지브란 말을 300자 안팎으로 풀이한 학생들의 견해 차이를 말해 보세요.

칼 지브란 “낙관주의자는 장미에서 가시가 아니라 꽃을 보고, 비관주의자는 꽃을 망각하고 가시만 쳐다본다”

[지상환]
'낙관주의자는 장미에서 가시가 아니라 꽃을 보고, 비관주의자는 꽃을 망각하고 가시만 본다.'라는 칼 지브란의 말은 낙관주의자와 비관주의자의 차이점을 사물을 보는 관점의 차이에서 설명하고 있다. 장미에서 가시가 아니라 꽃을 보는 낙관주의자는 사물의 긍정적인 면을 주로 보는 것이고, 꽃을 망각하고 가시만 보는 비관주의자는 사물의 부정적인 면을 주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칼 지브란은 낙관주의자의 정의를 긍정적 사고를 하는 사람으로, 비관주의자의 정의를 부정적 사고를 하는 사람으로 내린 것이다.

[유민성]
가시는 부정적 장미는 긍정적. 꽃의 아름다움을 보려면 장미를 보고 이걸 망각한다면 가시만 보게 된다. 즉, 꽃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보게 되면 낙관주의자로서 행복해지지만 비관주

의자들은 꽃의 아름다움을 모르고 꽃에 부정적인 면만 쳐다보게 된다는 말. 낙관주의자와 비관주의자의 차이는 자신이 어떻게 꽃을 보느냐에 달라진다.

[카라]

'칼 지브'라는 말은 낙관주의자와 비관주의자의 차이에 대하여 설명한 말이다. 낙관주의자가 장미에서 꽃만 보았다는 말과 비관주의자가 장미에서 가시만 보았다는 말은 이 글은 지은 사람이 꽃이 낙관적 개념이고 가시가 비관적 개념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꽃이 과연 낙관적 개념을 대표할 수 있는지, 또 가시가 과연 비관적 개념을 대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지은이에게 의문을 건네고 싶다.

[우리]

칼 지브란은 장미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이라면 그 속에서 가시는 부정, 꽃은 긍정으로 보고 있다. 즉, 낙관주의자는 모든 면들 중 긍정적인 부분을, 비관주의자는 부정적인 부분만을 생각한다고 풀이된다. 여기에 덧붙여서 내 생각을 더 적자면, 나는 비관주의자나 낙관주의자들 다 바람직하다고는 보지 않는다. 세상의 모든 것이 긍정적, 부정적인 양면성을 띠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느 한쪽만을 보고 판단한다면, 결국 점점 생각의 폭은 좁아지고 나중엔 빙산의 일각만을 보는 사람이 될 것이다

[누굴까:한솔]

칼 지브란은 장미의 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가시를 부정적으로 생각했다. 장미는 아름다움의 상징이고, 가시는 인간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것은 조화 속에 있다. 가시는 우리에게 부정적일 수 있으나 장미에게는 호신 수단이다. 꽃은 우리에게 아름다울 수 있으나 그렇게 된 이유는 우리가 꺾어가기를 바래서가 아니다.

칼 지브란은 아주 단순하게 생각했다. 가시는 부정적인 것의 상징이고, 장미는 긍정적인 것의 상징이다. 칼 지브란은 긍정적인 것을 보는 사람을 긍정적인 사람으로 보고, 부정적인 것을 보는 사람을 부정적인 사람이라 생각했다. 칼 지브란은 복잡한 철학적 생각보다는 이해하기 쉬운 말로 그것을 표현했다고 생각한다.

[원기]

칼 지브는 장미의 꽃은 아름답기 때문에 긍정했고, 가시는 남을 공격하고 날카로운 이미지 때문에 부정했다. 하지만 칼 지브의 말은 두 가지 나쁘게 해석이 될 수 있다. 첫 번째로 칼 지브는 낙관주의자는 좋은 사람으로 말하고 비관주의자는 나쁜 사람으로만 말하는 것이다. 또한, 장미의 가시는 다른 동물로부터 자신의 몸을 보호하려고 있는 것이지만 나쁜 것은 아니다. 어떻게 보면 가시가 더 아름답지도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 3단계 생각트기

● 다음 전래이야기를 읽고 멸치의 꿈을 길몽과 흉몽으로 해석해 보세요.

옛날 옛날 깊고 깊은 동해 바다에 칠백 살이나 먹은 멸치가 살았어요. 하루는, 생전 꿈이라곤 안 꾸던 멸치가 신기한 꿈을 꾸었어요.

“거 참, 알쏭달쏭하네. 이게 좋은 꿈인가, 나쁜 꿈인가?”

멸치는 맛있는 음식을 잔뜩 차려 놓고 병어 훈장, 꼴뚜기 생원, 메기 이방을 불렀어요.

“어제 밤 내가 신기한 꿈을 꾸었는데 좋은 꿈인지 나쁜 꿈인지 도대체 모르겠소이다. 여러분들이 꿈풀이를 좀 해 주시지요.”

병어와 꼴뚜기와 메기는 군침을 흘리며 음식에 손을 뻗었어요. 그러자 멸치가 손을 탁 치며 말했어요.

“먼저 꿈풀이를 해 주시고, 음식은 나중에 드시지요.”

병어와 꼴뚜기와 메기는 찻찻 입맛을 다시며 말했어요.

“멸치 양반, 우리는 꿈풀이를 할 줄 모르니 망둥이 선생을 부릅시다.”

멸치는 머슴인 가자미에게 서해 바다에 사는 망둥이를 데려오라고 했어요.

서해 바다까지는 멀고 긴 길이었어요. 가자미는 지느러미가 떨어져라 헤엄을 쳐서 망둥이를 업고 왔어요. 멸치가 버선발로 달려 나와 망둥이를 맞았어요.

“아이고, 어서 오세요.”

그리고는 지쳐 헐떡이는 가자미에게

“이놈 가자미야, 얼른 술상을 내오지 않고 뭘 꾸물거리느냐?”하고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가자미는 화가 잔뜩 났어요.

멸치가 망둥이에게 꿈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하늘로 쭉 올라갔다가 땅 위로 푹 떨어졌는데, 열 놈이 나를 메고 어딘가로 훌쩍 가더니, 갑자기 흰 눈이 펄펄 내리다가, 추우락더우락하다가, 붉은 고개로 끌가닥 넘어갔어요. 대체 이게 무슨 꿈이요?”

망둥이가 갑자기 무릎을 탁 치며 말했어요.

“그건 정말 좋은 꿈이요. _____.”

내가 이백 년 동안 꿈풀이를 했지만 이렇게 좋은 꿈은 처음이요.”

멸치는 기분이 좋아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어요. 망둥이는 우적우적 음식을 집어먹고, 메기와 병어, 꼴뚜기는 부러워서 침만 꼴깍꼴깍 삼켰어요. 그때, 심술이 난 가자미가 말을 불쑥 꺼냈어요.

“헉, 이런 재수 없는 꿈을 좋다고.”

가자미는 채 말을 맺지 못했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은 멸치가 벌떡 일어나더니, 냅다 가자미의 뺨을 때렸거든요. 세상에, 얼마나 세계 때렸는지 가자미눈이 한쪽으로 돌아갔어요. 겁쟁이 꼴뚜기는 얼른 제 눈을 뽑아 꿈무늬에 숨겼고요. 이걸 보고 망둥이는 너무 놀라서 눈이 툭툭 튀어나왔어요. 메기는 어찌나 크게 웃었는지 입이 귀 뒤까지 찢어졌어요. 병어는 저도 그렇게 될까 봐 입을 꼭 잡고 웃다가 그만 입이 뻘컘해졌답니다. 가자미랑 메기, 꼴뚜기, 망둥이, 병어가 우스꽝스런 모습이 된 건 다 이런 까닭이랍니다. - 전래동화

<멸치의 꿈>이건 이래서 이렇대요, 보림

해 석 자	망둥이 : 길몽	가자미 : 흉몽
내용		

▶ 4단계 내삶트기

- 우리 사회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쟁점을 찾아 논점의 차이를 분석하고 자신의 견해를 쓰라. (1200자 안팎)
- 부정적 사유나 태도가 우리 삶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논술하라. (1600자 안팎)

■ 참고문헌

- 김슬옹(1992). 풍부한 ‘가난’ 관계어. <독서평설> 6월호. 목인방
- 김슬옹(1994). 우리말 산책. 미래사. 수정 증보: 김슬옹(1999). 그걸 말이라고 하니. 다른우리.
- 김슬옹(1997). 개념적 의미에 대한 몇 가지 오해에 대하여-왜 개념적 의미는 담론적 의미인가. <담화와 인지> 4권 2호. 담화인지학회. 51-75쪽. 김슬옹(2009)에 보완 재수록.
- 김슬옹(1998). 상보 반의어 설정 맥락 비판. <한국어 의미학> 3집. 한국어의미학회. 67-95쪽. 김슬옹(2009)에 보완 재수록.
- 김슬옹(2001). 어휘교육에 대한 책읽기. <함께여는 국어교육> 50호(겨울호). 전국국어교사모임
- 김슬옹(2003). 언어전략의 일반 특성. 한말연구 13호. 한말연구학회. 85-104쪽. 김슬옹(2009)에 보완 재수록.
- 김슬옹(2009).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맥락’ 범주의 핵심 교육 전략. <국어교육학연구> 36집. 국어교육학회. 255-286쪽.
- 김슬옹(2009). 담론학과 언어분석-맥락·담론·의미-. 한국학술정보(주). 1-309
- 허재영·김슬옹(1993). 국어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서광학술자료사

방법론 어휘 담론과 교육

이동혁(포항공과대학교)

1. 방법론 어휘

【2쪽】 방법론 어휘란 두 개 이상의 낱말이 일정한 틀을 형성하거나 전제로 하여 대상에 대한 인식 방법이나 주체의 행동 전략에 영향을 끼치는 다음과 같은 어휘들을 말한다.

이들 낱말들은 1차적인 언어 사용이나 실천, 활용에 영향을 끼치는 일종의 상위(메타)층위의 어휘들이라고 볼 수 있다. 사실상 거의 모든 낱말들은 맥락에 따라 실제 층위와 상위 층위로 쓰일 수 있다.

- (1) 왜 ‘방법론 어휘’를 따로 분류하여 교육해야 하나요? 아래 3에서 제시한 문제와 연관하여 설명해 주시죠.
- (2) 용어에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방법’은 “어떤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하는데요. 그 문제를 ‘방법론’ 앞에 제시하여 용어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2. 논문의 목적

【2쪽~3쪽】 이런 관점에서 방법론 어휘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맥락을 따져 볼 것이다. 또한 이런 어휘의 속성, 갈래 등을 살펴 보고 어휘 교육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따져볼 것이다.

아울러 국어사전에 이런 어휘들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술해야 함을 역설할 것이다.

국어사전과 관련한 목적은 이 논문에서 제대로 구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구두라도 그 목적에 대한 답을 밝혀 주실 수 있나요?

3. 방법론 어휘의 중요성과 교육 방향

【6쪽】 통념의 영향력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리 삶의 바탕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들 어휘들은 사유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들 어휘들은 결국 우리의 생활양식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가 된다.

언어가 사고의 도구라고 한 이 글의 결론을 보니, 그 어휘를 설정한 중요성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론 어휘를 어떻게 교육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3장에서 제시한 교차 다중 구성 전략, 중용 전략, 상호 연계 전략, 통념 극복 전략은 그야말로 ‘전략’일 뿐입니다. 근본적으로 질문 하나를 더하겠습니다. 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교육이 정말 어휘 교육입니까? 아니면 ‘방법론 어휘’를 도구로 하여 윤리/철학/논술 교육을 하자는 것입니까? 위와 같은 의문이 드는 까닭은 이 글에서 기존의 어휘 교육에 대한 문제 제기를 치밀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행 교육과정에서 어휘 교육은 이러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이 논문에서 제시하겠다”라는 식의 전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혹시 기존의 교육과정과 별개의 제도권 밖에서의 어휘 교육을 가상하셨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6쪽에 다음과 같은 기술이 있습니다.

방법론 어휘가 중요한 만큼 어떤 식으로 교육시킬 것인가가 문제다. 대립된 어휘 각각의 개념을 정확히 교육시켜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본고에서는 그런 전략은 제시하지 않는다. 여기서는 다양한 사고력과 합리적인 언어생활 차원에서 네 가지 전략을 제시할 것이다.

이것을 분리하여 아래와 같이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대립된 어휘 각각의 개념을 정확히 교육시켜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 이걸 현행 어휘 교육의 문제 중 하나라고 지적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다양한 사고력과 합리적인 언어생활 차원” → 이걸 새로운 어휘 교육의 방안(통섭의 측면에서)이라고 소개하는 편이 더 낫지 않았을까요?

4. 방법론 어휘의 자료와 분류

<p>【2쪽과 5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속성·상태: 형식/내용, 현상/본질, 부분/전체, 특수/일반(보편), 물질/정신, 양/질, 구체/추상, 감정/이성, 선/악 - 절차·방법: 비교/대조, 미시/거시, 상대성/절대성, 주관/객관 - 태도·성향: 긍정/부정, 찬성/반대, 능동/수동, 적극/소극, 낙관/비관, 외향/내성(내향), 보수/진보, 현실/이상 - 관계·과정: 원인/결과, 우연/필연, 수단/목적

(1) 위의 자료는 어떻게 수집하였나요?
 (2) 위에서 제시한 이른바 ‘방법론 어휘’는 언어 사용이나 실천을 제약하는 틀(frame)로서의 어휘라고 이해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국립국어원에서 간행한 『이런 말에 그런 뜻이? - 차별과 편견을 낳는 말들』이라는 책이 생각났습니다. 그 책에는 ‘미망인’을 ‘고 000씨 부인’이라고 고쳐 부르자고 제안합니다. ‘미망인’은 언어 (잘못된) 사용의 한 예죠. 이렇게 사용하게 하는 지배적인 사고(이 논문에서 말하는 통념에 가까울 듯합니다)고 있겠죠. 그 사고 자체는 무형이나 그 사고를 언어화하여 지정할 수 있을 겁니다. 가령 A이라는 단

어는 ‘남성적’이고, B라는 단어는 ‘여성적’이라고요. 그렇다면 ‘남성적 - 여성적’이라는 것도 방법론 어휘에 속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식이라면 위의 자료 이상으로 많은 자료를 수집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극단적으로는 이항 대립어 모두가 방법론 어휘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간된 1896년부터 개화기의 출발로 삼는다. 이는 신문에 본격적으로 광고가 실리기 시작한 것이 <독립신문>에서부터이고, 또한 광고 주체가 기업에서부터 개인 광고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 이 시기 신문광고의 중요한 특징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는 '광고'라는 단어가 사회·문화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고, 이미 일반인에게까지 광범위하게 정착되어 사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개화기 광고언어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에는 함경호(1980), 김광수(1997), 한은경(1997), 김봉철(2002) 등이 있으며, 이들 연구는 개화기 광고의 특성과 시대상을 밝히고 있을 뿐이다. 개화기 광고 언어의 다양한 양상을 밝힌 연구는 박영준(2005), 서은아(2005), 서은아(2009ㄱ,ㄴ) 등이 있고, 1910년부터 1945년까지 광고 언어를 연구한 논의는 채완(2005), 서은아(2006) 등이다. 이는 광고언어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가 현대에 국한되어 이루어지고 있고, 역사적인 연구가 거의 도외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광고 어휘를 대상으로 한 연구도 대부분 공시적인 연구에 치우쳐 있고 통시적인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 외에도 외국어와 국어의 혼용 양태(신현숙 1995), 어종별 유형(최용기 1999, 2000ㄴ, 2001ㄱ,ㄴ), 특정 지시어나 단어 유희(최명원 2000ㄱ,ㄴ, 정동규 2000)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연구가 있다.

1992년부터 국어학의 연구 대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광고언어'는 현재까지 국어학의 전 영역에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초기에는 '신문광고와 외래어', '신문 잡지 광고에 나타난 언어의 문제', '방송 광고에 나타난 언어의 문제' 등과 같이 규범의 대상으로서 광고언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책을 찾고자 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 이후에도 박갑수(1984, 1991ㄱ,ㄴ, 1992, 1993, 1996, 1998), 김세중(1992, 2001), 이주행(1992, 1997ㄱ,ㄴ), 김성규(1998) 등의 연구에서 광고언어의 오용 사례와 실태에 관한 연구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가 현대에 집중되어 있고, 통시적 연구는 그리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신인섭(1992)에서부터 시작된 통시적 연구는 맹명관(1993), 고동화(1996), 신인섭(1996), 신인섭·서범석(1998), 박종민외(2007), 박종민외(2008) 등에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개화기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광고 어휘에 관한 통시적인 연구는 초기 광고 어휘의 특징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개화기의 사회 문화적 의식이 광고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살필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다.

이 연구는 개화기 신문광고 어휘를 분석하기 위해서 한글로 광고가 작성된 <독립신문>(1,687개), <매일신문>(406개), <제국신문>(1,660개), <대한매일신보>(1,660개) 등에 게재된 총 6,067개의 광고를 대상으로, 각 신문의 창간호부터 폐간호까지 각 월과 일을 홀수와 짝수로 구별하여 자료를 선별하였다. 예를 들면 1898년 4월(매일신문)은 짝수 월이므로 실제 조사한 날짜는 9일, 11일, 13일과 같이 홀수 일에 게재된 광고를 조사하였다.

2장에서는 개화기 신문광고에 나타나는 광고의 특징적인 양상을 광고 내용과 구성 요소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3장에서는 각 신문별로 사용 빈도가 높은 어휘를 중심으로 유형별 특징을 살펴본다.

2. 개화기 광고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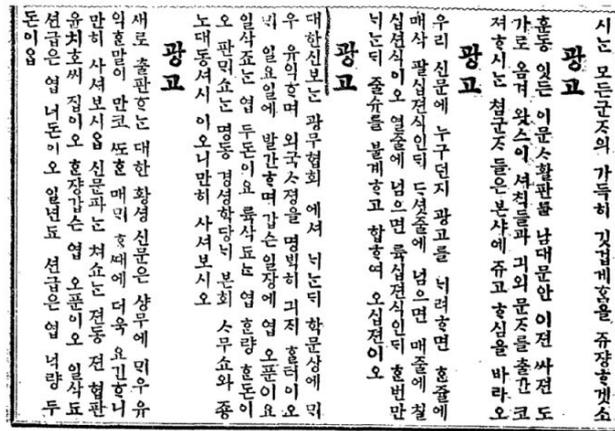
대중매체의 최초의 형태인 신문의 등장과 '광고'가 시작된 개화기에는 <한성주

보>(1886~1888)를 시작으로 <독립신문>(1896~1899), <매일신문>(1898~1899), <황성신문>(1898~1910), <제국신문>(1898~1910), <대한매일신보>(1904~1910) 등과 같이 다양한 민간 신문이 발행되었다.

개화기에 발행된 여러 신문 가운데 이 연구에서는 순 한글로 광고가 작성된 <독립신문>, <매일신문>, <제국신문>, <대한매일신보> 등의 신문을 대상으로 개화기 광고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개화기에 '광고'에는 대체로 표제가 사용되지 않으며, '광고'라는 말이 표제어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그림-1> <매일신문> 1898.4.9



1898년 4월 9일 <매일신문>을 보면, 광고하는 내용마다 '광고'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광고의 구성 요소로 볼 때, 광고를 시작하는 도입부 즉 '표제'의 기능을 '광고'라는 단어가 담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 수 있다. 광고 외에도 '특별 광고, 본사 광고, 본회 광고'와 같은 형태가 나타나며, 더욱이 '○○ 광고' 형태의 문구가 표제로 유행처럼 사용되었다.

- (1) ㄱ. 세계지리서를 한문으로 번역한거신디 사름마다 불만흔 칙이니 학문상에 유의하는 이는 이칙을 종노칙전에서 사시옵(독립 1896.4.9)
- ㄴ. 본교 너에 남녀 학당을 분설하고 남자와 녀즈를 교육하기 위하야 과정과 규측을 정밀히 하였스니 즈녀간 교육에 유지한 신첨군즈는 속속히 본교로 오서서 의론하시옵(대한 1907.11.30)
- ㄷ. 지금 우리전에서 극상품 금계랍과 회충약을 외국에 구하여 왔스온디 내가 작년에 명동서 팔던 것과 갓소(제국 1900.3.14)
- ㄹ. 본인의 성명 도장 음력 십이월이십칠일에 서실하왔기로 이에 광고하오니 수모 습득하와도 물시홀스 (대한 1905.2.17)
- ㅁ. 북부서 소안동 데스통 십일호와 가팔간 문권을 서실하옵고 그 문권은 유지로 돌니오니 무론 너외국인하고 그휴지 문권을 던당잡앗다가 랑퓌히지마시오(제국 1900.10.23)
- ㅂ. 본인의 장즈 치털이가 본시 부랑패류로 그 부형즈데 간에 분지하여 가진 던장 문권을 수이 도적하여 내엿기로세 부득이하여 시 문권을 문들엇고 이에 광고하오니 너외국인 간에 삼가 속지 말고 한치털의 가진 문권을 던집지 마옵기를 바라옵(대한 1905.1.24)

(1ㄱ)은 '스민필지'라는 책 광고, (1ㄴ)은 '심상 고등소학교'의 학생 모집 광고, (1ㄷ)은 '쎄이노 상담'의 '금계랍'과 '회충약' 광고이다. 이처럼 개화기 광고에 등장하는 광고의 종류

는 매우 다양했다. (1ㄱ, ㄴ, ㄷ)처럼 기업 광고가 있고, (1ㄹ, ㄴ)처럼 '도장'이나 '문권'을 잃어 버렸다고 알리는 개인 광고도 있다. 이처럼 1900년대부터 개인 광고가 개화기 신문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 이는 개화기 초기 광고가 기업이나 상회 등과 같이 기업 형태에 국한되었지만, 1900년대 이후로 오면서 개인 광고로까지 확대되었음을 의미한다.

- (2) ㄱ. 신문값은 미장에 오피오 혼들 도는 엽전 일곱돈오피오 여섯들 선급은 너량 혼동이오 일년 선급은 일곱량 여달돈이오 외방에는 우표가 혼들도 엽전 두돈 칠푼을 더 밧소.(제국 1900.3.14)
- ㄴ. 솔 상품 혼디 석량너돈오피오 증품 혼디 석량 두돈 하품 혼디 석량 팻 상품 혼디 두량 아홉돈 증품 혼디 두량여들돈 콩 상품 혼디 두량 증품 혼디 혼량 여들돈 서양목 상품 혼자 두량두돈 증품 혼자 두량혼돈 무명 상품 혼자 혼량 증품 혼자 여들돈 배 상품 혼자 닷량 증품 혼자 석량 하품혼자 혼량 두돈 모시 상품 혼자 두량닷돈 증품혼자 한량 여들돈 하품 혼자 혼량서돈 석유 혼케 룽십륙량 소곰 상품 혼섬에 룽십량 증품 혼섬에 스십이량 하품 혼섬에 삼십륙량 혼더라(독립 1896.4.9)
- ㄷ. 우칙은 순국문으로 세계에 유명혼 법국부인약 안씨의 스적을 번역혼였스오니 무론 남녀혼고 인국 성이 유혼신 동포는 맛당이 보실 서칙이오니 룽속 구람혼시옵쇼셔. 믹칙 평가 급실 오전 신선혼 도본도 구비혼(대한 1907.10.9)

개화기 광고 내용의 특징은 제품의 요금이나 가격을 광고 내용에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광고에서 다루고 있는 가격 정보는 매우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다. (2ㄱ)의 신문 가격에 대한 광고 내용은 한 장 가격에서부터 외지에 우표를 붙이는 경우까지 소상하게 밝히고 있다. 광고하는 내용의 제품이 다양할 경우에는 (2ㄴ)처럼 제품별로 가격을 알린다. 반면에 (2ㄷ)과 같이 가격 정보를 광고 내용 끝에 부가적으로 제시하기도 한다.

- (3) ㄱ. 믹일 신문이 그동안 몇호 정지 되었더니 요스이 회샤를 다시 조직혼고 오늘 붓혀 신문이 다시 발간 되었는디 긴요혼 소문과 유익혼 말이 만터라.(제국 1898.8.10)
- ㄴ. 제물포 룽선 출발표/스월 구일 견 끼마루가 지부 천진 등지에 가고 스월 구일에 샷주마루가 나가사 기항향 등지에 간다더라 스월 십일일오후두시 준하환니 부산 고베 등지에 간다더라(독립 1896.5.14)
- ㄷ. 비직 학당 기학 광고/본 학당에서 본월 이십일(음력 팔월 초오일)에 기학 혼는디 서국 교스가 이인이오 부교스가 스인이오 한문 교스가 이인이라 영문 한문 국문 디지력스 산학과 외타 제종 학문을 가르칠 터이니 다들 와서 공부 혼시오./광무 이년 구월 십스일 비직학당 총교스(매일 1898.9.14)

대화의 구조는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시작부', 본격적으로 대화가 이루어지는 '중심부', 그리고 대화를 마무리하는 '종결부'로 이루어진다.(구현정·전영옥 2005:139~144) 이러한 대화 구조는 광고의 구성 요소와 일치하는데, 표제(부제)는 시작부, 본문은 중심부, 슬로건 및 광고주는 종결부와 같다. 이처럼 광고는 시작과 중심과 종결의 구조가 균형적으로 이루어질 때 전달 내용을 단계적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2001년 <조선일보>의 게재된 327건을 대상으로 구성 요소를 살펴본 결과, '표제-본문-광고주' 구성이 22.63%(74건), 다음으로 '표제-본문-슬로건-광고주' 구성이 20.80%(68건), 마지막으로 '표제-부제-본문-슬로건-광고주' 구성이 19.88%(65건)로 조사되었다(서은아 2005:268~269).

이에 반해 268건의 개화기 광고의 구성 요소를 조사한 결과, '본문' 구성이 28.36%(76건), '표제-본문-광고주' 구성이 24.25%(65건), '표제-본문' 구성이 23.88%(64건)로 조사되

었다(서은아 2009ㄴ:116~119) 이러한 양상은 현대 광고 구성 요소와 뚜렷한 차이를 보여 주는 결과이다.

- (4) ㄱ. 안창회사, 삼정은행, 가메야 회사
- ㄴ. 한영자던 한영문법, 스민필지
- ㄷ. 세창양행 제물포, 서울 식물 회사 큰 정동, 종로 자혜약방

개화기 광고의 구성 요소에 나타나는 특징은 '표제'나 '광고주'보다 '본문' 중심의 광고가 일반적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현재 광고와 같이 '표제'나 '광고주'를 명시하는 유형의 광고도 볼 수 있는데, 표제에 사용된 어휘는 광고 주체를 밝히는 (4ㄱ), 광고하는 제품의 이름을 표제로 삼는 (4ㄴ)과 같이 하나의 정보만으로 구성된 표제가 일반적인데, (4ㄷ)처럼 광고하는 회사의 이름과 회사 위치를 함께 표제로 삼는 경우도 있다.

(5~6)과 같은 표제도 개화기 광고에서 볼 수 있다.

- (5) ㄱ. 국채보상의연금 혁신 제시의계 경고홍(대한 1907.7.18)
- ㄴ. 명월관을 계속하여 기업홍(대한 1907.11.26)
- ㄷ. 새로 내는 신문이라(독립 1897.4.1)
- ㄹ. 이것 보시오(대한 1909.9.2)
- ㅁ. 대도보를 구람하시오 대도보를 구람하시오(대한 1910.5.20)
- ㅂ. 한 번 불일(대한 1909.4.29)

- (6) **항항 상해 영국 은행이** 제물포 지점을 비설하고 각식 은행사무를 홀터인디 이 은행은 동양에 데일 자본이 만코 점은 세계 각국 큰 동리마다 다 잇는지라 누구던지 돈을 못기면 오백원 이상에는 매일 두푼 변을 줄터이요 환전도 구라과 미국 동양 각국에 다 하여 줄터이요 지금 잇는 자본이 일천 만원이요 레비금이 특빅 오십 만원이요 회사 회원들이 담당흔 돈이 일천 만원이더라

(5ㄱ,ㄴ)은 문장의 종결을 명사형으로 끝맺은 표제로 광고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반면에 (5ㄷ)은 서술문의 표제로 말 그대로 '그리스도 신문을 새로 내다.'와 같은 내용을 함축적으로 표제화한 것이다. 종결어미 '-오'는 본래 설명, 의문, 명령의 종결어미로 두루 쓰이는 형태인데, (5ㄷ,ㅁ)에서는 명령의 종결어미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광고를 보는 소비자에게 체면을 손상시키고 있지만, 반면에 전달 내용을 강하게 그리고 호기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표제이다. 더욱이 (5ㅁ)은 2회 반복함으로써 시선 집중과 기억에 도움이 될 것이다. (6ㄷ)은 명사구 구성의 표제로 본문을 읽지 않으면 표제에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려울 것 같다. (6)과 같이 표제와 본문의 구분이 없이 본문 도입부를 강조하여 표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게 구성하기도 한다.

- (7) ㄱ. 乳母廣求/두살된 으희를 젓먹일 터인디 즈긔 으희업시 집에 와서 유모노릇할 부인이 잇거든 대한미일신보사 회계과로 와서 의론하시오(대한 1907.10.5)
- ㄴ. 乳母유모구하는 광고/유도가 도흔 유모가 잇시면 스시의복과 월급을 후하게 주겠시니 종로 복인양복점을 차져오시 요(대한 1907.11.8)
- ㄷ. 유모구하는 광고/젓만코 으희 업시 유모노릇할 사름 잇거든 대한미일신보사로 와서 의론하시옵/대한미일신보사너 윤즈황 고빅(대한 1909.4.29)
- ㄹ. 유모구하는 광고/비안 으희를 젓 먹일터이오니 제으희 업시와서 유모될 의향이 잇는이는 속히 종로 즈혜약방으로 차져오시오/박즈혜 고빅(대한 1909.4.29)

(7)의 ‘유모 구하는 광고’ 표제는 모두 동일한데, 본문 내용이 다르다. (7)의 예는 개화기 광고에서 ‘표제’보다 더 중요하게 인식한 것이 ‘본문’이었음을 알 수 있다. 즉 광고주가 누구인가에 따라 본문의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처럼 개화기 광고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담당했던 요소는 ‘본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문에 반복적으로 사용된 어휘가 무엇이며, 무엇 때문에 동일한 어휘의 사용 빈도가 높은 것인지 3장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4. 『Kilbum』(1993)에 따르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영자어, 동자(漢字), 무자(無字)로 적을 때이다.

3. 어휘의 사용 양상

어휘론의 하위 범주에 속하는 어휘 빈도 조사는 생태언어학적 관점에서 광고언어의 통시적인 변화 양상을 살피는 일로서 실제 언어생활의 모습을 파악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언어사회의 특징을 유추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

개화기 광고에는 ‘값, 엽, 선급, 량’ 등과 같은 명사와 ‘오다, 가다, 보다, 팔다, 싸다, 헐하다, 많다’ 등과 같은 동사나 형용사의 사용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매우, 많이, 새로’ 등과 같은 부사 또한 빈번하게 사용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격과 관련된 어휘의 사용 빈도가 높은 것은 개화기라는 특정 시기에 서구적인 경제관념의 도입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며, 단어의 질적 측면에서 명사, 동사, 형용사 순으로 사용 빈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메시지의 구체적인 전달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⁴⁾

이 장에서는 <독립신문>, <매일신문>, <제국신문>, <대한매일신보>에 나타난 어휘의 사용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3.1. <독립신문>

- (8) ㄱ. 진고기 목촌건부씨의 전에 상등 일본 석탄이 만히 잇는디 미돈에 값시 십일원이라 와서 사 가시오.(독립 1896.12.1)
 - ㄴ. 세계 지리서를 한문으로 번역헿거신디 사름마다 볼만헿 칙이니 학문상에 유의헿는 이는 이 칙을 종노칙전에서 사시오 값슨 여덜냥(독립 1896.4.11)
 - ㄷ. 누구시던지 금년은 미삭 신문값 이십스전을 신문사로 본져 가지고 와서 영슈표를 맞하 간 후라야 신문을 보내 줄터이니 그리 아시오(독립 1897.1.16)
- (9) ㄱ. 구리기 돛골 새로 품주가(品酒家)라 헿는 괴를 세은 술집이 잇는디 술 못이 상지 상품이요 값도 미우 싸지라 술 자시는 이들은 만히 와서 사 가시오.(독립 1897.11.11)
 - ㄴ. 조흔 금계랍과 조흔 바늘을 만히 파니 체군즈는 와서 귀경헿고 사 가시오 값슨 미우 싸고 물품은 상등이요 회사 집은 정동 명례궁 압회요(독립 1897.5.6)
 - ㄷ. 각식 집으로 만든 갓과 조흔 우산과 상등 지권연들과 물것 죽기는 약가로가 만히 왔는디 값도 미우 헿헿더라(독립 1896.6.98)
 - ㄹ. 외국 상등 물건을 파는디 물건이 다 값도 외누리 업더라(독립 1896.4.7)
 - ㅁ. 각식외국상등물건을파는디 값도 빗스지 아니헿더라 각식 담비와 다른 물건이 만이 잇더라(독립 1896.4.7)
 - ㅂ. 세계에 데일 조흔 금계랍을 이 회사에서 또 새로 만히 가져 와서 파니 누구던지 금계랍 장스 헿고 십흔 이는 이 회사에 와서 사거드면 도매 금으로 쓰게 주리라(독립 1895.5.18)

(8~9)에는 ‘값(값)’이라는 명사가 <독립신문>에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8)에는

1	비밀	용사	연도수	11	비밀	용사	연도수	11
2	비밀	용사	연도수	11	비밀	용사	연도수	11
3	비밀	용사	연도수	11	비밀	용사	연도수	11
4	비밀	용사	연도수	11	비밀	용사	연도수	11
5	비밀	용사	연도수	11	비밀	용사	연도수	11
6	비밀	용사	연도수	11	비밀	용사	연도수	11
7	비밀	용사	연도수	11	비밀	용사	연도수	11
8	비밀	용사	연도수	11	비밀	용사	연도수	11
9	비밀	용사	연도수	11	비밀	용사	연도수	11
10	비밀	용사	연도수	11	비밀	용사	연도수	11

‘십일원, 여덜냥, 이십스전’과 같이 제품의 가격을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반면에 (9)에는 ‘싸다, 헐하다(헐하다)’와 같은 형용사나 부사 ‘미우(매우)’가 ‘갑’이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되었다. 즉, ‘미우 싸다, 미우 헐하다’와 같이 표현함으로써 제품의 가격을 간접적이고 추상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에누리(외누리) 없다, 비싸지 않다’ 등과 같이 표현하기도 한다. 또한 ‘많이(만히), 새로’와 같은 부사나 ‘팔다, 있다(있다)’와 같은 형용사를 통해 판매할 제품의 종류를 제시하기도 한다.

- (10) 가. 둘 기르는 법을 외국 학문가에서 신 발명하야 각국에 지금 성행 하는 요법을 국 한문으로 번역 하야 출판 하였는디 이 칙에 잇는 방법디로 하면 적은 자본을 가지고 크게 돈을 길너 큰 리가 잇슬터이니 누구던지 이런 사업에 유의 하는이는 이 칙을 사셔 보시오(독립 1897.8.21)
- 나. 상품 미국 금계랍과 회중산을 새로 내왔시니 사가기를 원하는 이는 서울 구리기 제증원으로 오시오(독립 1898.3.8)
- 다. 본 회사에서 조선 서울에 지점을 비설하고 조선 언문 성경과 한문 성경을 각식으로 박히고 미여 파니 누구던지 성경 사보고 심호니는 지점 회사장 커뮤어씨의 집으로 오시오(독립 1897.8.7)

(10)에는 제품 정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소비자로 하여금 제품 구입을 권장하면서 ‘사다, 오다, 보다’ 등과 같은 동사가 광고 마지막 문장에 사용되고 있다. 소비자의 행동을 직접적으로 촉구하는 것이다. 이는 오늘날의 광고와도 크게 다르지 않다.

<독립신문>에 사용된 어휘의 사용 빈도는 <표 1>과 같다.

3.2. <매일신문>

- (11) 가. 본사 신문 갑이 혼장에 엽 너폰이오 혼들 선급에 엽 일곱돈이오 석들 선급에 엽 두량 여섯 들 선급 엽 석량 아홉돈이오 일년 선급에 엽 일곱량 아홉돈이오 각 디방에 보내는 것은 우 테갑 병하야 미삭에 엽전 일곱돈 룩폰이오니 스방 텨군즈는 그리들 아시오(매일 1899.4.3)
- 나. 정품 도흔 서적들 살터이니 누구던지 팔 사름이 잇거든 큰 광고 금 매미흔는 리삼여의계 로 오면 갑을 후이 줄터이니 가지고 오시오(매일 1898.4.13)
- 다. 본사에서 스월 구일부터 매일신문을 발간하는디 학문상에 유지할 말과 너외국에 시세형편

<표 2> <매일신문>에 사용된 어휘의 빈도

구분	어휘	빈도	어휘	빈도	어휘	빈도
1	말	326	11	보내	15	
2	신문	288	12	사	12	
3	본	265	13	의	10	
4	언론	261	14	언론사	10	
5	당	255	15	언론	10	
6	조	251	16	언론	10	
7	명	247	17	언론	10	
8	언론	231	18	언론	10	
9	언론	221	19	언론	10	
10	언론	211	20	언론	10	

의 실적인 소문을 만히 괴지호오니 만히 사다 보시되 혼장갑 엮너폰 혼들 선급 엮일곱돈 석들 선급 엮 두량 여섯들 선급 엮 석량 아홉돈 일년 선급 엮 일곱량 아홉돈이요 외방에서 보는 이에게는 우테갑 병호여 혼들 선급이 엮 혼량이오니 남대문안 전 쓰전 도가 미일신문 사로 와서 사가시고 신문에 괴지호말이 잇거든 즈세히 적어 본사 대문밖 투함통에 갖다 너시되 성명 거쥬가 분명치 안으면 괴지치 아니 홀터이오(매일 1898.5.4)

(11)에는 '갑'이라는 어휘만을 사용한 <독립신문>과 달리 '엽, 돈, 량, 선급' 등의 어휘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실제로 <매일신문>에서는 <독립신문>에 비해 구체적인 가격 정보를 언급하고 있다. 즉 (11ㄴ)의 '후이 주다'처럼 가격 정보가 추상적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

- (12) ㄱ. 미일 신문사를 이전 선혜령 압 균역령 도가되엇던 집으로 옮겼스니 새로 신문을 보시려 혼던지 혹 셔척과 명함을 박이려 하시거든 다 차자 오시기를 바라오(매일 1898.7.30)
- ㄴ. 독립신문은 신민에게 미우 유조훈 말이 만히 잇스니 널니 전파호여 만히 사다들 보시오(매일 1898.5.10)
- ㄷ. 새로 출판하는 대한회보는 학문상에 미우 유조훈 말씀이 만흔지라 경동 비직학당 뒤대문 엮희 방과 종로 대동 셔시에서 파는디 한 장갑슨 너엽폰이요 일삭도 엮돈반 이오니 사셔 보시오(매일 1898.5.24)
- ㄹ. 남촌 영화전 압혜 사는 임헌호씨는 년금 이십여세라 간봄에 독혼 과중으로 발을 버헷스니 뉘안이 불상타 흐리오 양의의 말이 인도고로 발을 문드러 붓치면 영상타 하나 갑시 불소함으로 소비를 관출치 못함은 가력이 불급함이니 어지신 군즈들은 동포의 정리를 생각하야 다소간 보쥬 하시되 그 연쥬금을 본사로 보내시면 신실히 전호겝소(매일 1898.8.29)
- ㄱ. 본사 신문 갑이 혼장에 엮 너폰 혼들 선급에 엮 일곱돈 석들 선급에 엮 성량아홉돈 일년 선급에 엮 일곱량 아홉돈이요 각 디방에 보내는 것은 우테갑 병호야 미삭에 엮전 일곱돈 룽폰이오니 스방 텨균즈는 그리들 아시오(매일 1898.10.1)

개화기 신문광고의 본문 마지막 문장의 종결은 대체로 소비자의 행동을 촉구하는 '사다, 보다' 등의 어휘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매일신문>에 사용된 어휘의 사용 빈도는 <표 2>와 같다.

3.3. <제국신문>

- (13) ㄱ. 인천항 기풍국을 황성 청포전뒤로 이설호였는디 본국에 잇는 안약은 로인에 눈도 발가지고 눈 동즈가 모여 분명하고 빅티가 잘삭는 신기호 약이요. 중기약과 학질약과 로인에 소양중

어휘	종류	빈도	어휘	종류	빈도
1	약	1,845	11	약국	256
2	진단	1,796	12	약물	242
3	제	1,339	13	신약	234
4	진	1,102	14	약국	240
5	진단	1,092	15	약	134
6	진단	912	16	약	99
7	진	899	17	약	78
8	진	427	18	약	73
9	진단	447	19	약	47
10	진	385	20	약	38

약과 각식 신효한 약이 맞스오니 첨근즈는 시험하시오.(제국 1900.7.4)

- ㄴ. 진고기 마루티기 지나 우물안해 잇는 쾌치당 약국에 약품이 진정하고 만병통치하는 약을 염가로 망미하고며 겸하여 침잘놓는 방술이 잇스오니 첨근즈는 문병하시되 오기 어려오면 녀의도 잇스와 남녀 물론하고 원근간에 가서 불타이오니 조량하시오. 본국에 잇는 쾌락환은 신기부족과 잉터못하는 데와 로인 쇠증과 약질과 골병과 즈궁 부싱한 병과 방스에 신효하고 승혈환은 담중 혈증 립질 공통 연쥬창 치질 탈황 산증 만신창에 신효하고 그 맞게 신효한 약이 만소.(제국 1900.7.6)

- (14) ㄱ. 본국에서 십년을 연구하여 사향소창단이란 약을 발명하였는디 남녀 물론하고 무슨 창병이던지 혼제(七介)를 밍일 일기식 먹으면 효험이 빅발빅증 되는고로 밍일답지하고 사가오니 창병잇는 첨위는 오릭 고싱말고 속히 립립하여 문의하시며 각 디방이라도 우편으로 부칠타이오니 조량하시옵(대한 1908.3.8)

- ㄴ. 건위소체하미 구미를 돕고 씹을 삭키고 정신을 상쾌케 하는 약이오(대한 1909.4.15)

(13~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국신문>과 <대한매일신보>에는 '약'이라는 단어의 사용 빈도가 높게 조사되었다. (13)에서 '안약, 종기약, 학질약, 쾌락환, 승혈환' 등과 같은 다양한 제품을 소개하고 있으며, 명사 '약국'도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또한 '신기한 효과나 효험이 있다'라는 의미의 형용사 '신효하다'나 동사 '시험하다'의 사용이 '약'과 함께 자주 등장한다.

<제국신문>에 사용된 어휘의 사용 빈도는 <표-3>과 같다.

3.4. <대한매일신보>

- (15) ㄱ. 본인이 숨틀을 견고하고 무병하게 제조하여 럽가로 발매하시니 유지 동포는 리구하시옵(대한 1909.12.7)
- ㄴ. 본 상회에서 연초를 제조하여 판매한 지 주전 간에 우리 동포의이고 슈용하시는 후은을 넘스와 영업이 점점 발달되오미 대단 감사하시며 금년브터는 제조업을 전보다 크게 확장하고 일층 정미케하고 대발매를 할타이오니 첨근즈는 룽속이용하심을 브라운(대한 1910.2.27)
- ㄷ. 우리는 웬 식둠으로 한양상회를 이와 꺽치넛기 쉬운가 우리가 한영상회 말을 여러사람에게 도 듯고 날마다 가서 보기도 하였건마는 쏘 니져 브렸스니 한양상회는 어느 나라사람이 경영하는 것이며 무어슬 푸는 상덤이던가 우리나라 사람이 경영하는 상덤으로 漢陽商會와 꺽

개화기 신문광고에 사용된 어휘를 유형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품의 가격을 직·간접적으로 소개하기 위해 '값, 엽, 돈, 량, 매, 선급, 엽가, 매우, 싸다, 험하다' 등의 어휘를 사용하였다. 둘째, 제품의 종류를 알릴 뿐만 아니라 물건을 사고파는 제품 판매의 새로운 개념을 알리기 위해 '많이, 새로, 팔다, 있다, 물건, 물품, 상품' 등의 어휘가 사용되었다. 셋째, 광고를 접하는 소비자에게 제품 구입을 촉구하기 위해 '보다, 오다, 사다, 바라다, 내림하다, 조량하다, 의론하다' 등의 어휘를 사용하였다.

4. 맺음말

광고언어가 본격적으로 국어학의 연구 대상이 된 이후 현재까지 광고언어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현대라는 공시 연구에 집중되어 있고 통시적인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신문광고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1800년대부터 1950년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가 활발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개화기 신문광고를 대상으로 광고 자료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광고 어휘의 특징을 밝히고자 하는 점이 이 연구의 의의라 할 수 있다.

대량의 신문 자료의 조사와 분석 작업을 위해서 자료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토대로 선별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조사된 자료를 어떤 기준으로 분석하여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 낼 것인가는 또한 검증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앞으로 개화기 자료를 분류하고 선별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할 것이고, 나아가 어휘 분류의 기본이 되는 품사별, 어종별 분석을 위한 기준 또한 마련하는 것이 이 연구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또한 개화기에 사용된 고빈도 어휘의 유형별 의미 분류를 위한 기준 또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할 때, 개화기 신문광고 어휘의 유형, 의미 등의 다양한 영역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참고문헌

- 구명철. 2001. 광고문에 나타난 언어 유희적 특성: 독일어 광고문과 우리나라 광고문의 사례를 중심으로, <광고학보> 3-1. 한국광고홍보학회.
- 구현정·전영옥. 2005. <의사소통의 기초>. 박이정.
- 김광수. 1997. 독립신문의 광고 분석. <언론과 사회> 15. 성곡언론문화재단 언론과 사회사.
- 김봉철. 2002. 구한말 세창양행 광고의 경제·문화사적 의미. <광고학 연구>13-5. 한국광고학회.
- 김종택. 1992. <국어 어휘론>. 탑출판사.
- 김주현. 1996. 광고에 대한 언어학적 연구-한국어와 독일어 광고텍스트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마정미 외. 2009. <광고라 하는 것은>. 커뮤니케이션북스.
- 박영준. 2003. 광고언어 연구의 동향과 연구 과제-언어학적 연구를 중심으로-. <광고언어 연구>. 박이정.
- 박영준. 2005. 1890년대 신문광고 언어 연구-독립신문을 중심으로-. <한국어학> 27. 한국어학회.
- 서은아. 2003. <신문광고와 언어>. 역락.
- 서은아. 2005. 독립신문에 나타난 광고 언어의 사용 양상. <한말연구> 17. 한말연구학회.
- 서은아. 2006. 일제 시대 광고 언어의 특징 연구. <한말연구> 19. 한말연구학회.
- 서은아. 2007. 광고 언어의 사용 양상 연구-광복 후 70년대까지-. <한글> 277. 한글학회.
- 서은아. 2009ㄱ. 개화기 신문광고에 사용된 어휘 연구. <겨레어문학> 42. 겨레어문학회.
- 서은아. 2009ㄴ. 개화기 신문광고 언어. <한국어의 어제 그리고 오늘>. 역락.
- 신인섭. 1992. 우리나라 광고 언어의 변천사. <새국어생활> 2-2. 국립국어원.
- 신인섭. 1996ㄱ. 광고 카피의 변천-1960년대에서 현재-. <한국의 광고>. 나남.
- 신인섭. 1996ㄴ. 해방 이후. <한국 광고 100년>. 한국광고단체연합회.
- 신인섭·서범석. 1998. <한국 광고사>. 나남출판사.
- 신인섭·김병희. 2007. <한국 근대 광고 걸작선>. 커뮤니케이션북스.
- 신현숙. 1995. 광고언어에서의 국어, 외국어 혼용 양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심재기. 2000. <국어 어휘론>. 태학사.
- 이명천·김요한. 1999. 상표친숙도와 광고소구 유형에 따른 광고반복의 효과. <한국광고학보> 2-2. 한국광고홍보학회.
- 이성연.
- 이재욱·문양호·남기춘. 2001. 어휘빈도와 어휘친숙도 평정에서 나타나는 모국어 어휘지식과 외국어 어휘지식의 관련성. <이중언어학> 18. 이중언어학회.
- 임소영·안주호. 2002. 어휘정보 주석말뭉치 구축. <한국어 구어 연구(1)>. 한국문화사.
- 정동규. 2000. 광고언어에서의 단어유희. <독어학> 2. 한국독어학회.
- 정보석. 1996. 광복이전. <한국광고 100년>. 한국광고단체연합회.
- 정진숙. 2007. 한·일 신문광고의 어휘 분석-동아일보, 매일신문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채완. 2005. 일제 시대 광고문의 형식과 전략. <이중언어학> 27. 이중언어학회.

- 최명원. 2000. 광고와 광고언어: 광고에 반영된 시대정신의 언어적 표현에 대한 분석. <언어와 정보사회>. 서강대학교 언어정보원.
- 최명원. 2001. 독일의 광고언어에 반영된 시대정신과 그 변화. <독일어문학> 16. 한국독일어문학회.
- 최용기. 1999. 광고 언어 조사연구: 고유어와 한자어를 중심으로. <한말연구> 5. 한말연구학회.
- 최용기. 2000ㄱ. 광고의 국어 오용 사례: 비속한 표현과 비표준어의 사용. <새국어소식> 1월호. 국어연구원.
- 최용기. 2000ㄴ. 광고 언어 조사연구(1): 외래어 표기를 중심으로. <겨레어문학> 25. 겨레어문학회.
- 최용기. 2001ㄱ. 광고 언어 오용 사례: 광고 언어의 외래어 표기. <새국어소식> 7월호. 국어연구원.
- 최용기. 2001ㄴ. 광고 언어 오용 사례: 광고 언어의 외래어 표기(2). <새국어소식> 8월호. 국어연구원.
- 최용기. 2001ㄷ. 광고 언어 오용 사례: 문장 표현. <새국어소식> 9월호. 국어연구원.
- 한은경. 1997. 개항기 신문광고에 나타난 특성 및 시대상-황성신문을 중심으로-. <광고연구> 36. 한국방송광고공사.
- 한국광고단체연합회. 1996. <한국광고 100년 상·하>.
- 홍수진. 2005. 독일광고와 한국광고에 사용된 어휘의 특성에 관한 연구-인쇄광고의 헤드라인과 슬로건에 사용된 어휘의 품사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rens William F, 2003, Contemporary Advertising, <현대광고론>, 리대용·김봉현·김태용 공역, 한국맥그로힐(주)

개화기 신문광고 어휘의 사용 양상 연구

김준희(건국대학교)

광고는 사람들의 의식과 가치관 그리고 문화가 반영된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고 속 어휘를 조사하고 분석하는 일은 그 사회 문화를 이해하는 일일 것이고, 나아가 의식의 흐름이 어떻게 투영되어 나타나는지를 살필 수 있는 키워드가 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어휘 연구는 어휘론적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일일 것입니다.

이 연구는 개화기 신문 광고 어휘의 사용 양상을 고찰하기 위해 6000여개의 광고를 대상으로 어휘들의 빈도수를 조사하여 유형별 분류를 하고, 그 특징을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언어 사용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한다거나 그 결과를 통한 어휘 분류,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조사 연구는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조사 대상을 선정한다거나 조사 방법을 선택하는 일은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 중요한 전제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된 어휘를 분류하고 설명하는 일은 이러한 연구를 더 의미 있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선생님의 연구를 읽고 궁금한 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6000여개의 광고에 사용된 어휘들의 빈도수를 어떻게 조사했는지, 그리고 고빈도 어휘의 기준은 어떻게 잡았는지 조사 방법이 궁금합니다. 필자의 (2009)논문에서 ‘있다, 신문, 광고, 회사’ 등의 어휘를 고빈도 어휘로 추출하고 개화기 광고 내용 구성에 필수적으로 사용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본 논문이 그와 연장선상에서 진행된 연구인지 궁금합니다.
2. 이 연구의 결과에서 보여주는 유형별(?)로 정리한 세 가지의 결과를 좀 더 구체적이고 유의미한 분류로 설명할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가 개화기 신문광고에서만 보이는 특징인지도 궁금합니다. 결국 개화기라는 특정한 시기의 신문 광고라는 텍스트에서 고빈도 어휘 표가 갖는 결과의 유의미성을 설명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10쪽의 ‘많다, 새로, 팔다, 있다, 물건, 물품, 상품’ 등의 어휘들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이러한 단어가 과연 제품 판매의 새로운 개념을 알리기 위한 단어인지 궁금합니다. (물건이나 물품, 상품 등은 동일한 단어라고 봐도 상관없지 않을까요.)
마찬가지로 ‘보다, 오다, 사다, 바라다, 내립하다, 조량하다, 의론하다’라는 어휘들도 과연 소비자에게 제품 구입을 촉구하기 위한 어휘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4. 한편으로 빈도수에 의한 어휘 양상 연구가 갖는 한계점은 없을까 하는 의문이 생겼습니

다. 예를 들어 많이 출현한다는 것은 많이 사용한다는 것인데, 그것이 광고라는 형식적인 특성 때문에 갖게 되는 결과라면- 있다, 신문, 광고, 물건, 팝니다.-등의 어휘들이 과연 개화기 신문광고라는 특정 시기와 특정 매체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오히려 빈도수가 작다하더라도 이 시기에만 보여주는 특별한 어휘가 있다면 그것 역시 개화기의 신문 광고에 나타난 어휘의 특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5. 현대 신문들의 특성에 따라 광고 역시 제한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것처럼 여기서 자료로 삼은 4개의 신문들 특성으로 인한 고빈도 어휘로 보이는 부분은 없는지, 또한 광고의 종류에 따라 주로 사용하는 어휘들이 다를 것이라 생각되는데, 광고에 대한 분류의 필요성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신분별 부부 간의 상대존대법 종결어미 연구

-신소설을 중심으로-

박철주(서강대학교)

□ 차례 □

1. 들어가기
 2. 유산층 신분과 무산층 신분
 3. 신분에 따른 부부 간의 상대존대법
 - 3.1. 유산층 부부 간의 상대존대법
 - 3.2. 무산층 부부 간의 상대존대법
 4. 부부 간 대화에서의 종결어미
 - 4.1. 유산층 부부 간 대화에서의 종결어미
 - 4.2. 무산층 부부 간 대화에서의 종결어미
 5. 마무리
- 참고문헌

1. 들어가기

본 연구는 신소설상의 성별에 따른 입말체를 대조 분석함으로써 개화기 때의 남성 입말체와 여성 입말체를 고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남성어로 혹은 여성어로 분류되는 입말체가 현대 이전의 시기 즉, 개화기 때에는 어떠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부족한 바이다. 따라서 우리에게서 개화기 때의 남성 입말체 및 여성 입말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대국어 이전 시기인 개화기 때에 대해서는 사회언어학적인 실제 조사가 불가능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구마검, 귀의성, 모란병, 빈상설, 설중매, 송뢰금, 은세계, 치악산, 흥도화 등 총 9종류의 신소설에서 보이는 대화로써 이를 확인할 것이다. 이는 신소설이 그 시기의 시대상을 가장 충실히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어체로써 대화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대국어 이전의 개화기 언어생활에 대해 그 당시의 소설을 통하여 간접적이거나 확인함으로써 성별 입말체를 밝혀보고자 한다.

남성어와 여성어가 극명하게 대조되는 상황은 남성과 여성 간의 대화라 할 것이다. 그런데 남성과 여성 간의 대화에는 이성손님 간의 대화, 이성동료 간의 대화, 이성친구 간의 대화, 부부 간의 대화 등 여러 상황이 존재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발표 시간의 제한에 의하여 이러한 여러 상황 중에서 부부 간의 대화로 한정한다.

부부 간의 대화라 하여 모든 계층에서 동일한 말투로 말하지는 않는다. 대화는 교양의 수준에 의해 그 말투가 달라진다. 때문에 교양의 수준이 높은 부부의 대화에서 찾아지는 종결어미와 교양 수준이 낮은 부부의 대화에서 찾아지는 종결어미가 서로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부부 간의 대화에 대해 분석하되 교양의 수준에 따라 이를 구분하여 다루어야 한다. 개화기에 있어 이러한 교양의 수준에 대해 기준으로 삼기에 적합한 것은 바로 양반과 하인이라는

신분이다. 일반적으로 양반은 학업과 수양에 힘썼으나 하인에게는 이러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자연히 하인은 학업과 수양이 없거나 양반에 비해 현저히 뒤떨어지게 되었다. 이는 곧 교양의 수준으로 이어지므로 여기서는 부부 간의 교양 수준에 따른 말투를 이러한 신분상의 구분에 의해 분석하기로 한다. 다만, 양반은 사회적 기득권자이므로 이를 유산층인 것으로 하고 하인은 기득권을 얻지 못한 자들이므로 무산층인 것으로 하여 부부 간의 신분**에 따른 상대존대법과 종결어미를 분석하기로 한다.**

1) 개화기, 양반말의 종결어미에 대해서는 정수연(2006), 139쪽, 140쪽, 141쪽, 142쪽, 143쪽, 144쪽, 145쪽, 146쪽, 147쪽, 148쪽, 149쪽, 150쪽, 151쪽, 152쪽, 153쪽, 154쪽, 155쪽, 156쪽, 157쪽, 158쪽, 159쪽, 160쪽, 161쪽, 162쪽, 163쪽, 164쪽, 165쪽, 166쪽, 167쪽, 168쪽, 169쪽, 170쪽, 171쪽, 172쪽, 173쪽, 174쪽, 175쪽, 176쪽, 177쪽, 178쪽, 179쪽, 180쪽, 181쪽, 182쪽, 183쪽, 184쪽, 185쪽, 186쪽, 187쪽, 188쪽, 189쪽, 190쪽, 191쪽, 192쪽, 193쪽, 194쪽, 195쪽, 196쪽, 197쪽, 198쪽, 199쪽, 200쪽, 201쪽, 202쪽, 203쪽, 204쪽, 205쪽, 206쪽, 207쪽, 208쪽, 209쪽, 210쪽, 211쪽, 212쪽, 213쪽, 214쪽, 215쪽, 216쪽, 217쪽, 218쪽, 219쪽, 220쪽, 221쪽, 222쪽, 223쪽, 224쪽, 225쪽, 226쪽, 227쪽, 228쪽, 229쪽, 230쪽, 231쪽, 232쪽, 233쪽, 234쪽, 235쪽, 236쪽, 237쪽, 238쪽, 239쪽, 240쪽, 241쪽, 242쪽, 243쪽, 244쪽, 245쪽, 246쪽, 247쪽, 248쪽, 249쪽, 250쪽, 251쪽, 252쪽, 253쪽, 254쪽, 255쪽, 256쪽, 257쪽, 258쪽, 259쪽, 260쪽, 261쪽, 262쪽, 263쪽, 264쪽, 265쪽, 266쪽, 267쪽, 268쪽, 269쪽, 270쪽, 271쪽, 272쪽, 273쪽, 274쪽, 275쪽, 276쪽, 277쪽, 278쪽, 279쪽, 280쪽, 281쪽, 282쪽, 283쪽, 284쪽, 285쪽, 286쪽, 287쪽, 288쪽, 289쪽, 290쪽, 291쪽, 292쪽, 293쪽, 294쪽, 295쪽, 296쪽, 297쪽, 298쪽, 299쪽, 300쪽, 301쪽, 302쪽, 303쪽, 304쪽, 305쪽, 306쪽, 307쪽, 308쪽, 309쪽, 310쪽, 311쪽, 312쪽, 313쪽, 314쪽, 315쪽, 316쪽, 317쪽, 318쪽, 319쪽, 320쪽, 321쪽, 322쪽, 323쪽, 324쪽, 325쪽, 326쪽, 327쪽, 328쪽, 329쪽, 330쪽, 331쪽, 332쪽, 333쪽, 334쪽, 335쪽, 336쪽, 337쪽, 338쪽, 339쪽, 340쪽, 341쪽, 342쪽, 343쪽, 344쪽, 345쪽, 346쪽, 347쪽, 348쪽, 349쪽, 350쪽, 351쪽, 352쪽, 353쪽, 354쪽, 355쪽, 356쪽, 357쪽, 358쪽, 359쪽, 360쪽, 361쪽, 362쪽, 363쪽, 364쪽, 365쪽, 366쪽, 367쪽, 368쪽, 369쪽, 370쪽, 371쪽, 372쪽, 373쪽, 374쪽, 375쪽, 376쪽, 377쪽, 378쪽, 379쪽, 380쪽, 381쪽, 382쪽, 383쪽, 384쪽, 385쪽, 386쪽, 387쪽, 388쪽, 389쪽, 390쪽, 391쪽, 392쪽, 393쪽, 394쪽, 395쪽, 396쪽, 397쪽, 398쪽, 399쪽, 400쪽, 401쪽, 402쪽, 403쪽, 404쪽, 405쪽, 406쪽, 407쪽, 408쪽, 409쪽, 410쪽, 411쪽, 412쪽, 413쪽, 414쪽, 415쪽, 416쪽, 417쪽, 418쪽, 419쪽, 420쪽, 421쪽, 422쪽, 423쪽, 424쪽, 425쪽, 426쪽, 427쪽, 428쪽, 429쪽, 430쪽, 431쪽, 432쪽, 433쪽, 434쪽, 435쪽, 436쪽, 437쪽, 438쪽, 439쪽, 440쪽, 441쪽, 442쪽, 443쪽, 444쪽, 445쪽, 446쪽, 447쪽, 448쪽, 449쪽, 450쪽, 451쪽, 452쪽, 453쪽, 454쪽, 455쪽, 456쪽, 457쪽, 458쪽, 459쪽, 460쪽, 461쪽, 462쪽, 463쪽, 464쪽, 465쪽, 466쪽, 467쪽, 468쪽, 469쪽, 470쪽, 471쪽, 472쪽, 473쪽, 474쪽, 475쪽, 476쪽, 477쪽, 478쪽, 479쪽, 480쪽, 481쪽, 482쪽, 483쪽, 484쪽, 485쪽, 486쪽, 487쪽, 488쪽, 489쪽, 490쪽, 491쪽, 492쪽, 493쪽, 494쪽, 495쪽, 496쪽, 497쪽, 498쪽, 499쪽, 500쪽, 501쪽, 502쪽, 503쪽, 504쪽, 505쪽, 506쪽, 507쪽, 508쪽, 509쪽, 510쪽, 511쪽, 512쪽, 513쪽, 514쪽, 515쪽, 516쪽, 517쪽, 518쪽, 519쪽, 520쪽, 521쪽, 522쪽, 523쪽, 524쪽, 525쪽, 526쪽, 527쪽, 528쪽, 529쪽, 530쪽, 531쪽, 532쪽, 533쪽, 534쪽, 535쪽, 536쪽, 537쪽, 538쪽, 539쪽, 540쪽, 541쪽, 542쪽, 543쪽, 544쪽, 545쪽, 546쪽, 547쪽, 548쪽, 549쪽, 550쪽, 551쪽, 552쪽, 553쪽, 554쪽, 555쪽, 556쪽, 557쪽, 558쪽, 559쪽, 560쪽, 561쪽, 562쪽, 563쪽, 564쪽, 565쪽, 566쪽, 567쪽, 568쪽, 569쪽, 570쪽, 571쪽, 572쪽, 573쪽, 574쪽, 575쪽, 576쪽, 577쪽, 578쪽, 579쪽, 580쪽, 581쪽, 582쪽, 583쪽, 584쪽, 585쪽, 586쪽, 587쪽, 588쪽, 589쪽, 590쪽, 591쪽, 592쪽, 593쪽, 594쪽, 595쪽, 596쪽, 597쪽, 598쪽, 599쪽, 600쪽, 601쪽, 602쪽, 603쪽, 604쪽, 605쪽, 606쪽, 607쪽, 608쪽, 609쪽, 610쪽, 611쪽, 612쪽, 613쪽, 614쪽, 615쪽, 616쪽, 617쪽, 618쪽, 619쪽, 620쪽, 621쪽, 622쪽, 623쪽, 624쪽, 625쪽, 626쪽, 627쪽, 628쪽, 629쪽, 630쪽, 631쪽, 632쪽, 633쪽, 634쪽, 635쪽, 636쪽, 637쪽, 638쪽, 639쪽, 640쪽, 641쪽, 642쪽, 643쪽, 644쪽, 645쪽, 646쪽, 647쪽, 648쪽, 649쪽, 650쪽, 651쪽, 652쪽, 653쪽, 654쪽, 655쪽, 656쪽, 657쪽, 658쪽, 659쪽, 660쪽, 661쪽, 662쪽, 663쪽, 664쪽, 665쪽, 666쪽, 667쪽, 668쪽, 669쪽, 670쪽, 671쪽, 672쪽, 673쪽, 674쪽, 675쪽, 676쪽, 677쪽, 678쪽, 679쪽, 680쪽, 681쪽, 682쪽, 683쪽, 684쪽, 685쪽, 686쪽, 687쪽, 688쪽, 689쪽, 690쪽, 691쪽, 692쪽, 693쪽, 694쪽, 695쪽, 696쪽, 697쪽, 698쪽, 699쪽, 700쪽, 701쪽, 702쪽, 703쪽, 704쪽, 705쪽, 706쪽, 707쪽, 708쪽, 709쪽, 710쪽, 711쪽, 712쪽, 713쪽, 714쪽, 715쪽, 716쪽, 717쪽, 718쪽, 719쪽, 720쪽, 721쪽, 722쪽, 723쪽, 724쪽, 725쪽, 726쪽, 727쪽, 728쪽, 729쪽, 730쪽, 731쪽, 732쪽, 733쪽, 734쪽, 735쪽, 736쪽, 737쪽, 738쪽, 739쪽, 740쪽, 741쪽, 742쪽, 743쪽, 744쪽, 745쪽, 746쪽, 747쪽, 748쪽, 749쪽, 750쪽, 751쪽, 752쪽, 753쪽, 754쪽, 755쪽, 756쪽, 757쪽, 758쪽, 759쪽, 760쪽, 761쪽, 762쪽, 763쪽, 764쪽, 765쪽, 766쪽, 767쪽, 768쪽, 769쪽, 770쪽, 771쪽, 772쪽, 773쪽, 774쪽, 775쪽, 776쪽, 777쪽, 778쪽, 779쪽, 780쪽, 781쪽, 782쪽, 783쪽, 784쪽, 785쪽, 786쪽, 787쪽, 788쪽, 789쪽, 790쪽, 791쪽, 792쪽, 793쪽, 794쪽, 795쪽, 796쪽, 797쪽, 798쪽, 799쪽, 800쪽, 801쪽, 802쪽, 803쪽, 804쪽, 805쪽, 806쪽, 807쪽, 808쪽, 809쪽, 810쪽, 811쪽, 812쪽, 813쪽, 814쪽, 815쪽, 816쪽, 817쪽, 818쪽, 819쪽, 820쪽, 821쪽, 822쪽, 823쪽, 824쪽, 825쪽, 826쪽, 827쪽, 828쪽, 829쪽, 830쪽, 831쪽, 832쪽, 833쪽, 834쪽, 835쪽, 836쪽, 837쪽, 838쪽, 839쪽, 840쪽, 841쪽, 842쪽, 843쪽, 844쪽, 845쪽, 846쪽, 847쪽, 848쪽, 849쪽, 850쪽, 851쪽, 852쪽, 853쪽, 854쪽, 855쪽, 856쪽, 857쪽, 858쪽, 859쪽, 860쪽, 861쪽, 862쪽, 863쪽, 864쪽, 865쪽, 866쪽, 867쪽, 868쪽, 869쪽, 870쪽, 871쪽, 872쪽, 873쪽, 874쪽, 875쪽, 876쪽, 877쪽, 878쪽, 879쪽, 880쪽, 881쪽, 882쪽, 883쪽, 884쪽, 885쪽, 886쪽, 887쪽, 888쪽, 889쪽, 890쪽, 891쪽, 892쪽, 893쪽, 894쪽, 895쪽, 896쪽, 897쪽, 898쪽, 899쪽, 900쪽, 901쪽, 902쪽, 903쪽, 904쪽, 905쪽, 906쪽, 907쪽, 908쪽, 909쪽, 910쪽, 911쪽, 912쪽, 913쪽, 914쪽, 915쪽, 916쪽, 917쪽, 918쪽, 919쪽, 920쪽, 921쪽, 922쪽, 923쪽, 924쪽, 925쪽, 926쪽, 927쪽, 928쪽, 929쪽, 930쪽, 931쪽, 932쪽, 933쪽, 934쪽, 935쪽, 936쪽, 937쪽, 938쪽, 939쪽, 940쪽, 941쪽, 942쪽, 943쪽, 944쪽, 945쪽, 946쪽, 947쪽, 948쪽, 949쪽, 950쪽, 951쪽, 952쪽, 953쪽, 954쪽, 955쪽, 956쪽, 957쪽, 958쪽, 959쪽, 960쪽, 961쪽, 962쪽, 963쪽, 964쪽, 965쪽, 966쪽, 967쪽, 968쪽, 969쪽, 970쪽, 971쪽, 972쪽, 973쪽, 974쪽, 975쪽, 976쪽, 977쪽, 978쪽, 979쪽, 980쪽, 981쪽, 982쪽, 983쪽, 984쪽, 985쪽, 986쪽, 987쪽, 988쪽, 989쪽, 990쪽, 991쪽, 992쪽, 993쪽, 994쪽, 995쪽, 996쪽, 997쪽, 998쪽, 999쪽, 1000쪽

단, 상대존대법의 경우 존대의 진정성에 대해서도 아울러 고려하여 분석할 것이다. 이는 부부 간의 대화에 있어 표면상의 상대존대와 내재하는 상대존대가 서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이다. 즉, 표면상의 상대존대와 이의 진정성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상대존대의 연구에 있어 진정성에 대한 것은 배제되어 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의 진정성에 대해 아울러 다룸으로써 상대존대의 분석에 있어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자 한다.¹⁾

2. 유산층 신분과 무산층 신분

개화기의 신소설에서 신분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하나는 유산층이고 다른 하나는 무산층이다. 그런데 유산층과 무산층의 구분을 단지 유산층의 경우는 재산이 있는 사람으로 그리고 무산층의 경우는 재산이 없는 사람으로 정의하게 되면 비록 몰락한 집안이지만 중·상위층으로서의 사회적 명분만은 유지하고 있는 사람도 무산층으로 분류된다. 이 경우 이들에게 무산층이란 말은 적절하지 않다. 이유는 이들이 비록 가세가 기울어졌다고 하더라도 빈궁함 속에서도 여전히 하인을 부리며 사회적으로 대우를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반야’의 ‘몽조’이다. ‘몽조’에서 ‘한대홍’의 부인은 남편의 죽음으로 인해 형편없이 기울어진 가세 때문에 샴바느질로 근근이 살아가고 있는 여인이다. 그런데도 그녀는 ‘검둥어멈’이라는 하녀를 두며 사회적으로도 하대의 신분이 아니다.

따라서 단지 재산의 정도만으로써 유산층과 무산층으로 나누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체적으로 양반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세도가 현재 있거나 또는 과거에 있었던 사람 또는 학식이 있거나 남에게 종속되지 않은 사람이면 가세에 상관없이 ‘유산층’으로 분류하였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하인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학식이 없고 세도 역시 있었던 적이 없으며 남에게 종속되어 있으면 ‘무산층’인 것으로 하였다.

3. 신분에 따른 부부 간의 상대존대법

3.1. 유산층 부부 간의 상대존대법

3.1.1. 남편 말의 상대존대법

개화기 신소설에서는 부부 간의 대화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아래에서 보이는 대화가 바로 부부 간에 이루어진 대화로서 화자는 남편이고 청자는 아내이다. 그리고 화자의 신분은 벼슬 직함을 가진 양반이거나 양반과 사돈관계를 맺은 중인 계층의 사람 또는 세도는 없으나 가산도 있고 남에게 종속되지 않은 자들이다.

- (1) 가. 마누라, 여보정신좁치리오 글세, 우이이리하오 너가마누라의게, 적악을하야, 마누라가, 글로인병치스, 할, 지경이면, 너가혼즈사라 잇서, 무슨복을받깃소 여보눈좁써 보오[귀의성: 남편(김승지)→아내, 96쪽]
- 나. 여보 무당판슈라흐는것은 다 쓸디 업는것이온다 저의들이 무엇을 알며 귀신이러흐는 것이 더구나 허무치안이호오 누가 눈으로 보앗소 설혹 귀신이 잇기로 나의 전마누라 들이 다 싱시에 심덕이 극히 착흐든 사람인디 죽어젧기로 무슨 침탈을 흐겠소 다시는 리씨니박씨니흐는 부당흐말을고지 듯지마오[구마검: 남편(함진희)→아내(최씨), 4쪽]
- 다. 너가참집에잇다가는 점 마음만 좁쓰러지고 쏘속이상하여 견텔슈가업서 어디든지 멀즉이가셔 집안일을모로고 지낼 작정이오 이왕집을써날터이면 아쥬멀즉이가져 서울은으니가셔잇깃소[치악산: 남편(백돌)→아내(최씨부인), 20쪽]
- 라. 사장의니환이 대단히 침중흐셔 지금대변중이라고 슈씨를모시러 하인을 보닛구려[홍도화: 남편(홍생원)→아내(장씨), 39쪽]
- 마. 여보 마누라 우리가 한참당년의 언의바름이 드리불지 너여불지 쌀과돈을물쓰듯흐며 남불지안이흐게 지닌던터가안이오 기구명의 흘너나아가던밥만히도 허리씩를 글너가며먹겠고 한번입고 버셔버린 의복만히도 싱전웃걱정은 안이홀것을 의구-휘-우리집안이 이쳐디 될줄이야 누가 압흘너야다보앗소[모란병: 남편(현고직이)→아내, 3쪽]
- 바. 마누라 여보오 하인불너 압집에가셔 술이나 좀 밧아오라호오[설중매: 남편(권침사)→아내, 60쪽]
- 사. 그래, 쫄을, 기가보닛다고, 남들이, 보평을대단이흐는말을듯고 망칙흐소문이라흐나, 소문말고, 아모것이, 난대도, 흘일업지, 이왕지닌일을 후회흐면, 쓸대잇나[홍도화:남편(이직각)→아내(시동집), 32쪽]
- 아. 그것들이 오작 괴롭겠소 명절이 지나니 저희가 고기흐 칼을 마술 보나[송퇴금: 남편(박사과)→박사과부인, 66쪽]
- 자. 압다, 이런답답한물도잇느, 빗굽흔거슨, 무어시며, 그동안먹고쓴거슨, 무엇인가 우리가빅척근두에, 썩, 죽을지경에, 김승지령감이춘천군수로 내려와서, 우리길순이를, 첩으로들라흐니, 참농꿈꾸엇지 너가전에는, 풍언흐느만, 보아도, 설설기였더니, 춘천군슈사위본후에는, 너가읍너를, 드러가면, 동지님동지님호고, 어디를가던지, 녹회접시, 술잔이써날씩가, 업섯네 그렇감이, 비셔승으로, 갈려드러가지물고, 춘천 군수로, 몇히만, 더잇섯써면, 우리가수늘본호얏네 예편네들은, 아무것도모르면서, 집안에서, 방정을셀고잇스니, 될것도아니되야잠작고, 가마니만잇게, 그냥반덕에, 우리가, 쏘수늘째잇느니[귀의성: 남편(강동지)→아내, 4-5쪽]
- 차. 응 그도그러하지 그러나 너가킵기가만코 성품이 이상흐사람이야 요식세상에 돈만 만이쓰면쉽게노혀나오는줄은 아지마는 나라를망호려고 괴를버력버력쓰는놈의턱밧해 돈 표를써셔 드리밀고 슬러달나 노아달나 그싸워청호고 심흔마음은읍느겠 죽이거나 살니거나 데 흘씩로하라지[은세계: 남편(최병도)→아내, 27쪽]

위의 대화에서 (1가)의 ‘김승지’는 가산이 풍족한 자로서 춘천 군수를 지냈으며 지금은 명예직인 정3품인 ‘승지’를 지내고 있는 전형적인 ‘유산층 계급’의 인물이다. ‘김승지’는 아내에 대해 위에서 보듯이 ‘하오체’를 씀으로써 아내를 존대해주고 있다. 마찬가지로 (1나)의

‘함진희’도 아내에게 ‘하오체’를 써서 존대해주고 있다. 그는 종갓집 사람이자 하인을 부리는 자로서 부인 ‘최씨’에게 ‘-오’, ‘-소’로써 말을 하고 있다. 하지만 ‘-니다’로도 말을 하여 ‘해라체’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니다’가 쓰인 “무당관슈라흐는것은 다 쓸디 업는것이온다”는 일종의 정의와 같은 것이므로 아내와의 대화와는 구분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1나)에서 ‘함진희’는 ‘하오체’로 일관하여 아내를 적당히 예우 해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1다)의 ‘백돌’은 아버지가 오늘날 ‘차관보’에 해당하는 정3품 당상관직에 있는 양반으로서 ‘판서’ 벼슬의 집안에 장가를 든 전형적인 상위층 사람이다. 그는 아내에게 ‘-오’와 ‘-소’를 사용하고 있어 (1나)의 ‘함진희’와 같이 ‘하오체’를 아내에게 쓰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라)의 경우 아내에게 ‘하오체’의 ‘-구려’를 쓰고 있는 ‘홍생원’은 부친이 판서였고 가산도 상당하였으나 지금은 가세가 기울어 궁색한 살림을 하고 있는 양반이다. 그러나 생활과는 상관없이 그의 아내에 대한 말씨는 다른 여느 양반과 마찬가지로 ‘하오체’를 쓰고 있다. (1마)의 ‘현고직이’는 가세가 기울어진 자로서 역시 중위 계층에 속하는 자라 할 것이다. 그러나 선혜청의 창고지기로 지낼 때에는 상당히 부유하고 위세 좋게 지냈던 자이다. 이러한 ‘현고직이’의 아내에 대한 말도 역시 ‘-오’, ‘-소’이다. 이처럼 아내에게 ‘하오체’를 쓰는 것은 (1바)의 ‘권첨사’에게서도 볼 수 있다. 십사오년 전에 첨사를 지낸 ‘권첨사’는 여자 주인공인 ‘매선’의 선친과의 형제를 맺은 사이로 지금은 ‘매선’의 숙부로서 행세를 하는 자이다. 그는 글을 배웠고 벼슬살이도 했던 자이므로 유산층에 속하는 사람이 된다.

하지만 (1사)에서는 예문에서 보듯이 ‘하오체’가 아닌 ‘하계체’를 쓰고 있다. (1사)는 남편이 규장각 소속의 정3품~종6품에 해당하는 ‘직각’ 벼슬을 한 자이며 가세 또한 빈궁하지 않은 상위층 사람이다. 그가 아내 ‘시동집’에 한 말 중에는 ‘-지’와 같은 ‘해체’도 쓰이고 있으나 이는 “소문말고, 아모것이, 난대도, 홀일업지”에서 보이는 것이므로 대화중 혼잣말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아내의 말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은 아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계체’에 해당하는 말씨로 아내에게 말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아)의 ‘박사과’는 가산이 풍족하지는 않으나 여유가 있는 자로서 아내에게 ‘-소’로써 ‘하오체’의 말을 하면서 또한 ‘-나’로써 ‘하계체’의 말도 하고 있다. 그런데 아내에게 ‘하계체’를 쓰는 것은 (1자)도 마찬가지이다. (1자)는 딸을 양반집 첩으로 내준 중인 계층의 ‘강동지’가 자신의 아내에게 하는 말이다. ‘강동지’는 아내에게 ‘하오체’를 전혀 쓰지 않고 있다. 대신 그는 ‘-나’, ‘-가’, ‘-네’, ‘-게’, ‘-니’와 같은 ‘하계체’를 쓰고 있다. (1자)에서는 ‘반말체’인 ‘해체’의 ‘-지’와 ‘-야’도 보이나 “참농꿈꾸엇지”와 “예편네들은, 아무것도모르면서, 집안에서, 방정을떨고 잇스니, 될것도아니되야”는 아내의 말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자기 혼자의 말이다. 그러므로 ‘강동지’는 아내에 대해서는 ‘하계체’만을 사용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1차)의 ‘최병도’는 벼슬을 하지 못한 양반으로서 부부가 악착같이 돈을 모은 부자이다. 비록 벼슬은 없을지언정 부유한 중위층에 속한다. 그런데 예문에서 보듯이 ‘최병도’ 역시 아내에게 ‘합쇼체’는 물론 ‘하오체’도 쓰지 않고 있다. 대신 그는 ‘-지’, ‘-야’, ‘-걸’과 같은 ‘반말체’의 말씨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유산층의 남편은 아내에게 다양한 말씨를 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아내에게 ‘반말체’를 쓴 남편이 다른 남편들과는 달리 유독 그자만 아내를 무시하여 낮추어 대접하였는가 이다. ‘합쇼체’가 아닌 ‘하오체’ 정도를 쓴 남편은 그래도 아내에 대해 어느 정도 대접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해체’를 쓴 경우마저 아내를 어느 정도 선에서 대접을 한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아내에게 ‘해체’를 쓴 (1차)의 ‘최병도’는 아내를 무시하며 지내는 자라 할 것이다. 그러나 다음에서 보듯이 ‘최병도’는 아내를 무시하지 않고

공대한 사람이다.

(2) 가. 너마음은 엇더케드러가던지 되야그는되로 두고봅시다[은세계: 남편(최병도)→아내, 28쪽]

나. 그 지물을씩셔먹으려고 업는죄를민드러서 남을망히놋코 지물을씩셔먹는세상이니 그런줄이나 알고지니오[은세계: 남편(최병도)→아내, 26쪽]

위 (2)는 (1차)에서 아내에게 ‘해체’를 쓴 ‘최병도’가 아내에게 ‘합쇼체’와 ‘하오체’를 쓰고 있는 것을 보인 것이다. 그러므로 ‘최병도’가 결코 아내를 업신여기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최병도’의 ‘해체’는 기존의 상대존대법에서와 같이 상대를 낮게 대접한 말씨가 아니라 여전히 아내를 공대해주는 말씨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 ‘최병도’가 아내에게 ‘해체’를 쓴 이유는 남편의 아내에 대한 말씨에 ‘해체’에 해당하는 말씨가 있기에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남편이 아내를 극진히 공대하였음은 다음 ‘백돌’과 ‘권첩사’의 말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3) 가. 나는마누라가죽고업는사름으로녀겨셔 너가 몇히만에 고국에도라오던지 다시만나는 날에는 죽엇던사름을만나보거니 녀겝스면 더욱반가울터이니 부디셔로잇고지넒시다[치악산: 남편(백돌)→아내, 24쪽]

나. 우리 이일잘되라고 축원을 하야보옵시다[설중매: 남편(권첩사)→아내, 60쪽]

‘백돌’과 ‘권첩사’는 (1다)와 (1바)에서 각각 아내에게 ‘하오체’를 썼던 남편이다. 하지만 (3가)와 (3나)에서는 각자 ‘합쇼체’를 아내에게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아내에게 ‘하오체’를 썼든 ‘해체’를 썼든 이들의 아내에 대한 근본적인 말씨는 가장 공대하는 ‘합쇼체’가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아내에게 ‘하오체’나 ‘해체’를 쓴 것은 아내를 홀대하거나 무시해서가 아니라 단지 아내에게 쓸 수 있는 말씨이어서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들 남편은 아내에 대한 대접이 죽 꿇듯이 변덕이 심한 자들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들 남편은 일관되게 아내를 공대하는 자들이므로 대접에 대한 변덕에 의해 말씨가 바뀐 것이 아니고 단지 아내에게 쓸 수 있는 종결어미에 ‘하오체’ 이하도 있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유산층의 남편은 아내를 내심 진정으로 공대해주었다고 할 것이다.

3.1.2. 아내 말의 상대존대법

앞에서 유산층 남편은 아내에 대해 진정성에 있어 존대 말씨를 사용하였음이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유산층 아내의 경우에 있어서 남편에 대해 어떠한 말씨를 사용하였는지 확인해보기로 한다.

(4) 가. 여보 그레지를 마르시오 그리 어미의게 뒤여지도록미마진남순이는 압흐지아니하고 시어미더러 욱흐고악담흐던 며누리가 너소리에속이압홀가 염녀가되나보구려 너가며누리의게 무엇을그리심히구러셔 그런소리를하시오 그리 너속으로나온자식은 밍를마져도 앓쳐루은마음이 조곰도업시 그어린남순이더러 악담을호고잇단말이오 남순이가 시집을가셔 며누리복는시어미를만느셔 밍보다더압푸고쓰린 꾸지람만듯고 고싱을 흐면 영감속이 시원하시깃소 나는우리남순이를 시집보낼썩에 계모시

어머니잇는 전실택머나리 될곳으로 시집을보너깃소 남의전실택머너리만되면 계모 시어미더러 욱을헝기로 겨관이잇소 시어미더러 뒤여지라고 악담을헝기로 겨관이 잇소[치악산: 아내(김씨부인)→남편(홍참의), 16-17쪽]

나. 여보 너걱정은 마르시오 더장부 몸이되야 처자의게만 구구헌마음이 잇스면 무슨 사업을헝시깃소[치악산: 아내→남편(백돌), 21쪽]

다. 우이그렛케치우시단말이오 그런고로, 첩이안히만, 못헝드논거시지오 춘천집방에 그셔, 몸을얼려가지고오시더니, 너방에와셔, 몸을녹이시는구려 어셔, 이, 아리목으로 드러오시오[귀의성: 아내→남편(김승지), 64쪽]

라. 령감 너그 더 잘못헝일인디 하인들 걱덩헝실것 잇소 집안에 우환도하도 써너지안이 헝기에 그리면 너홀그하고 지각업논 일을 헝섯구려 그리기게 너편너지 그리치안이헝면 너편너라고 헝겝소[구마검: 아내(최씨)→남편(함진희), 22쪽]

마. 의그 녀오걱정말으시오 그것이다 전싱팔즈로 이싱의 맞는것이니 인력으로헝논슈가잇소[모란병: 아내→남편(현고직이), 3쪽]

바. 여보자식의게, 저몹슬노르슬하고, 걱정이아니된단말이오 나는, 우리 길순의싱각을 헝면, 썩가녹는듯헝오 자식이라고논, 그것하논뿐인디, 금옥갖치, 길렀다가, 지금와셔저러헌신세가되니, 그거시, 뉘, 탓이오[귀의성: 아내→남편(강동지), 3쪽]

사. 여보 그거시 무슨말씀이오 무슨죄를 그렛케만히 지호섯단말이오 열길물속은아라도 헝길사름의속은 모른다더니 너너너외간이라도 그러실줄은 몰랏쇼구려 삼순구식을 못어더먹는사름이라도 제마음만올케가지고그른일만 아니헝고잇스면 어너셔던지 헝셔가잇슬거시오 만일 그른마음을 먹고 남의게 적악을헝던지나라에죄될일을 흘지경이면헝날이미워헝고 조물이지고야 필경 그 죄를바들거시니 사름이죄를짓고 죄맞는거슬 엇지헌탄한단말이오 마르시오 마르시오 무슨죄를짓고 저지경을당헝시오[은세계: 아내→남편(최병도), 24-25쪽]

위의 (4)에서 화자는 모두 유산층 집안의 아내들로서 먼저 (4가)를 보면 ‘-오’, ‘-구려’, ‘-소’로써 ‘하오체’를 쓰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유산층 남편의 말씨와 같은 것으로서 이러한 말씨는 (4나)에서도 동일하다. (4나)의 아내는 남편 ‘백돌’에게 ‘-오’와 ‘-소’로써 ‘하오체’의 말을 하고 있다. (4다)도 역시 ‘-오’, ‘-구려’의 ‘하오체’ 말씨를 쓰고 있다. (4라)도 마찬가지로 아내 ‘최씨’가 남편 ‘함진희’에게 ‘-구려’, ‘-소’로써 ‘하오체’를 사용하고 있다. (4마)와 (4바)에서도 아내는 남편에게 ‘-오’와 ‘-소’로써 ‘하오체’를 썼고, (4사) 역시 ‘-오’와 ‘-구려’의 ‘하오체’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위 (4)에서는 모든 부인들이 일관되게 ‘하오체’의 말씨를 남편에게 쓰고 있음이 확인된다. 그러므로 유산층 아내는 남편에게 적어도 ‘하오체’의 말씨에 해당하는 공대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들 부인이 남편에게 ‘하오체’만을 사용한 것은 아니다. 유산층 남편이 아내에게 ‘합쇼체’로써 공대하였듯이 이들 유산층 아내들도 남편에게 ‘합쇼체’로써 공대하고 있다.

(5) 가. 이드음부터는 집안만편안헝드면 리씨 박씨 두귀신을 너등에 업어모시기라도헝리다[구마검: 아내(최씨)→남편(함진희), 22쪽]

나. 그러헝실터이면, 춘천집을불러드려다가, 저, 건넌방에듭시다 두집비치를하면, 돈만, 더들고, 령감이 당기시기도, 비편헝니, 오늘부터, 한집에잇게합시다[귀의성:

아내 → 남편(김승지), 65쪽]

- 다. 령감은 무슨일을 헉시던지 밧갓도량만 잘 헉시면 나는 잠흔잠 못잘티도 남의바누
질가지를 부즈런히 헉야 우리먹고 입는것이나 황씨딕에 폐를 끼치지나 아니 헉도록
헉 십시다[모란병: 아내→남편(현고직이), 78쪽]

위에서 (5가)의 아내는 (4라)에서 남편에게 ‘하오체’를 썼던 부인이다. 하지만 (5가)에서는 ‘-리다’와 같은 ‘합쇼체’를 사용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5나)의 아내도 (4다)에서 남편에게 ‘하오체’를 사용했었다. 그렇지만 (5나)에서는 ‘합쇼체’를 쓰고 있다. 그리고 (5다)도 역시 (4마)에서 ‘하오체’를 썼지만 여기에서는 ‘합쇼체’를 쓰고 있다. 따라서 이들 부인도 남편과 한 가지로 내심의 진정성에 있어 ‘합쇼체’가 근간을 이룬다고 할 것이다. 다만 부인이 남편에게 ‘하오체’도 쓰는 것은 남편에게 사용하는 말씨의 목록에 ‘하오체’도 들어 있어서 이를 사용하였을 뿐인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3.2. 무산층 부부 간의 상대존대법

3.2.1. 남편 말의 상대존대법

유산층의 남편은 현재 생활이 부유하든 궁색하든 아내에 대해서는 공대의 말씨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무산층의 남편은 유산층 남편의 말씨에 비해 사뭇 다르다. 다음에 보이는 대화는 무산층에 속하는 사람의 말로서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말이다.

- (6) 가. 남, 열느네티, 윈 방정을그리씨러 느는, 느 헉고시푼티로, 헉지, 너 헉라네티로 홀 병신
갓흔놈업다 남의비우건디리지말고, 가문 이잇거라, 한쥬먹에마저 뒤여질라 계집이사
홀을, 킵을 으니마지면, 여우되느니라[귀의성: 남편(작은돌)→아내(점순), 30쪽]
- 나. 무엇을밭오였쥬라고, 더리 홀까, 공연히, 남의속도, 물으고, 방정을쓰네[홍도화: 남
편(옥돌)→아내(칠월), 22쪽]
- 다. 누가 술을 먹어 술먹는것 입자 눈살로 보앗소 아모리 녀편네기로 소갈머리업시
말도 헉지 너가 언제 술을먹어 갓득이나 속에 불덩어리가 붓석붓석 치밀어 올라
오는 딕 제미붓홀 오날 너 헉나쥬이고 나죽엇시면 고만이로 구나 이런쥬 칼이라도
잇스면 너 빅를씨고 창자를너여 보엿스면 술먹엇나 안이먹엇나 시원히 죤알게[빈
상설: 남편(복단아비)→아내(복단어미), 4-5쪽]
- 라. 이녀 네 정신은 발셔엿라궁에서 썩셔간나보구나 요란스려운거시 다무엇이나 날을
죤시 최가놈으로알고 헉는말이 냐 나는 장고두쇠다 이녀두말말고 최가가 엇더
흔놈인지 그것만말헉여라 셔슴다가는 헉쥬먹에마저 뒤여질라[치악산: 남편(고두쇠)
→아내(옥단), 58쪽]
- 마. 경을칠년 너가 물으는줄알구 이녀 엇의죤보즈[치악산: 남편(길동)→아내(추월)]
제길홀 이녀아 드난 헉는너는 셔방을 굴머죽게히야 올 흐나[치악산: 남편(길동)→아
내(추월)]

위 (6)의 화자는 모두 하인들로서 전형적인 무산층 계급의 사람들이다. 그런데 유산층 계급의 남편들은 대체로 ‘하오체’ 이상의 말씨를 쓰고 있는데 반해 여기의 무산층 계급의 남편들은 대부분이 청자를 가장 낮추어 대하는 ‘해라체’로써 아내에게 말을 하고 있다. (6가)

의 ‘작은돌’은 자신의 아내 ‘점순’에게 ‘해체’의 ‘-어’로써 말을 하지만 곧이어 ‘해라체’의 ‘-다’, ‘-라’로 말씨가 바뀌고 있다. 다만 (6나)에서는 남편인 ‘옥돌’이 아내 ‘칠월’에게 ‘하계체’의 ‘-가’와 ‘-네’로 말하고 있다. 하지만 (6다)의 ‘복단아비’는 아내 ‘복단어미’에게 ‘-어’, ‘-소’, ‘-지’ ‘-데’로써 ‘해체’의 말씨를 보이고 이외에도 ‘-구나’와 같은 ‘-해라체’도 쓰고 있다. (6라)에서는 남편 ‘고두쇠’가 자기 아내 ‘옥단’에게 ‘-구나’, ‘-냐’, ‘-다’, ‘-라’로써 처음부터 끝까지 ‘해라체’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6마)에서도 마찬가지로 ‘길동’은 자신의 아내 ‘추월’에게 ‘-자’와 ‘-으냐’로써 오직 ‘해라체’로만 말을 하고 있다.

이처럼 청자에 대해 가장 낮추는 말씨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무산층 남편의 말은 대체적으로 ‘하오체’ 이상의 말씨를 아내에게 쓰는 유산층 남편의 말과 대조된다 하겠다. 그런데 무산층 남편이더라도 아내에게 ‘하오체’나 ‘해요체’는 물론 ‘합쇼체’까지도 쓰는 것을 볼 수가 있다.

(7) 여보복단어머니 나갑시다 밋고바랄곳이어디요 다쓸디업소 어셔나와요 동기간되시는 서방님말씀도 저러ㅎ신디 우리가 익쓰고걱정ㅎ것이 무엇이란말이요[빈상설: 남편(복단아비)→아내(복단어미), 66쪽]

‘빈상설’의 ‘복단아비’는 (6다)에서의 ‘해라체’와 ‘해체’ 외에도 (7)에서와 같이 아내에게 ‘합쇼체’와 ‘해요체’ 그리고 ‘하오체’도 아울러 쓰고 있다. 이처럼 아내에게 ‘해체’ 이상의 말을 쓰는 것은 ‘치악산’의 ‘고두쇠’에게서도 볼 수 있다.

(8) 오날부터는 날쇠아버지라 ㅎ여쭙게[치악산: 남편(고두쇠)→아내(옥단), 115쪽]

위 (8)에서 ‘고두쇠’는 아내 ‘옥단’에게 ‘해라체’로 일관하던 (6라)에서와는 달리 여기서는 ‘-게’를 써서 ‘하계체’의 말을 하고 있다. 따라서 무산층의 남편들도 유산층 남편과 마찬가지로 아내를 공대해 준 것으로 분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6)의 대화에는 유산층 계급의 남편에게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표현들이 들어 있다. 이를 찾아 보이면 다음과 같다.

(9) 가. 귀의성(작은돌→점순)

- ㄱ. 한जू먹에마저뒤여질라
- ㄴ. 여우
- 나. 흥도화(옥돌→칠월)
방정을쓰네
- 다. 빈상설(복단아비→복단어미)
 - ㄱ. 눈질
 - ㄴ. 녀편네
 - ㄷ. 재미붓흘
 - ㄹ. 너 ㅎ나죽이고
 - ㅁ. 너 빅를씨고 창자를 너여 보였스면
- 라. 치악산(고두쇠→옥단)
 - ㄱ. 이년
 - ㄴ. 염라궁에서 싸셔간나보구나
 - ㄷ. 요란스러운거시
 - ㄹ. ㅎजू먹에마저 뒤여질라

마. 치악산(길동→추월)

ㄱ. 경을칠년

ㄴ. 제길홀 이년

(9)에서 보이는 말들은 상스럽고 짐잡지 않은 표현들이며 게다가 여자에 대한 말로서는 과격하기까지 하다. 이러한 표현들은 상대방에 대하여 매우 낮게 보지 않는 한에는 나오기 어려운 것들이다. 따라서 (9)에서의 남편들은 아내에 대하여 결코 경대하는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아무 주저함도 없이 이와 같이 말한다는 것은 남편의 위치가 상대방인 아내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음을 의미한다. 즉, ‘상전’이 ‘하인’에게 ‘해라체’를 쓰는 것은 ‘하인’에게 있어서 ‘상전’이 우위의 위계를 가졌기 때문이듯이 무산층의 남편들도 아내에 대하여 우위의 위계에 있기 때문에 아내에게 ‘해라체’를 쓰고 ‘상전’이 ‘하인’에게 야단치듯이 아내를 야단칠 수 있는 것이다.

(10) 가. 나는아모말도못흐는것을번연히보며흙부루찌드느냐다시이놈들무엇이라고히
다는 한덕에죽으리라(구마검: 함진희→하인들, 52쪽)

나. 너일밝은날은 조년을 디덕에 쳐죽일터이니 조년 어디로 다라나지못하게 꼭붓드
러두어라(치악산: 홍참의→검홍, 18쪽)

다. 오냐, 네지조것, 다라나보아라흐늘로, 올라가지는, 못할터이니, 어디로가면, 못붓
들깃나 나붓들녀만, 보아라, 디덕에, 쳐죽일터이다(귀의성: 부인→점순, 76쪽)

라. 오, 이년너는, 남의집하인이넛가, 손지금을홀슈업다마는, 마쥬셔셔, 혼나잘깃거
리든 칠월이년을, 잔채질곳흐면, 바로토설이, 나아오겟지(홍도화: 마님→용네,
51쪽)

(10)은 ‘상전’이 ‘하인’에게 야단치는 것으로서 (10가, 나)의 남성 상전이나 (10다, 라)의 여성 상전이나 말이 살벌하기는 매일반이다. 그리고 ‘상전’이 ‘하인’에게 실제로 체벌까지도 가하였음은 (10라)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처럼 ‘상전’이 ‘하인’에게 대하는 태도와 무산층 남편이 아내에게 대하는 태도가 서로 일맥상통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무산층의 남편은 유산층의 남편과는 달리 아내에 대하여 우위의 위계를 가졌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7)에서 보이는 ‘복단아비’의 아내에 대한 ‘합쇼체’와 ‘해요체’ 및 ‘하오체’의 사용과 (8)에서 보이는 ‘고두쇠’의 아내에 대한 ‘하계체’의 사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는가가 문제가 된다. 무산층 남편인 ‘복단아비’는 (7) 외에도 다음과 같이 ‘하오체’를 또 쓰고 있다.

(11) 나는 쓸을 팔아오고 십흔싱각이 더 잇지만 억지로 엇지홀슈잇소[빈상설: 남편(복단
아비)→아내(복단어미), 3쪽]

그리고 ‘고두쇠’도 아내 ‘옥단’에게 ‘해라체’가 아닌 ‘하계체’로 예우해주고 있는 것을 또한 볼 수 있다.

(12) 에-기 넝장 돈은업지마는 식전에나가셔 술이나혼잔먹고오깃네[치악산: 남편(고두쇠)

→아내(옥단)]

그런데 ‘복단아비’가 (7)과 (11)에서처럼 말할 때는 상전의 앞이었다. 그리고 (12)의 경우는 ‘옥단’이 흥계를 잘 꾸며가지고 온 것에 대해 ‘고두쇠’가 좋아하고 있을 때였다. 따라서 아내를 평소 공대하여서 한 말이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비록 이들 남편이 ‘해라체’를 쓰지는 않았어도 이때의 ‘-ㅂ시다’, ‘-요’, ‘-오’, ‘-소’, ‘-계’, ‘-네’와 같은 ‘하계체’ 이상의 말씨는 ‘해라체’의 말씨와 같은 값을 갖는다고 해야 할 것이다. 즉, 이들 ‘하계체’ 이상의 말씨가 무산층 남편의 말씨 목록에 들어 있어서 이를 사용했으나 이의 말 값은 ‘안 높임’의 값을 갖는 것이다. 이는 (8)의 말이 나오기 바로 직전의 말인 다음의 구문에서 확인이 된다.

(13) 요 방정마진 녀편네 업쇠아비는 일싱 업쇠아버지란말인가 (오날부터는 날쇠아버지라 하여주계)(치악산: 고두쇠→옥단, 115쪽)

(13)에서 ‘고두쇠’는 아내 ‘옥단’에게 ‘방정마진 녀편네’라고 저속하게 면박을 주고 있다. 만일 말에서처럼 ‘하계체’ 정도의 예우를 한다면 ‘방정마진 녀편네’라는 저급한 말은 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이런 말을 하였다는 것은 아내에 대해 절대적 우위의 위계로써 내심 진정으로 아내를 하대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방정마진 녀편네’ 바로 뒤에 나오는 ‘하계체’는 진정성에 있어 결코 아내를 공대하는 말씨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무산층 남편은 진정성에 있어 아내에 대해 ‘높임’의 말씨를 쓰는 유산층 남편과는 달리 ‘안 높임’의 말씨를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3.2.2. 아내 말의 상대존대법

무산층 남편은 아내에 대해 상위의 위계를 가지며 ‘안 높임’의 말씨를 사용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다. 그렇다면 무산층의 아내들은 남편에 대해 어떠한 위계를 가지며 또한 그 말씨는 어떠한지 살펴보기로 한다. 다음에 보이는 대화는 모두 무산층의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말들이다.

(14) 가. 여보순돌아버지, 이를, 엇지한단말이오, 큰일났쇼구려, 마님게서순돌아버지를, 죽
일놈, 살일놈하며, 버르시니, 원일이오[귀의성: 아내(점순)→작은돌, 67쪽]

나. 여보, 발오엇줍구려, 벌셔알르시고, 무르시닌디, 으밀아밀홀것, 무엇잇소[홍도화:
아내(칠월)→남편(옥돌), 21쪽]

다. 그러면 밤은 혼아도 남지안이 혼였는디 돈은다 무엇을히소 술을 자섯나보구려
여보 술이 다 무엇이오 술먹고 흥청거릴 사름이 다 짜로잇지 우리쳐디에 무슨
경황에 술을자신단 말이오 상전부모라니 상전이 굴머 안지섯는디 마음에 황송
히지도 안쏘 아씨 가슴을 시원하게 히들일슈는 업지만 언으시절이던지 도흔일
이 싱기도록 우리가 정성것 공괘를 안이하면 곳득이나 스름이 산곳치 싸이신데
에 엇다가 마음을 붓치신단 말이오[빈상설: 아내(복단어미)→남편(복단아비), 4
쪽]

라. 여보 답답흔소리말고 이리좁드러와서 조용히말히시오 너가무신죄가잇는지 한주
먹에 쳐죽이나니 두주먹에쳐죽이느니하니 죽이려거든 조용조용이 쳐죽이고 열는
도망만잘히구려 사름을 쳐죽이지아니히더리도 우리덱 령감게셔는 날마다 버르

시논말이 이놈 고두쇠란놈이 서방님을못다리고오거던 이놈을 쳐죽인다하시니 인
역은 죽기는 일반이니 만만흔계집이나 쳐죽이고 죽구려[치약산: 아내(옥단)→남
편(고두쇠), 58쪽)

위의 구문을 보면, 먼저 (14가)의 ‘점순’은 자기의 남편 ‘작은돌’에게 ‘-오’, ‘-구려’와 같
은 ‘하오체’를 쓰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해라체’를 쓰고 있는 무산층 남편과는 대조적
이라 할 것이다. 남편에 대해 ‘하오체’를 쓰기는 (14나)에서도 마찬가지이다. (14나)의 ‘칠
월’은 남편 ‘옥돌’에게 ‘-구려’와 ‘-소’로써 ‘하오체’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14다)
에서도 보인다. (14다)의 ‘복단어미’는 남편 ‘복단아비’에게 ‘-구려’, ‘-오’, ‘-소’와 같이 ‘하
오체’만을 쓰고 있다. 그리고 남편으로부터 ‘한 주먹에 쳐죽이겠다’는 험한 소리를 들은 (14
라)의 ‘옥단’도 남편의 험담에도 불구하고 ‘하오체’의 ‘-구려’로써 공대하고 있다.

이와 같이 무산층의 아내들은 모두 ‘하오체’로써 남편을 공대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는
무산층 남편이 아내에 대하여 상위의 위계를 지닌 것과 부합되는 결과라 할 것이다. 즉 ‘상
전’이 ‘하인’에 대해 상위의 위계를 가졌기에 이에 상대되는 ‘하인’이 ‘상전’에 대해 하위의
위계를 지니듯이, 무산층의 남편이 아내에 대해 상위의 위계를 가졌으므로 자연 무산층의
아내는 남편에 대해 하위의 위계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부부 간의 계급에 있어서 무산층의 아내가 남편의 위계보다 아래임은 남편의 폭언에도 불
구하고 (14라)에서와 같이 높임말로써 여전히 남편을 공대하고 있음에서 확인된다. 이러한
것은 ‘상전’의 난폭한 말이나 무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하인’이 ‘합쇼체’로써 ‘상전’에게 최
상의 존대를 하고 있는 것과 같은 형국이라 할 것이다.

(15) 가. 마님 자근앗씨를 썩리시지말고 원네를죽여죽시오 원네가 죽을썩가되야셔 죄를지
엿습니다(치약산: 검홍→마님, 13쪽)

나. 소인을, 바로, 장하에, 죽이시면, 죽을지언딩, 그거힘은, 못헛겠습니다(홍도화: 하
인→이씨부인, 12쪽)

위 (15가)는 ‘마님’의 폭언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빌고 있는 여자 수종 ‘검홍’의 말이다. 그
리고 (15나)는 도저히 따를 수 없는 명령을 내리는 ‘상전’에게 하인들이 하는 말이다. 이 둘
의 경우 모두 ‘상전’에 의해 ‘하인’들이 곤경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하인’은 끝까지 ‘상전’에 대해 ‘합쇼체’로써 공대하고 있다. 이는 남편이 자신을 ‘주
먹으로 때려죽이겠다’고 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오체’로써 남편을 공대하고 있는 (14라)
의 ‘옥단’과 상통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무산층 아내는 남편에 비해 하위의 위계를 지녔으
며 내심 진정으로 남편에게 높임의 말씨를 썼음을 알 수 있다.

4. 부부 간 대화에서의 종결어미

4.1. 유산층 부부 간 대화에서의 종결어미

유산층에 있는 남편은 서법에 있어서 허락법은 쓰지 않았다. 이는 아내의 말에서도 마찬
가지로서 부부 간에는 서법 중에서 허락법이 쓰이지 않았다. 이것은 부부 간에는 허락법으
로 말해야 할 상황이 있지 않았음을 간접적으로 보이는 것이라 할 것이다.

4.1.1. 남편 말에서의 종결어미

4.1.1.1. 서술법

여기서는 명령 위주 또는 복종 위주의 말과는 달리 부부 간의 대화를 다루는 것이므로 서술법에서 쓰인 종결어미가 ‘상전’과 ‘하인’의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양하다.

- (16) 가. 어딴가던지, 녹회접시, 술잔이썬날씨가, 업섯네(귀의성: 강동지→마누라, 5쪽)
나. 그냥반덕에, 우리가, 쏘수늘썬잇느니(귀의성: 강동지→마누라, 5쪽)
다. 쇼원티로호여줄터이니(귀의성: 강동지→마누라, 26쪽)
라. 예편네들은, 아무것도모르면서, 집안에서, 방정을썬고잇스니, 될것도 아니되야(귀의성: 강동지→마누라, 5쪽)
마. 이런일은, 나혼즈쳐결할, 슈눈업는일이야(귀의성: 김승지→부인, 90쪽)
바. 잠작고, 가마니만잇게(귀의성: 강동지→마누라, 5쪽)
사. 여보마누라, 너가, 무슨의논을, 줌, 할일이잇소(귀의성: 김승지→부인, 90쪽)
아. 마누라, 여보정신좁치리오(귀의성: 김승지→부인, 96쪽)
자. 응 마누라는 죄를지여도 알뜰이잘지엿지(은세계: 최병도→부인, 26쪽)

따라서 남편은 위 (16)에서의 ‘-네’, ‘-느니’, ‘-니’, ‘-야’, ‘-이야’, ‘-게’, ‘-소’, ‘-오’, ‘-지’ 등과 같은 다양한 종결어미와 더불어 앞의 3.1.1에서 보인 종결어미 ‘-결’과 ‘-라’를 아내에게 쓰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는 곧 유산층 남편의 서술법 말씨 목록에는 종결어미가 풍부하게 들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것이다.

4.1.1.2. 의문법

유산층 남편이 사용한 의문법에 있어서도 역시 서술법에서와 같이 다양한 종결어미와 많은 구문들을 찾아볼 수 있다.

- (17) 가. 저의들이 무엇을 알며 귀신이라 호는 것이 더구나 허무치안이호오(구마검: 함진회→최씨, 4쪽)
나. 압다, 마누라쇼원티로, 호문밧게, 쏘엇지호란말이오(귀의성: 김승지→부인, 29쪽)
다. 둘이 다 싱시에 심덕이 극히 착호든 사름인디 죽어졌기로 무슨 침탈을 호겠소(구마검: 함진회→최씨, 4쪽)
라. 여보마누라, 경필이들지아들를, 다려다가, 키우면엇더하겠소(귀의성: 김승지→부인, 91쪽)
마. 우익무슨걱정잇느(귀의성: 강동지→마누라, 3쪽)
바. 어딴그러한거시, 당연이바들 것, 인가(귀의성: 강동지→마누라, 4쪽)
사. 마누라, 어딴가압푼가옥가, 잠고디호엿지(귀의성: 강동지→마누라, 25쪽)

위 (17)에서 찾아지는 의문법의 종결어미는 ‘-오’, ‘-소’, ‘-나’, ‘-가’, ‘-지’이다. 이에 유산층 남편이 아내에게 의문법에서 사용한 종결어미는 3.1.1에서 보인 ‘-니’, ‘-뇨’를 포함하여 모두 7종류의 종결어미였음이 확인된다.

4.1.1.3. 명령법

명령법에 있어서 ‘남성 상전’은 상대에게 ‘-라’, ‘-렀다’를 사용하였다.²⁾ 하지만 아내에게 사용한 명령법에서는 ‘-라’, ‘-렀다’가 아닌 ‘-게’를 사용하고 있다.

(18) 마누라, 아침밥좀, 일즉이, 혀여쥬게(귀의성: 강동지→마누라, 12쪽)

2) 여기서의 ‘남성 상전’은 ‘남성 상전’의 ‘상전’은 ‘상전’의 ‘상전’이 아니라 ‘상전’의 ‘상전’이다. ‘상전’의 ‘상전’은 ‘상전’의 ‘상전’이다.

유산층 남편이 아내에게 사용한 명령법의 종결어미는 (18)의 ‘-게’ 외에 3.1.1에서 보인 ‘-오’도 있다. 그런데 ‘-오’ 역시 ‘남성 상전’이 상대에게 사용한 종결어미가 아니다. 이러한 차이는 곧 명령법 종결어미에 있어서 ‘하인’에게 지시를 내릴 때와 부인에게 지시를 내릴 때 종결어미를 구별하여 사용하였음을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상대에 대한 존대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서 신분별 서법에는 같은 서법이더라도 들어 있는 종결어미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1.1.4. 청유법

청유법은 ‘남성 상전’에서 쓰이지 않는 서법이다. 다만 ‘남성 하인’에서는 ‘-십시오’로만 쓰이고 있다. 그런데 유산층 남편에서는 ‘-ㅂ시다’와 같은 청유법이 쓰이고 있다.

(19) 가. 춘천집을춌츠보닛스면, 그믄이지 저안망으로 드러갑시다(귀의성: 김승지→부인, 25쪽)

나. 줍기다려봅시다(빈상설: 이승지→부인, 125쪽)

따라서 청유법에 있어서 유산층 남편은 ‘남성 하인’과는 다른 종결어미를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4.1.1.5. 감탄법

유산층 남편은 아내에 대하여 많지는 않으나 아래의 예문에서와 같이 감탄법으로도 말을 하였다.

(20) 가. 즈세이아지도못하고, 헛푸념을, 그리혀구려(귀의성: 김승지→부인, 24쪽)

나. 춘천집이, 침모의집에, 잇느업 느, 누구를보닛보구려(귀의성: 김승지→부인, 29쪽)

다. 사장의너환이 대단히 침중혀서 지금대변중이라고 슈씨를모시러 하인을 보닛구려
(홍도화: 홍생원→장씨, 39쪽)

라. 글세, 이노릇을, 엇지하면 도흔가, 그자식을, 진작약을먹여 죽여버리는슈밭게업군
(홍도화: 이직각→시동집, 34쪽)

마. 허허허 기화군의썰이 다른거시로구(치약산: 백돌→부인, 21쪽)

(20)에서 쓰인 감탄법의 종결어미는 ‘-구려’와 ‘-군’ 그리고 ‘-로구’이다. 그런데 ‘남성 상전’으로서 ‘하인’에게 쓴 감탄법 종결어미는 ‘-구나’이다. 둘 다 감탄법을 나타내는 종결어미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서로 달리 사용되었다. 이는 곧 유산층 남편은 아내에 대해 하

위 위계의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보이는 것이라 할 것이다.

4.1.2. 아내 말에서의 종결어미

유산층에 있어서 아내는 유산층 남편과 같이 허락법만을 제외하고는 모든 서법의 말을 하고 있음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4.1.2.1. 서술법

유산층의 아내는 남편에게 서술법으로 말하는 데 있어서 남편과는 달리 종결어미가 다양하지 않다. 남편은 총 열한 가지에 이르는 종결어미를 사용하는데 비해 아내는 (21)에서 보듯이 네 가지의 종결어미를 사용하는데 그치고 있다.

- (21) 가. 나는, 우리길순의싱각을흐면, 싸가눅는듯흐오(귀의성: 마누라→강동지, 3쪽)
나. 그쇼원이쓸디업고, 스위업논쫘흐는 문, 다리고잇게되얏쇼(귀의성: 마누라→강동지, 4쪽)
다. 누는즈식업시, 이티로, 잇슬터이안(귀의성: 부인→김승지, 91쪽)
라. 령감게셔논춘천집이누, 다리고, 잘사르시오, 여보복바드리다(귀의성: 부인→김승지, 95쪽)

즉, 유산층 남편의 서술법 말씨 목록은 ‘-네’, ‘-느니’, ‘-니’, ‘-야’, ‘-이야’, ‘-게’, ‘-소’, ‘-오’, ‘-지’, ‘-걸’, ‘-라’임에 비해 위 (21)에서 보인 아내의 서술법 말씨 목록은 ‘-오’, ‘-소’, ‘-야’, ‘-리다’에 불과하다. 따라서 앞의 3.1.2에서 보인 ‘-지’, ‘-다’, ‘-라’까지 포함하면 유산층 아내는 남편에게 단지 7종류의 종결어미만을 썼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남성어와 여성어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4.1.2.2. 의문법

유산층 아내는 서술법에 있어서 남편보다 그 말씨의 목록이 적었다. 그러나 의문법에 있어서는 거의 대등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 (22) 가. 남을 웨 디려다 성가시게호시오(구마검: 최씨→함진희, 4쪽)
나. 우리가췌후로, 을나근다호기로, 말이그러호지, 쉬운일이호(귀의성: 마누라→강동지, 10쪽)
다. 길순이누, 신선이누되는듯호더니, 사위덕을, 얼마누보얏쇼(귀의성: 마누라→강동지, 4쪽)
라. 호는, 너말은, 진정으로누온말은, 아니오마는, 그췌령감이, 무엇이라고 말삼하섯소 (귀의성: 부인→김승지, 94쪽)
마. 열살이되도록, 코물을, 줄줄흘리고당기누, 경필의둘직아들은, 다려다가, 무엇하게 (귀의성: 부인→김승지, 91쪽)

유산층 남편은 서술법의 말씨 목록이 ‘-오’, ‘-소’, ‘-나’, ‘-가’, ‘-지’, ‘-니’, ‘-뇨’이다. 반면 유산층 아내는 위 (22)에서의 ‘-오’, ‘-소’, ‘-게’와 3.1.2에서 보인 ‘-누’, ‘-가’, ‘-뇨’를 사용하고 있어 개수에서 불과 하나만 적을 뿐이다. 이는 곧 유산층 아내가 가진 서술법 중

결어미 목록의 개수에 있어서 유산층 남편과 거의 대등함을 보이는 것이라 할 것이다.

4.1.2.3. 명령법

명령법의 경우 유산층 남편은 아내에게 ‘-게’를 사용하였다. 그런데 똑같은 명령법을 사용하는 데도 유산층 아내는 종결어미로 ‘-오’를 사용함으로써 차이를 보이고 있다.

(23) 가. 그비리먹을소리좁마오(귀의성: 마누라→강동지, 5쪽)

나. 령감, 어서침모다리고, 계동으로가시오(귀의성: 부인→김승지, 28쪽)

명령법에서 유산층 아내는 남편에게 위의 ‘-오’ 외에 3.1.2에서 보았듯이 ‘-소서’도 쓰고 있다. 따라서 유산층 아내는 남편을 일관되게 공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유산층 남편은 아내에게 ‘하게체’를 쓰고 있다. 그러나 작품에서 남편은 아내를 어려워하고 공대하고 있으므로 비록 종결어미는 ‘하게체’이나 이를 진정성에서 보면 유산층 남편의 ‘하게체’에는 높은 공대의 값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남편이 아내에게 ‘-게’로써 명령법을 말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오’, ‘-소서’로써 명령법을 말하는 것은 단지 남편과 아내의 명령법 말씨 목록에 있어서 그 내용이 달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즉, 이는 단지 남성어와 여성어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4.1.2.4. 청유법

청유법에 있어서 유산층 아내는 위 3.1.2에서 보인 ‘-소서’, ‘-세’ 외에 아래 (24) 보는 ‘-십시다’와 ‘-ㅂ시다’를 쓰고 있다.

(24) 가. 우리먹고 입는것이나 황씨딕에 폐를 끼치지나 아니하도록 ㅎ십시다(모란병: 부인→현고직이, 78쪽)

나. 거복이를불너 즈초스실을 다시무려나 보십시다(빈상설: 부인→영감, 130쪽)

다. 그럴디경이면 어서써나게 ㅎ십시다(홍도화: 장씨→홍생원, 39쪽)

라. 황씨딕에 폐를 끼치지나 아니하도록 ㅎ십시다(모란병: 부인→현고직이, 78쪽)

마. 거복이를불너 즈초스실을 다시무려나 보십시다(빈상설: 부인→영감, 130쪽)

바. 그러ㅎ실터이면, 춘천집을불러드려다가, 저, 건넌방에 들시다(귀의성: 부인→김승지, 64쪽)

반면 유산층 남편은 ‘-ㅂ시다’ 하나만을 쓰고 있어 둘의 사이에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유산층 아내와 유산층 남편 간의 청유법 말씨 목록에 있어서 성별에 따라 서로 많이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1.2.5. 감탄법

명령법에 있어서 아내와 남편은 사용하는 종결어미가 서로 완전히 달랐다. 그러나 감탄법에 있어서는 아내나 남편이나 동일하다.

(25) 가. 압다답답ㅎ소리도, ㅎ시구려(귀의성: 마누라→강동지, 10쪽)

나. 쌀의집도처음오니, 섬억섬억ㅎ신가보구려(귀의성: 마누라→강동지, 28쪽)

- 다. 너가야단을, 줌, 쳇더니, 그거슬보고, 헐시논말슴인 가보구려(귀의성: 부인→김승지, 65쪽)
- 라. 여보침모쓰지, 탐이논보구려(귀의성: 부인→김승지, 23쪽)
- 마. 형세논불상년보다, 더, 해도일에는, 사대부자쳐를, 헐나보구려(홍도화: 시동집→이직각, 28쪽)
- 바. 시어미더러 욱고악담헐던 며누리가 너소리에속이압홀가 염녀가되나보구려(치악산: 김씨부인→홍참의, 16쪽)
- 사. 어서 너려가 힘자라는디로 만분의일신세를 갑헐보시구려(모란병: 부인→현고직이, 79쪽)
- 아. 술을 자섯나보구려(빈상설: 복단어미→복단아비, 4쪽)
- 자. 에그, 씬쪽헐여라큰수낫순(귀의성: 마누라→강동지, 4쪽)

위 (25)에서의 감탄법 종결어미는 ‘-구려’와 ‘-군’으로서 3.1.2에서 보인 ‘-로구’, ‘-도다’를 더하면 유산층 아내는 남편에게 모두 4종류의 종결어미를 썼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의 종결어미 중에서 ‘-도다’만을 제외하고는 유산층 남편의 감탄법 종결어미와 동일하다. 따라서 ‘감탄법 종결어미’에 있어서는 아내와 남편이 거의 같은 종결어미를 사용한다는 것이 확인된다. 즉, 감탄법 말씨에 있어서 남성어와 여성어 간에 차이가 거의 없었음을 보이는 것이라 할 것이다.

4.2. 무산층 부부 간 대화에서의 종결어미

유산층에 대별되는 계층은 무산층이다. 그런데 유산층과 무산층 간에 있어서 이들 부부의 말씨도 대별된다. 유산층 부부는 서로 공대함으로 인하여 부부 간의 위계가 서로 같으나 무산층 부부는 그렇지 않아 남편의 위계가 아내보다 높다. 따라서 유산층 남편은 아내에게 높임 말씨를 쓰는 반면에 무산층 남편은 사용하는 모든 서법에 있어서 아내에게 높임이 없는 말씨를 사용한다.

한편, 유산층 부부는 서로 허락법을 쓰지 않듯이 무산층 부부 간에도 허락법은 쓰이지 않았다. 이는 부부 간에는 유산층이든 무산층이든 허락법은 쓰이지 않는 서법이었음을 보이는 것이라 할 것이다.

4.2.1. 남편 말에서의 종결어미

4.2.1.1. 서술법

무산층 남편이 서술법에서 사용하는 종결어미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 ‘-라’, ‘-지’, ‘-소’이다. 그런데 이중에서 ‘-다’와 ‘-라’는 유산층 남편이 아내에게 사용하지 않는 말씨이다.

- (26) 가. 논, 논고시푼디로, 헐지, 너헐라논디로홀병신갓흔놈업다(귀의성: 작은돌→점순, 30쪽)
- 나. 한쥬먹에마져뒤여질라(귀의성: 작은돌→점순, 30쪽)
- 다. 두셔방이니, 두계집이니, 그까지소리도할것업지(귀의성: 작은돌→점순, 69쪽)
- 라. 에구 나는 처음보앗소(빈상설: 복단아비→복단어미, 5쪽)

하지만 나머지 ‘-지’와 ‘-소’는 유산층 남편도 쓰는 말씨이므로 무산층 남편의 ‘-다’와 ‘-라’도 나머지 ‘-지’와 ‘-소’처럼 높임 말씨의 값을 가진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무산층 남편은 아내에게 욕설과 더불어 말하지만 유산층 남편은 욕설이라고는 단 한 마디도 하지 않는다는 데에 큰 차이가 있다.

아내를 공대하지 않으면서 높임 말씨를 쓸 수 없듯이 아내를 공대하면서 욕설을 해낼 수는 없는 일이다. 따라서 무산층 남편도 유산층 남편처럼 ‘-지’와 ‘-소’를 쓰지만 이의 높임말 값은 진정성에 있어 ‘-다’와 ‘-라’가 가지는 안 높임의 값과 같다고 할 것이다. 반면 유산층 남편이 쓰는 ‘-지’와 ‘-소’는 비록 무산층 남편의 말씨와 동일하지만 이의 말 값은 진정성에 있어서 나머지 ‘-네’, ‘-느니’, ‘-니’, ‘-야’, ‘-이야’, ‘-게’, ‘-오’가 가지는 높임의 말 값과 같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4.2.1.2. 의문법

무산층 남편이 의문법에 있어서 아내에게 사용한 종결어미는 아래 예문에서 보듯이 ‘-소’, ‘-어’, ‘-야’, ‘-냐’, ‘-가’, ‘-구’, ‘-나’로서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7) 가. 나는 졸을 팔아오고 십흔싱각이 더 잇지만 억지로 엇지홀슈잇소(빈상설: 복단아비→복단어미, 3쪽)
- 나 누가 술을 먹어(빈상설: 복단아비→복단어미, 4쪽)
- 다. 글세 돈이 어셔난 돈이야(빈상설: 복단아비→복단어미, 5쪽)
- 라. 나를 왜 비위를 건딕려(빈상설: 복단아비→복단어미, 5쪽)
- 마. 남, 열느네티, 윈방정을그리썸려(귀의성: 작은돌→점순, 30쪽)
- 바. 누가, 김승지딕중노릇아니호면죽는다더냐(귀의성: 작은돌→점순, 68쪽)
- 사. 욕이, 쥬떡보다, 낫지아니한가(귀의성: 작은돌→점순, 68쪽)
- 아. 아무죄도업는사름을, 혈마쳐죽일라구(귀의성: 작은돌→점순, 68쪽)
- 자. 인제가, 다, 무어시야(귀의성: 작은돌→점순, 82쪽)
- 차. 조음썰리왔느(귀의성: 작은돌→점순, 82쪽)

그런데 이렇게 많은 종결어미 중에서 유산층 남편이 사용한 의문법 종결어미와 같은 것은 ‘-가’, ‘-냐’, ‘-소’에 불과하다. 따라서 나머지는 무산층 남편만 사용하는 의문법 종결어미라 하겠다. 그리고 무산층 남편의 의문법 종결어미 중에서 유산층 남편의 의문법 종결어미와 동일한 ‘-가’, ‘-냐’, ‘-소’는 앞의 서술법에서와 같이 진정성 면에서 높임말 값을 갖지 못하고 나머지 다른 네 종의 종결어미가 갖는 안 높임말 값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4.2.1.3. 명령법

무산층 남편이 명령법에 있어서 사용하는 종결어미는 서술법과 의문법에서와는 달리 ‘-라’ 하나로서 목록의 내용이 매우 단출함을 보인다.

- (28) 남의비우건디리지말고, 가문 이잇거라(귀의성: 작은돌→점순, 30쪽)

이는 유산층 남편의 경우도 종결어미가 하나뿐이었던 것과 동일하다. 그러나 유산층 남편

의 명령법 종결어미는 ‘-게’이고 여기 무산층 남편의 명령법 종결어미는 ‘-라’이다. 그런데 이 종결어미 ‘-라’는 ‘남성 상전’이 하인에게 사용했던 명령법 종결어미 ‘-라’와 동일한 형태이다. 따라서 무산층 남편은 아내에게 안 높임 말씨를 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2.1.4. 감탄법

무산층 남편의 감탄법에 있어서도 앞의 명령법에서처럼 이의 종결어미는 ‘-구나’ 하나뿐이다.

(29) 이녀 네 정신은 발서염라궁에서 싸셔간나보구나(치악산: 고두쇠→고두쇠 계집, 58쪽)

그런데 유산층 남편이 사용한 감탄법 종결어미는 ‘-구려’와 ‘-군’ 그리고 ‘-로구’로서 무산층 남편의 감탄법과 차이를 보인다. 이처럼 한 여자의 남편이라는 지위는 같으나 부부 간의 위계가 다름으로 인하여 감탄법에서의 말씨도 다르게 쓰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외의 서법인 청유법과 허락법은 무산층 남편에서 쓰이지 않았다. 하지만 유산층 남편도 허락법은 사용하고 있지 않으나 청유법은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서로 차이가 있다 하겠다.

4.2.2. 아내 말에서의 종결어미

무산층 아내는 남편에 비하여 부부 간의 위계에서 낮은 지위를 가진다. 따라서 남편에게 하는 말은 자연 높임 말씨가 된다. 무산층 부부의 말에 있어서 남편 말의 서법에는 청유법과 허락법이 들어 있지 않다. 그러나 아내의 말에는 남편의 말과 달리 이중에서 청유법은 사용되고 있다.

4.2.2.1. 서술법

서술법의 종결어미에 있어서 무산층 남편은 ‘-다’, ‘-라’, ‘-지’, ‘-소’를 쓰지만 무산층 아내는 ‘-네’, ‘-소’, ‘-오’, ‘-지’를 쓰고 있어 남편이 쓰지 않는 ‘-네’와 ‘-오’를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남편이 쓰는 ‘-다’와 ‘-라’는 사용하지 않음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곧 남성어와 여성어를 보이는 것이라 할 것이다.

(30) 가. 결핍하면, 주먹만내세네(귀의성: 점순→작은돌, 68쪽)

나. 느도가셔구경좁혀 갖소(귀의성: 점순→작은돌, 69쪽)

다. 아씨게셔 아적 진지도 못 잡슈셔는디 싸도호오(빈상설: 복단어미→복단아비, 3쪽)

라. 에그념오 말오시지(빈상설: 복단어미→복단아비, 5쪽)

무산층 아내의 말 값이 높임이므로 무산층 남편이 사용하는 종결어미와 같은 ‘-소’와 ‘-지’의 경우도 진정성에서 높임말의 값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무산층 남편의 말은 진정성 면에서 이의 종결어미는 안 높임말 값을 갖는다.

4.2.2.2. 의문법

무산층 아내의 의문법은 ‘-오’, ‘-소’, ‘-나’로서 ‘-오’, ‘-소’, ‘-게’의 의문법 목록을 가지고 있는 유산층 아내와 유사하다. 유산층 아내의 말씨는 높임말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무산층 아내의 의문법 종결어미 목록이 유산층 아내의 의문법 종결어미 목록과 유사하게 닮은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닐 것이다.

- (31) 가. 여보, 마루에들리면엇지 호려고, 그거슨, 다, 무슨소리오(귀의성: 점순→작은돌, 30쪽)
나. 우익인제, 왓소(귀의성: 점순→작은돌, 82쪽)
다. 나는 다른셔방어더가지밤낫, 계절 호고, 잇슬, 망한년잇나(귀의성: 점순→작은돌, 69쪽)

그런데 ‘-오’, ‘-소’, ‘-나’ 중에서 ‘-나’는 유산층 아내의 의문법 종결어미 목록에 없다. 하지만 무산층 남편의 의문법 종결어미의 목록에는 들어 있다. 따라서 ‘-나’가 낮춤말이어서 남편에게 높임말을 쓰는 유산층 아내가 이를 사용하지 않은 반면에 아내에게 안 높임말을 쓰는 무산층 남편은 이를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무산층 아내의 남편에 대한 태도는 공대이므로 무산층 아내가 사용한 ‘-나’는 남편의 말씨와는 달리 진정성에서 높임 말씨라 할 것이다.

4.2.2.3. 명령법

명령법에 있어서 무산층 아내가 사용하는 종결어미는 ‘-오’이다. 이는 유산층 아내가 남편에게 높임말로써 사용하는 종결어미와 같은 것이다.

- (32) 가. 여보요란스랍쇼, 뭇흠부루호지마오(귀의성: 점순→작은돌, 69쪽)
나. 어셔 나가 만코적고 돈되로 쓸을 팔아오(빈상설: 복단어미→복단아비, 4쪽)

반면 무산층 남편이 사용하는 종결어미는 ‘-라’이다. 그런데 ‘-라’는 ‘상전’이 ‘하인’에게 명령할 때 쓰는 종결어미이다. 따라서 이의 종결어미를 통해서도 무산층 부부 간의 위계가 차등적임이 확인된다. 그리고 이는 한편으로 남성어와 여성어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4.2.2.4. 청유법

무산층 아내에 있어서 청유법에 쓰이는 종결어미는 ‘-ㅂ시다’로서 이는 유산층 아내와 같다. 그리고 유산층 남편도 청유법에서 ‘-ㅂ시다’를 사용하고 있다.

- (33) 에그 못엇인지 시장호신티 죽이나 갓다들ㅂ시다(빈상설: 복단어미→복단아비, 7쪽)

하지만 무산층 남편에게는 청유법 자체가 아예 없다. 그런데 ‘남성 상전’에서도 청유법은 전혀 쓰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무산층 부부에 있어 이들 부부 간의 위계와 말씨는 마치 주종관계의 ‘상전’과 ‘하인’과 같은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2.2.5. 감탄법

무산층 아내의 말씨 중에서 유산층 아내와 동일한 것은 명령법 외에 감탄법도 해당된다. 즉, 무산층 아내의 감탄법 종결어미는 ‘-구려’와 ‘-군’으로서 이는 유산층 아내의 감탄법 종결어미와 동일하다.

(34) 가. 술을 자섯나보구려(빈상설: 복단어미→복단아비, 4쪽)

나. 여보, 발오엿구려(홍도화: 칠월→옥돌, 21쪽)

다. 이놈을 쳐죽인다하시니 인역은 죽기는 일반이니 만만흔계집이나 쳐죽이고 죽구려(치악산: 고두쇠계집→고두쇠, 58쪽)

라. 마님이, 먼저, 알으시고, 무르셔셔, 대답흔것을, 무엇이라고, 걱정흔실나구, 더리
는, 것이로군(홍도화: 칠월→옥돌, 22쪽)

그러나 무산층 남편이 사용하는 명령법 종결어미는 ‘-구나’로서 아내의 종결어미와 다르다. 이는 곧 남성어와 여성어의 차이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구려’와 ‘-군’은 유산층 부부에게서 사용되는 것이지만 ‘-구나’는 ‘상전’이 ‘하인’에게 감탄법을 쓸 때 사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무산층 남편의 위계가 아내보다 높아서 마치 ‘상전’이 ‘하인’에게 하는 것과 같은 말씨를 무산층 남편이 아내에게 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마무리

본 연구에서는 현대에 앞선 시기인 개화기 때에 남성어와 여성어 간의 차이가 상대존대법상 어떠한지를 신소설에서 나타난 부부 간의 대화를 통해 분석하였다.

먼저, 부부 간에 사용된 상대존대법의 경우 유산층 남편은 아내에게 ‘합쇼체’와 ‘하오체’ 그리고 ‘하계체’ 및 ‘해체’를 사용하였음이 드러났다. 그런데 이처럼 다양한 상대존대법을 썼으나 유산층 남편의 아내에 대한 근본적인 말투는 ‘합쇼체’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유산층 남편은 아내에 대해 존대와 하대를 번갈아가며 해낸 것이 되어 아내에 대한 존대에 있어 변덕이 죽 끓듯 하였던 것이 된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고 아내에 대한 태도는 항상 존대로 일관되어 있었으므로 상대존대법상으로는 존대성이 없는 ‘하계체’나 ‘해체’도 썼으나 이는 ‘합쇼체’와 같은 존대의 값을 갖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것은 말투에 대한 진정성의 문제로서 하대의 말투를 썼어도 진정 하대의 의사가 있었는가에 대한 분석도 이루어져야 함을 보이는 것이라 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단지 말투에 있어서의 존대와 하대만을 구분하였을 뿐 이의 말투에 대한 진정성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가 전혀 없다. 때문에 신소설에서 보이는 유산층 남편의 아내에 대한 말투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에 대해 적절한 설명을 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말투에 있어서 진정성을 분석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 외현상의 말투와 내심의 문제인 진정성에 있어서의 말투가 서로 다르게 분석되기 때문에 유산층 남편의 아내에 대한 여러 등급의 말투에 있어서도 진정한 말투가 무엇인지 가늠해볼 수가 있다. 이것은 곧 상대존대법에 있어서 진정성의 문제를 제시하는 것이라 하겠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상대존대법의 연구에 있어서 진정성에 따른 분석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하는 선에서 그치고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후일을 기약한다.

유산층 부부에 있어서 아내의 남편에 대한 말투는 ‘합쇼체’와 ‘하오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말투의 진정성에 있어서는 ‘하오체’도 ‘합쇼체’의 값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이다. 남편에 대해 극존대를 하던 아내가 갑자기 적당히 존대를 한다는 것은 남편을 의도적으로 우롱하기 전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아내의 말투는 남편의 아내에 대한 말투와 같이 진정성에 있어서 ‘합쇼체’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무산층 부부의 경우 남편은 아내에게 ‘합쇼체’, ‘해요체’, ‘하오체’, ‘하게체’, ‘해체’, ‘해라체’ 등 다양한 등급의 상대존대법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하게체’ 이상의 존대는 상전의 앞이라든지 칭찬의 경우에 사용한 말투이고 그 외의 경우는 일관되게 ‘해체’ 이하의 말투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말투에 대한 진정성에 있어서는 ‘하게체’ 이상의 말투도 ‘해체’ 이하의 존대 값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무산층 아내의 남편에 대한 말투에 있어서는 진정성 상으로 ‘해체’ 이하의 말투를 사용한 남편과는 달리 일관되게 ‘하오체’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유산층 부부의 경우 남편이든 아내이든 진정성에 있어서 서로 ‘합쇼체’를 사용했던 것과는 대조되는 결과로서 아내만의 일방적인 존대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신분과 성별에 따라 상대존대법이 달랐음이 확인되었다.

한편, 부부 간의 대화에서 사용된 종결어미의 경우에 있어서 이를 유산층 남편과 아내 그리고 무산층 남편과 아내로 나누어 정리해 보이면 다음과 같다.

○ 유산층 남편

- 서술법: ‘-네’, ‘-느니’, ‘-니’, ‘-야’, ‘-이야’, ‘-게’, ‘-소’, ‘-오’, ‘-지’, ‘-걸’, ‘-라’
- 의문법: ‘-오’, ‘-소’, ‘-나’, ‘-가’, ‘-지’, ‘-니’, ‘-뇨’
- 명령법: ‘-게’, ‘-오’
- 청유법: ‘-하십시오’
- 감탄법: ‘-구려’, ‘-군’, ‘-로구’

○ 유산층 아내

- 서술법: ‘-오’, ‘-소’, ‘-야’, ‘-리다’, ‘-지’, ‘-다’, ‘-라’
- 의문법: ‘-오’, ‘-소’, ‘-게’, ‘-누’, ‘-가’, ‘-뇨’
- 명령법: ‘-오’, ‘-소서’
- 청유법: ‘-십시오’, ‘-하십시오’, ‘-소서’, ‘-세’
- 감탄법: ‘-구려’, ‘-군’, ‘-로구’, ‘-도다’

○ 무산층 남편

- 서술법: ‘-다’, ‘-라’, ‘-지’, ‘-소’
- 의문법: ‘-소’, ‘-어’, ‘-야’, ‘-냐’, ‘-가’, ‘-구’, ‘-나’
- 명령법: ‘-라’
- 감탄법: ‘-구나’

○ 무산층 아내

- 서술법: ‘-네’, ‘-소’, ‘-오’, ‘-지’
- 의문법: ‘-오’, ‘-소’, ‘-나’
- 명령법: ‘-오’
- 청유법: ‘-하십시오’

아내	유산층만 사용	무산층만 사용	공동으로 사용
서술법			
의문법			
명령법			
칭유법			
감탄법			

이는 곧 신분에 따라 남성어와 여성어에 차이가 있었음을 보이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개화기에는 남성어와 여성어가 신분 즉, 교양의 수준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 참고문헌

- 강규선(1988). 「20세기 초기 국어의 경어법 연구 -치약산 상·하를 중심으로-」. 인문과학논집 7. 청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강규선(1989). 「20세기 초기 국어의 경어법 연구 -신소설을 중심으로-」. 어문논집 6·7. 청주대학교.
- 강규선(1998). 「국어의 겸양법 연구 -신소설을 중심으로-」. 인문과학논집 18. 청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권소영(2004). 「개화기 신소설 경어법 연구 -옥매화와 런광전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안동대학교 교육대학원.
- 민현식(1984). 「개화기 국어의 경어법에 대하여」. 관악어문연구 9-1.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 박철주(2009). 「근대계몽기의 ‘단형서사’와 ‘신소설’의 종결어미 연구」.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경우(1990). 「최근세 국어의 경어법 연구」. 박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이경우(1994). 「최근세 국어 경어법의 사회언어학적 연구」. 이화어문논집 13. 이화어문학회. 이화여자대학교.
- 이은지(2006). 「개화기 청자존대법 연구 -이인직 신소설에 나타난 대화양상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수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정길남(2004). 「개화기 교과서의 존대법 연구」. 동악어문논집 42. 한국어문학연구학회.

신분별 부부 간의 상대존대법 종결어미 연구

전정미(상명대학교)

이 논문은 신소설 상에 나타난 부부 사이의 대화를 바탕으로 성별에 따른 입말체의 특성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문어체에 비하여 연구 성과가 적은 구어체에 초점을 맞추어 근대 국어와 현대 국어의 분기점에 해당하는 개화기 구어 연구의 방향을 제시한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부부 간의 대화의 교양의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임을 전제로 하여 화자의 신분을 유산층과 무산층으로 나누고 부부 간의 신분별 상대존대법과 종결어미의 사용 양상을 제시하여 언어 현상의 사회적인 측면까지도 살핀 의미 있는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상대존대법에서는 언어 형식의 문제만이 아니라 존대의 진정성이라는 심리적인 부분까지도 살펴 상대존대법에 대한 연구를 새로운 시각으로 살펴보고 한 점도 매우 독창적인 부분으로 여겨집니다.

이 논문을 읽으면서 개화기의 구어 연구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구어의 사용 양상이 어떤 변화의 과정을 거쳐 현대의 모습을 가지게 되고 그 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데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논문을 읽으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갖게 되었는데, 이에 대해 발표자께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첫째, 화자와 청자의 신분을 구별하는 방법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유산층과 무산층이라는 두 유형으로만 신분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구분이 지나치게 양분적인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귀의성>에 나오는 강동지라는 인물은 신분상 상인이므로, 같은 소설에 나오는 김승지와는 분명히 다른 계층의 사람입니다. 발표자께서 유산층에 대해 정의한 내용에는 ‘가산의 정도와는 상관없이 대체적으로 양반에 속한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 정의에 따르면 강동지는 유산층에 속하기 어려운 인물로 보입니다. 제시하신 예문 (1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진 것도 인물의 유형이 양분화 되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대화 참여자의 신분을 좀 더 세분화하여 유형화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와 더불어 화자와 청자가 각기 다른 신분인 경우는 어떻게 다루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개화기의 여러 소설에서 처첩 간의 갈등이 중요한 내용으로 다루어져 있어 첩이라는 신분과의 대화도 소설 속에서는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현대적 관점에서는 부부라고 다루기는 어렵겠지만) 서로 신분이 다른 부부 사이의 대화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 포함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둘째, 상대존대법과 종결어미 사용 양상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상대존대법의 경우를 예로 들어 살펴보면, ‘유산층 남편은 아내에게 다양한 말씨를 사용하고 유산층 아내는 하오체를 사용한다’고 하였으나 구체적인 빈도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그 다양함과 특징적인 사용 양상의 모습이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 논문은 신소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제시하신 부부 사이의 대화가 완전한 구어의 모습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사용 양상의 빈도를 제시함으로써 개화기 구어체에 나타난 상대존대의 경향성을 보여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앞선 연구(이경우, 1990)에 의하면 상위 계층 부부의 경우, 경어법의 사용 빈도가 남편은 하오체가 47%, 해체가 37%로 나타나고, 아내의 경우에는 하오체가 62%, 해체가 26%의 빈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선 연구와 비교하였을 때, 이 논문에서 얻은 결과는 어떻게 다른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종결어미의 사용 양상에 있어서도 각각의 서법 사이의 사용 빈도가 성별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지 궁금합니다.

셋째, 상대존대의 기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청자에 대한 화자의 높임 의향을 [±높임]이라는 대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관계에서는 [±높임]의 요소와 더불어 친소관계도 고려되어야 하며 특히 부부관계에서는 친밀함이라는 측면도 중요하게 작용될 것입니다. 현대 국어의 청자 높임의 등급에 [±높임]과 더불어 [±격식]이라는 측면이 함께 고려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상대 존대의 등급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높임 이외에 다른 요소에 대해서 고려하신 것은 없는지 발표자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넷째, 존대의 진정성이라는 개념에 대한 부분입니다. 비록 유산층의 남편이 자신의 아내에게 하대를 하고 있어도 진정성에 있어서는 공대가 포함되었다고 하였는데, 상대존대의 개념 자체가 상대방에 대한 공손의 정도를 언어 형식을 통해 드러내는 것이라는 기본 개념을 생각할 때, 그 진정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논문에서 증명할 수 있는 개념인지 궁금합니다. 이 논문에서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진정성을 좀 더 객관화할 수 있는 요소에 대한 발표자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귀한 논문을 읽게 해 주셨는데, 토론자의 역량이 부족하여 발표자 선생님의 본질적인 의도나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점이 많은 줄로 압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죄송한 마음으로 토론을 마칩니다.

【 제 2 분 과 】

1. 머리말

한국어에서 ‘-다고’는 간접 인용의 형식으로 다른 사람의 말을 전달할 때 쓰이는 인용구문의 형식이다. 대체로 ‘-다고’의 구성으로 간접 인용을 표시하는 조사는 ‘고’를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국어에 속하는 ‘-다고’의 용법 중에는 이러한 ‘-고’로 분석할 수 없고 하나의 용법형으로 굳어져 전달어미나 종결어미로 쓰이는 경우도 종종 확인될 수 있다.

- 한국어에서 ‘-다고’의 용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 (1) 가. 끝나는 자기가 직접 가졌다고 말했다.
- 나. 끝나는 자기가 직접 가졌다(고) 했다고 말했다.
- 다. 끝나는 자기가 직접 가졌다(고) 하고 말을 나눴다.
- 라. 아내는 웃음만이라고 말을 조금밖에 못 했다.
- 마. “어제는 웃었단다(고) 하고, 말을 조금밖에 못 했다.
- 바.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한다고.

(1)의 ‘가졌다(고)’는 ‘말씀’의 말을 간접 인용의 형식으로 전달하는 형식이며 ‘-다고’로 분석된다. (1)의 각이 간접 인용 구문인데 인용문자가 수행하는 (1)가와 달리 끝나는 구조이고 이때의 ‘-다고’는 두 가지 가능성을 갖고 있는데 하나는 ‘-다고’ 뒤에 ‘(고)’와 같은 대동사가 생략된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다(고)’ 뒤에 ‘(고)’가 생략된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후자의 경우도 보면 (1)의 ‘가졌다(고)’는 두 번째 목적 과정을 포함하고 있는 형태가 된다. 즉 통사적으로 ‘-다’ 구조에서 ‘-다(고)’가 생략된 형태로서 ‘-다(고) (고)’가 되어 ‘-다(고(고))’로 축약된 형태라고 이해할 수 있다.

□ 차 례 □

1. 머리말
2. 연결어미 ‘-다고’의 형성 과정과 의미
3. 종결어미 ‘-다고’의 형성 과정과 의미
4. 맺음말

■ 참고문헌

1) 본고는 본래의 형식으로 환원이 가능한 경우는 ‘단순축약’으로, 통사적 구성이나 의미적인 면에서 본래의 형식으로 환원될 수 없는 경우는 ‘융합’으로 보고자 한다. ‘융합’의 개념에 대해서는 안명철(1990), 이지양(1998)을 참조할 수 있다.

2) 현대국어의 인용구문은 매우 활발한 축약 현상을 보이는데 ‘-다고’와 같이 기원적으로 ‘-다’와 같은 형식

가 쓰여 서신 또는 다른 서찰의 발송 인용하는 문패의 기능이 충분히 표출된 경우이다.

아래는 같이 읽히는 인용표기 유형을 아래에 대한 원문이나 인용을 제시하는 것으로 해 석되어 아래의 ‘다고’는 더 이상 분석의 불가능한 하나의 인용어이기도 볼 수밖에 없다. 인용 구문에 쓰인 (나, 나)에서의 같이 아래의 ‘다고’를 ‘(나)고’라고 환원시켜 보면 전·후 범을 같이 의미한다가 아니다. 어휘를 동일시 한다. 즉,위와 아아한 범주의 ‘다고’는 ‘(나)고’로 분석될 수 있고, 지의적으로도 인용과는 무관한 인용어이로 처리하게 된다. (따는) ‘다 고’가 종결어이기도 쓰인 예인데 후행할 또는 상의를 통사기 생략되면서 종결어외의 용법을 같이 할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즉 (나)와 같이의 ‘다고’는 거대한 인용 구형에는 별개 로 하나의 인용어외의 종결어이기도 환원된다고 할 수 있다.

은 연구는 이와 같이 인용문 형식 ‘(나)고’에서 분할할 것으로 알려진 ‘다고’를 어이 의 할당 과정의 전체에 대해 고찰해 고고어 연구의 연구에서는 인용어외의 종결어외 로 쓰이는 ‘다고’를 모두 ‘(나)고’의 속어형 내지 총합형으로 처리하여 두 형태를 구분해 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인용어외로 쓰이는 ‘다고’와 종결어외로 쓰이는 ‘다고’는 자의적인 총 범에서 다소 차이를 보여 두 범주의 동일한 형태 통사적 관점에서 분할할 것은 것으로 보지 어리운 점이 있다. 또한 인용구문의 속어형으로 나타나는 ‘(나)고’형이나 종결어외의 용 법을 보자는 ‘다고’를 아래에 대해서는 같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총합형으로 균어진 범결 어의 ‘다고’의 할당 과정과 아래에 대해서는 고개 주목하지 않은 것이 있다. 위와 같 인 구는 중세국어와 근대국어에서 나타나는 인용문 형식의 변화를 통시적인 관점에서 검토하여 보았기에 ‘다고’와 종결어외 ‘다고’가 어떠한 형식의 변화를 통해 고고어 그것의 의미가 변화하는 과정도 추적해 고고어 본다.

2. 인용어외 ‘다고’의 형성 과정과 처리

지금까지 연구된 바와 같이 중세국어의 인용 구문은 현대국어와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현대국어는 ‘물수는 ‘눈이 희요’ 하고 말했다’ 또는 ‘물수는 눈이 온다고 말했다’의 같이 인용용어가 포함되는 구조로 나타나나 중세국어는 ‘영광[가] 일노신 내 조라와 한노다 공화 에 어인상질 호되-’의 같이 인용용어가 포함된 구조로 나타난다. 또한 현대국어와는 ‘회 고, 지라고, 고’와 같은 인용표기가 결합하나 중세국어는 이러한 표기가 없다. 이러한 인용표 기는 후대에 발달한 것으로 ‘다고’를 어이외 범결어외로 일체 환원한다. 중세국어에 나타나는 인용 구문의 특성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 ㉠ 가-인 NP에 V로써 S
 ㉡ NP에 호되 S
 나-인 NP에 V로써 S 만노다
 ㉢ NP에 호되 S 만노다
 ㉣ NP에 V로써 S 만하 V

에서 ‘-다고’로 축약되어 현대국어에서는 ‘-고’와 같은 인용표지가 재분석되는 경우는 통시적 축약이라 할 수 있고 ‘철수가 간다(고) 했다.’에서 ‘하-’의 탈락으로 ‘철수가 간됐다’로 축약되는 현상은 공시적 축약이라 할 수 있겠다.

- ‘-다고’류 어미는 각 서법에 따라 ‘-다고, -냐고, -라고, -자고’로 나타난다. ‘-다고’류 어미란 이들을 통칭한 이름이다.
- 중세국어 인용문의 유형은 정희창(1993), 이금희(2005)에 제시된 것을 참조하였다.

- 다. ① 2피어 5 V
- ② 2피어 5 톨 나
- ③ 2피어 5 톨 나 V

안주호(2003, 125)에서는 ②가)가 중국어의 전형적인 인용문 형식이고 ③)가 현대국어의 인용문 형식인데 중국어에서 현대어로 넘어 오는 과정이된 단계에서 ②)와 같은 유형이 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서 ‘다’고’형태 현상화는 ②)와 ③)의 같은 유형과 같이 국문은 ‘다’에 ‘고’ 중사가 결합하는 유형을 대표로 이루어진다. ‘다’고’는 ‘다’ 후 ‘고’에서 ‘가’가 탈락하면서 형성된 어미이기 때문이다. 중국어와 현대국어에 나타나는 인용문 형식 가운데 ‘가’가 국문은에 후행하는 유형을 중심으로 ‘다’고’의 형성 과정을 추적해 볼 수 있다.

현대국어의 ‘다’ 후고 V(탈락) 형식은 중국어의 ‘다’ 후어 V(나)로부터 기원한 것이다. ‘다’ 후어 V(나)의 ‘가’가 현대국어 시기에 ‘고’로, 즉 연결어미 ‘가’가 ‘고’로 대체되는 변형은 현대국어의 ‘다’ 후고 V 형식이 있음을 시사한다. 현대국어 ‘다’고’의 형성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다’ 후어 V > 과 ‘고’ V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고 여기서 ‘가’가 탈락하여 ‘다’고’가 형성된 것으로 일반적인 과정을 상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현대국어에서 인용어미 ‘고’는 동일한 ‘다’고’는 중사 인용 구문에 사용된 것이 아니라 별 끝으로 기능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다’ 후어 나 > ,다 후고 나 > ,다고 나 > ,다고 나 인용어미 같은 과정을 거쳐 도출된 것으로 보인다. 연결어미 ‘다’고’는 인용표의 ‘고’가 아니라 인용어미 ‘고’와 동일한 기능장어 고’에 의한 과정에 따라 중국어에서 ‘다’ 후고’ 뒤에 붙어 일컫는 구상된 것으로 보인다.

- ④ 가. (가)가) 1)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②)가-③)는 위와 ②)와 ③) 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기서 국문은에 후행하는 ‘고’는 인용어 인용문과 후행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때의 ‘고’는 여전히 독립 인용문과 통합하는 특징을 보인다. 즉 중국어와 현대의 ‘다’ 후고’는 ‘다’고’로 축약될 수 있는 특징을 갖추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다’ 후고’가 ‘다’고’로 축약될 수 있는 조건은 ‘고’가 국문은과 통합된 경우이다. 이(1997: 116)에서 제시되었듯이 인용문과 중립어미 상리동사 사이에서 통합이 이루어지면 고’는 사어에 통합을 방해하는 인용문과

- 5) 현대국어의 ‘-다’고’류 어미에 대해서는 그것이 연결어미이든 중결어미이든 구분하지 않고 대체로 ‘-다 하고’ 또는 ‘-다’고 하고’에서 ‘하-’나 ‘-고 하-’가 탈락하여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어 왔다. 그러나 이금희(2005: 32)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인용표지 ‘-고’의 형성은 인용구문의 축약과 동시에 또는 그보다 더 후대에 발달한 것으로 보이므로 ‘-다’고’의 축약은 ‘-다 하고’에서 ‘하-’ 동사의 탈락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 6) 연결어미 ‘-어 > -고’의 역사적 교체에 대해서는 이기갑(1982)를, 인용문 형식의 ‘하야 > 하고’ 변화에 대해서는 안주호(2003)를 참조할 수 있다.

단, 통일 총 노획장전 처음으로 요연단 투고 파출된다 풍다 <영자 180>
리, 단적인 이집단 투고 이라도 고기만 사치고 은 팔아와 은 액을 줄기다
<재국 상하>

④ 주석의 전리 의 지의 정합시 여회 제니 사인되라 열의 투고 일하사 풍다 개서고
비나리 조다 <영자 170>

⑤는 17세기 제도에 나타나는 '다 투고'의 유형을 제시한 것이다. 17세기 역시 순자-니와
같이 '투고'가 직결인용론과 통합하는 의문이 늦게 나타난다. 그리고 이러한 통합은 현대국
어에서 그대로 이어진다. ⑤다-⑥)는 '투고'가 간접인용론과 통합한 해도 현대국어라면 '다
투고'의 축약 형태가 나타날 수 있는 합리적인 현대국어 시기이기도. 그러나 축약형이 통
합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⑥)에 제시된 '다투고'가 각 시기에도 축약어 의무적이고 있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예 보인다.

⑦)에 의해서 '다 투고'의 구분은 어떤 시기의 축약어 대상으로 나타난다. '투고'가 간접인
용론과 통합하는 의문이 늦어지면 '다투고'의 축약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예상되는데 실제
자료에서 '다투고' 축약형은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다 투고' 유형에서 축약된 '다투
고'의 예는 어떤 시기에도 다소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특히 18세기 이후의 <연암잡록>에서
'상절' 처다 나타내다 <인용 1>, '상절' 나가 거대다 <인용 2>의 '다 투고'의 축약
된 '다투고' 쓰이고 있어 인용구문의 축약 현상이 존재하나 자료상의 한계로 제대로 나타나
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⑧) 투고 장의 축약형은 19세기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한다. 이 시기 역시 '투고'와 통합하
는 직결인용론과 간접인용론 두 양식을 모두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간접인용론만
결하는 때부터 축약된 형태인 '다투고' 나타나고 직결인용론과 통합한 '다 투고' 유형이
연도상 매우 부차적 나타낸다. 즉 이 시기부터 현대국어와 유사한 인용은 형식이 정제되
었다고 할 수 있다. 축약된 형태인 '다투고'는 현대국어와 같이 종결어미 '다'와 '인용표지' '-
고'로 분석되는 경우도 있고 통합형 완결어미 '다투고'인 경우도 있다. 여기서는 인용어라고
쓰이는 '다투고'의 예문 제시하고 이례적 처치도 쓰여지게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인용어미 '다투고' 치하는 몇 가지로 구분된다. 크게 나누어 인용을 차례로 통합할 차례
의 목적으로 채워지는 경우와 이유, 원인 관계로 채워지는 경우가 있고 양쪽 관계를 드러내
는 예문도 확인할 수 있다.

⑨) 가, 또 절로써 뒤문다고 영로써 피조종요은 관어 개서게 풍다 <인용록 540>
나, 그것을 채와 고리는 사절이면 주장은 양하고 그 절 줄흔은 다 나뉘고 스투어나
편다나니 <고려잡록>

다, 끝된 길승자가 채와 길다고 피조종 줄흔을 누웠으니 <내외잡록1000>
라, 무슨 주먹을 보시겠사오 그 고승을 다 주지치 않나 님짓년 <고려잡록200>

⑩)은 인용어의 통합형의 뒤도나 목적어로 채워지는 예문이다. 이러한 경우는 인용을 주어의
통합형 주어가 통합해야 하고 인용하는 약어 시제가 피과격형이어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
피과격으로도 다른 사람의 말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형 주어의 행위이나 관념을 나타
낸다[신명철영 1993, 190-195].

그런데 위와 ㉠에서 (가-나)는 하나의 연결어미로 쓰인다.자보다 <다고> 뒤에 <고> 정도가 붙으면 <고>도 붙 수 있는 예이다. 이형철(1995)에서는 현대국어에서 연결어미에 쓰이는 <다고>를 <결단형에 포함시키고> 상의한 동사 <욕>가 특징이 가능한, <결정적 결단형>으로, <욕>가 결단적 일화하여 독립 불가능한 경우는 <결정적 결단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형철(1995)은 논제 하의 동 (가-나)에 <다고>는 <결정적 결단형>으로 <다고> <고> <고>에서 <고>가 결단된 결과 도출된 형식이 된다. 그러나 문고의 논제하의 동 <다> <고> <고>에서 <고>의 발현으로 <다고>가 되었으나 아직 기원적인 형식이 갖고 있는 동사 <욕>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문제이다. (가-나)를 해석하는 데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으며 문고는 <다고>를 결단형이 아니라 축약형으로 보고자 한다. 이형철(1995)의 견해에 따르면 (가)와 같이 <다고> 뒤에 상의한 동사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결단형(의결) 형식 결단형으로 해석 하더라도 기원적으로 이러한 구문에서 상의한 동사 <욕>가 나타난 경우는 발견되지 않으며 <욕>가 결단된 적이 없는 경우에 대체해서서 결단 불가능한 <욕>의 발현을 상정하는 여건이 보인다고 한다. 위와 (가-나)는 <다> <고> <고> 구문에서 <다고> <고> 구문으로 축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라 언문구문에서 연결어미로 발현이 변이가 일어나는 과도기적인 상태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기서 <다> <고>의 변이가 좀 더 간명해지면 (가-과)와 같은 통합 연결어미로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다음은 <다고>도 결속된 단행형과 후행형이 이어나 근거의 관제도 해석되는 경우이다.

- ㉡ 가. 내 일할까 귀뚜라 피리와 <다>고 하느담까지 겨우어 주시는 거지 아니나
<연도적결 ㉡>
나. 그 단행도 그제 고상한 홀 혼 아니와 날면이 곧 파랗다고 말한데 말이 두나 상쟁
은주 <속결단형(㉡a)/180쪽의 논점>
다. 내가 <라고> 했어 그게 기원정기 <라고>를 ㉡b
과. 세월도 주도 순선지되고 세운 세상이 일라고 두 덕에서 또다 경양도 지구 일
기원 수물로 하수물 주신다 <연상결 ㉡>

㉢은 <다고>가 이어나 근거의 의미를 담당하는 연결어미로 쓰이고 있으며 이 경우는 위와 <욕>, <피>의 위어관계와 달리 전-후행형 주어가 동일해야 한다.단가 단행형의 시제가 위어관계가 변하는 예이다.

㉠과 ㉢은 통해 <다고>도 결속된 전-후행형의 위어관계가 <피>, <욕>이나 <이>, <고> <고>로 해석될 수 있음을 알려준다. 그런데 <피>, <욕>과 <이>, <고> <고>라는 위어관계는 전-후행형 사태의 발현 시점을 고려하면 상의하는 위어관계로 볼 수 있는데 <다고>가 두 가지 위어관계를 동시에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매우 특이하다. <피>, <욕> 구분에서는 단행형이 후행형 사태보다 시간적으로 늦게 이루어지는 것인데 비해 <이>, <고> 구분에서는 단행형의 예가 후행형보다 시간적으로 먼저 일어난다. <다고>의 <고>는 연결어미 <고> <고>와 또 온 것이고 연결어미 <고>는 단행형과 후행형 사태를 계기적 관계로 결속하는 것이 주된 가능성이 때문에 단행형 사태가 후행형 사태에 대한 이유, 원인으로 해석되는 것은 매우 의외스럽다. 두 <다고>의 발현을 고려하면 연결어미로 쓰이는 <다고>가 이어나 근거의 의미를 표시하는 것은 본래와 과정에서 자연스럽지 않을 수 있는 결과이다. 그렇다면 <피>

8) ‘-고’가 선행행절 사태를 계기적 관계로 연결하여 이유, 원인의 의미가 표출되는 경우로 ‘아이스크림을 먹고 배탈이 났다’와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도, 목적의 지하는 여할지 가능한가. 이 경우는 연결어미 '고'의 위치보다는 '다고'가 인용을 담당했던 구절이라는 점이 더 크게 작용할 것으로 여겨진다. '다고'가 인용구절에 쓰일 때는 인용의 내용이 먼저 제시되고 이 내용이 후행할 내용과 '고'로 결합되는데, 진행형에 제시되는 내용이 다른 시형의 말인 하니까 후행할 주사의 위치나 목적과 관련되는 경어나 관련된 경우 어떤 하위관계가 도출되는 것이 어림의 추종된다.

'다고'가 연결어미로 제시되는 또 다른 경우도 아래와 같은 예를 볼 수 있다.

(9) 가. 안나치는 눈을 감아먹어도 그가 안아안다고 서갈 말것중에 써서 나리느니 그 제말이
는 년들이 그 제에 짓게 잇는가 보세 <노복을 1024>
나. 왜요제 이말 언제 본 적인다고 문헌의 명칭서로 알고 정산서와 맞을 부제
<구미산 120>
다. 몇 볼 것은 일세도 도적 줄 것은 일라고 제갈 인갈은 누가 아호 <구미산 132>

(9)는 속절이나 관동구를 인용하는 경우에 '다고'가 보여 '다고'의 문제적 기능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이다. 이러한 예의 '다고'를 연결어미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할 수 있으나 '다고'가 '다+고'로 분석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고 '다고' 뒤에 '해'가 절충적으로 표현되는 것도 예외적으로 일단 연결어미로 여겨지기도 한다. (9)는 앞서 살펴본 (9), (9)와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아래의 '다고'는 '다' '고' 등 구문에서 축약되었다고도 간접언론 구문 '다고' 뒤에 '해'가, '해'는 '해' 등의 상의한 용자가 생략되면서 결과적으로 '다고'가 연결어미로 쓰이게 된 것으로 보인다.⁹⁾

(9)와 같이 간접언론의 상의한 용자가 생략되면서 '다고'가 연결어미로 기능하게 되는 경우도 아래와 같은 예를 더 볼 수 있다.

(10) 가. 몇 번 동안 피똥 일라고 사물이 죽을 일이 업시 <죽림행취록로 제1.8>
나. 한은 본문다고 그 사물이 부식은 사물이 아니라 <죽림산문(1896/4/7일자 논평)>
다. 곧 번 일출은것이라고 내눈의 편아보아 고향 줄가 잇는 말야
<신재호판소리사설 496>
라. 제 목 잇서 잘 안다고 일가 안씩 말세 일소 <유충렬전(판본86장문) 4431 >

(10)은 전·후행할 지어관계가 양보관계로 해석되는 예들이다. 이 경우 역시 '다고' 뒤에 '해', '해' 등의 상의한 용자가 생략된 것으로도 볼 수 있어 '다고'가 절충한 연결어미의 지위를 재확인되고 보기에 여유를 얻는다. 그러나 생략된 상의한 용자가 복원될 수 있다. 예로 (10)에서 '다고'와 결합한 진행형의 지어내용은 일정한 지체를 제시할 뿐 더 이상 인용으로 볼 수가 없다. 따라서 양보관계를 나타내는 (10)의 '다고' 역시 연결어미로 보기도 한다. 이때 '말'의 지어는 생략된 상의한 용자에 지어가 담당하던 지어였으나 그것이 생략되면서 '다고'도 지어가 생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으로 인용은 구문에서 일어나는 축약과 생략으로 연결어미가 형성되는 두 가지 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위와는 '다' '고' 등에서 '다고'로 축약된 결과 '다고'가 연결어미로 굳어진 경우와 지어는 지어적인 구문이 인용의 지어와 '고'의 지어를 포함하고 있지 그리

9) 이필영(1993)의 용어로 표현하면 이러한 경우가 ‘환원적 절단형’이 될 것인데 본고는 이러한 경우도 연결어미로 처리하는 것이다.

면 (14)의 ‘다고’는 어미 활용과 관련된 형태를 보여주는 것으로 실제 ‘다고’의 축약은 어미 활용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어미의 ‘다고’는 종결어미 ‘다’와 연결형용사 표시 ‘고’로 분석할 수 있는 관계이다. 종결어미 ‘다고’는 연결형용사의 한 유형으로 정형된 ‘다고 V’에서 정형은 종사의 성격으로 발달한 것이다. 현대국어의 ‘다고’는 연결적 종결어미의 하나로 다루어지는데 이는 ‘-고’의 축약이 용가상하고 위치의 변화로 결정되며 종결어미의 용가상한다는 특성에 따른 것이다.(최재현 1998a) 그리고 표지문에서 ‘쇼’가 결말할 수 있다는 점도 ‘다고’를 종결어미로 처리하는 근거가 된다. 현대국어의 종결어미 ‘다고’는 정형어미의 발달에 따라인데, 종결어미 ‘다고’가 출현하는 초기의 자료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15) 가. 서라, 같이 가면 도 복을 얻어 출다고
도며, 제야 무슨 일쇼 <도발(가랑말) 23>
나. 심훈사, 이 소경이 흥성질러 어이 깊고 서나하고 흥발하며 기 반어 교활흔가
별자야의, 언산 사후 별말이나 보디고 <상경천(김홍도 소할) 24>
다. 도며, 갈노 다나나시쇼
저야, 제반 주공 날 출다고쇼 <발주주권어림도서권 소할) 25>
라. 어찌야 정글아쇼쇼 수로 말은 그 왜 반어 다 아담제쇼 귀 기말만어 불나타고쇼
<남원교사 도할> >

(16) 우리 올흔은 저사간애 죽어어고고는 눈반 불죽어 반어도 업다보섯가 나가 출나가거만
당면 조기 귀중어 나이살다구 <원정말 30>

(17)는 19세기말부터 ‘다고’가 종결어미화현상을 보여준다.¹⁰⁾ (15)에 제시된 예들은 모두 상급은 종사 ‘가’가 복원 용가상하고 ‘쇼’가 결말된 형태도 확인할 수 있다. 현대국어의 종결어미 ‘다고’는 어미 활용과 좌화 좌상의 같은 반복할 때 자동화적 좌간어 어미 그러한 발화할 의도를 통해 결정되는 유형을 보인다(최재현 1998b). 그런데 위에 제시된 예들은 좌화가 발화한 내용보다는 좌화의 정격이나 주공은 정제적 정격에서 일러주는 위치로 해석되고 (17)는 “어음속에 가오던 어떤 의문의 답이 회피로 말것이 아니었은 제야, 그 의문을 그대로 보여 주는 예 쇼는 종결 어미의 유형을 보여주는 예이다.”(18)는 ‘다고’와 비슷한 시기에 종결하게 인용문 구성에서 축약된 후에 후행문의 결단으로 종결어미화한 ‘다나나가’의 예를 보인 것이다.

4. 발음론

현대국어에서 ‘다고’의 음절은 다음 특정한 발음을 보이는데 곧 이것은 인용어미 ‘다고’와 종결어미 ‘다고’를 대상으로 한 ‘다고’가 각기 다른 통사적 구성으로더 기원한 것임을 밝혀서 되었다. 그리고 인용문 구성에서 각각 인용어미와 종결어미도 별도의 변화론 결론

10) 반말체 종결어미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에 등장하는 것은 18세기 자료에 나타나는 ‘-지’이다. ‘-지’를 제외하면 ‘-어, -거든, -넋가’와 같은 연결어미들이 종결어미화하는 시기는 대체로 19세기쯤으로 나타나는데 ‘-다고’도 이러한 변화에 동참하고 있다.

11) 《표준국어대사전》의 표제어 ‘다고’ 뜻풀이 참조.

해 제반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본 연구는 '다교'를 이미 간행된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으나 '사교', '과교', '제교'도 '다교'와 동일한 것이냐는 관계하여 필적적으로 '다교'행헌은 중점으로 살펴본다. '다교'를 이미 해 속하는 것까지 어린이들에게 대해서도 정당한 권리가 요구된다.

■ 참고문헌

강진건(1977), 15세기 국어의 인용구로 연구, 서울대 언어학과 석사학위논문.
 권세영(1998), 한국어 인용구론 초형의 변화와 인용표지의 형성, 언어학 22, 59-79.
 김수재(1996), 우리말의 인용표지에 대하여, 국어학연구 30, 229-272.
 김수재(1996), 인용문의 기원과 유형, 우리말연구 6, 165-176.
 김용병(1987), 「시연사, 「다산사, 「다산의 구호와 의의, 말 12,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71-82.
 남기성(1973), 국어 관형보합법 연구, 경성대학교출판부.
 박재현(1998), 현대국어 발달의 중점어미 연구 (국어연구 152),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박재현(2005), 「시고고의 어미에 대한 관음론의 접근, 국어학보 24, 463-494.
 안영철(1991), 인용 구문 통합의 특성, 국어학회 제38호 언어의 본질 (김원진 선생 회갑 기념논문집), 인촌사, 723-734.
 안주호(1991), 후기 근대국어의 인용문 연구, 성명학회 석사학위논문.
 안주호(2005), 인용문의 인용표지의 존엄화에 대한 연구, 담화와 인지 제10권 1호, 145-165.
 홍원경(2002), 어미 「시고고」의 의의와 방법, 제10집 31, 99-122.
 이광호(2006), 복합조사 「이러고」의 형성의 관해, 국어학 42, 145-177.
 이광호(2005), 인용문 형식에서 존엄화된 어미 조사 연구, 성명학회 석사학위논문.
 이금희(2006), 인용문 형식에서 존엄화-존엄화 과정과 존엄화 정도에 대하여, 국어학 48, 215-238.
 이시영(1998), 국어의 종합 현상 (국어학총서 22), 태학사.
 이원철(1995), 국어의 인용 구문 연구, 탑출판사.
 이원철(1995), 말차기 구문에서의 국어에 대하여-「다, 아라, 아라, 라, 노라」형용 중심으
 로, 국어학 26, 1-32.
 이원희(1980), 중세국어 내외 용법의 양적, 현신논집 3.
 이원희(1990), 보합화, 국어연구 이다섯지 된다, 동지출판사.
 이원희(1994), 중세국어 구문 연구, 신구문화사.
 이원희(1994), 15세기 국어의 존엄사적 고찰, 한국문화 15, 서울대 학국문화연구소, 57-61.
 정희정(1993), 15세기 근대문학의 인용문 형식에 대하여, 성명학회 석사학위논문.
 정희정(2002), 중세국어 인용문에서 나타나는 「다」의 존엄 변화, 이문연구 115, 한국어문
 교육연구회, 57-71.

‘-다고’류 어미의 형성과 의미

김건희(충남대학교)

이 논문은 인용문 형식에서 문법화한 것으로 알려진 ‘다고’류 어미의 형성 과정과 변화에 대해 고찰한 것이다. 연결어미 ‘다고’와 종결어미 ‘다고’를 형태, 통사, 의미적 측면에서 변별하여 각각 어떠한 형식으로 도출된 것인지, 그 기원을 밝히고 의미 변화 과정도 살펴보고자 하였다. 핵심 논거는 기존 연구에서 주목하지 않은 연결어미 ‘-다고’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는 것과 연결어미 ‘-다고’와 종결어미 ‘-다고’의 기원(형성 과정)에 대해 구별할 필요성이다.

1. 연결어미 ‘다고’는 종래의 인용 형식 ‘-다 하고 S’에서 ‘-다고 S’로 축약된 것과 ‘-다고 ㅎ-X S’ 구문에서 ‘ㅎ-X가 생략되면서 ‘-다고 S’ 구문으로 변화된 것으로 구별하였습니다. 또한 종결어미 ‘다고’는 간접인용문의 한 유형으로 정착된 ‘-다고 V’에서 상위문 동사의 생략으로 형성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즉 연결어미 일부만 ‘축약’ 기제로 생성된 것이고, 연결어미 일부와 종결어미는 후행하는 ‘하다 혹은 상위문 동사’의 ‘생략’ 기제로 생성된 것이라는 주장인데 이러한 결론은 결국 인용문 형식에서 문법화한 것으로 알려진 기존의 견해와 크게 다르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견해와 다른 면에 대해 토론자가 잘 이해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으므로 좀더 명시적인 차이점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위 밑줄친 부분에서 ‘-다고① ㅎ-X S’ 구문에서 ‘-다고② S’ 구문으로 변화되었다고 했는데 그럼 이미 생성되었던 ‘-다고①’과 새롭게 나타난 ‘-다고②’는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것이지요? 이어서 본문에서 ‘다고’ 형성에 대해 언급한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네 가지 경우인데

- ①다 하고 -> 다고 (-ㅎ- 생략)
- ②다고 하고 -> 다고 (-고 ㅎ- 생략)
- ③다고 ㅎ-X -> 다고 (-ㅎ-X- 생략)
- ④다 하고 -> 다고 -> 다고 (하고) -> 다고(1쪽 현대 국어 부분에서 언급)

②를 배제하는 명확한 근거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①은 간접인용문이 통합된 경우에만 나타나고 19세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①의 변화과정을 보이는 것으로 제시한 연결어미 생성은 이 시기 이후로 결정되는 것이지요? 본문에서는 중세국어(16세기)에서도 연결어미적 쓰임을 보이는 것을 언급했습니다만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유형의 ‘다고’ 각각에 대한 충분한 논의 후 이와 관련된 연결어미 및 종결어미 논의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떤 형식에서 나온 어떤 위상의 ‘다고’에 대한 논의인지 논의의 흐름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 2. (1)에 대한 논의 후반에서 (1나)와 (1다)를 각각 (1다), (1라)로 바꾸어야 합니다.
- 3. 서론이나 본론 초반에서 고찰 대상이 된 통시적 문헌에 대하여 중세, 근대, 개화기 등으

로 시기별 문헌 목록을 명시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4. 3쪽에서 연결어미 ‘-다고’의 ‘-고’는 인용표지 ‘-고’가 아니라 연결어미 ‘-고’와 관련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는데, 바로 앞에서 인용 표지 전체 구성 ‘다 해야 V > 다 하고 V’를 제시하며 연결어미 ‘어’가 ‘고’로 대체되는 변화를 꺾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전체 인용 표지 틀에서 연결어미만 교체된 것이고 그렇다면 이것은 인용표지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지요?
5. 6쪽에서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S’ 구성에서 ‘-다고 S’ 구성으로 축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며 ‘-다’와 ‘-고’의 관계가 좀 더 긴밀해지면 (7다~라)와 같은 융합형 연결어미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관계가 좀 더 긴밀해진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더 정확한 표현을 쓰거나 논거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6. 7쪽에서 예문 (10)에 나타난 ‘양보’의 의미는 생략된 상위문 동사의 어미가 담당하던 의미였으나 그것이 생략되면서 ‘-다고’로 의미가 전이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 문장에 대한 의미 해석은 생략된 상위문 ‘-해서, -해도’를 복원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다고’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전이되거나 생성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7. 결론에서 논의의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다고’와 동일한 기능인 ‘간접인용, 연결어미, 종결어미’의 기능을 가지는 ‘라고’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문자 사용 방식에 따른 국어 문체 변천사

허재영(단국대학교)

□ 차례 □

1. 머리말
 2. 문자 사용 방식과 국어의 문체
 - 2.1. 문체 연구의 관점
 - 2.2. 문자 사용과 문체
 3. 언해체의 변화
 - 3.1.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한자음 표기
 - 3.2. 언해체의 변화
 4. 근대계몽기 이후의 국어 문체
 - 4.1. 한언문혼합문체(漢諺文混合文體)
 - 4.2. 칙령 제1호의 공문식의 세 가지 문체
 - 4.3. 부속문체의 출현
 5. 국문 통일과 문체 발달 -결론을 대신하여-
- 참고문헌

1. 머리말

이 글은 훈민정음 창제 이후로 한글과 한자 사용 방식에 따라 국어의 문체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살피는 데 목적이 있다. 문자 사용 방식과 문체는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는데, 그 까닭은 사용 문자에 따라 글을 쓰고 읽는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더욱이 문자 사용 방식은 한 개인의 언어 사용 방식을 반영하기보다 특정한 시대나 사회의 경향을 드러내기 때문에 문체론적 차원에서 오래 전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문체란 글에 나타난 특성을 의미한다. 박갑수(1994)에 따르면 문체에 대한 관심은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수사학적인 차원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문체에 대한 관심은 매우 다양하여 언어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경우와 수사학이나 문학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방식은 상이하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문체에 대한 관심은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는 방식에서 비롯되었으며, 따라서 말하기나 글쓰기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국어 문체에 대한 관심도 마찬가지이다.

국어의 변화 과정에서 한자와 훈민정음의 사용 방식은 문체 변화의 주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훈민정음이 창제되기 이전에는 한자를 우리말식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중국식 문장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한자를 우리말식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고유 명사를 표기할 경우와 문장을 표기할 경우의 글의 양식이 다르다. 훈민정음 창제 이후로부터 1933

년 <한글마춤법통일안>이 제정되기 이전까지는 한자나 한자음 표기 방식이 통일되지 않은 채 한글과 한자가 혼란스럽게 쓰였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국어 문체의 혼란을 가져온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이를 고려하여 이 글에서는 국어의 문체 변천사를 문자 사용 양식에 따라 정리하는 데 목표를 둔다. 이처럼 사용 문자를 기준으로 한 국어의 문체 변천사를 연구한 업적으로는 심재기(1992), 민현식(1994), 홍종선(1996), 김형철(1997) 등이 있다. 이들 연구는 주로 근대계몽기의 문체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국한문 혼용 양상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 점에서 국한문 혼용 방식의 유래와 변화 과정을 통시적으로 고찰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훈민정음 창제 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국어 문자 사용 방식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기술하고자 한다.

2. 문자 사용 방식과 국어의 문체

2.1. 문체 연구의 관점

국어의 문체에 대한 관심은 국문에 대한 재인식이 이루어진 1890년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철서언해의 법’을 본받아 국한문 혼용체를 만들었다는 유길준의 『서유견문』뿐만 아니라, 이 시기의 각종 국문 관련 논설¹⁾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문체’에 대한 본격적인 관심은 1910년대 이후의 작문 이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1) 근대계몽기²⁾의 ‘문체’의 개념

- ㄱ. 文體에는 漢文 國文(國漢文)의 二種이 有하나 普通學校에서는 漢文을 作케할 必要가 無하고 又 國文을 課함에도 決코 世上 文人 墨客의 輩을 模倣하야 優美莊重威嚴 又는 冒頭抑揚頓挫와 如히 文章의 結構와 修辭의 巧拙 等은 關重히 할 바이 아니오 其要는 達意에 全在할 뿐이라. 然則 俗語를 混入하야 書하야도 可하고 又는 諺文만으로 綴하야도 可하니 其要는 行文으로 平易히 其旨趣를 何人이든지 明瞭히 了解하도록 自己가 言코자 하는 바를 遺憾업시 言하면 足할지라. (『普通教育學』 第二編 教育의 方法 中 綴法教授)
- ㄴ. 文體는 文章의 作法上 體裁를 云함이니 文體는 文章의 性質을 從하야 多少 相異한 形式이 有한지라. 故로 今에 其大體上 通行하는 形式의 數種을 知할 必要가 有하니라. 然이노 人의 思想은 千變萬化에 其極이 無흔즉 其 思想의 表現法된 文體도 從亦 千差萬別이라. 如何한 題目에던지 必 其 特定한 文體가 常有키 不能하니 故로 必須 其 思想과 題目에 相伴하야 相應한 者를 適宜 選擇치 아니함이 不可하니라. 古來 朝鮮에서는 科文 六體 卽 詩, 賦, 表, 策, 論, 疑, 義 等으로써 文體에 主要 部分을 作하엿스며 支那에 在하야는 其 種類가 益繁하야 論, 策, 辨, 解, 釋義, 說, 序, 引, 記, 銘, 跋, 傳, 頌, 贊, 題名, 上書, 表, 奏疏, 箴, 碑文, 墓誌, 祭文, 弔狀, 書誥, 制, 原, 檄 等이 有하엿스노 差等은 一一히 解說할 必要가 無하고 玆에는 다뭇 實用上 必要한 者를 擧하

1) 허재영(2006)에서 밝힌 바와 같이 1890년부터 1910년까지 각종 신문이나 잡지, 학회지 등에 실린 국문 관련 논설은 약 60여 편에 이른다. 이들 논설은 국문의 중요성과 국문위주의 어문생활을 촉구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2) 역사 용어로서 ‘근대’와 ‘현대’를 구분하는 일은 많은 논란을 불러온다. 국어사의 시대 구분에서는 갑오개혁(1895)을 기준으로 ‘현대국어’로 설정하는 것이 통설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역사학계나 국어교육사의 관점을 고려할 때 1880~1910년 사이의 시대적인 성격은 ‘현대’라는 용어를 사용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다. 이 점에서 이 논문에서 사용하는 ‘근대계몽기’는 1880~1910년 사이의 시기를 의미하며, 정치·경제·사상·문화적인 면에서 전근대성을 탈피하고 계몽적인 성격이 강하게 나타났던 시기를 범박하게 일컫는 말이다. 연구자는 국어교육사를 기술하면서 이 용어를 사용해 왔으며, 이 용어의 타당성 여부는 윤여탁 외(2006)에서 논의한 바 있다.

건되 左의 種類가 有하니라.

一. 寫生文 二. 議論文 三. 誘說文 四. 報告文 五. 送序及 書序文 六. 辨駁文 七. 祝賀文 八. 弔祭文 九. 金石文 十. 傳記文

以上은 文體의 大要와 種類를 概示함이라. 今에 右의 各種 文體에 通하여야 注意를 要할 事項이 如左하니

一. 文體는 思想에 適應케 함을 要하니 文體를 爲하여야 思想을 變改 又は 防害함을 決코 不可하니라.

二. 文體는 讀者의 了解力에 適應케 함을 要하니 故로 可及의 易解한 文體를 取되 或 其 不可已한 境遇라도 決코 文體를 完全히 爲하여 了解를 缺케 하는 事 | 有키 不可하니라.

三. 自家 獨創의 文體를 得함을 務홀지니 他人의 文體 又は 既成한 文體만 模倣奪襲함은 또한 必要한 事 | 아니라. 恒常 名家의 文을 多讀하며 各種의 文體에 精通하여 其 長處를 學하고 能 作能改하여 練熟을 積하면 自然히 一種 自家 獨創의 文體를 見홀지니 此 | 所謂 文章의 成家라. 作文이 此에 至하여 始乃完全한 者 | 라 홀지니라.(이각중, 『實用作文法』 下篇 文章各論)

(1가)에서는 근대식 학제 도입 이후 작문(철법) 교육에서 글을 쓰는 방식과 관련하여 ‘문체’에 대한 관심이 제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1나)에서는 ‘작법상 체제’라는 문체의 개념과 ‘통용 문체, 독창적 문체’라는 문체의 유형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 두 자료는 문체가 독자와의 소통을 전제로 하므로 ‘언어적 표현’이나 ‘문자사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특히 (1가)에서는 사용 문자에 따라 ‘국문체’와 ‘한문체’라는 두 종류의 문체가 있음을 전제로 하였다.

1920년대 이후의 문체에 대한 관심은 ‘문투’라는 표현으로 나타난다. 문투는 말이나 글의 버릇이나 특징을 의미하는 것으로, 근대적 학문의 도입과 식민 시기의 특징을 반영하는 말투가 생성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2) 大抵 文이라 呼는 것은 言의 精한 者이오 言이라 呼는 것은 卽 自己의 意思를 表示하는 것은 必히 單獨의 行爲가 안이오 相對의 行爲가 될지니 卽 自今에 何如한 人의 著述한 文을 勿論하고 此는 盖 當時及 將來에 在한 他人으로 呼야금 此를 讀하는 同時에 所懷를 知케 하고져 함이오 決코 暫時 逍遙의 으로 筆을 弄하고 紙를 戲함이 안이리하다. 然則 他人을 對하여 言語를 交할 時 其 言語의 內容도 勿論이어나와 其 形式 種類 如何에 依하여 相對者로 呼야금 諸種의 感을 起케 함은 嗚呼를 不俟하는 바이다. 然則 文도 亦此와 如홀지니 文을 述함에 當하여 엇지 言語를 交할 時의 注意를 要치 안이리오. (중략) 假令 初面의 人을 對하여 卽時로 下待體(해라체)의 語套를 用하면 對者가 此를 傾聽할 理 有할가. 又 多衆의 人을 相對로 呼야 討論이나 講演을 할 시 此等 語套를 用할 수 잇스며 聽할 者 | 有할가. 近來 言文上 形勢를 觀하건되 交際上 日用하는 語의 套는 甚히 高尚親切한 者 | 多하여 昔日에 聞하던 一種 專制의 言套는 漸減하고 此에 反하여 交의 套는 幼稚輕薄한 者 | 漸多하여 所謂 言文이 一致치 못하는 傾向이 有하니 此에 對하여 吾人은 當然히 一次 研究할 必要가 有함을 認치 안이치 못하리하다. 一例를 舉하건되 近者에 刊行되는 朝鮮 諸書籍 中 小說 雜誌 新聞 等과 如한 公衆讀物의 一部에 多히 下待體의 語套로 文을 述한 者 | 有하니(例컨되 도착하였다 경치를 본다 그리한 것의 안이다... 等과 如한 日本文의 兒童用 獨演體와 類似한 文套) 大概 此等 書籍은 何許人을 讀者로 認한 文이며 此等 文套는 何時代에 使用하던 文套이뇨. 勿論 該書를 著作한 者 | 該書로 呼야금 必히 自己보다 以下의 身分되는 者에 限하여 讀하는 것이 되게 하고져 함이 안일런지? 一般 公衆의 讀物로 될 것으로 認한 것은 該書籍 種類에 依하여 自然 明確하며 諺文을 著한 者 | 勿論 語套의 種類와 使用의 境遇를 不知한 人이 안임은 諺文을 構成하는 常識에 依하여도 能히 判斷할 者이로다.

然則 學問上 社交上 相當한 知識을 有한 者 | 一般 公衆에 對하여 自己의 意思를 表示함에 此와 如한 輕薄的 語套, 下視的 語套를 用함은 其故가 何오 알지 못하겠도다. 言과 文이 異하니 對話 時에는 勿論 高尚的 尊待的 語套를 用하나 文으로 表述할 時는 輕薄的 下待的 語套를 用하여도 無妨함으로 思함인가. 古人之語에도 言之精者爲文이라 知았스니 엇지 他人을 對하여 自己의 意思를 表示함에 言과 文이 秋毫나 相異함이 有하리오? -金剛山人, ‘朝鮮語의 新文套에 對하여’ 『매일신보』 1920.7.18.

(2)는 1920년 7월 18일자 『매일신보』에 게재된 금강산인이라는 필명 작가의 ‘조선어의 신문투에 대하여’라는 논설 가운데 일부이다. 밑줄 그은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이 논설에 등장하는 문투의 개념은 문장이나 언어의 격식과 특성을 의미한다. 이는 곧 오늘날의 ‘문체론’의 연구 대상인 셈이다.

문체론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시점은 1950년대 이후이다. 박갑수(1994)에서는 국어 문체 연구가 이승녕(1950)의 ‘문체의 시대적 고찰’에서 비롯되었다고 하였는데, 이 논문은 문체학을 일종의 성격학으로 규정하고 ‘국어의 전체적인 성격을 연구’하는 특성론과 ‘양식학’의 하위 영역을 이룬다고 하였다. 그 이후 국어 문체에 대한 관심은 글쓰기의 차원, 문학 연구의 차원, 국어 연구의 차원에 따라 다양하게 진행되었는데, 이를 집대성한 최초의 업적이 이인모(1960), 김덕환(1964)이라 할 수 있다. 이인모(1960)에서는 ‘문체론의 이론적 고찰’에서 문체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 ‘월(文)-글월(文章)-사람-개성과 성격-월은 사람’이라는 항목을 설정하고, “문체는 문장의 모습이며 사람이며 품격”이라고 규정하였다. 이 연구서도 문체론이 작문 이론을 기반으로 하였으며, 글의 특징을 나타내는 언어적인 단위와 수사 문제 등을 포함하였다. 김덕환(1964)는 문체론을 학문적 차원에서 다루고자 하였는데, 문자나 언어 단위, 문법과 문장의 유형을 바탕으로 한 문체의 구성 단위를 규명하고, 각종 양식에 나타나는 문장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언어의 사회성이나 적도성(수용가능성)을 고려한 문체의 효과를 밝히고자 한 시도는 문체 연구가 작문의 수사적 기교나 문학의 표현 방식뿐만 아니라 언어학적 연구 대상임을 명료하게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박갑수(1994)의 국어 문체 연구사를 종합할 때 1960년대 이후의 국어 문체 연구는 문학적 문체론이 주를 이루었으며, 1980년대 이후에는 개화기의 국어 문체와 관련하여 어학적 문체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³⁾. 특히 어학적 문체론의 관심사는 문자 사용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한문체가 본격적으로 사용된 근대계몽기의 문체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2.2. 문자 사용과 문체

문체의 개념을 ‘글의 특성’이라고 규정할 때, 국어 문장의 특성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 요

3) 문학적 문체론과 어학적 문체론은 박갑수(1994)에서 사용한 용어이다. 이 논문에 따르면 이 두 가지 용어는 김홍수(1992)에서도 사용된 적이 있으며, ‘문학적 문체론’은 일제강점기 일본인의 연구서에도 등장하는 용어로 나타난다. 또한 박영순(1994)에서는 ‘문체 형성의 동기 또는 원인’, ‘문체의 결과면에서 본 정의’, ‘문체의 기능면에서 본 정의’, ‘문체의 언어적 성격에서 본 정의’로 나누어 문체의 본질을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체론의 종류를 층위(사회 문체론, 개인 문체론), 시간(공시 문체론, 통시 문체론), 대상(문예문 문체론, 실용문 문체론), 방법(통계 문체론, 심리 문체론, 언어적 문체론), 성격(언어학적 문체론, 문학적 문체론, 독립적 문체론), 언어 단위별(음운 문체론, 단어 문체론, 문장 문체론, 담화 문체론)로 나누어 제시한 바 있다.

인 가운데 하나는 ‘문자’이다. 이는 문체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한 초기의 저작물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3) 1920년대 문법서

ㄱ. 文體의 種類 : 口語體와 文語體의 區別은 各個의 單語에는 區別이 極少하나 文體에 因하여 各各 區別이 有하니, 其 種類의 一斑을 左에 略說하노라.

一. 純口語體 : 학교에 간다.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집에 돌아와서 노오.

口語體의 末尾에 文語의 助用詞를 附用하는 文體도 有하니라.(중략)

二. 普通文語體(諺漢文交用) : 普通文語體는 漢字에 助詞, 助用詞 等を 混한 文體인데 今日 普通으로 通用되나니라. (중략) 右와 如한 普通文語體의 文을 作할 時에 漢字와 漢熟語의 中間에 助詞, 助用詞로 交用되는 諺文은 百字 内外면 足하니 左에 普通 使用되는 字를 參考로 記載하노라.

三. 漢文訓讀體(諺解, 색임) : 子貢이 君子를 물은대 子ㅣ 갈아사대 먼저 그 말을 行하고 뒤에 조 출지니라(子貢問君子, 子曰先行其言, 而後從之). (중략) 右를 漢文 懸吐體로 改하면 左와 如하니라. 子貢이 問君子한대, 子曰先行其言이요 而後從之니라.

四. 書簡文體 : 書簡文體는 從來 純漢文體와 純諺文體의 二者가 普通으로 通用되었으나 今日에는 普通漢文體가 書簡文으로 公私에 共用되나니라(純口語體도 或 通用됨) 左에 一例를 示하노라. (중략)

右 各文體의 外에 記事文 등에서 口語體와 文語體 等を 交用하는 所謂 言文一致體와 如한 것도 現時 新聞 及 雜誌 등에 흔히 使用되나니라. 또 普通文語體의 一種인 條文에서는 文의 末尾에 一 種 特殊한 形을 示하니 ‘…함. …함이 可함.’ 等이니라.

右에 文體를 四種에 分하여 說明하였으나 此는 最近 三四十年來로 諺文이 盛히 公私間에 使用 케 된 後의 事니, 其 以前은 諺文은 四百數十年間 社會의 裡面에 隱遁하여 漢文을 未解하는 者와 婦女子의 手에 依하여 僅히 一縷의 命을 存續하였을 뿐이요 所謂 知識 知識階級에서는 專혀 漢文 이 跋扈하였섯나니라. 그러나 這間에도 所謂 吏讀가 公私用文 등에서 漢文 補助의 用을 作하였나 니 左에 吏讀에 對하여 其 概略을 述하고자 하노라.(중략) 이완웅(1929) 『중등교과 조선어문법』

ㄴ. 文體의 種類 : 文體를 大別하면 口語體와 文語體로 區別하나 이것을 詳細히 區別하여 보면, 여 러 가지 文體가 있다. 例를 들어 比較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一. 口語體 : 言語와 文이 一致하여 쓴 글을 읽으면 곧 使用하는 言語가 되는 文體를 이룸이다.

二. 文語體 : 實際의 言語와 다른 文體를 이룸이다.

三. 諺漢文體 : 漢字에 助詞, 助動詞를 섞은 文體이다.

四. 公文體 : 普通文語體의 末尾에 ‘…함, …할 事’ 等を 부친 文體이다.

右는 細別한 名稱이나 普通文語體라 하면 口語體가 아닌 其他의 文體를 總稱한 것이다. 그럼으로 漢文을 訓讀하는 文體라든지 諺漢文의 書簡文이라든지 모다 文語體로 볼 것이다. 그러나 現行되는 文體는 口語體가 主가 되고, 文語體라야 言文一致에 갖가운 文語體를 使用한다. 심의린(1936), 『중등학교 조선어문법』

(3ㄱ,ㄴ)에 나타난 ‘문체의 종류’는 언어 사용 방식이나 문자 사용 방법을 기준으로 구별한 것이다. 두 자료에 나타나듯이 언어 사용 방식에 따라 ‘구어체’와 ‘문어체’, ‘언문일치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사용 문자에 따라 ‘언한문체’, ‘한문혼독체(언해체)’ 등의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문체 유형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한자 사용 방식이다. 이완웅(1929)에 나타난 ‘언한문교용’과 ‘한문혼독체(언해체, 현토체)’ 또는 ‘이두’는 모두 한자 사용과 관련된 용

어이다.

한자 사용 방식은 한자가 전래된 이후로 다양하게 변화되어 왔다. (3)의 문법서에서는 당시 통용되던 한자 사용 방식을 기준으로 언한문체와 한문혼독체로 뭉뚱그려 표현하였지만, 한자를 빌려 우리말을 표기하는 방식도 동일하지 않았으며, 한자를 국문에 섞어 쓰는 유형도 그 방식이 다양했다. 특히 문자 생활사의 차원에서 훈민정음 창제 이후의 한자 사용 방식은 기존의 차자 표기 방식과는 판이하게 다른 형태로 변화하였다.

3. 언해체의 변화

3.1.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한자음 표기

국어 문체 변화에서 ‘한자 사용’ 문제는 두 가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안고 있다. 먼저 한자어를 한자로 표기해야 하는가 아니면 훈민정음으로 표기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이다. 이 문제는 ‘국문위주(國文爲主)’를 표방했던 1895년 칙령 제1호 이후 근 백여년 간의 논쟁거리가 되기도 하였지만,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는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훈민정음 창제 이전의 사용 문자가 오로지 한자였기 때문에 한자를 사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논란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훈민정음 창제 이후 최초의 문헌으로 알려진 ‘용비어천가’는 이를 잘 증명해 준다.

(3) 龍飛御天歌 第一

ㄱ. 海東 六龍 이 느르샤 :일:마다 天福 이 사니 古聖 이 同符 ㅎ 사니

ㄴ. 海. 海也. 取其荒遠冥昧之稱. 四海之外 皆復有海. 東海之別 有渤海. 故東海共稱 渤海. 又通謂之滄海. 我國在渤海之東. 故云海東也. (중략)

ㄷ. 海東 六龍飛莫非天所扶古聖同符

ㄹ. 右第一章 此章 總敍 我 朝 王業之興. 開有天命之佑. 先述其所以作歌之意也.

(3)은 용비어천가 제1장의 구성 방식이다. (3ㄱ)에는 한자어를 한자로만 표기하고 훈민정음으로 한자음을 표기하지 않았다. 훈민정음이 처음 창제된 뒤, 한자어 표기에 한자만을 사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3ㄴ)은 국어 문장의 구체적인 의미를 한문을 사용하여 풀이한 부분이며, (3ㄷ, ㄹ)은 국어 문장에 해당하는 한문 원문과 이 시가의 의미를 밝힌 부분이다.

다음으로는 한자음과 관련된 문제이다. 이 문제는 용비어천가의 한자어 표기 방식에서 한자음을 병기하지 않은 이유와도 관련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한자음은 본래 중국에서 비롯된 것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변음이 되었다. 따라서 본음을 적어야 할지 아니면 변음을 기준으로 해야 할지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 문제는 『동국정운』이라는 운서를 산출하는 배경이 되었다.

(4) 동국정운 서문

由是 字畫訛 而 魚魯混眞 聲音亂而涇渭同流 橫失四聲之經 縱亂七音之緯 經緯不交 輕重易序 而聲韻之變極矣 世之爲儒師者 往往或知其失 私自改之 以教子弟 然重於擅改 因循舊習者多矣 若不一大正之 則愈久愈甚 將有不可救之弊矣

(4)에서는 중국의 한자가 들어와서 획이나 음이 변화하여 무질서해졌음을 개탄하고, 이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날이 갈수록 심해져서 그 폐습을 구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다. 『동국정운』을 만든 까닭은 한자음과 한자 획의 교정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훈민정음 창제 이후의 한자음 표기는 동국정운의 교정음을 중심으로 하였는데, 이는 15세기 발행된 대부분의 서적에 공통으로 적용되었다.

(5) 훈민정음언해의 표기

- ㄱ. 世·宗·宗·御·製·訓·民·正·音·韻 : 製·聲·는 ·글·지·술·씨·니 御·製·聲·는 :님·금지·스신·그리·라.
訓·은 ㄱ·칠·씨·오 民·은 百·씩·성·이·오 音·韻·은 소리·니 訓·民·正·音·韻·은 百·씩·성· ㄱ·
치·는 正·정·훈 소리·라.
- ㄴ. 國·之·正·語·音·韻·이 : 國·之·은 나라·히·라 之·정·는 ·입·겨·지·라 語·音·는 :말·쓰·미·라.

(5ㄱ)의 표기에서는 한자음 병기 방식이 뚜렷이 드러난다. 한자음은 개별 한자 다음에 병기하였으며, 동국정운식 한자음을 표준으로 하였다. (5ㄴ)에서는 한자음 병기가 필요에 따라 한문에도 적용되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개별 한자 다음에 동국정운식 한자음을 병기한 까닭은 한자를 읽지 못하는 독자가 개별 한자의 음과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의도로 보이며, 동국정운식 한자음을 표준으로 한 까닭은 변음보다 원음에 충실하고자 한 의도로 보인다. 이와 같이 변음보다 원음에 충실해야 한다는 생각은 언어의 사회성보다는 말의 유래를 존중하고자 하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도 있으나, 본질적으로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서 성운학의 전통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⁴⁾. 훈민정음 예의에서 밝힌 ‘초중중성의 합’이 이루어져야 음을 이룬다는 성음법(成音法) 규정이나 ‘해례’의 음성학적 설명에서 중국의 자모 체계와 비교하는 방식 등은 성운학의 전통이 훈민정음 창제 과정과 밀접함을 의미한다.

3.2. 언해체의 변화

언해(諺解)란 한문 원전을 훈민정음으로 풀어 놓은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는 사용되지 않던 용어⁵⁾로 보인다. 책명에 언해가 사용된 것은 사서언해와 『소학언해』에 이르러서이며,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는 ‘(정음으로) 번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6) 釋譜詳節序

…又·음·以·正·정·音·韻·으로 就·쫄·加·강·譯·역·解·개·하·노·니 : 又·음·는·쫄·하·는·쁘·디·라 以·음·는·씨·하·는·쁘·
디·라 正·정·音·韻·은 正·정·훈 소리·니 吾·리·나·랏·마·를 正·정·히 반·드·기 矣·히·쓰·는 ㄱ·릴·씨·일·후·를 正·
정·音·韻·이·라 ㅎ·는·니·라 就·쫄·는·곧 因·加·인·하·야 ㅎ·듯·훈·쁘·디·니 漢·한·字·종·로 몬·져 ㄱ·를 鳴·글·오 ㄱ·
를 ㄱ· 因·인·하·야 正·정·音·韻·으로 鳴·글·씨· 곧 因·인·하·다 ㅎ·니·라 加·강·는·힘·드·려 ㅎ·다·하·듯·훈·쁘·디·라

4) 훈민정음 창제와 성운학의 전통에 대해서는 강신항(1994)를 참고할 수 있다. 성운학의 전통은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도 지속되었는데, 한자 변음의 문제는 이들 운서의 주된 연구 대상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운서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는 강신항(1998)을 참고할 수 있다.

5) ‘언해’라는 용어가 책명에 사용된 것은 『논어언해』나 『소학언해』에 이르러서이다. 언해는 언문으로 풀어 놓은 글을 의미하므로, 이 용어가 사용된 시점은 ‘언문’이라는 용어가 출현한 이후라고 할 수 있다.

식이며, 성조 표기에서는 독자(널그리)의 편의를 위해 시속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시속을 따르는 것’이다. 시속을 따르는 것은 성조뿐만 아니라 한자음도 마찬가지인데, 한자 낱자 다음에 언문자를 병기할 경우 원음 표기가 아니라 당시의 변음(속음)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자와 한자음 표기 방식은 17세기 이후 또 한 번의 변화를 보인다. 광해군 때의 문헌인 『동국신속삼강행실도(東國新續三綱行實圖)』의 문체는 언해문에서 한자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9) 동국신속삼강행실도

한림혹사 최루빅은 슈원 호당 상자의 아드리라 나히 열다스신 제 아비 범의게 해흔 배 되어늘 루빅이 도치메고 범을 자취바다 범을 쭈지저 곶오디 네 내 아비를 머거시니 내 당당이 너를 머구리라 드디여 버혀 빅을 헤터 아비 썸와 슬홀 가져 그르식 담고 범의 고기를 독의 너허 냐가온대 묻고 아비 묻고 시묘허더니 홀른 호즈 문허엿거늘 아비와 그를 읍프되 개염남글 헤혀고 효즈의 지비 니르니 정이 감동호미 만하여 눈뜨리 다아미 업도다 흠져 날마다 무덤 우회 울리니 아라시느니는 불글 들과 물근 브름이로다 사랑거든 치고 죽거든 디키니 뉘 닐오디 회 처엄 나종이 업다 허리오 읍기를 다하고 문득 문보니라 거상 받고 범의 고기를 가져다가 다 머그니라.

(9)와 같이 한자 표기를 하지 않고 속음의 한자음을 사용한 것은 이 책의 편찬 목적이 전란 이후 충효 열녀의 유교 사상을 일반 백성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하는 데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방식은 17~18세기의 언해(諺解)나 언역(諺譯)의 주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한자어 가운데 일부 글자만 한자로 표기하고 다른 글자는 언문으로 표기하는 방식이 나타나기도 한다.

(10) 家禮諺解

司스馬마溫온공공이 곶오디 宋송 仁인宗宗 썸 괴일즉 詔조셔 허야 太태子즈少쇼傳부 이以上상이 다 가廟묘를 세기를 聽팅니허라 허여시되 有유司스 나종내 爲위허야 制制度도를 定딩티 아니허고 오직 文문滌노공공이 가廟묘를 西서京경의다가 세오고 다른 사름은 다 세오디 아니흔 故로 이제 다 문 影영堂당으로써 니르느니라.

(10)에서 ‘조서’와 ‘가묘’는 일부 한자만 표기하고 다른 부분은 표기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한다. 이처럼 일부분만 한자로 표기하는 사례는 일반 백성들의 한자 독해 능력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국어 문자 사용이 그만큼 복잡해지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4. 근대계몽기 이후의 국어 문체

4.1. 한언문혼합문체(漢諺文混合文體)

근대계몽기에 이르러 국어의 문자 사용은 매우 복잡해졌다. 특히 『한성주보』 이후로 우리의 문자생활은 순국문체, 국한문혼용체, 한문체가 뒤섞여 쓰였는데, 이 신문에 쓰인 혼합문체는 ‘한언문혼합문체(漢諺文混合文體)’로 부를 수 있다. 이 용어는 국한문혼용체의 주된 문자가 국문인데 반해 한언문혼합문체는 주된 문자가 한자라는 점에서 붙인 용어이다. 김영

민(2009)에 따르면 이 신문의 한언문혼용체는 유길준과 박영효 등의 계몽사상을 기반으로 출현한 것이라고 한다. 이 신문의 순국문체 기사는 일종의 실험적 성격을 띠고 있었는데, ‘늑주논총’(『한성주보』 1886년 2월 1일)의 경우 외국 지명을 한글로 적고 다시 한문으로 번역하지 않으면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여 한자 번역을 대조하고 있다.

(11) 늑주논총

… 늑주 유명을 한문으로 번역하면 예시아는 亞細亞요 아흐리가는 亞非利加요 남아메리가는 南亞米利加요 북아메리가는 北亞米利加요 예시아니야는 大洋洲요 쏘 바다 일흠은 바시릿그는 太平洋이요 아다란깃그는 大西洋이요 인찌안은 印度洋이요 북아그깃그는 北冰洋이요 남아그깃그는 南冰洋이요 쏘 나라 일흠은 중국은 中國이요 일본은 日本이요 인스리스는 英吉利요 세야만은 日耳曼이요 로시아는 俄羅斯요 이다리아는 伊太利요 유나이뎃되스데도는 美利堅이라

(11)의 문체는 순국문으로 이루어진 외국의 지명 표기가 한문 식자층의 문식성을 떨어뜨린다는 판단을 전제로 한 것이다. 김영민(2009)에서는 『서유견문』의 문체 성립 과정에 주목하면서, 『한성주보』의 새로운 문체의 시도와 실패 과정을 분석하고 있다⁷⁾. 특히 유길준의 ‘국한문혼용체’는 일종의 현토체로서 유길준 자신은 이 문체가 칠서언해의 법을 본받았다고 하지만, 후세의 많은 학자들은 후쿠자와유키지(福澤諭吉)의 사상에 기반한 일본 문장의 영향이 컸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지적은 이광린(1969), 려중동(1976) 등에서 규명된 바 있는데, 후쿠자와의 제자였던 이노우에(井上角五朗)의 회고담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다음은 이노우에가 『매일신보』 1938년 5월 3일에서 5월 5일까지 3회에 걸쳐 연재한 회고담이다.

(12) 漢諺文混合文體

◇ 半島文明의 黎明史 三先覺의 感懷 = 言論機關의 驚異의 躍進에 半島의 面目이 躍如

漢諺混合文은 내가 作成한 것 ; 半島의 新聞界는 實로 福澤諭吉 (後彌)象二郎 兩先生으로 나는 明治 十五年(1883) 先生의 命을 受하야 ****學의 計劃에 着手하야다. 나는 國王의 委任을 어더 外衙門 顧問이 되자 博文局 主催로 그 當年 漢城旬報를 發行하였는데 當時는 아직도 ***을 *하고 잇섯기 때문에 日本은 狄夷 대접을 하는 故로 그 苦心이 여간이 아니었다. 그뿐 아니라 數千의 支那兵이 各道에 駐屯하야 **잇섯는 故로 迫害가 滋甚하야 드디여 第十號로 停刊하고 一時 歸國할 수 맞게 업섯다. 第十七年(1885) 支那는 …고 金玉均의 內亂으로 因하야 博文局은 火災를 當하고 쏘 얼마 동안 停刊할 수 맞게 업섯다.

이 사이에 나는 漢諺混合文을 作成하야 大日本 內閣大臣에게 傳達 是 國奴隸制度廢止의 歷史 事實 等を 募 하야 國王殿下께 供하얏는데 殿下께서는 日本 支那 等を 비롯하야 海外의 事情을 特히 알려 하시는 故로 東京 其他의 新聞을 오려서 日本(假名) 여페다 諺文을 다러 드리기로 하였는데 特 기썸하시여 內官이 나를 차져 왔섯다. 그 후 博文局의 新聞을 發行하라는 國王殿下의 命令에 依하야 그 實行次로 … 十九年 一月 漢城週報 第一號 發行時 는 漢諺混合文의 紙面을 처음으로 編成하엿든 바 當時의 **官이 **을 中國文이 아니라 하야 蔑視하고 잇섯슴에도 不拘하고 …(이하 생략) - 『매일신보』 1938.5.3.

◇ 寧死不歸의 覺悟로 漢城旬報를 發行 外衙門 顧問時代의 朝鮮事情 : 내가 *甲으로부터 上京한 것은 明治 十二年이었다.

7) 김영민(2009)에서는 ‘한언문혼합문체’, ‘순국문체’라는 용어 대신 ‘국한문혼용체’, ‘한글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근대계몽기에 사용했던 용어를 채용하여 ‘한언문혼합문체’, ‘국문체’ 등의 용어를 사용하였다.

慶應義塾을卒業할 때까지 福澤諭吉, 後彌象二郎(?) 兩先生과 가까이 지내고 教育을 바든 것이다. 그 當時의 兩先生은 어찌케 하면 日本의 獨立을 確固히 할까를 熱心히 研究하고 계셨기 때문에 親密히 往來하고 계셨다. 福澤先生은 恒常 말씀하시기를 “我國은 밤낮 太平洋 中의 一孤島로 置留할 수 업는 일이다. 大陸에 進出하여 東洋 權利의 平和 補完에 全히 하고 西力東漸의 ***을 해야 한다. 그러려면은 朝鮮과 支那까지도 잘 引導해서 一般 人民의 生活安定과 普通教育과를 實行하여 이를 三國의 接觸을 實現해야 할 것이다. 이 根柢에는 文力을 使用해야 하나 늦지 안흐면 武力을 쓰는 것도 不得已할 것이다. 이리해야 我國의 獨立은 鞏固해지고 東洋의 平和도 **을 것이다.”라고 입버릇가티 말씀하셨다. 그 時에 朝鮮政府로부터 朴定陽이 來朝하였다. …(이하 중략) … 福澤先生은 兩人(유길준, 윤치호)을 相照로 朝鮮諺文을 研究하였는데 그 當時 先生의 論文에는 朝鮮은 諺文이 有이기 때문에 下層 人民의 教育이 容易하나 支那에는 漢文뿐이요 日本의 ‘いろは’ 갖흔 것이 업는 것은 큰 缺點이라고 쓴 일이 있다. 明治 十四年 十二月에 金玉均이 朝鮮國王殿下의 命을 滋하고 僧服으로 渡來한 후 물래 福澤先生을 차저 왔다. 同行은 徐光範이었다. 金氏는 福澤 後彌 兩先生을 獨會하고 于先 王命을 傳한 후 어찌케 하면 朝鮮을 文明開化로 引導할 수 있는지 問하였다. 先生은 “一般 人民의 生活을 安定케 하라. 普通教育을 施하라. 그러함에는 新聞의 發行이 第一 問題”이라고 說하니 金氏는 威姪黨은 支那에 屈服하고 王親黨은 鎖國을 唱導하여 王命이 容易히 實行되지 안음을 말하였다. …(이하 생략) - 『매일신보』 1938.5.4.

◇ 國王殿下의 御命으로 混合文體를 使用 : 漢城週報 發刊 當時의 回顧

내가 漢城旬報라는 조선 최초의 신문을 발행한 것은 내가 경성 부임 후 만 일년 쯤이었다. 외아문 ** 閔永穆을 **로 金晩植을 副**로 하고 外衙門 顧問 井上角五朗을 主筆로 하고 博文局이라 稱하여 外國의 事情에 達한 者 또는 文筆의 才能이 있는 者를 採用하여 主筆 또는 可筆의 官位로 授하여 全國 各地의 官報에 *을 命하였다.

이 漢城旬報 第一號가 印刷되자 나는 이것을 福澤先生에게 보내었다. 先生은 나의 努力이 이에 至함을 기뻐하시는 同時에 左와 如한 意味의 便紙가 왔다. (前略) 朝鮮諺文으로 通俗的 理據 簡學의 眞理를 알릴 것이요 漢諺文 가튼 것도 滋味잇을 것이다. 何如間에 諺文을 빨리 使用함이 可하다. 諺文만으로는 區別이 적어서 效果가 적다. 빨리 朝鮮의 舊主體를 一掃하고 쉽다. 日本에서 古體를 排斥한 것은 오로지 通俗文일 것이다. 等閒히 볼 것이 아니다.

나의 日學 施行의 目的은 漢諺混合의 文章을 創始하는 데 잇섯슴으로 漢城旬報를 發刊하기 전에 特히 姜偉라는 사람을 **교 **에 두고 研究를 맞는 同時에 漢諺混合의 典範을 만드려 사람들에게 보인즉 大概는 이것을 便利한 것으로 認定을 하였는데도 不拘하고 一般은 中國의 文字가 아니라고 하여 卑下하며 더군다나 所稱 兩班들은 이것을 사용하는 것을 羞恥로 역이고 子女에게도 童蒙先習이라는 純漢文을 가르치며 …(중략) … 얼마 후 나는 다시 渡鮮하여 漢諺混合의 文體를 처음으로 만드려 보았다. 즉 日本內閣大臣의 列傳, 北美合衆國 奴隸廢止의 歷史 갖흔 相當히 두터운 것을 出版하였는데 이 間을 들은 國王殿下께서 御賜費를 하시었고 더욱 殿下는 支那 日本 其他 海外의 事情을 즐기어 아시냐고 하시며 매일 과거티 내 處所로 왔섯슴으로 나는 東京 其他의 新聞의 要點을 蒐集하여 日本 假名 엽해다가 諺文을 付하여 進上하였섯는데 이것이 價 貴重한 것으로 取扱을 바 뎠다. (이하 생략, **는 영인본에서 판독하기 어려운 글자임) - 『매일신보』 1938.5.5.

(12)에서 이노우에의 비교적 긴 회고담을 그대로 인용한 이유는 이 시기 국한문혼용체의 성격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회고담을 종합해 볼 때, 이 시기 국한문 혼용체는 ‘한언문(漢諺文)’이라 불렸으며, 이 용어는 국문보다 한문에 중점을 둔 것으로, ‘언문만으로는 구별의 효과가 적기 때문’에 이러한 문체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노우에는 후쿠자와의 교훈을 받들었으며, 후쿠자와는 유길준, 윤치호 등의 상대로 조선 언문을 공부하면서 조선과 일본의 미래에 대한 생각을 가다듬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근대계몽기에 이르러 기존의 문체와는 이질적인 ‘한언문혼합문체’가 출현한 이후, 국어의 문자생활은 혼란스러운 모습을 띠게 된다. 김영민(2009)에서는 이들 문체를 한

자와 국문의 비중, 한자 사용 방식을 기준으로 ‘부속국문체’, ‘국한문체’, ‘한글체’로 나누었다. ‘부속국문체’는 훈민정음 창제 이후 널리 사용되어 온 한자음 병기 방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언문혼합문체가 출현한 이후 좀더 복잡한 모습을 띠게 된다.

4.2. 칙령 제1호의 공문식의 세 가지 문체

근대계몽기 문체 변화의 획기적인 사건은 1894년(개국 503년) 11월 21일 칙령 제1호로 공포된 ‘공문식’이다. 이 문서는 공문식, 포고, 인사를 합쳐 19조로 구성되었는데, 그 가운데 제14조는 ‘국문위본한문부역 혹 혼용국한문’을 천명한 조항이다.

(13) 勅令 第一號

朕裁可公文式制使之頒布 從前公文頒布例規 自本日廢止 承宣院公事廳並罷之 開國五百三年 十一月二十一日 大君主 御押 御璽奉 勅各大臣

公文式

第一 公文式

第一條 法律勅令以 上諭公布之

第二條 法律勅令自議政府起草又或各衙門大臣具案提出于議政府經政府會議擬定後自總理大臣上奏而請裁可

但法律勅令之不要緊急者自總理大臣可諮詢于中樞院 (중략)

第十四條 法律勅令總以國文爲本漢文附譯或混用國漢文 (하략)

(13)의 제14조에 천명한 ‘국문위본 한문부역’은 순국문의 한글체를 말한다. 이 문체는 언해체에서 발달한 순국문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1800년대 한글 율음이나 편지글, 문학 작품 등에서 보편화되던 문체였다⁸⁾. 그러나 순국문체를 공용어의 수준에서 채택한 것은 이 칙령이 처음이었다. 이에 따라 구한국 시대의 관보에서는 순국문체, 혼용국한문체, 한문체의 세 가지 문체가 사용되었으나 순국문체는 ‘종묘서고문’과 이에 따른 ‘율음’에 한정되었고, 대부분의 칙령이나 관청 사항은 혼용체를 사용하였다. 특히 종묘서고문(宗廟誓告文)은 순국문체, 혼용체, 한문체가 모두 관보에 실렸는데, 이 시기 문자생활의 혼란상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4) 종묘서고문

1. 大君主 展謁 宗廟誓告文

維開國五百三年 十二月 十二日 敢昭告于

皇祖列聖之靈惟朕小子與自中年嗣守我 …(중략) …

一. 割斷附依清國慮念確建自主獨立基礎

一. 制定王室典範以昭大位繼承暨宗戚分義

一. 大君主御正殿視事政務親詢各大臣裁決后嬪宗戚不容干預 (하략)

8) 1800년대 순국문체의 보편화 현상은 연대가 밝혀진 필사본의 유통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848년(도광 29년) 남양 홍씨 필사본은 <여학별록>, 1800년대 이후의 서첩으로 추정되는 <선군유사>, <선비유사>, <녹아륙장> 등은 순한글의 문헌들이다. 이들 문헌은 언해본이 한문 원문을 수록한 뒤 그에 해당하는 순한글의 언해문을 대조하는 방식을 벗어나 창작물을 순수한 우리글로만 표기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따라서 ‘국문위본’을 천명하는 것은 ‘국문’에 대한 재인식을 바탕으로 한문의 굴레에서 벗어나고자 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인다.

ㄴ. 대군주게서 종묘에 전알하시고 땡서햐야 고희신 글월

유기국오백삼년십이월십이일에 밝히

황도렬성의 신령에 고희노니 점소즈가 …(중략) …

첫지는 청국에 붓치는 싱각을 쓴어 바리고 확실히 즈쥬독립하는 기업을 세우는 일

둘지는 왕실 던범을 작덩햐야 대통의 계승과 종실이며 척신의 분의를 밝히는 일

셋지는 대군주가 덩던에 어거햐고 일을 보아 덩스를 친히 각대신에게 물어 바로자이고 결단햐신
왕후와 비빈과 종실과 척신이 간예습을 용납지 아니하는 일.

(하략, 이하 띄어쓰기는 현대에에 맞게 고침)

ㄷ. 대君主게서 宗廟에 展謁하시고 誓告하신 文

維開國五百三年 十二月 十二日에 敢히

皇祖列聖의 靈에 昭告호노니 朕小子가 …(중략)…

一. 淸國에 依附호는 慮念을 割斷호고 自主獨立호는 基礎를 確建호미라

一. 王室典範을 制定햐야 卼 大位繼承과 卼 宗戚分義를 昭케 호미라

一. 大君主가 王殿에 御햐야 事를 視호미 國政을 親히 各大臣에게 詢햐야 裁決호고 后嬪宗戚이 干預호를 容치 아니미라 (하략)

이른바 ‘홍범 14조’로 알려진 이 서고문의 문체를 비교해 보면, 한문체, 순국문체, 혼용체의 문자 사용뿐만 아니라 문법적인 차이도 명백해진다. 특히 순국문체와 혼용체의 문법적인 차이는 한자 혼용이 단순히 한자어를 한자로 표기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순을 비롯한 문법 의식을 어떻게 드러내는가에 따라 한자 사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음을 드러낸다. 이 점에서 한문에 현토를 한 형식의 국한문체가 아니라 한자어를 한자로 표기하는 형식의 국한문체가 칙령 제1호로부터 통감시대에 이르기까지의 표준적인 문체로 사용되었다⁹⁾.

4.3. 부속문체의 출현

이노우에가 명명한 ‘한언문복합문체’나 칙령 제1호의 ‘혼용국한문체’는 개념상 명확히 구분되지는 않는다. 더욱이 이노우에가 한언문복합문체를 만들기 위해 썼다는 저서가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성주보』의 문체만으로는 이 문체가 다른 국한문체와 어떤 차이를 갖고 있는지 밝히기 어렵다. 그러나 1900년대에 이르러 혼용문체는 한자나 국문 사용 방식에 따라 몇 가지 다른 유형의 문체를 만들어내고 있다. 김영민(2009)에서는 이러한 문체를 ‘부속문체’라고 불렀는데, 그 이유는 한자나 국문을 첨자 형식으로 부가하였기 때문이다.

부속문체는 1906년 『만세보』 이후에 본격적으로 활용되었다. 이 신문은 창간호부터 한문에 국문 첨자를 부속한 문체로 발행되었는데, 국문 첨자의 부속 방식은 한자의 음을 부가하는 방식과 훈을 부가하는 방식의 두 가지 형태였다.

(15) 국문부속문체

ㄱ. 萬歲報 라 名稱호 新聞은 何를 爲호야 作호이노. 我韓 人民의 智識啓發키를 爲호야 作호이다. -

9) 칙령 제1호 이후의 공용 문체에 대한 논의는 1908년 2월 6일자 『관보』에 나타난다. 이 날짜의 휘보 관청사항에는 “從來 公文書類에 使用호는 文字를 國漢文을 交用치 아니호고 或 純漢文으로 調製호며 吏讀를 混用함이 已違規例이옵고 且 外國人으로 本國 官吏가 된 者가 或 其國文을 專用호며 一般 解釋上에 疑誤호慮가 有홀 썬더러 規式에 違反되갓습기 左開 條件을 另定 施行호 事로 閣議에 決定햐야 總理大臣이 各部에 發함”이라는 기사와 함께 각 관청의 공문서류는 일체 국한문을 교용하고 순한문이나 이두나 외국문자의 혼용을 금지하도록 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만세보』 1906.6.17. 창간호.

ㄴ. 이 小説은 國文으로만 보고 漢文音으로는 보지 말으시오.

삼 비 기운 토 구름 서울길

汗을 뿌려 雨가 되고 氣를 뿜야 雲이 되도록 人 만흔 곳은 長安路이라. - 『만세보』 1906.7.3.

小説 短篇 菊初 (한자의 오른쪽에 부속한 한자음을 상단으로 옮겼음)

(15ㄱ)은 한자음에 해당하는 국문을 부속한 경우이고, (15ㄴ)은 한자의 뜻에 해당하는 국문을 부속한 경우이다. 두 가지 표기 가운데 한자음 부속 방식은 전통적인 언해체의 한자음 병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데 (15ㄴ)의 한자훈 부속 방식은 이 시기에 나타난 독특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이기문(1984)에서는 일본의 ‘후리가나’ 방식을 본 뜻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으나, 김영민(2009)에서는 이러한 방식도 『만세보』의 편찬 취지에 따른 절충식 표기 방식의 하나라고 주장한다. 이 두 가지 방식은 1900년대 소학 교과서에서 자주 채용되었는데, 현채(1907)의 『유년필독(幼年必讀)』은 한자음 부속 방식을 사용하였으며, 유길준(1908)의 『노동야학독본(勞動夜學讀本)』은 한자훈 부속 방식을 따랐다. 이 점에서 김영민(2009)에서는 『노동야학독본』의 국한문체를 한글체로 분리 환원할 경우 국한문체로 풀어 읽으면 부자연스럽지만 한글체로 풀어 읽으면 자연스러운 문체가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한글체로 썼던 원고를 부속국문체로 바꾼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유길준의 다음과 같은 논설을 통해서도 뒷받침될 수 있다.

(16) 小學은 國民의 根本教育이라 高尚한 文學을 主함이 아니오 人世의 普通知識을 幼年者의 腦中에 浸染하야 習이 性으로 더브러 成하야 將來 善良한 國民이 되게 함이니 故로 其教育하는 方法이

- 一. 國語로 以하는 事
- 二. 國體에 協하는 事
- 三. 普及을 圖하는 事

蓋 國語로 以하는 所以는 兒童의 講習의 便易케 하는 同時에 自國의 精神을 養成하기 爲함이라. 故로 大韓 兒童의 教科書籍은 大韓 國語를 用함이 可하거날 近日 行用하는 小學書籍을 觀하건던 國漢字를 混用하야시나 漢字를 主位에 寔하야 音讀하는 法을 取하고 國字는 附屬이 되야 小學用으로는 國文도 아니고 漢文도 아닌 一種 蝙蝠 書籍을 成하리라 是以로 滿堂한 小兒가 教師의 口를 隨하야 高聲啞鳴하고 或 其文意를 叩하 則 茫然히 雲霧 中에 坐하야 其 方向에 迷하 者가 十의 八九에 是 居하니 此는 國中 子女에게 鸚鵡 教育을 施함이라. 善美한 效果를 豈得하리오. 故로 曰 小學教科書는 國語를 專用치 아님이 可치 안타 하노라. (중략) 今 我小學教育에 對하야 最難最大의 問題는

- 一. 國文專主
- 二. 漢文全廢

先生 長者가 表面 唐突한 此言을 一閱痛罵하지며 幾百年 世有하든 家寶를 強盜에게 見奪하는 듯 憤 怒하지며 又 或 大鐵椎가 頭上에 下落하는 듯 精神이 眩惶하되나 愛國하는 眞情으로 國民의 繼續者 되는 幼稚 子女의 未艾한 知覺을 涵養 開發하는 事에 對하야 深思熟考하 즉 其亦 首肯하야 案을 拍 하고 快를 稱하기도 할 듯 新生未成하 腸胃에 堅硬難消하 食料를 與하즉 身體에 滋養되지 못하기는 姑舍하고 一生의 痼疾을 必成하되니 此와 如하야 複雜難解하 漢文으로 脆軟未熟하 頭腦를 攪亂하면 智識을 增長치 못하 뿐 아니라 精神을 耗損하야 百年의 疾祟를 讓成하리라. 故로 此 問題의 解決이 生理上으로도 木人의 論에 左袒하되니 然則 小學教科書의 編纂은 國文을 專主함이 可하가 曰然 하다. 然則 漢字는 不用함이 可하가. 曰否라. 漢字를 烏可廢리오. 漢文은 廢하되 漢字는 可廢치 못 하나니라. 曰 漢字를 用하면 是乃 漢文이니 子의 全廢라 하는 說은 吾人의 未解하는 바이로라. 曰 漢字를 連綴하야 句讀을 成하 然後에 始可曰文이니 字字別用함이 豈可曰漢文이리오. 此夫 吾人

漢字를 借用함이 已久호야 其同化호 習慣이 國語의 一部를 成호야시니 苟且 訓讀호는 法을 用호 則 其形이 雖曰漢字이나 卽吾 國文의 附屬品이며 補助物이라. 英人이 羅馬字를 取호야 國語를 記호과 同호니 漢字取用호 緣由로 誰人이 敢히 大韓 國語를 指호야 漢文이라 호리오. 英文 中에 希臘語의 輸入 同化호 者가 有호므로 英文을 希臘語라 稱호는 者가 吾人의 未見호는 바이로라.

然則 小學教科書의 書籍은 國漢字를 交用호야 訓讀호는 法을 取호면 可호거니와 此에 對호야 國中 父兄의 參考에 供호 者는 言語의 種類이니 盖 世界가 廣호고 人類가 衆호되 其行用호는 言語를 文典上으로 分析호 則

一. 錯節語이니 卽 漢語 英語갓디 上下 交着호야 其義를 表示호는 者
 二. 屈折語이니 卽 我國語 及 日本語갓디 直下호야 其意를 表示호는 者
 人이 其 思想을 聲音으로 表示호는 者는 言語이며 形象으로 表示호는 者는 文字이라. 今에 國漢字 交用호는 書에 錯節體法을 用호면 是는 文을 不成호미 漢文에 直節體法을 行호과 同호지라. 是以로 音讀호는 文이라도 此를 務避호여야 可호니 訓讀호 然後에 此弊가 自絶호지라. 小學에 教育은 國民 子弟의 思想을 啓發호며 性質을 陶冶호며 節氣를 培勵호야 國家의 其國家되는 體統을 立호며 民族의 其民族되는 血系를 承호야 此國에 可愛호를 知케 호며 此國에 可敬호를 知케 호야 此國을 爲호야 生케 호지며 此國을 爲호야 死케 호진즉 此國의 誠와 此國의 文을 主用치 안코 可호가 敢히 一言으로써 國中 父兄에게 質호노라. - 本記者 | 此一篇 意見書를 讀호미 兪氏의 編纂호는 教科書의 主旨를 亦不見호야도 可知호지라. 報面의 卽刊호야 國內 同胞의 均覽을 供케 호며 且手를 舉호야 大韓小學教育萬歲를 唱호노라. - 兪吉濬, 小學教育에 對호는 見解, 『황성신문』 1908.2.29.

이 논설은 『노동야학독본』이 완성되기 전¹⁰⁾인 1908년 2월에 발표된 것으로, 한자훈부속 방식의 문체를 사용하는 이유를 밝힌 글이다. 이 글에서는 한자음 부속 방식을 ‘직절체’와 ‘착절체’로 구분하고, 훈독하는 방식을 ‘착절체’라고 하였다. 그는 직절체를 피하고 착절체를 사용해야 국문을 바로 사용하는 것이며, 착절체 한자는 국어의 일부를 이룬다고 하였다.

『만세보』나 『노동야학독본』에 사용된 부속문체는 직절체이든 착절체이든 본질적으로 과도기적인 문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의식은 부속문체를 사용한 많은 사람들이 공유했던 생각으로 볼 수 있는데, 다음은 이러한 생각을 나타낸 논설이다.

(17) 우창 주완과 부속문체

ㄱ. 朝鮮語와 朝鮮文을 論호에 先호야 一言으로 陳謝호고자 曷은 茲에 漢文의 弊를 擧호며 朝鮮文의 利를 論호면서도 亦是 漢字를 用호얏스며 訓蒙字會의 濫用을 說호야 民正音(훈민정음)의 用例를 宣傳호에 不拘호고 亦是 訓蒙字會의 例를 用호는 果然 言行不同의 誅責을 未免호지나 茲에 所謂 漢文弊用이라 曷은 漢의 文法 卽 上下 反讀호던 漢文體 其者를 廢호고자 曷이오 漢字에 在호야는 然 語에 限호야 不得不當 分間 某 程度식지는 其 存置를 認호며 正音의 *를 用치 못호는 實로 遺憾으로 認호는 바이나 活字上 考慮가 有호 卽 안이라 本論의 目的은 俯覽호시는 諸氏의 諒解를 順호미오 其實 例를 示호는 안인 故로 本意는 안이지만은 一般 多數의 常用호는 例를 從호기 爲호미니 幸히 海熱의 光榮을 賜호기를... - 又倉 朱玩, 朝鮮語와 朝鮮文, 『매일신보』 1920.3.26.

ㄴ. 茲[이]에 우리 文[글]의 原理와 語의 定則에 對호야 所謂 研究 | 라는 그 幾[몇] 가지를 書[씨]하고저 하는데 研究한 그것보담 그것을 書[씨]는 文[글]을 漢字의 榜[옆]에 우리 文[글]을 附[붙]이어 書[씨]는 것 更言[다시 말]하면 漢字를 音으로만 用[쓰]지 않고 訓[식임]으로도 用

10) 『노동야학독본』은 유길준이 편찬한 교과서로 1908년(융희 2년) 7월 2일에 간행되었다. 당시 몇 권으로 편찬하였는지 알 수는 없으나 현재 발굴된 것은 권1뿐이다. 이 책은 1977년 아세아문화사에서 영인하여 보급한 바 있다.

[쓰]게 한 其[그] 理由를 先[먼저] 說[말]하지 않을 수-가 無[없]습니다. 思[생각]하면 우리-가 그 無情*실어옴고 까닭 多[많]고 意思 곳은 漢文을 晚[늦]게야 覺醒하고 處處[곳곳]이 邦送하기에 泊沒하며 그 有德 실어 웃고 암전하고 音聲 好[좋]은 우리의 文[글]을 今[이제] 擬改하고 日 日[달달]이 歡迎하기에 奔走한 時時[이때]입니다마는 그러타고 久[오리]스 동안 腦髓에 印像이 씩씩 박힌 漢字까지를 全廢할 수도 無[없]는 處地) 오 아즉까지도 面目이 설음설음한 우리의 文[글]만 專用할 수도 無[없]는 境遇인 故로 一時 便宜한 方法으로서 漢字도 知[알]는 이와 우리의 文[글]만 知[알]는 이의 그 智識의 程度를 斟酌하여 어던 것은 漢字에 우리의 文[글]로 卍만 * [달]아 書[씨]고 어던 것은 純全한 우리의 文[글]로만 書[씨]는 것이 不知中에 至公無私한 文字에도 差別이 싱기게 되었습니다. 更思[다시 생각]하면 漢字에 熟[닉]은 나는 우리의 文[글]에 對하여

今[이제] 試[시험]으로 彼[저] 普通學校의 一二學年 程度되난 兒孩들의 作文 中에서 漢字를 用[쓰]는 것을 見[보]시오. 彼[저]덜이 日[날]마다 學[배우]고 讀[읽]고 하는 漢字의 音으로 用[쓰]는 法보담 聞[듣]지도 못하고 見[보]리 수도 無[없]는 漢字의 音과 訓[식]이 口 二가지로 用[쓰]는 것 卽 此[이]에는 書[씨]는 此文法[이 글법]의 例를 種種 見[보]리 수가 有[있]습니다. 이것은 他[달]이 口 이 不입니다. 漢字를 音으로만 우리의 語[말]에 適[맞]이어 用[쓰]게 한 것은 우리의 語[말]의 原理에 違反되는 作文法인 故로 아무리 強制할지라도 아무 私情이 無[없]고 天真이 爛漫한 그덜의 頭[머리]에서는 漢字를 우리의 語[말]에 適[맞]이어 用[쓰]는 原理가 天然的으로 發[피]어 出[나]는 것입니다. 大抵 此[이] 世上에 人爲로 成功되는 것도 無[없]는 것은 不입니다만은 其[그] 大概의 精神을 躊躇[짓밟]어 無[없]이 할 수는 絶對로 無[없]는 것입니다. 玆[이]에 저는 이것을 張皇히 辨明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日[날]마다 見[보]고 聞[듣]으며 우리의 子弟들이 日[날]마다 學[배우]든 것 卽 漢字의 傍[옆]에 假名[가나]를 附[붙]이어 書[씨]는 日本文[글] 그것이 此[이]와 同[같]은 理由를 雄辯으로 證明하는 것이라고 할 뿐입니다. 然[그러나] 이것도 永久的인 것은 不이오 우리의 文[글]을 羅馬字 그것과 如[같]히 橫[갈]이로 書[씨]는 法이 全盛할 其時[그 때]까지는 어떤 方面으로 見[보]든지 此[이]와 如[같]이 漢字를 知[알]으시는 不든지 知[알]지 不하시는 不든지 皆[다] 共[한가지]로 讀[읽]을 수가 有게 된 此[이] 法을 用[쓰]는 것이 可[옳]다고 主張하는 바입니다. 唐突한 罪를 赦[놓]으시고 嚴正한 批評을 加하시는 光榮을 賜[주]시옵기를. (하략) - 설악추고 주완, 朝鮮文의 原理와 朝鮮語의 定則, 『매일신보』 1925.5.20.~21.

(17)의 논문은 우창 주완이라는 사람이 쓴 ‘조선어와 조선문’¹¹⁾의 일부이다. 이 논문에서는 조선문의 이로움을 논하면서도 한자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은 유감이지만, 한문 폐용은 한자 자체의 폐지라기보다는 한문 문법의 폐단을 논하는 것이요, 한자는 부득불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으며 또한 활자상의 고려도 한자 사용이 불가피하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문체의 사용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 한자의 옆에 가나를 붙이는 일본문과 동일한 원리를 갖고 있다는 점 등을 밝히고 있다.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부속문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이 문체가 순국문체의 정착 이전에 쓰이는 과도기적 문체라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김희상(1921)에서도 마찬가지이다.

(18) 教科書 編輯用인 文章 卽 글은 在來의 文章과 같이 漢文字에 諺文吐만 달지 말고 漢字 그것을 朝鮮語의 漢字로 化하야써 言文一致의 制를 採用함이 웃더홀는지 아래에 그 例를 말하고저 호노

11) 이 논문은 『매일신보』 1926.3.20. ~ 4.3.까지 모두 6회에 걸쳐 연재되었다. 이 논문을 쓴 우창 주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밝혀진 바가 전혀 없으나, 그는 ‘설악추고’라는 필명으로 『매일신보』 1925.5.20.~6.30.까지 ‘조선문의 원리와 조선어의 정착’이라는 논문을 33회에 걸쳐 연재한 바 있다. 이 논문은 한자훈 부속 방식의 부속문체로 이루어져 있다.

라.

^{유래} 由來 余는 南山에 往^하야 花를 折^하야 來^하었다.

^{신체} 新第 나는 南山에 가서 꽃을 씩어서 오았다.

또 이와 같이 但只 名詞字나 惑은 言文에 偶合^하는 動詞나 形容詞字에만 略干의 漢字를 쓰게 되면 너무 單純^하야 諺文의 天地이오 漢字는 혼밥에 낫 같다고 念慮를 하든지 또 批難이 있을 듯한 즉 아리 같이 ^하야도 無妨^하듯.

가 꽃 씩 오

余는 南山에 往^서 花을 折^어서 來^았다.

以上에 一例를 말한 것과 같이 漢字 右側에 諺文을 붓치는 것이 또한 完全^한 方法이 안인가 ^하 노라 - 김희상, 諺文綴字法 改正案에 就^하야, 『매일신보』 1921.4.17.

(18)의 논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부속문체는 ‘한자어 중심의 국한문체 → 부속문체 → 우리말 중심의 국한문체(명사, 동사, 형용사에 해당하는 자에 약간의 한자만을 섞어 쓰는 것)’로의 발달 과정에 있는 과도기적 문체라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부속문체 가운데 독특한 것은 식민 시기에 나타난 ‘일선한문체’이다. 이 문체는 한언문복합문체나 현토식 국한문체에 일본문(가나)을 부가하는 방식이다. 이 문체는 일본어 보급 정책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데, 처음 나타난 시기는 통감시대의 구한국관보 광고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체는 식민 초기 일부 서적에 나타나기도 하였는데, 1912년 경상북도 내부에서 발행한 『잠업지남(蠶業指南)』과 같은 경우이다. 이 책의 ‘서언(緒言)’의 일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 緒言

ハ

ハ

本書는 道立 蠶業講習所 及 地方 蠶業 傳習所 卒業生 又는 共同稚蠶飼育所 教師 等

ヲ 二オイテ ノ ニ フ ニ タンカ メ シタルモノナリ

專히 本 道內에서 育蠶의 事에 從^하는 者에 頒^하기 爲^하야 編述^하는 者이라.

- 慶尙北道 內務局(1912), 『蠶業指南』, 大邱印刷合資會社

이 문체는 국한문체의 한글에 해당하는 일본어 형태소를 가나로 표기하여 한자 사용자와 일어 사용자가 모두 읽을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부속 대상이 한자어나 한자가 아니라 우리말 형태소라는 점에서 일본어 보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정책적인 시도에서 비롯된 문체라고 할 수 있는데, 제한적으로 사용되기는 하였지만 일제강점기 일본어 보급 과정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일어 보급서에서 폭넓게 사용한 한자어의 일본음 부속 표기 방식은 ‘일선한 대조 방식’의 이중 언어 교육의 목표를 혼합체의 단일 교육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한자’가 일본어 보급의 주된 수단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5. 국문 통일과 문체 발달 - 결론을 대신하여-

근대계몽기 이후 많은 지식인들이 국한문체를 과도기의 문체로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순 국문체로의 전환이 늦은 데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있었다. 그 가운데 두드러진 요인을 두 가

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문자 내적인 차원이다. 이 문제는 국어의 통일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한자음 표기의 원칙’을 정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동국정운식 한자음’이 출현한 것과 동일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중국에서 전래된 한자가 중국, 조선, 일본 등지에서 각각 상이한 음으로 발음되기 때문에 어떤 음을 표준으로 삼아야 하는지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한자음 표기의 원칙을 정하는 문제는 1911년 조선총독부에서 제정한 <보통학교용 언문철자법>으로부터 1933년 조선어학회의 <한글마춤법통일안>에 이르기까지 온갖 학설이 난무한 문제였다. <보통학교용 언문철자법>의 한자음 표기 방식은 “심한 속음이 아닌 한에서 시음(時音)을 채용”하는 방식이었는데, 한자음 표기 방식의 불일치가 나타나는 요인은 원음과 변음 사이의 괴리감뿐만 아니라 훈민정음 창제 이후의 우리말 음운 체계의 변화와도 깊은 관련이 있으므로, 표기의 원칙을 정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 점에서 1920년대 철자법 제정에 관여하였거나 이에 대한 관심을 가졌던 학자들은 ‘역사적 철자법(歷史的 綴字法)’과 ‘표음적 철자법(表音的 綴字法)’으로 나누어 논쟁을 벌였다. 이 논쟁은 두음법칙이나 단모음화 현상, 또는 이유 없이 속음으로 변화한 한자음의 경우 어떤 표기법을 채택해야 하는가라는 문제로 귀결되었으며, 이 문제는 단지 한자음뿐만 아니라 맞춤법 전반에 걸친 문제가 되었다. 이 문제가 일단락된 것은 1933년 조선어학회에서 제정한 <한글마춤법통일안>에 이르러서이다.

다음으로 언어 외적인 면인 언어 정책과의 관련성을 살펴볼 수 있다. 근대계몽기 이후 싹튼 국문 통일 정책은 1933년 <한글마춤법>이라는 성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국문 통일과 국어의 보급은 별개의 문제였기 때문에, 식민 시대 국문자를 중심으로 한 국어 문체의 발전은 일본어 보급 정책에 의해 더디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일본어 보급의 주된 수단인(일본식) 한자 중시 정책은 순국문체의 문자 생활을 더디게 만들었다. 그 결과 근대계몽기 이후 근 100여 년 동안 ‘한자-한글 논쟁’이 지속되었는데, 문학 작품 이외의 각종 전문 지식 유통과정에서 순국문체(한글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불과 십 수 년에 지나지 않는다.

문자의 사용과 지식 유통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용 문자에 따른 국어의 문체 변화는 오늘날의 문자 사용 방식에도 많은 교훈을 남긴다. 최근의 문체에서 지식 유통을 가로막는 것은 한자가 아니라 로마자를 중심으로 한 외국 문자이다. 이러한 문자 문제가 돌출되는 까닭은 새로운 지식 수용 과정에서 타국의 언어를 일관되게 수용하는 원칙을 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외래어 표기법’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문자 생활을 규칙적으로 하기 위해 다른 나라말을 일관되게 수용하는 원칙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강신항(1994), 『국어학사』, 보성문화사.
- 강용택(2007), 『중세 조선어 문체 연구』, 보고사.
- 강윤희(1973), 『개화기의 교과용 도서』, 교육출판사.
- 강태영(1994), 『아단문고 장서 목록』, 아단문화기획실
- 慶尙北道 內務局(1912), 『蠶業指南』, 大邱印刷合資會社
- 고영근(1995), 『국어학연구사』, 학연사.
- 고영근(1998), 『한국어문운동과 근대화』, 탑출판사.
- 고영근, 김민수, 하동호 편(1977), 『역대문법대계』, 탑출판사.
- 김광순(2006), 『김광순 소장본 고소설 전집』, 박이정.
- 김덕환(1964), 『문체학』, 선명문화사.
- 김민수(1973), 『국어정책론』, 탑출판사.
- 김영민(2009), 근대계몽기의 문체 연구, 『동방학지』 제148집,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 김형철(1984), 19세기 국어 문체의한 양상, 『소당 천시권 박사 화갑 기념 논총』, 간행위
원회.
- 려중동(1984), 19세기 일제 침략시대의 일본말 변집에 대한 연구, 『모국어교육』 2. 모국어
교육학회.
- 민현식(1994), 개화기의 국어 문체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 『국어교육』 83. 국어교육연구회.
- 민현식(2000), 『국어교육을 위한 응용국어학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 박갑수 편저(1994), 『국어문체론』, 대한교과서(주)
- 박갑수(1990), 문체 연구, 『국어연구 어디까지 왔나』, 동아출판사.
- 박봉배(1987), 『국어교육전사(상)』,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박봉배(1997), 『국어교육전사』(중), (하),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박영순(1994), 문체론의 본질, 『국어문체론』, 대한교과서(주)
- 백두현(2005), 한글을 중심으로 본 조선 시대 사람들의 문자 생활, 『제48회 전국 국어국문
학 학술대회』, 국어국문학회.
- 심재기(1992), 개화기의 교과서 문체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107, 국어국문학회.
- 심재기(1999), 『국어 문체변천사』, 집문당.
- 유길준(1895), 『서유견문』, 교순사(박이정 출판사 영인본)
- 유길준(1908), 『노동야학독본』, 경성일보사(1977년 아세아문화사 영인본)
- 이광린(1969), 『한국의 개화사상연구』, 일조각.
- 이기문(1970), 『개화기의 국문 연구』, 일조각.
- 이기문(1984), 개화기의 국문 사용 연구, 『한국문화』 5, 한국문화연구소.
- 이용호(1975), 『개화기 한글 운동사』, 성청사.
- 이인모(1960), 『문체론』, 이우출판사.
- 정병설(2005), 조선 후기 소설의 성행과 한글, 『제48회 전국 국어국문학 학술 대회』, 국
어국문학회.
- 정진석(1999), 『문자보급운동교재』, LG상남언론재단.
- 朝鮮新聞社(1936), 『朝鮮統治の回顧と批判』, 朝鮮新聞社.
- 하동호 편(1977), 『국문론 논설 집성』, 탑출판사.

- 학부편집국(1910), 『普通教育學』, 學部(구한국시대).
- 허만길(1994), 『한국 현대 국어정책 연구』, 국학자료원.
- 허재영(2003), 근대계몽기의 어문문제와 어문운동의 흐름, 『국어교육연구』 제11호,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 허재영(2004), 일제강점기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조선어교육, 『한말연구』 제14집, 한말연구학회.
- 허재영(2004), 일제강점기 조선인을 대상으로 한 일본어 보급정책 연구, 『일제강점기 일본어 보급 정책 자료』, 역락.
- 허재영(2005), 한글 편지에 쓰인 어휘 변천 연구, 『한글』 제268집, 한글학회.
- 허재영(2006), 조선시대 여자 교육서와 문자 생활, 『사회언어학』 14-1. 한국사회언어학회.
- 허재영(2007), 개화기의 문자 생활과 국어 문체의 변화, 『한국어의 역사와 문화』, 박이정.
- 허재영(2008), 『국어사 국어교육 자료집』 1.2, 박이정.
- 홍중선(2000), 국어 문체의 발달, 『현대국어의 형성과 변천』 3, 박이정.

문자 사용 방식에 따른 국어 문체 변천사

서정미(안양대학교)

이 논문은 국어의 문체 변천사를 문자 사용 방식에 따라 정리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글과 한자 사용 방식에 따라 국어의 문체 변천사를 다룬 연구에는 심재기(1992), 민현식(1994), 홍종선(1996), 김형철(1997) 등이 있다. 이들 연구가 주로 근대계몽기의 문체를 대상으로 국한문 혼용 양상에 초점을 두는 것이었다면 이 논문은 국한문 혼용 방식을 고찰하고 훈민정음 창제 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국어 문자 사용 방식을 통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 논문을 통해서 토론자는 문체 변화에 관한 주제에 새로운 관심을 갖게 되었고 배움을 얻을 수 있었다. 본문을 읽어나가면서 궁금했던 다음의 몇 가지 질문을 드린다.

1. 훈민정음 창제 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국어 문자 사용 방식의 변화를 보여주기 위한 문헌 선정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예로 들고 있는 문헌들의 종류를 악장문학, 운서, 번역서, 시, 도해서(?), 신문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문헌에서 나타나는 문체의 변화를 보려면 각 시기별 문헌의 종류가 운서면 운서, 번역서면 번역서 등으로 통일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혹시 각 시대별 문헌을 다양하게 선택했다면 그 이유를 설명해 주길 바란다.

2. ‘3.2. 언해체의 변화’에서 원음 표기와 변음(속음) 표기에 관한 설명이 나오는데 두 표기의 기준이 ‘시속을 따르는 것’의 가부라면 (8) 『소학언해(小學諺解)』 ‘범례’와 (9) 『동국신속삼강행실도(東國新續三綱行實圖)』의 문헌에서 원음과 변음(속음)의 한자음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설명해 주길 바란다.

3. 장절항인 ‘3. 언해체의 변화’와 ‘3.2. 언해체의 변화’로 그 제목이 동일하다. 이 논문의 제목도 변천사이고 ‘4. 근대 계몽기 이후의 국어 문체’라고 하였으니 3장의 제목도 ‘3. 중세 000기의 국어 문체’와 같은 시기가 언급된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본 논문을 이해하기에 도움이 될 것이다.

4. 결론 부분에서 ‘문자 사용과 지식 유통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언급하였다. 그렇다면 당대의 지식을 향유하는 계층이나 지식을 담아내는 서적의 편찬 목적과 독자층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라 본다. 그렇다면 문자의 사용 방식은 그 서적을 누가 읽을 것이냐의 대상에 따라 그 문체도 선택이 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결국 각 시대의 새로운 지식 수용을 누가하느냐, 즉 그 문헌을 누가 읽느냐에 따라 문체가 선택이 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 간략히 추가 설명해 주길 바란다.

우리민족의 문자 발달사

-구결을 중심으로-

이전경(성신여자대학교)

□ 차례 □

- 1.
- 2.
3. 구결 자료 개관
4. 구결자료의 가치와 접근방법
5. 맺음말

1. 들어가기

한글이 문화상품으로서의 가치를 높여가고 있는 요즈음의 시류에 따라 문자 일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관심은 주로 예술 분야에 치우쳐 있지만 이 예술 분야의 재료를 대어 주는 일은 우리 학계에서 할 일이다. 자료를 찾아 점점 더 고대로 올라가고 있는 지금 국어연구자가 부딪히는 첫 번째 벽은 문자의 해독이다. 이 글은 우리의 역대 문자 중 특히 구결을 소개하여 이 자료를 이용하고 연구의 저변을 확대하려 데에 목적이 있다.

우리민족의 문자 생활은 단순하지 않았다. 한글, 한자, 구결과 이두가 우리 민족이 사용해 왔던 글자이다. 물론 가림도 문자나 신지문자<그림1>¹⁾과 같이 몇 개의 자모글자가 전해지던 문자들도 있다. 그러나 이들 글자는 이름만 전해지거나 문자가 전해지는 문자들이지만 텍스트가 없어 실제 사용했던 문자인지 후대의 창작인지 알 수 없다.



그림1

이 중 현재 실체가 남아있는 것은 구결문에 쓰인 구결문자, 이두문과 향가에 쓰인 이두문자가 있다. 그런데 구결에 쓰인 글자는 한자의 정자를 생략하여 만든 것으로 표기체계는 이두문과 큰 차이가 없다. 오히려 이두문자와 구결문자를 비교함으로써 시대별 발달과정을 알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구결을 중심으로 우리 문자사용의 변화사를 간단히 살펴보려 한다.

구결이란 차자표기법 중에서도 독특한 것으로 한문텍스트의 중간에 여러 가지 기호를 사용해 한문을 번역하는 방법이다. 우리가 중고등학교에서 영어를 배울 때 교과서에 했던 방식과 비슷하다. 모르는 단어에는 그 뜻을 한글로 적고 주어, 서술어와 목적어를 표시한다. 이 때 간편하게 하기 위해 S, V, O 같은 약자를 사용하기도 하고 서술어와 목적어가 떨어져 있거나 할 때는

1) 권중성(1987) 문자학개요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47쪽

2. 우리 차자표기법 간의 차이점과 공통점

한자를 이용한 우리말의 차자 표기 체계는 전통적으로 이두와 향찰, 구결이 있다고 소개되어 왔다. 옛 문서나 글에 이두문자, 향찰문자, 구결문자가 들어가 우리말로 읽어낼 수 있는 텍스트를 이두문, 향찰문, 구결문이라 한다. 이두문자와 향찰문자는 한자를 그대로 이용하는 반면 구결문자는 한자의 획을 생략해서 사용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또한 이두문이나 향찰문은 원문이 없는 창작문인 반면 구결문은 언제나 원문이 있는 번역문이다. 그래서 이두문이나 향찰문은 각각 공문서 작성이나 시 창작에 사용된 반면 구결문은 한문 경전의 번역에만 사용된 창조적이거나 능동적인 글쓰기가 아니었다. 물론 구결을 섞어 사용하여 경전의 여백에 참고사항을 써놓기도 하였으나 대부분 다른 경전을 인용하거나 언해본을 옮겨 적은 것이다.

(2) 凡 官吏亦(이) 他矣(의) 財物乙(을) 受贈爲在乙良(호견을란) 贓物數乙 計爲 依例決罪爲乎矣(호덕) 無祿人是去等(이거든) 各 減一等遣((하)고) <官吏受財(大明律 卷第二十三 刑律 受贓)>

(3) 佛前灯乙直體良焉多衣/佛前燈을 고티란디 <廣修供養歌>

(4) 如是我聞 ヲキヒ(호스오니) 一時-(예) 佛住王舍城耆闍崛山中 ヲハ(호샤) <보물1153 法華經1:6b_7_본>

위의 예들은²⁾ 1970년 자토석독구결인 구역인왕경이 발견되기 전까지의 차자표기법에서 다루던 것이다. 이 외에 금석문이나 고문서의 고유명사나 토표기가 있었으나 고대국어의 문법을 논하기에는 부족한 현실이었다. 또한 구결의 글자가 약체자이고 번역에만 쓰인다는 점, 정체자를 쓰는 이두와 향찰도 그 사용 한자나 문법이 일부 달라 구결과 향찰, 이두는 차자표기법 내에서 동질성보다는 차이점이 부각되었다.

고대국어 연구가 음운론이나 극히 제한된 형태론을 벗어나 문법론에 손댈 수 있게 된 것은 1980년 이후의 금광명경과 화엄경의 발굴로 석독구결 자료가 많아지면서부터이다. 이들 자토석독구결의 문법요소들은 향가나 이두에 나타난 문법요소들보다 다양하고 체계적이다. 비슷한 시기에 고대 이두문 자료들도 많이 발굴되어 고려시대의 이두문이나 석독구결문이 본질적으로 같은 차자체계를 기원으로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아래의 (5), (6)은 8세기 중반의 <화엄경사경조성기>와 13세기자료로 추정되는 석독구결 자료인 <구역인왕경>이다.

(5) 右 諸人等 若 大小便爲戠(하)고 若 臥宿戠(고) 若 食喫戠 爲者(한 사람은), 香水 用尔(써서) 沐浴畚只但(시키고서야) 作處中 進在之.(작업장에 나간다.)<新羅 華嚴經寫經 造成記(755)>

(6) 或 ヲ 1 四生、 五生、 乃 至 10 生、 ノ乙 ヲ 得ホ 正位 3 十 入 ヲ 1 乙 刀 11 ▶ 5 ヲ 1 3 <구인11:17>

(5)에서 이 시기에 이미 우리말을 쓰는데 무리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 쓰인 이두문은

2) 독자의 편의를 위해 독음을 달았다. 향가는 양주동의 독법이다.

15세기의 이두문과 비교하면 ‘哉, 之’등 차이를 보이는 표기가 있지만 전체 문장을 쓰는 방식은 대동소이하다. (6)은 15세기와 삼국시대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 (6)의 구결자를 정자로 고치면 ‘爲隱, 亦, 沙, 亦乎乙爲古, 尔, 良中, 爲隱飛刀亦齊爲在旽’인데 이 짧은 글귀에서도 ‘爲, 亦, 尔, 在’등의 글자가 일치하고, ‘爲, 亦, 沙, 乎, 乙, 尔, 良中, 齊, 旽’는 쓰임상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15세기 이두문에서도 사용되는 것이다. 구결이나 이두, 향찰의 공통점을 보이기 위해 아래에 이두와 석독구결, 향찰에 나타난 토를 형태소 별로 간단히 보인다.

<구결, 이두, 향가의 형태소 비교>³⁾

	<구결>	<이두>	<향찰>
주격	ㄹ(亦)	亦	是, 伊
목적격	乙	乙	乙
처격	(ㄱ/ㄴ)+(良中)	(良/亦)中	(良/也)中
속격	ㅍ(叱), ㅍ(衣)	叱, 矣	叱, 矣, 衣
구격	ㅁ(以)	以	留
호격	ㅎ, ㅑ, ㅓ		良, 也
접속	ㅅ(果), ㅓ(亦)	果	
주제	ㅈ	矣段, 乙良, 隱	盼良
기타 보조사	ㄷ(刀), ㅅ(沙), ㄴ	置, 沙, 乃/那	置, 沙
종결어미	ㅣ, ㅍ/ㅑ, -	之/如, -, 齊	多/如, 古/遣, 齊
연결어미	ㅅ(齊), ㅍ(古), ㅑ(旽), -ㅓ	-, 遣, 旽, -矣	-, 古, 旽, -矣
선어말어미	ㅍ, ㅑ, ㅓ/ㅍ, ㅏ, ㅑ	白, 在, 賜, 臥, 乎	白, -, 賜, 臥, 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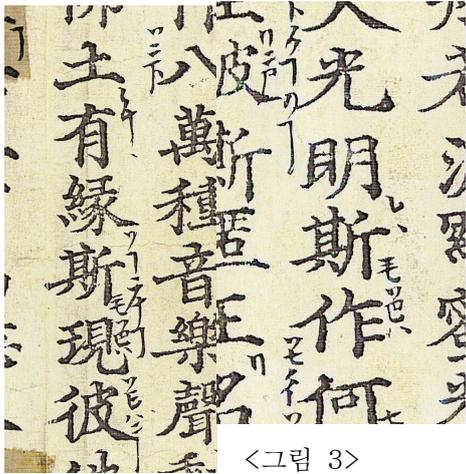
위에서 보인 구결과 향가, 이두의 토표기는 대체로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시대별 차이를 고려하면 일부 이두와 향가의 토표기는 시기의 차이나 문체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부사 등의 문법 형태, 명사의 말음첨기 등이 일치하는 경우도 많다. (7)에서 ‘斯毛ㅍ巴ㅑ’은 (8)과 (9)의 용례를 참고하면 ‘斯毛ㅍ巴ㅑ’으로 읽을 필요성이 생기고 원본의 자형 또한 이렇게 읽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그림 (3)>참조). 차자표기자료에서 ‘ㅍ/叱’이 간혹 생략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斯ㅍㅑ도록’으로 읽을 수 있고 ‘이렇게 까지, 여기까지’ 등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7) 乃ㅑ 十方ㅍ 恒河沙ㅍ 佛土ㅑ ㅏ 至ㅑ 有緣ㅑ ㅏ ㅏ ㅏ 斯毛ㅍ巴ㅑ 現ㅑ ㅑ ㅑ ㅑ | <구인03:06>

(8) 限日亦 未滿爲在乙 行刑爲旽 限日亦 已過爲巴只 行刑不冬爲在乙良 各 杖六十齊 <死囚覆奏待報(大明律 卷第二十八 刑律 斷獄)>

(9) 手焉法界毛叱色只爲旽(소논 法界ㅍ도록 ㅎ며)<廣修供養歌>

3) 대표적인 형태소만 임의로 추출했으며 해당형태가 없는 것은 ‘-’로 표시했다.



<그림 3>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처음 구역인왕경의 해독이 시작되었을 때 이두와 향가의 표기법이 원자의 추정 등 석독구결의 해독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다. 구결문에는 문법형태소 뿐만 아니라 명사나 동사의 발음을 표기한 것도 다수 나타난다. 향가처럼 다양하지는 않으나 이것은 향가와 구결의 표기법이 일치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자토석독구결과 이두, 향가의 표기는 기원적으로 같은 것이며 적어도 15세기 이전의 이두와 향찰의 구별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된다.

차자표기법의 자료로 또 한편 주목받는 것이 목간이다. 최근 목간이 많이 발견되고 그 연구도 활발하여 고대국어 연구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석독구결의 종결어미인 ‘ㄹ’은 원자를 ‘如’로 추정하다가 초기 음독구결자료를 따라 ‘多’로 추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 목간 자료에서 고대국어의 종결어미로 많이 쓰인 ‘之’의 첫 획일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이와 같이 고려 이전의 우리 차자표기 자료들은 한자를 이용해 어떻게든 우리의 문자생활을 잘 영위해보려는 노력의 소산이다. 당대에 분야별로 나뉘어 생산되었던 표기법 자료들을 우리는 통합적으로 연구해야 할 것이다.

3. 구결 자료 개관

앞에서 소개한 보물 1153 법화경은 언해본들이 나온 이후 불경의 구결현토 양상을 보여준다. 본문의 오른쪽에 한자약체구결을 적었고 왼쪽에는 부분적으로 해독을 적었다. 구결과 해독은 법화경언해와 일치한다. 난상의 글귀도 언해본의 주해를 옮겨 적었다. 이로 보아 언해본이 간행된 이후 언해본의 구결이 학습에서도 우위를 점한 것으로 보인다. 구결은 이와 같이 훈민정음의 보조수단 정도로 여겨졌고 15세기 이후의 구결은 간단하고 양식화 된 토만 남아 있어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1973년 석독구결이 기입된 구역인왕경의 발견 이후 2000년까지 크게 세 가지 종류의 구결문자가 발견되었다. 첫째는 자토석독구결이고 둘째는 2000년의 점토석독구결, 그리고 점토 음독구결이다. 점토음독구결은 이미 1997년에는 알려져 있었지만⁴⁾ 단순한 부호나 구두점으로 파악하여 주목받지 못하다가 각필구결이 발견되고 나서 그 가치를 알리게 되었다.

구결은 구결자형에 따라 자토구결과 점토구결(혹은 부호구결)로 나뉘고 번역의 완전함에

4) 남권희(1997) ‘차자표기자료의 서지’ <새국어생활 7권4호>

따라 석독구결과 음독구결로 나뉜다. 구역인왕경이 발견되면서 종래의 구결과 구분할 호칭이 필요했다. 학자에 따라 석독구결의 특징인 역독과 혼독한다는 점에 착안해 역독구결과 순독구결로 구분하거나 혼독구결과 음독구결로 구분하기도 했으나 이제는 석독구결과 음독구결의 용어가 일반화되었다.

2002년 각필에 의한 점토구결이 발견되면서 구결분류에는 두 가지 기준이 더 첨가되었다. 필기구가 각필인가와 구결자의 형태가 한자 기원인가가 그것이다. 현재 알려진 점토구결은 법화경 두 종을 제외하고 모두 각필에 의한 것이다. 각필로 현토한 것을 특히 각필구결이라 부른다. 현재 발견된 각필구결은 모두 석독구결이다. 점토구결 중 목서로 기입된 기림사본 법화경과 송일기장본 법화경은 음독구결로서 완전한 해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⁵⁾. 전자는 한국학중앙연구원에 마이크로필름으로 소장되어 있어 쉽게 이용할 수 있다(<그림5>).

각필점토구결은 현재 알려진 유가사지론 두 종과 화엄경 전체가 해독이 이루어져 있으며⁶⁾, 법화경 두 종과 금광명경이 학계에 소개되었다.⁷⁾ 각필구결은 알려져 있다시피 화엄경 계엄경 계통과 유가사지론 계통이 크게 다르다. 점토의 개수나 위치, 형태가 아주 다르다. 각 계통 내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나타난다.

유가사지론 계통에는 유가사지론과 금광명경, 연세대 소장의 법화경이 있는데 유가사지론 간에는 거의 차이가 없고 금광명경과는 대체로 일치한다. 연세대 소장의 법화경은 대체로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나 미해독 부분이 많아 확실히 단정하기는 아직 이르다. 화엄경 계통도 진본화엄경의 점토는 위치가 다르고 주본화엄경들 간에는 대체로 일치하지만 몇몇 점토의 사용에서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점토구결의 해독은 구역인왕경의 발견 후 약 30년간의 연구가 맺은 결실이다. 고문헌 자료의 저변확대는 1992년에 시작된 구결학회의 월례강독회를 통해서이다. 이 월례강독회를 통해서 자료소개와 연구가 이루어졌고 이러한 추세는 젊은 학자들의 연구욕과 디지털기기의 발달로 더 강화되었다. 2001년부터는 점토구결의 사진을 확보하여 특별강독회를 열었고 이 강독회를 통하여 점토구결의 해독작업이 대부분 이루어졌다.

점토구결의 발견사에서 유가사지론이 먼저 발견된 것은 행운이라고 말할 수 있다. 유가사지론의 점토는 매우 뚜렷하고 위치도 매우 정밀하게 구분하여 예외가 드물 정도로 정확하고 치밀하게 점토를 기입하였다. 혹시나 혼동할만한 곳은 각필로 자토를 그려 넣어 판독의 기준이 되었다⁸⁾. 또한 유가사지론 권8의 각필점이 발견되었을 때 이미 자토석독구결이 기입된 유가사지론 권20의 해독과 연구는 상당히 진전된 상태였으므로 이를 기초로 하여 해독을 진행할 수 있었다. 이 분야에서 선도적인 연구는 장경준(2002)으로 점토의 위치변이에 대한 기준을 세워 해독의 물꼬를 텄다⁹⁾. 유가사지론의 점토가 대부분 해결되었을 때 청주 고인쇄박물관의 자토석독구결 금광명경 권3에서 점토가 발견되었다¹⁰⁾. 이 자료의 점토는 유가사지론과 같은 것인데 자토와 점토가 대체로 일치하여 유가사지론의 해독이 타당하다 것이 증명되었다.

5) 남풍현(2000) ‘여말선초의 법화경의 점표시 순독구결’ <23회 구결학회공동연구회>
남풍현(2004) ‘송일기장 법화경 권4의 각필순독구결에 대하여’ <제30회전국학술대회발표논문집, 구결학회>
6) 이승재외(2005~2009) 각필구결의 해독과 번역1-5 대학사
7) 각필점토구결의 연구 과정과 성과에 대해서는 ‘장경준(2008) 점토구결연구의 성과와 당면과제 <구결연구 21>’ 참조
8) 장경준(2002) ‘점토석독구결구결자료에 기입된 구결자와 구결점에 대하여 <구결연구9>’
9) 장경준(2002) ‘구결점의 위치변이에 대한 기초연구 <국어사자료연구3>’
10) 금광명경 권3의 점토는 각필이나 아주 가는 세필로 기입한 것이다. 군데군데 각필만으로 찍은 점토도 보인다.

화엄경 또한 자토 화엄경이 있어 비교 해독이 가능했다. 다만 화엄경은 유가사지론에 비해 전반적으로 점토가 희미하여 판독에 어려움이 많고 자토에 비해 점토의 종류가 많아 해독되지 못한 점토가 다수 있다.

아래에 자토구결과 점토구결의 자료를 보인다. (10)은 자토유가사지론이고 (11)은 점토유가사지론이다(<그림6,7>). (12)는 자토 화엄경이고 (13)은 점토화엄경이다.

(10) 云何¹ 生圓滿 中² 外³ 依⁴ 五⁵ 有⁶ 謂⁷ (1) 大師圓滿⁸ 世俗正法施設圓滿⁹ 勝義正法隨轉圓滿¹⁰ 正行不滅圓滿¹¹ 隨順資緣圓滿¹² <유가02:16-19>

(11) 云何 [34(·)] 離間語 [51(·), 15(·)] 謂 [33(·)] 於他有情 [23(·), 44(·)] 起破壞欲樂 [34(·), + 15~25(-), 31(·)] …及於破壞 [44(·)] 究竟 [+ 15~25(-), 31(·), 42(·)] 中 [44(·)] 所有 [33(·), 42(·)] 語業 [51(·)] <유가08 19:17-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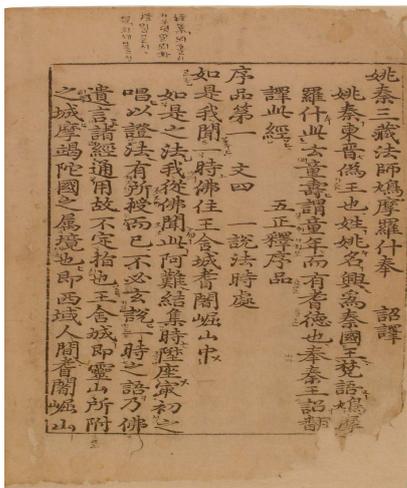
{云}何¹ 離間語(11) 謂¹ {於}他 有情² 破壞欲樂³ 起(2) 語業…{於}破壞+ 究竟(2) 中+ 有⁴ 所⁵ 語業(11) (무엇을 離間語라 하는가? 즉 다른 有情에게 破壞欲樂을 일으키는 것과 …破壞에 대해 究竟하는 것 가운데에 있는 바의 語業이다.)

(12) 何¹ {等} 事起² 故³ {是} 事起⁴ 愛起⁵ 故⁶ 苦起⁷ <화소02:02-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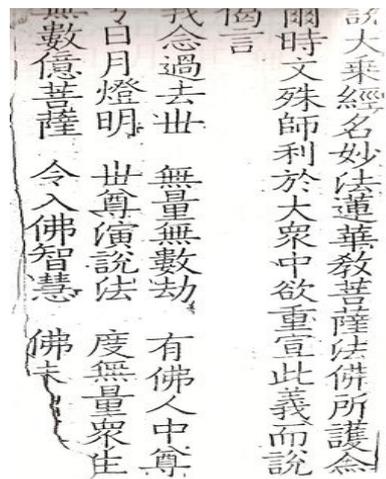
(13) 何 [24(W)] 等 [44(·)?, 41(·)] 爲 [44(·), 11(·)#11(·)?, 43(·)?, 31(·)#41(·), 13(·)] 何¹ 等² 十³ {爲} 事起⁴ (어떤 것들을 열이라 하는가 할 것 같으면) <주본화엄36, 01:24-24>

자토구결에서도 금광명경과 유가사지론은 화엄경과 일부 구결 자형과 구결토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같은 계통에서도 자토와 점토의 현토 방식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 차이가 시기 때문인지 종파 때문인지는 아직 더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아직 뚜렷한 해독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점토음독구결의 연구와 발굴이 필요하다. 점토석독구결만큼 연구자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으나 벌써 두 가지의 점토음독구결이 있다는 것은 더 많은 자료가 존재하고 있으며 또 다른 형태의 부호가 존재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림 4> 보물 1153법화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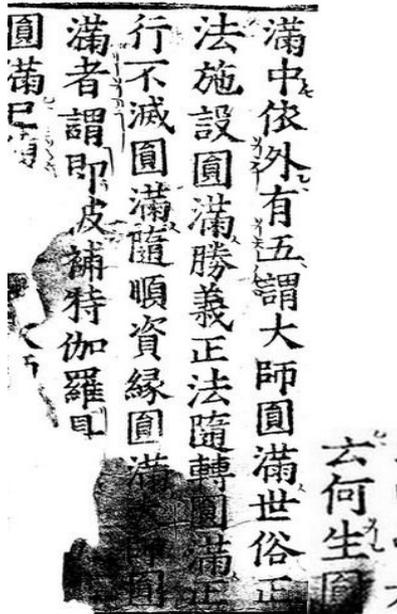
<그림 5> 기림사본법화경

4. 구결자료의 가치와 접근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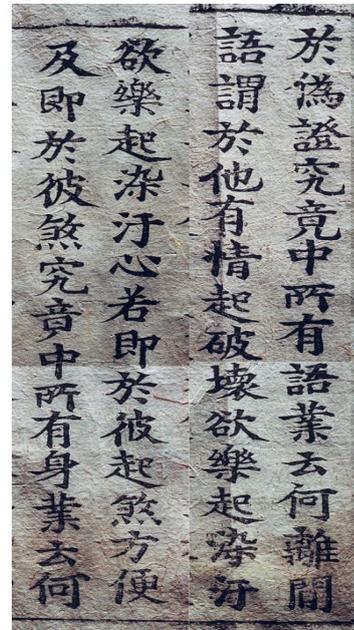
구결자료는 문법사 연구의 지평을 열었다. 구결자료는 15세기 이전의 국어 문법을 연구할 수 있는 자료의 보고이다. 그런데 이 자료의 연구를 위해서는 구결자 해독이란 난제가 버티고 있다. 자토구결의 경우 20년간, 점토구결의 경우 근 10년간 강독회를 이어왔지만 아직도 점토구결에 관해서는 해독 가능한 연구자의 수가 미미하다. 하지만 자료의 전산화가 이루어져 쉽게 검색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

최근 그간의 연구를 기반으로 석독구결 사전이 발간되었는데 부족하나마 구결 자료의 접근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석독구결사전의 발간에는 수년간 이루어진 석독구결자료의 전산화와 검색시스템의 개발이 큰 몫을 하였다.

석독구결사전의 앞뒤 겉표지 안쪽에는 구결자의 독음과 원자가 자모순으로 소개되어 있다. 처음 구결자를 접하는 연구자들이 쉽게 독음을 파악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일러두기는 우선 그림으로 사전의 표제항을 설명하여 한 문에 어떤 방식으로 사전을 기술했는지 알 수



<그림 6>



<그림 7>

있도록 하였다. 부록으로는 석독구결자료 원문과 표제항 색인, 형태분석용례색인이 수록되어 있다.

석독구결사전에는 부록으로 음독구결 사전 CD가 수록되어 있다. 음독구결사전 CD본에는 음독구결사전의 초고 외에도 석독구결 원문파일과 검색프로그램이 수록되어 있다. 검색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석독구결의 원문을 쉽게 검색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석독구결사전과 비교해 볼 수도 있다.

음독구결자료는 13세기경부터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음독구결의 문법체계는 15세기 문법과 석독구결의 요소를 일부 가지고 있지만 상당히 판이하고 15세기의 문법과 더 유사하다. 그런데 고려 후기부터 15세기에 이르는 음독구결의 자료가 상당하여 전체를

아우르는 연구는 쉽지 않았다. 그간 여말선초의 음독구결 자료들에 대한 연구자들은 비슷한 시기의 다른 자료들과 비교하여 뭔가 유의미한 결론을 내고 싶다는 욕구에 시달려 왔다. 자료 하나를 연구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자료 하나 하나의 특성이 과연 시대적 특성인지 하는 의문을 풀기는 쉽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음독구결 사전은 연구자들의 욕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킬 것이다.

음독구결 사전은 여말선초의 음독구결자료들을 전산입력하여 이 중 2번 이상 나오는 구결 토만을 대상으로 집필하였다. 희귀토나 판독이 불분명한 토는 모두 제외하였다. 따라서 정밀한 자료를 요구하는 연구자에게는 매우 미흡하겠지만 이제까지 소수의 연구자만이 누릴 수 있었던 자료의 풍족함을 대다수가 누릴 수 있게 되었다¹¹⁾.

5. 맺음말

차자표기법은 우리의 문화유산이다. 문자라는 분야에서 한글만큼 비중을 차지할 수는 없겠지만 한글보다 족히 두 배의 기간 동안 우리의 문자 생활을 받쳐 주었던 유산이다. 앞에서 훑어본 바와 같이 종류도 다양하여 문자 생활에 대한 우리 선조의 고민과 노력을 엿볼 수 있는 분야이다. 국어학 분야만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역사와 의식을 알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하다. 따라서 교육 분야에서도 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결연구는 한글 이전의 우리말 모습을 살필 수 있게 하는 자료로서 앞으로도 많은 연구와 자료 발굴이 기대되는 분야이지만, 자료발굴과 연구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이기도 하다. 이런 문제가 최근 전산화로 많이 해결되었고 이를 통해 중세전기 및 고대국어의 문법 연구에 있어서 비약적 발전이 기대된다.

이제 고대국어, 적어도 중세 전기의 문법에 대한 어느 정도의 윤곽은 잡혔다고 할 것이다. 이제는 여러 문법범주에 대한 연구를 세밀하게 하는 한편 각 시대별 공시체계를 세워야 한다. 또 향가의 문법요소가 석독구결보다 15세기 문법에 더 가깝다는 심증들을 점검하여 구체적인 간섭요소들을 밝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석독구결자료들에 대한 발굴과 해독 작업이 더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들의 선후관계가 정밀히 밝혀져야 할 것이다.

11) 음독구결자료는 자료마다 그 특성이 달라 자형의 판독에 차이가 나는 일이 많다. 강독회 구성원들의 충분한 검토와 교정을 거쳐야 하지만 충분하지 못했다. 음독구결사전을 이용하는 연구자는 이점을 숙지하여 원본을 확인해야 한다. 자료의 원본은 www.memorykorea.go.kr를 참조.

【 제 3 분 과 】

2008, 소강춘 2008 등), 교육 내용이나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들은 부족하다. 따라서 효율적인 여성결혼이민자들의 한국어 교육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의사소통 양상에 대한 조사와 이를 바탕으로 한 교육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글쓰기 자료에서 나타나는 어휘 오류 유형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어휘 교육의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대부분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은 교육기관에서 한국어를 체계적으로 배우지 않고 생활 속에서 익혔기 때문에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가능하지만 어휘의 형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쓰기에 어려움을 많이 느낀다. 중급반 수업에 참여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쓰기 자료에 나타난 어휘 오류를 중심으로 이들의 한국어 교육에서의 문제점을 점검해 보고자 한다.²⁾

2. 앞선 연구

현재 한국어 교육에서 어휘는 문법이나 문장 구조를 학습하거나 읽기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의 부차적인 요소로서만 다루어질 뿐 어휘 자체를 중심으로 교수하는 방법이 많이 도입되지 않았다(강현화 2005: 70). 그동안의 한국어 어휘 교육 분야에서는 기본어휘 선정 및 교재의 어휘 선정에 대한 연구, 학습자 오류 분석을 통한 교육 방법 연구, 유의어·다의어·연어·과생어 등의 내용 연구, 어휘 교육 방법과 교재 개발에 대한 연구, 개별 어휘 연구 등이 이루어져 왔다.

한국어 교육용 기본어휘 선정은 이를 바탕으로 학습 단계를 설정하고, 교재를 구성하며, 학습 범위를 한정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최길시(1998), 서상규 외(1998), 조현용(2000), 조남호(2003), 김광해(2003) 등에서 한국어 교육용 기본어휘를 선정하고 있다.³⁾ 기초어휘 선정과 관련하여 조성문(2005)에서는 기초어휘 선정에서 구어 말뭉치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12개월에서 23개월의 유아 대화 말뭉치에서 나온 어휘를 기초 어휘로 선정하고, 강현화(2001b)에서는 한국어 교재에 실린 한자어의 조어력 분석을 통해 기초 한자 목록을 추출하였다. 정성미(2009)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재 초급(여성가족부)에 반영된 어휘를 분석하여 교재의 어휘 선정의 특징을 살피고, 기존 연구에서의 교육용 어휘와의 비교를 통해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초급 교육 단계의 어휘 선정에 대하여 논하였다.

학습자 오류 분석을 통한 어휘 교육 방안을 제안한 연구로는 왕혜숙(1995), 신성철(2002), 이정희(2003a, 2003b), 김미옥(2003), 김지영(2004), 고석주 외(2004), 최경봉·이향화(2005), 김지숙(2007) 등이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주로 어휘 오류의 유형을 분류하고 자료(혹은 말뭉치)에 나타난 오류 빈도를 제시하며 학습자들의 어휘 교육의 단계별 내용을

2)

3)

제시하고 있다. 오류 분석을 통한 연구는 학습자가 자주 틀리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연구하여 교수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오류를 판단하는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되어 분석의 일관성이나 객관성을 획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논의한 연구로는 학습자 오류 분석의 방법을 고찰한 김민애(2006), 오류 분석의 기준에 대해 연구한 김유정(2005), 학습자 오류를 판정하는 연구자의 직관과 일반 화자의 직관을 비교해 본 이승연(2007) 등이 있다.

한국어 어휘 유형 가운데는 유의어·다의어·연어·파생어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의미 관계에 따른 어휘 학습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습자들이 많아 유의어(강현화 2001a, 문금현 2004, 봉미경 2005, 유현경 2007), 다의어(문금현 2006), 연어(박동호 1998, 문금현 2002, 한송화·강현화 2004, 신자영 2005, 이승연·최은지 2007) 등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또한 파생어나 합성어 등의 어휘 형성에 대한 연구(문금현 2002, 김정은 2003, 서희정 2006, 나은미 2008), 한자어(문금현 2003)와 외래어(이정희 2007) 등의 어종에 대한 어휘 교육 방법들이 연구되었다. 또한 문화적 어휘의 중요성과 교육 방안에 대한 논의로 박영준(2000), 임서연(2005)가 있다.

어휘 교육 방법과 교재 개발에 대한 연구 등도 이루어졌는데, 조현용(2000)에서는 암기 중심의 어휘 학습법, 형성 중심의 어휘 학습법, 해석 중심의 어휘 학습법을 제시하면서 어휘 중심 학습법을 제시하였고, 강현화(2000)과 유현경·서상규(2002)에서는 코퍼스를 활용한 어휘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오미정(2004)에서는 어휘 교재의 요건을 제시하고, 한국어 기본어휘 교재를 설계하였다. 신은경·송향근(2005)에서는 유형별 어휘를 중심으로 한 어휘 교재 개발 방안을 연구하였다. 이외에도 개별 어휘 연구와 사전 편찬과 관련한 논의들이 한국어 어휘 교육 분야에서 연구되었다.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어 교육과 관련한 연구로는 우선 국가의 정책 과제로 수행한 연구 보고서가 있는데, 설동훈·김윤태·김현미 외(2005), 왕한석·한건수·양명희(2005), 설동훈·이혜경·조성남(2006), 김이진(2006), 김진아(2008) 등이 그것이다. 또한 각 기관이나 단체의 교육 현황을 보여주고 나타나는 문제점을 제시한 김선정(2007), 고은미·이수라·장미영·소강춘(2008), 소강춘(2008) 등의 연구가 있고, 이주여성뿐만 아니라 이주노동자 및 그 자녀에 대한 한국어 교육에 대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이들의 한국어 교육에 대해 연구한 조선경(2007)이 있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어 교재 개발에 대해서 연구한 구지은(2006), 이명오(2006), 김수현(2007), 이경연(2007), 소강춘(2008), 최인숙(2008) Tran Thi Huong(2008) 등이 있고, 문화 교육을 다룬 연구로 이순애(2007), 백미옥(2007), 구선희·유승금(2008), 조수아(2008), 이연숙(2008), 장미영(2008) 등이 있으며, 교수요목 개발을 논의한 김일란(2007)의 연구가 있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들은 최근 우리 사회가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어 교육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어 교육의 내용이나 방법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부족하다. 특히 어휘 교육에 관한 연구로는 정성미(2009)를 제외하고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쓰기 자료에서 나타난 오류를 중심으로 어휘 학습의 어려움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 교육 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 c. 요즘은 이틀마다 대청소를 하기 때문에 정리정동이(→정리정돈이) 돼서
- d. 선격은(→성격은) 너무 착하고 일도 열심이 하고
- e. 우리에게 기쁨이(→기쁨을) 주는 보물같은 전재입니다.(→존재입니다.)
- f. 외국 며느리라 처음은 어떻게 가루치나(→가르치나) 걱정하셨겠지만
- g. 남편에서도 이해가 돼니까(→되니까) 큰 싸움 없이 재미있게(→재미있게) 살고 있습니다.
- h. 학교 끝나고 방가(→방과) 후에는 학교 운동장에서 노는 것이 일가입니다(→일과입니다).

(2a-b)는 학습자들이 한국어의 평음, 경음, 격음의 구별을 하지 못해서 발생한 오류이고, (2c-d)는 일본인 학습자들에게서 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받침 발음인 ㄴ, ㄹ, ㅇ을 구별하지 못하여 나타난 오류이다. (2e-f)는 모음 [ㅡ]와 [ㅓ], [ㅣ]와 [ㅜ]를 구별하지 못하여 발생한 오류이다. 이러한 오류는 모두 한국어 발음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외국인 학습자들에 의해 발생하는 오류이고, (2g-h)는 [ㄱ]와 [ㅋ]를 구별 못하고, [내]를 [나]로, [가]를 [ㅏ]로 발음하는 현대 한국인의 발음에서 나타나는 오류로 외국인 학습자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2a-f)의 오류는 한국어 개별 음운에 대한 발음 교육이 필요함을 말해 주고, (2g-h)의 오류는 철자에 맞게 쓰는 연습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음운 현상을 이해하지 못하여 발생한 오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3) a.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시기를(→사시기를) 바랍니다.
- b. 우리 부부가 무대로 올아가서(→올라가서) 남편이 노래를 부를 때
- c. 아기들의 통통하고 발그레한 볼이 얼마나 귀엽은지(→귀여운지) 모른다.
- d. 한국말 공부는 바름이며(→발음이며) 쓰기며 어렵습니다.
- e. 혹시 내가 죽은 적A 해도 사라(→살아) 있는 것을 알았으면
- f. 너 생일 벌써 여섯 번째가 되었군아(→되었구나)!

(3a-c)는 용언의 불규칙 활용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여 발생한 오류 현상이다. (3a)는 어간이 ‘ㄹ’로 끝나고 ‘-니(까), -는데, -시-’가 뒤에 오면 ‘ㄹ’이 탈락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여 나타난 오류이다. (3b)에서는 ‘르’ 불규칙 현상을 적용하지 않아서, (3c)에서는 ‘ㅂ’ 불규칙 현상을 적용하지 않아서 생긴 오류이다. (3d-e)는 연음으로 발음하는 것을 철자에 적용한 오류이고, (3f)는 형태를 밝혀 적는 것을 과도하게 적용하여 발생한 오류이다. (3)은 개별 음운의 발음 연습뿐만 아니라 음운 규칙에 대해 이해하고 발음과 철자의 관련성에 대해 익히는 연습이 필요함을 말해 준다.

단순한 맞춤법 오류의 예는 다음과 같다.

- (4) a. 곰이 한창 냄개를(→냄새를) 맡고 있다가
- b. 둘째딸은(→둘째딸은) 유치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 c. 여자 아디들이(→아이들이) 많이 하는 놀이입니다.
- d. 친구가 위험한 상황에 빠져 있는데 가기만(→자기만) 살려고 도망가는
- e. 올림픽(→올림픽) 경기를 텔레비전으로 보고
- f. 큰애가 2학년 막내각(→막내가) 1학년 연년생이다.

(4)에서 제시한 예들은 발음의 유사성이나 음운 현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맞춤법 오류들이다. 이러한 오류는 모든 학습자가 지속적으로 범하는 오류가 아니라 제대로 쓸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는 오류들이다. 정확하게 어휘의 형태를 인지하지 못해서 범하는 오류로 여겨지며, 철자에 맞게 쓰는 연습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다음은 띄어쓰기 오류가 나타난 예이다.

- (5) a. 각종 대회에 여러번(→여러 번) 최우수상을 수상 했습니다(→수상했습니다).
- b.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급식을 먹어야 하니까 안 매운것만(→매운 것만) 먹는다.
- c. 명절 일주일 전일부터 여러 가지 준비 할(→준비할) 것 들이(→것들이) 많습니다.

띄어쓰기 오류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특히 (5)와 같이 관형사(어)와 의존명사의 띄어쓰기, ‘명사+하다’나 ‘것+들’과 같은 접사의 띄어쓰기에 대해 규칙적으로 오류가 나타난다. 따라서 어휘의 품사 정보에 대한 교육이 띄어쓰기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어휘 형태 오류 가운데 맞춤법 오류가 아닌 품사 오류에 해당하는 예이다.

- (6) a. 남편은 일본사람 있고(→일본사람이고) 저는 대만사람입니다.
- b. 한국의 명절은 아주 풍요로운 명절 있었습니다(→명절이었습니다).
- c. 우리 엄마는 20년 동안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의 선생님 있었다(→선생님이셨다).
- d. 구경한 후 작업 공간에서 나오자마자 모두(→모든) 의혹이 사라졌다
- e. 우리집 명절은 편안하지만 특별(→특별히) 재미있는것도 없었습니다.
- f. 엄마를 닮아서 예술적으로(→예술적인 면에서) 뛰어납니다.

(6a-c)는 ‘명사+이다’의 서술어로서의 쓰임을 이해하지 못하고 조사 ‘이다’ 대신에 형용사 ‘있다’를 사용한 예이다. (6d)는 ‘의혹’을 꾸며주는 관형사 ‘모든’이 와야 하는데, 부사 ‘모두’를 사용한 것이고, (6e)는 재미있다는 꾸며주는 부사 ‘특별히’가 와야 하는데 명사 ‘특별’을 사용한 것이다. 어휘 교육에서 품사에 대한 정보를 교육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예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휘 형태 오류는 발음이나 문법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 발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여 쓰기에서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많고, 문법적인 정보를 이해하지 못하여 어휘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따라서 어휘 교육은 어휘 의미의 교육뿐만 아니라 발음이나 문법 교육과의 연계 속에서 효율적인 교육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3.2. 의미적 오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오류에는 의미의 유사성에서 나타나는 오류, 연어 관계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나타나는 오류, 파생어나 합성어 등 어휘의 형성에 대해 이해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오류, 높임의 어휘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 의미를 몰라서 풀어서 쓴 것, 모국어의 한자어 사용의 차이에서 나타난 것, 의미를 전혀 몰라서 잘못 쓴

것, 한국말을 몰라서 코드 전환을 한 것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의미가 비슷하여 오류를 드러낸 경우를 보면 다음과 같다.

- (7) a. 사람이 많아서 할인 상품이 순간에(→순식간에) 팔리고 말았어요.
- b. 마치 어린 시절로 뒤돌아간(→되돌아간) 것 같다.
- c. 남의 건의에도(→조언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눈이 멀어 파산이 당했어요.
- d. 나중에(→다음에) 말을 하기 전에 정말 조심하도록 할게요.
- e. 우리 아빠 불러서 확인 하고 보내줬던 추억이(→기억이)
- f. 형제들이 나이가 한둘 살 사이니까(→차이니까) 부딪히면 늘 싸웠다.
- g. 참외는 키가(→크기가) 솔방울만한다.
- h. 도서관 정문에 들어가서 오른쪽은 경비실 겸 교실을(→열람실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 i. 그 뒤에는 바로 전시장이다(→서고이다). 다양한 책들을 가득 진열되었다.

(7a)에서는 유의어 ‘순간’과 ‘순식간’의 차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나타난 오류이고, (7b)는 ‘뒤돌아 가다’와 ‘되돌아가다’를 구분하지 못하여 나타난 오류이며, (7c)는 ‘건의’와 ‘조언’의 차이를 알지 못한 것이고, (7d)는 ‘나중’과 ‘다음’의 차이를, (7e)는 ‘기억’과 ‘추억’의 차이를, (7f)는 ‘사이’와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여 나타난 오류이다. 이러한 오류는 유의어와 관련한 오류로 학습자들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된다. 그리고 (7g-i)는 ‘크기’를 ‘키’로, ‘열람실’을 ‘교실’로, ‘서고’를 ‘전시장’으로 대치하였는데, 이는 어려운 어휘를 다른 상황이나 사물에 적용하는 쉬운 어휘로 바꾼 예가 된다.

연어 관계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발생한 오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8) a. 남편의 꿈은 우리 식당 세우기 입니다(→식당을 여는(가지는) 것입니다.).
- b. 부모님 연세가 늘어나서(→많아져서)
- c. 철수 씨는 영어 실력이 잘하는데(→좋은데) 미영 씨만 못해요.
- d. 거기는 남녀 노소를 막론하고 언제든지(→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곳이다.
- e. 그래서 나도 마음속에 자기 행동을 주관 해야(→통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휘는 독립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문장에서 다른 어휘와 공기관계, 통합관계를 이루게 되는데, 이러한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오류를 범하게 된다. (8)에서처럼 ‘식당’은 ‘세우다’가 아닌 ‘열다, 가지다’와 어울리고, ‘연세’는 ‘늘어나다’가 아닌 ‘많아지다’와 공기한다. ‘영어 실력’은 ‘잘하다’가 아니라 ‘좋다’와 어울리고, ‘남녀노소’는 ‘언제든지’가 아니라 ‘누구든지’와 의미적으로 연결된다. 또한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을 통제한다. 이러한 연어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파생어나 합성어 등 어휘의 형성에 대해 이해하지 못해서 발생한 오류들도 있다.

- (9) a. 해님이 매일 미소한(→미소 띠) 얼굴로
- b. 이런 무아지경 정도로 공부한 걸 단복시킨다(→탄복한다).
- c. 남편하고 만나기 전에 가족 때문에 저는 부정(→부정적인)생각많고
- d. 그래도 점점 한국 기후도 익숙해서 좋아 해지고(→좋아지고) 있다.
- e. 돌생일을(→돌을, 첫 번째 생일을) 지나서 저는 가족과 함께 오사카 남쪽으로 이사하고,

(9a)에서는 ‘미소’에 동사 ‘따다’가 아닌 접사 ‘하다’를 붙여 ‘미소하다’라는 말을 만든 것이고, (9b)에서는 피동형이 아닌 능동형 접사를 붙여야 하는데 피동형 접사 ‘시키다’를 붙인 것이다. (9c)에서는 접사 ‘-적’을 붙이지 않았고, (9d)에서는 ‘좋다’에 ‘-어지다’를 붙여야 하는데 ‘좋아하다’에 ‘-어지다’를 붙였다. 따라서 (9a-d)까지는 접사를 붙여 파생어를 만드는 데 있어서 나타난 오류이고, (9e)는 ‘돌’과 ‘생일’을 붙여서 합성어를 만든 오류를 범한 것이다. 높임의 어휘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도 여러 번 나타나고 있다.

- (10)a. 저의(→나의) 하루하루는 전쟁이다.
- b. 제가(→내가) 한국에 온지 이미 이년됐다.
- c. 항상 안전을 주의하고 엄마 말씀(→말) 잘 들으면 좋겠어.

(10a-b)와 같이 ‘나’를 ‘저’로 ‘내’를 ‘제’로 언급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난다. 또한 (19c)와 같이 자신의 말을 ‘말씀’으로 높이는 오류를 보이기도 한다. 어휘의 의미를 몰라서 풀어서 쓴 경우와 어휘의 의미를 전혀 몰라서 잘못 쓰는 경우도 있다.

- (11)a. 어렸을 때 저는 섬에서 잘았기 때문에 낚시, 바다, 물고기 등등 거리가 멀지는 않았다(→친숙했다).
- b. 아이가 깨지 안 도록 음식 하세요(→조심하세요)
- c. 계단이 미끄러우니까 성취하시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11a)는 친숙하다는 말을 몰라서 ‘거리가 멀지는 않았’으로 풀어서 쓴 것이다. (11b-c)는 ‘조심하다’는 말을 몰라서 전혀 엉뚱한 어휘를 쓴 경우이다. 이외에도 모국어에서의 한자어 사용이 달라서 생긴 오류, 한국말을 몰라서 코드 전환을 한 경우, 은어를 사용한 경우 등이 있다.

- (12)a. 내 기억에는 청춘기였을(→청소년기였을) 때 특히 심하다.
- b. 그 옆에 “가정제원(家庭菜園)(→가정채원)” 있고,
- c. apt말고 초위주택에(→전원주택에) 살고싶어요.
- d. 휴대폰은 일본 제품을 앞서 인기가 짱입니다(→최고입니다).
- e. 맛이 아주 그냥 죽졌습니다(→좋았습니다).

(12a-c)는 중국이나 일본의 경우 한자어의 사용이 달라서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12d-e)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은어를 글에서 사용한 예이다. 의미 오류는 유의어나 연어 등의 의미 관계를 이해하지 못해서 나타난 오류, 파생어나 합성어 등 조어법을 이해하지 못해서 나타난 오류, 높임의 어휘에 대한 사용법을 이해하지 못해서 나타난 오류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어휘 교육에서 어휘의 의미 관계, 조어법, 경어법 등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3.3. 기타

위에서 살펴본 어휘의 형태 오류와 의미 오류는 어휘를 다른 어휘로 대치한 것이다. 대부

27개, 초급 영어권 학습자들은 형태적 오류 13개, 의미적 오류 27개, 초급 중국어권 학습자들은 형태적 오류 8개, 의미적 오류 26개가 나타나 형태적 오류보다 의미적 오류의 발생률이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정규 프로그램의 초급 학습자들보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중급반 학습자들이 어휘를 맞춤법에 맞게 쓰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한국어 교육에서는 중급반에서도 철자 교육이 강조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4. 맺음말

이 연구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 중급반의 쓰기 자료에 나타난 어휘 오류 유형을 통해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어 교육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어휘 오류를 형태 오류와 의미 오류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어휘 사용에서는 의미적인 차이보다 맞춤법에 맞지 않게 쓰는 것이 더 큰 문제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유의어나 연어의 의미 관계에 대한 이해 부족, 파생어와 합성어에 대한 이해 부족, 높임 어휘의 부적절한 사용 등이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어 어휘 교육에서 나타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교육 방안 마련이 특히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교육 방안 마련에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한국어 교육이 가지는 특수한 상황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여성결혼이민자 중급반의 경우는 생활 속에서 한국어를 어느 정도 익힌 상태에서 교육기관에 나온 학습자들이 많아서 기초 교육이 부족한 상태이다. 또한 학습 시간도 각 단계별로 30시간에서 100시간 정도이기 때문에 부족하다. 따라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한국어 교육에서는 정규 과정에서의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적용하는 학습 단계를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학습자들의 특성에 맞게 교육 내용과 방법을 선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성결혼이민자들의 한국어 교육에서는 출신국가나 교육의 정도가 다양한 학습자들이 함께 교육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교육하는 강사진은 한국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학습자와 교수자의 특성으로 개별 어휘의 의미를 교육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고, 유의어나 연어, 파생어나 합성어를 효율적으로 교육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에는 어휘 정보가 상세하게 실려 있어야 하고, 교사용 지침서를 별도로 개발하여 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어휘 정보 제시에서 영어나 일본어, 중국어로 제시된 것을 이해하는 학습자들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모국어로 제시해 주는 단어 자료집이나 사전이 있으면 유용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현화. 2000. 코퍼스를 이용한 부사의 어휘 교육 방안 연구. 이중언어학 17. 61-79. 이중언어학회.
- 강현화. 2001a. 빈도를 나타내는 시간부사의 어휘 교육 방안 연구. 한국어교육 12-1. 1-18.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강현화. 2001b. 한국어교육용 기초 한자어에 대한 기초 연구. 한국어교육 12-2. 53-70.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강현화. 2005. 어휘 교육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평생교육원 편.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 69-112.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 고석주 외. 2004.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와 오류 분석. 한국문화사.
- 고은미·이수라·장미영·소강준. 2008.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위한 효과적인 한국어 지원 정책 방안 연구-전북지역 기관별 여성결혼이민자 지원 프로그램 분석을 중심으로-. 국어문학 44: 111-138. 국어문학회.
- 곽지영. 1997.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어휘 교육 -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22. 141-159.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 구선희·유승균. 2008.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문화 교육방안 연구-전래동화를 활용하여-. 한국어 교육 19.3. 45-64.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구지은. 2006.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위한 한국어 교재 개발 방안: 부산·경남지역 중심으로. 부산외국어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광혜. 2003. 등급별 국어교육용 어휘. 박이정.
- 김미옥. 2003. 한국어 학습자의 단계별 언어권별 어휘 오류의 통계적 분석. 한국어교육 14-3. 31-5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김민애. 2006. 한국어 학습자 오류의 분석 방법 고찰. 한국어교육 17-2. 1-44.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김선정. 2007. 결혼 이주 여성을 위한 한국어 교육. 이중언어학 33. 423-446. 이중언어학회.
- 김수현. 2007.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방안. 2007년 가을 한국사회언어학회 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81-99. 한국사회언어학회.
- 김유정. 2005.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오류분석의 기준 연구. 한국어교육 16-1. 45-76.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김이선·김민정·한건수. 2006.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 경험과 소통 증진을 위한 정책 과제. 한국여성개발원.
- 김이진. 2006. 여성 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 경험과 소통증진을 위한 정책 과제. 한국여성개발원.
- 김일란. 2007. 여성결혼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육을 위한 교수요목 개발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은. 2003. 한국어 파생어 교육 연구. 이중언어학 23. 91-139. 이중언어학회.
- 김지영. 2004. 한국어 어휘 교육 항목 선정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어교육 15-2. 93-114.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김진아. 2008. '08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실태조사 결과 보고. 충남도청.

- 나은미. 2005. 파생 접미사의 의미 패턴 연구. 이중언어학 28. 81-110. 이중언어학회.
- 나은미. 2007. 어휘의 연결 방식과 패턴에 대한 연구. 이중언어학 34. 106-130. 이중언어학회.
- 나은미. 2008. 유추를 통한 한국어 어휘 교육. 한국어학 40. 177-202. 한국어학회.
- 문금현. 2000. 구어 텍스트를 활용한 한국어 어휘 교육. 한국어교육 11-2. 21-6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문금현. 2002. 한국어 어휘 교육을 위한 연어(連語) 학습 방안. 국어교육 109. 217-250. 한국어교육학회.
- 문금현. 2003. 한국어 어휘 교육을 위한 한자어 학습 방안. 이중언어학 23. 13-42. 이중언어학회.
- 문금현. 2004. 한국어 유의어의 의미 변별과 교육 방안. 한국어교육 15-3. 65-94.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문금현. 2006. 한국어 어휘 교육을 위한 다의어 학습 방안. 이중언어학 30. 143-178. 이중언어학회.
- 박동호. 1998. 대상부류에 의한 한국어 어휘기술과 한국어 교육. 한국어교육 9-2. 67-84.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박영준. 2000. 한국어 숙달도 배양을 위한 문화적 어휘·표현의 교육. 한국어교육 11-2. 89-110.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배현숙. 2006.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의성어·의태어 교수법 연구. 이중언어학 31. 97-122. 이중언어학회.
- 백미옥. 2007.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생활문화와 한국어의 통합 교육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봉미경. 2005. 시간부사의 어휘 변별 정보 연구-유의어 "방금"과 "금방"의 분석을 중심으로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30. 113-139.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 서상규·남운진·진기호. 1998. 한국어 교육을 위한 기초어휘 선정. 문화관광부 한국어세계화재단위원회.
- 서희정. 2006.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접두과생어에 대한 연구. 이중언어학 30. 209-244. 이중언어학회.
- 설동훈·김윤태·김현미 외. 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 보건복지부.
- 설동훈·이혜경·조성남. 2006. 결혼이민자 가족 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 정책 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 소강춘. 2008. 이주민 한국어·문화교육 실태와 개선 방안. 다문화 포럼 자료집. 22-44. 문화체육관광부.
- 신성철. 2002. 호주 한국어 학습자의 어휘 오류 분석 연구. 한국어 교육 13-1. 307-388.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신은경·송향근. 2005. 유형별 어휘를 중심으로 한 어휘 교재 개발 방안 연구. 이중언어학 29. 165-194. 이중언어학회.
- 신자영. 2005. 한국어 연어의 다국어 대조 연구. 이중언어학 28. 185-204. 이중언어학회.
- 신현숙. 1998. 한국어 어휘 교육과 의미 사전. 한국어교육 9-2. 85-104.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심혜령. 2008. 중국인 한국어 초급 학습자에 대한 어휘 교육 연구. *겨레어문학* 41. 89-116. *겨레어문학회*.
- 오미정. 2004. 한국어 교육용 어휘 교재 개발 연구. *한국어교육* 15-3. 147-170.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왕한석·한건수·양명희. 2005. 국제결혼 여성결혼이민자의 언어 및 문화 적응 실태 연구 -전라북도 임실군(및 순창군·남원시) 일원 사례 보고서-. *국립국어원*.
- 왕혜숙. 1995. 영어화자의 한국어 작문에 나타난 어휘상 오류분석. *이중언어학* 12. *이중언어학회*.
- 유현경. 2007. '사이', '동안'의 어휘 정보 연구. *한국어교육* 18-1. 309-330.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유현경·서상규. 2002.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에 나타난 부사 사용에 대한 연구. *이중언어학* 20. 215-236. *이중언어학회*.
- 이경연. 2007. 문화 교육 겸용 초급 한국어 교재 개발 연구: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명오. 2006. 여성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재의 활용도 제고 방안.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 이순애. 2007. 여성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문화 교육 내용 구성 연구. *상명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승연. 2007. 한국어 학습자 오류의 판정 및 수정 기준 연구: 교사·비교사 집단간 오류 판별 비교 실험을 바탕으로. *이중언어학* 33. 189-214. *이중언어학회*.
- 이승연. 최은지. 2007. 한국어 학습자의 어휘적 언어 사용 연구. *이중언어학* 34. 299-321. *이중언어학회*.
- 이언숙. 2008.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문화 교육 요구분석.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희·김중섭. 2005. 한국어 학습자의 어휘 오류 분류에 관한 연구. *이중언어학* 29. 321-346. *이중언어학회*.
- 이정희. 2003a.. 한국어 학습자의 오류 연구. *박이정*.
- 이정희. 2003b. 초급 단계 한국어 학습자의 어휘 오류. *이중언어학* 22. 301-320. *이중언어학회*.
- 이정희. 2007. 한국어 외래어 교육 목록 선정에 관한 연구. *한국어교육* 18-3. 1-26.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임서연. 2005. 한국어 문화적 어휘 교육 연구. *새국어교육* 71. 263-284. *한국국어교육학회*.
- 장미영. 2006.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체감형 한국어교육콘텐츠 개발 및 구성. *한국어교육* 17-3. 231-254.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장미영·이수라·고은미. 2008. 다문화사회 바로서기: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적응교육프로그램 연구. *글솜대*.
- 정성미. 2009.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어휘선정에 대하여-기존 교재의 어휘 분석을 중심으로-. *한말연구* 24. 219-240. *한말연구학회*.
- 조남호. 2003. 한국어 학습용 어휘 선정 결과 보고서. *국립국어연구원*.
- 조선경. 2007. 특수 목적 한국어 교육 연구: 이주노동자, 이주여성 및 그 자녀에 대한 한국어 교육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성문. 2005. 구어 말뭉치에 의한 한국어 초급교재의 어휘 분석. 한민족문화연구 17. 259-286. 한민족문화학회.
- 조수아. 2008.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생활문화 교육 방안 연구: 초급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부산외국어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현용. 2000. 한국어 어휘교육 연구. 박이정.
- 최길시. 1998.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의 실제. 태학사.
- 최인숙. 2008. 단일 주제 사용 언어교수법의 한국어 교재 개발을 위한 다각적 분석: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송화강현화. 2004. 연어를 이용한 어휘 교육 방안 연구. 한국어교육 15-3. 295-318.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Tran Thi Huong. 2008. 국제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초급교재 개발에 대한 연구: 베트남인 결혼 이민여성과 웹사이트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토론 □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어 어휘 교육

-쓰기에 나타난 어휘 오류를 중심으로-

김용경(경동대학교)

최근까지 국내에서의 한국어교육은 학문목적의 한국어교육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여성결혼이민자와 외국 노동자의 증가와 함께 2세대 인구가 증가하면서 이들을 위한 한국어교육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교재 제작은 물론이고 각 영역별 세부 교육 내용이나 과정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이 연구는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꼭 필요한 연구라 생각한다.

이와 함께, 이 연구는 한국어 어휘 교육과 관련한 논문은 물론이고, 여성결혼이민자와 관련된 논문들을 두루 살펴보면서 어휘 교육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함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세부적 오류를 형태적 오류와 의미적 오류, 기타로 유형화 하여 오류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까지 밝히려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의의와 함께 토론자의 의무에 따라 몇 가지 문제 제기를 해 보기로 하겠다.

첫째, 머리말에서 이 연구의 목적을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글쓰기 자료에서 나타나는 어휘 오류 유형을 분석’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어휘 교육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분석에 머무르고 있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어휘 교육 방안을 마련하는 데까지 이르렀으면 하는 바람이다.

둘째, 비록, 부제가 있기는 하지만 한국어 어휘 교육 방안과 관련한 연구 논문임에도 실제 연구 분야는 쓰기에 한정되었고, 연구 대상자는 중급 수준의 여성결혼이민자로 한정되어 있다. 총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결과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오류의 유형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그 기준이 불명확하며, 구체적인 분석 사례에서도 어휘 범주가 아닌 문법 교육이나 발음 교육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 있는 듯하다. 가령, (1b)를 형태적 유사성에 의한 오류가 아니라, 맞춤법의 오류로 본 것이나, (3a-c)처럼 용언의 불규칙 활용은 문법 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훌륭한 논문을 발표하신 전영옥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며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표준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방법론 기초 연구

-영어 원어민 보조교사를 대상으로-

정태섭(한국외국어대학교)

□ 차 례 □

1. 서론
 2. 선행연구 검토
 3.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이론적 배경
 - 3.1. 교육과정 개발에서의 구성주의 모형
 - 3.2. 외국어 교육과정 개발 모형
 - 3.3. 한국어 교육과정 모형
 4. 교육과정 설계의 실제
 - 4.1. 학습자 특성
 - 4.2. 요구 분석
 - 4.3. 목표 설정
 - 4.4. 내용 선정
 - 4.5. 내용 배열
 - 4.6. 교수요목
 5. 결론
- 참고문헌

1. 서론

국어기본법이 시행된 2005년 이후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연구 성과들이 생산되고 있다. 그러나 연구자들의 왕성한 연구열에 비해 아직은 그 기간이 짧고, 이에 연구 결과들이 충분히 숙성되지 않아 한국어 교육의 기본 틀이 확실하게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즉 문법교육, 어휘교육, 문화교육 등의 분야에서 구체적 항목들에 대한 세밀한 연구뿐만 아니라, 학습 위계화 방안도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지만 아직 표준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시기적으로도 한국어 교육의 패러다임 구축을 위한 노력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가장 기본적인 틀인 한국어 교육과정의 표준화가 마련되어야 하고 교육 현장에서도 이에 대한 요구가 증폭되고 있다. 교육과정의 표준화는 국가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하지만¹⁾ 그 선행연구들을 담보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여기에서 우선 논의되어야 하는 것은 표준화에 대한 방향²⁾, 표준 교육과정의 구체적 기본 시안³⁾, 각 학습자 군집을 대상으로 하는

1) 김명광(2007)은 한국어 교육의 표준교육과정은 문화부에서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교육과정 표준화 방향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로는 민현식(2004)를 들 수 있다.

3) 허용 외(2007) 세종학당의 사업으로 진행된 교육과정으로 국외의 세종학당의 교육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그 교육내용은 국내의 교육과정을 참고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교육과정이 교육과정의 표준화를 지향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표준 교육과정의 구체적인 시안으로 제시할 수 있다.

교육과정 개발 등이다. 이러한 연구들이 상호간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표준교육과정이 정립이 되고, 이를 근거지로 하여 한국어 교육의 안정적 도약이 가능할 것이다⁴⁾.

본고에서는 표준교육과정 정립을 위한 과정 중에서 각 학습자 군집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 개발을 논의하고자 한다. 현재 한국어 학습자 군집으로는 유학생, 결혼이주여성(자녀포함), 외국인 근로자가 가장 규모가 크다. 이에 따라 이들을 위한 교육과정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지고 있는데, 한국어 교육에서 간과하고 있는 또다른 학습자 군집으로 영어 원어민 보조교사⁵⁾가 있다.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교육 연구에서는 원어민 교사들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생기는 많은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있다. 그럼에도 그들이 영어교사라는 이유로 한국어 교육에서 외면하고 있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과정을 개발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 과정은 표준교육과정 정립이라는 큰 맥락을 고려하여 진행할 것이다.

우선 선행연구로 각 군집별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를 검토하고, 이어서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으로 일반 교육과정론과 외국어 교육과정론을 제시한 후, 원어민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구체적인 교육과정을 제시하여 궁극적으로는 표준교육과정 정립에 작은 기여를 하고자 한다. 다만 본고에서는 방법적인 면에 중점을 둔다.

<표-1> 2009년 현재 체류외국인 현황 (출입국관리소 통계)및 논문 편수⁶⁾

자격별	유학생	결혼이주여성	외국인 근로자	회화지도 (학원강사포함)
국내 체류 인원(명)	65,174명	169,572	509,719	22,723명
한국어 교육 관련 논문수(편)	14	6	7	2

2. 선행연구 검토 - 교육과정 중심으로

본고에서의 주된 논의는 교육과정 개발에 관한 것이다. 비록 원어민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나, 아직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에 대한 연구가 일천하므로 다른 학습자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 논의를 검토함으로써 본 논의의 진행에 참고하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와 외국인 근로자, 그리고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살펴보되 교육과정 개발이 중심 과제이므로 대표적인 논의 중 가장 최근의 논문⁷⁾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임서연(2009)은 최근에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교육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주로 교재 개발과 교재의 적합성에 대한 연구에 치우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여성결혼이민자는 가족관계와 자녀 교육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게 되어 이러한 어려

4) 교준교육과정 마련의 패러다임에 대해서는 추후에 본격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5) 이들에 대한 현재 공식 명칭이 ‘영어 원어민 보조교사’인데 본 논의에서는 편의상 ‘원어민 교사’로 표현한다. 그리고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보고(2008)에 의하면 2013년에는 공교육 원어민 교사만 23,000 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 것에서 나타난다.

6) 통계에서 결혼이주여성은 ‘방문동거’와 ‘국민의 배우자’ 인원을 합한 것이고, 외국인 근로자는 ‘방문취업’과 ‘비전문취업’, ‘연수취업’ 인원을 합산한 것이다. 논문 편수는 국립국어원에서 발간한 [국어연감]의 2003년부터 2008년까지의 목록에서 한국어 교육과정과 관련한 논문 편수이다.

7) 여기서 가장 최근이라 함은 국립국어원에서 발간한 국어연감과 RISS에 수록된 논문을 기준으로 함

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한국생활에 적응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러한 상황에도 이들을 위한 한국어교육은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현장에서의 요구와 그 시급성에 따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학습 대상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구체적 요구를 설문조사를 통해 교육과정 개발을 시도하고 있다.

이중선(2009)은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은 교육 대상자 집단에 대한 분석도 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전체적인 문제점 파악과 논의도 부족하다고 보았다. 또한 교육 현장의 모습도 초기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한 채 운영하고 있으며(이미혜, 2008 재인용), 이주노동자의 수는 갈수록 증가하지만 이들을 위한 효율적인 한국어교육의 체계 구축은 아직 담보 상태(조항록, 2008 재인용)임을 지적한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재가 4종이 있으나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그 교재들이 담고 있는 내용에 한계가 있기 때문으로 보았다. 이에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즉 기존의 교재를 분석하여 그 문제점을 찾아내고 구체적인 자료와 요구조사를 바탕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의 교수요목을 제안하고 있다.

김승환(2007)은 지금까지 진행된 연구가 그 대상과 방법은 다양하지만 대부분의 연구가 우리 여건에 맞는 교육과정을 제시한다거나, 이론적 연구나 요구조사 실시는 많이 나타나고 있으나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적용의 논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까지의 한계로 인식하였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현장으로의 적용이 필요한 교육과정을 마련해야 함을 주장한다. 이 논의에서는 외국에서의 학문목적 교육과정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참고하여 내실 있는 교육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들은 각 학습자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과정 논의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겠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연구를 하고는 있지만, 그 연구자들이 무엇을 준거로 삼고 있는가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투박하나마 표준교육과정 개발이라는 큰 시스템을 전제로 또 다른 큰 학습자 집단인 원어민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다.

3.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이론적 배경

교육과정은 일반적으로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무엇을 선정해서, 어떻게 조직하여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교육의 전체적인 계획을 의미한다. 기존의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는데, 그 중 대표적인 교육과정 개발 모형으로는 Tyler 모형, Walker 모형, 구성주의 모형 등을 들 수 있다. 그 중에서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참고해야 하는 것은 구성주의 모형이다⁸⁾. 또한 한국어 교육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이므로 외국어 교육과정 모형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3.1. 교육과정 개발에서의 구성주의 모형

구성주의 이론은 지식은 환경으로부터 수동적으로 습득된다는 행동주의 심리학을 거부하고 학습은 학습자 외부에 이미 존재해 있는 세계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적 세

8) 한국어 교육은 대부분 학습자가 스스로 선택한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교수자와 학습자의 상호작용이 필수적인 전제가 된다.

계를 조직하는 적응과정이라고 본다. 교육에 대한 구성주의의 기본적인 가정은 첫째, 지식은 개인의 경험을 기반으로 하는 탐구활동을 통하여 발견되는 것으로 본다. 둘째, 학습자는 이미 알고 있는 사전 지식을 활용하여 의미구성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존재로 간주한다. 셋째, 교육과정은 미리 정해진 내용의 목록이 아니라 특정 학습 결과를 촉진하는 학습 활동 및 상호작용의 집합으로서 연구와 탐구를 위한 내용으로 본다. 넷째, 교수는 학습자에게 어떤 사건이나 현상에 대해 경험을 갖도록 하며 동시에 학습자가 이를 통해 그 의미를 자신의 경험적 세계를 조직하는 과정으로 본다.

교육과정의 이러한 가정은 다양한 일반 원리를 유발하게 되는데 이를 요약 정리하면, 첫째, 학습자의 적극적 참여를 권유하고 보장한다. 학습자의 적극적 참여는 지식구성의 일차적인 조건이므로 교육내용을 선정하고 교육방법을 구안함에 있어 학습자 개인의 관심과 선택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학습자의 인지 갈등을 조장한다. 학습자의 내부에서 야기된 갈등은 자연스러운 자극제가 되고 학습의욕을 높이게 되므로 교사는 예민한 관찰력과 주의 깊은 관심을 통하여 학습자의 인지갈등이 적절한 수준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학습내용이나 자료 등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학습자에게 자기 성찰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한다. 이러한 성찰의 시간은 학습자가 주체적으로 자신의 지식을 구성하는 데 가장 의미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으므로 하나의 관심사라도 다양한 시각에서 폭넓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줄 필요가 있다. 넷째, 다양한 사회적 경험이 가능하도록 여건을 마련해 준다. 비슷한 연령끼리의 집단 구성뿐만 아니라 연령의 격차가 어느 정도 있는 학습자들 간의 집단 구성을 통하여 그들과 협상하고, 주장하고, 인정하고, 설득하는 등의 경험을 통하여 학습자의 지평을 확장시킨다. 다섯째, 독창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격려하고 지지해 준다. 실험정신과 모험심은 의미 있는 지식 구성의 출발이며 시행착오는 도약을 위한 자연스러운 과정임을 학습자에게 주지시켜 학습자가 실수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다.

구성주의 관점에서의 교육과정 개발은 개발을 위한 특정한 절차나 기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에 대한 통제를 배제하고 그 통제를 교사와 학습자의 자율에 맡김으로써 그들이 자신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방식으로 교육내용을 선정하고 재구성하며 수업과 평가 체제를 계획하는 활동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3.2. 외국어 교육과정 개발 모형⁹⁾

외국어 교육과정의 개발에서는 어떤 외국어를 가르칠 것인가의 문제를 정책적으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요구 조사, 목표와 내용 설정, 교수와 평가 방법을 포함한 교육과정을 개발한다.

1) 요구 조사

학습자의 요구에는 주관적 요구와 객관적 요구가 있다. 주관적 요구란 학습자의 요구, 기대감이나 심리적 부족감을 말하므로 학습자에 따라 다르고 쉽게 진단하기 어렵다. 반면에 객관적 요구는 학습자의 연령, 교육 배경, 유창도 수준, 학습 경험, 거주 기간, 직업 등과 같은 사실적 정보를 통하여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요구 조사의 결과는 목표의 선정, 내용의 조직만이 아니라 방법의 적용에 영향을 준다.

9) 배두분, 외국어 교육과정론, 한국문화사, 2006

2) 학습 목표의 설정

Rivers(1981)는 외국어 교육의 목적을 지력 개발, 교양 증진, 언어 기능의 이해, 독해력 배양, 표현 기회 제공, 외국 문물의 이해, 의사소통 능력의 개발이라고 제시한다. 이러한 일반적인 목표를 바탕으로 외국어 교육의 목표는 학습자 등의 요구조사를 기초로 구체성을 띠도록 해야 한다.

3) 외국어 교육과정의 내용 선정

외국어 교육과정 개발에서 내용(content)이란 목표(objectives)와 동일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일정한 기간 동안에 일정한 목표에 도달하고 일정 수준의 언어 능력에 도달하려면 언어적 내용을 선정하고 제한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내용을 선정할 경우에는 교육 과정에 대한 기본 개념, 언어관, 교재관 등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교육과정의 내용 선정에서는 언어 정책과 학습자의 요구, 교육과정 개발자의 언어 학습 이론이 적용된다. 이는 교육과정 개발자가 교육 내용을 선정할 때는 시대 조류에 부합되는 외국어 교육과정에 대한 개념과 언어 학습 이론, 교재 제작에 관한 과학적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4) 외국어 교육과정에서의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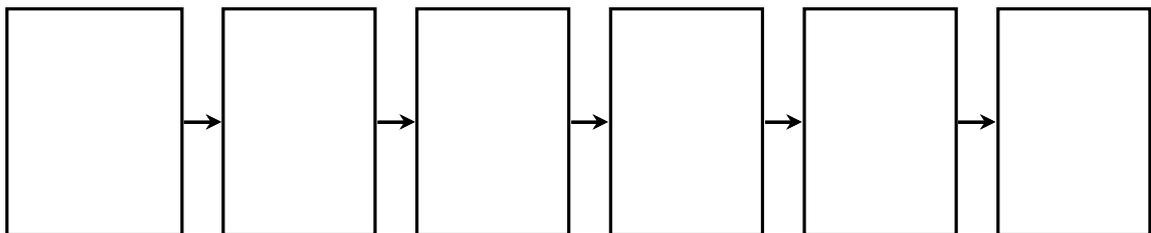
교육과정에서 평가는 교육 목표의 도달 정도를 측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이에 대한 진술이 있어야 한다. 외국어 교육과정에는 평가 지침과 종류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여 교육 목표와 내용, 지도 방법에 대한 반성을 하며, 추후의 지도와 학습에 좋은 자료로 활용하도록 한다.

외국어 교육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하려면 타당성(validity), 신뢰성(reliability), 객관성(objectivity), 실행가능성(practicability) 등의 네 가지 요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3.3. 한국어 교육과정 모형

한국어 교육은 제도권에서 운영하는 대상이 아니고 학습자들의 선택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이므로 그 학습의 대상이 누구든지 상관없이 특수 목적의 한국어 교육이 된다. 그러므로 교육과정 개발에 있어서 일반 교육과정 개발 모형이나 외국어 교육과정 개발 모형을 그대로 원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일반 교육과정 모형에서는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구성주의 모형을 차용하여 한국어 교육과정의 교수요목에서 반영하고, 외국어 교육과정 모형에서는 그 기본적인 과정을 차용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 모형으로 아래 <그림 1>과 같이 제시한다.

<그림 1> 한국어 교육과정 모형



4. 교육과정 설계의 실제

4.1. 학습자 특성

원어민 교사는 한국에 체류하는 커다란 외국인 집단이다. 이들은 다른 외국인 집단과 마찬가지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으므로 제2언어 환경에 놓여 있고, 이에 따라 자신들의 기본생활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한국어 사용 능력이 필요하고, 한국문화의 생활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러나 제2언어 환경이라도 이들은 특수한 환경이다. 한국에 온 목적이 한국인들에게 영어 회화 지도라는 계약에 의해서이기 때문에 그들이 만나는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그들에게 한국어보다는 영어를 배우려고 하고, 이에 따라 이들의 한국어 환경은 제한적이다. 이들을 한국어 학습자 군집으로 본다면 매우 균질적이다. 즉 영어를 모국어로 하고, 영어 회화 교육을 위해 한국에 온 언어 교육자이고, 대부분 한국어에 대한 기본 지식이 매우 부족하여 한국어 학습자 학습 등급 상 초급 단계 학습자이다.

이들은 대체로 20대이고, 교수 경험이 없으며, 이전 직업이 학생인 경우가 주를 이룬다(박소란 2009).

4.2. 요구 분석

공교육 영어 원어민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에서의 요구분석의 대상은 원어민 교사들뿐만 아니라, 협력 교사들, 그리고 그들에게 학습을 받고 있는 학생들까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효과적인 한국어 교육을 위한 교육 과정 개발이 가능하다. 본 논의에서는 기존 연구에 기대어 정리한다.

4.2.1. 원어민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요구분석

사전 연수와 관련하여 원어민 교사들은 대체로 연수 기간이 짧았고,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지적했다. 이들은 사전연수에서 실용적인 한국어, 협력 교사와의 대화, 한국에서 생활하는 데 유용한 정보 등에 대해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고, 아울러 연수의 개선 방안으로 한국어 수업 확대와 원어민 교사들끼리의 만남의 기회 확대를 가장 필요한 것으로 꼽았다(박소란, 2009)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음식이나 길 묻기 등 기본 생활의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고(박소란, 2009), 고도의 추상적인 한국 문화보다 실생활에서 겪게 되는 쓰레기 분리수거, 공과금 납부 등 당장 실생활에 필요한 한국의 제도문화에 대한 교육을 요구하고 있다(엄성희, 2009).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다른 교사와의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아서 개인적인 스케줄에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고(박소란, 2009), 한국어에 익숙하지 못한 이유로 학습자들과 활발한 의사소통이 단절되고, 이에 따라 협력교사 없이 혼자서는 온전한 학습이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에는 소수의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학습이 이루어진다(김윤자(2007), 엄성희(2009))

이에 따라 원어민 교사들은 자신의 기본생활과 학교생활을 위해서 한국어 교육에 대해

적극적으로 배울 의향을 가지고 있(김선정 2002, 엄성희 2009)지만, 배울 곳이나 시간 부족으로 인한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

한국 언어 문화 교육 프로그램만을 대상으로 하는 요구조사에서는 약 40%정도만이 한국어 문화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는데¹⁰⁾, 원어민 교사들의 경우에는 그들의 요구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들이 한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교육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것은 시급한 문제이다(김정선 2004). 실제로 원어민 교사들도 다른 외국인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문화적인 충격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문화 충격을 해결하는 태도에서 일반적으로는 문화간의 차이를 이해하고 융화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반면 일부 원어민 교사들은 자신의 문화만을 고집하여 학생들과 동료 교사와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며 원어민 교사 중에는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계약 만료 전에 출국하는 경우도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들에 대한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은 절실히 진다. 이상적으로 본다면 원어민을 통해 영어를 학습하는 것은 매우 유용하다. 더구나 한국의 학생들은 목표어를 접할 기회가 적기 때문에 영어권 외국인과의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원어민과의 접촉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모든 조건을 갖추었을 때의 일이다. 현재 원어민 보조교사 제도는 공교육에서 시행하는 것이므로 실제 학습 상황에서는 많은 문제가 야기될 수밖에 없다.¹¹⁾ 따라서 원어민 보조교사들이 현재보다 나은 교수활동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익힐 수 있는 기회를 확대¹²⁾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습자들이 처한 가장 중요한 한국의 영어교육의 환경을 이해함으로써 원어민 교사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2.2. 협력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요구분석

협력교사들은 원어민 교사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문제를 많이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원어민 교사가 열의를 가지고 있고, 학생들이 수업에 흥미가 있다고 해도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은 소수이다. 이는 원어민 교사가 지닌 문화와 한국 문화의 차이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원어민 교사가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잘 이해하는 것이 이들의 효과적인 학교생활을 위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박소란2009, 김윤자 2007, 엄성희 2009). 원어민 교사가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안다면 한국의 영어교육 시스템까지도 이해할 수 있어서 그에 맞는 영어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며, 학생들과 한국인 교사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서로의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를 위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실제 원어민 교사의 문화적 충격은 수업 중 학생들의 태도에서 문화 충격을 가장 많이 받고 있으며, 이는 반대로 한국 학생들의 외국인에 대한 태도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음을 보이는 것이다(김정선, 2004). 따라서 원어민 교사에게 한국어 문화를 교육한다는 것은 원어민 교사가 학생들에게 학습할 때 중요한 학습 요소로 활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10) 한국어 문화 교육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응답률이 높지 않은 편이나, 구체적인 항목 즉, 식사예절이나 한국 학생들의 일반적인 특징 등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또한 한국의 전반적인 것에 관심이 많은 원어민 교사들은 한국 학생들과 비교적 효과적인 영어 교수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다

11) Brown은 <외국어 학습, 교수의 원리>(2001)에서 언어학습의 경우 소규모 학급, 개별적 관심, 집중식 수업에 대해 기꺼이 비싼 값을 치른다면 모든 '방법'이 성공할 수 있겠지만, 공교육의 경우에는 예산, 학급규모, 시간, 교사의 배경 등의 제약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12)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한국문화는 주로 실생활과 관련이 있는 일상 생활 문화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협력 영어교사들은 원어민 교사들의 수업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으로 한국에 대한 이해를 꼽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원어민 교사들이 한국에 입국하면서 오리엔테이션 연수에서 기초 한국어를 배웠으나 학습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추론할 수 있다. 아울러 오리엔테이션에서의 교육은 실제 원어민들이 한국 생활 이전이므로 보다 효율적인 한국어 학습을 위해서는 한국 생활 과정 속에서 꾸준히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¹³⁾.

4.2.3. 한국 학생을 대상으로 한 요구분석

원어민 교사들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물론 일부의 학생들은 원어민 교사들이 굳이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해 잘 알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¹⁴⁾, 대다수는 원어민 교사들이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해서 잘 이해하기를 원하고 있었다. 이는 학생들이 원어민 교사의 학습에 대해 많은 호기심으로 흥미를 가지고 있지만 원어민 교사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어서, 결국에는 학생들이 학습에 집중하지 않고 일부 소수의 학생들만이 수업에 참여하는 비효율적인 측면을 지닌다. 이 때문에 학생들에 대한 통제력을 잃게 되고 성공적인 수업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박소란2009, 엄성희2009)

이상을 종합하면 학생들의 경우는 원어민 교사가 한국어 한국문화에 대해 알기를 희망하는 정도가 영어 협력교사들이나,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들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 원어민 교사 제도는 학생들에게 새로움이고, 이에 많은 호기심을 작동시키지만 실제 학습에서는 학생들의 영어 학습의욕을 충분히 진작시키고 있지는 못하다. 학생들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학생들의 일반적인 반응은 결국 학생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4.2.4 요구분석에 대한 종합

이상의 요구분석에 대한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
- 13) 현재 영어 원어민 보조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 시군 교육청별로 1인의 코디네이터를 두고 이들이 중개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코디네이터들이 한국문화를 온전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설령 한국문화를 이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관계는 형식적인 관계이므로 사소한 문제까지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14) 김윤자(2007)에서 나온 학생들의 답변인데, 이 조사 대상은 외국어 고등학교 학생들이어서 비교적 영어로의 소통을 잘 할 수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2> 요구분석 결과 종합

연구자	연구결과(요구분석)	종합의견
박소란(2009)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한국어, 문화 사전연수를 통해 한국어, 문화 이해 학교문화 이해 문화간 의사소통 동료교사와의 의사소통	1. 원어민 교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학생들과의 문화적 의사소통 2. 일상 생활 문화의 이해 3. 문화간 의사소통에 대한 이해 4. 다른 교사들과의 의사소통
김윤자(2007)	학생들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한국어 문화 이해 학생문화 이해 교수법과 학습법의 불일치	
김선정(2002)	합리적인 한국어 교육 필요(시간 장소 문제) 학생들과의 의사소통 및 학생들 이해	
정매라(2009)	한국문화가 집약되어 있는 한국어 교육 적극적인 원어민 교사는 한국어 문화 학습에 적극적	
엄성희(2009)	한국의 역사, 문화, 학교 교육과정 학습 필요 학생들과 원활한 의사소통 필요 일상생활 문화 교육 학생들의 흥미와 무관하게 영어수업 비효율 양 문화간 소통 부족, 많은 오해 발생	
김정선(2004)	교실에서의 문화적 충격 문화간 의사소통 필요 - 학습에 요긴하게 사용	

4.3. 목표 설정

앞서 조사 분석한 자료에 근거하여 원어민 교사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에서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제시할 수 있다. 여기서 원어민 교사에 대한 한국어 학습 목표는 학습자들의 요구에만 의존할 수 없다. 학습자들이 한국의 학생들에게 대한 영어 교육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을 충분히 고려하는 학습목표가 필요하다.

첫째. 한국에서의 기본적인 개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둘째. 학생들에 대한 영어 교수 -학습을 위해서는 한국어의 기초 문법과 기초 어휘를 이해할 수 있다.

셋째. 학생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한국 학생들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

넷째. 동료 교사와의 유연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한국의 교무실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

4.4. 내용선정

본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한 학습자 요구를 분석하면 대체로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내용을 선정하여 구성하는 데 있어서 문화 중심의 교육과정이 필요

하다. 그러나 문화는 언어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다. 따라서 내용선정에 있어서 언어교육이 동반되어야 하고, 언어교육에서 선정되는 언어 항목은 한국의 문화를 잘 담고 있을 필요가 있다. 본 내용선정에서는 난이도보다는 필요도에 초점을 두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이는 원어민들이 대부분 단기 체류자이기 때문¹⁵⁾이다. 또한 요구분석에서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이들이 한국의 학생들에게 영어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한국어의 기본문법을 교육하는 것은 당연하다.

1) 문법

한국어의 기본 문법을 바탕으로 학습자가 자주 접하는 항목과 어려움을 겪는 항목들을 우선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¹⁶⁾. 한국어의 기본 문법 항목은 다음과 같다.¹⁷⁾

- (1) 자모 익히기
- (2) 어순(어순 바꾸기)
- (3) 이중 주어문, 이중 목적어문
- (4) 조사 생략 구문
- (5) 문장의 종결형(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
- (6) 용언의 활용 - 기본형, 불규칙 활용
- (7) 보조 용언
- (8) 접속어미: -고, -며, -지만, -으나, -거나, -든지
- (9) 내포어미
 - 시간: -(으)며, -어(서), -고(서), -자마자, -다가
 - 인과: -어(서), -(으)니까, -(으)므로
 - 양보: -어도, -더라도, -은들, -(으)ㄹ망정
 - 조건: -(으)면, -거든, -어야, -게, -던들
 - 목적: -(으)러, -려고, -고자, -게, -도록
- (10) 관형사형 어미: -는, -던, -(으)ㄴ, -(으)ㄹ
- (11) 격조사: 이/가, 께서, 에서, 을/를, 의, 에, 에서, (으)로, 에게, 한테, 에게서, 한테서, 와, 으로서
- (12) 보조사: 도, 은/는, 만, 밖에, 뿐, 까지, 조차, 마저, 마다, 커녕, (이)나, (이)나마
- (13) 시제: 과거, 현재, 미래
- (14) 높임법 : 주체 높임, 상대 높임, 객체 높임
- (15) 부정문 : 안 부정문, 못 부정문

위에서 제시한 문법 항목 중에서 쓰임이 빈번하거나, 의사소통에서 중요한 항목들을 중심으로 문법 항목을 선정해야 한다. 따라서 학습자들의 상황과 요구 분석에 의한 추론을 통해

15) 한국어 교육에서 학습자의 수준을 대개 6등급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준하여 원어민 교사들은 1,2 등급 수준으로 교육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16) 이정희(2002)의 학습자 오류 분석에 의하면 학습자들이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말하기를 들고 있는데, 실제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영역으로 문법 영역을 들고 있다. 이를 참고한다면 본 교육과정의 학습자들은 자신들이 언어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분석 능력이 우수할 것이며, 따라서 한국어 교육에서도 문법 교육은 이들의 이해에 상당한 도움을 주리라고 추론할 수 있다.
 17) 허용 외(2007)에 의거한 내용으로 일반적으로 한국어 교육에서 문법 항목으로 인식하고 있는 내용이다.

서 문법 항목을 다음과 같이 선정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방법에 초점을 두는 것이므로 몇 가지만 검토한다.

- (1) 조사 생략 구문 - 한국어가 영어와 특히 다른 문법 항목은 첨가어로서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는 조사와 어미인데, 그 중 ‘조사’의 경우는 구어적 상황(맥락이 분명한 상황)에서는 자주 생략된다는 특성을 강조한다. 이는 말하기에서보다는 듣기에서 참고할 수 있다.
- (2) 문장의 종결형 - 문장의 종결형 학습은 매우 중시해야 할 항목이다. 학습자들이 한국 학생들에게 영어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특히 의문형이나 명령형은 자주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이다. 또한 학습자들이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자주 호소하고 있는데, 일상생활에서도 항상 사용하는 문형이므로 중요한 학습내용이 된다. 문장의 종결형은 높임법과 결합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 (3) 용언의 활용 - 용언의 활용은 기본형과 불규칙 활용을 학습하는데, 특히 불규칙 활용의 경우 ‘으’, ‘르’, ‘디’, ‘비’불규칙 활용을 주로 학습내용으로 하고, 나머지는 포함하지 않는다. 학습자들이 초급 수준이므로 불규칙 활용의 경우는 빈도에 따라 학습하는 것이 적절하다.
- (4) 보조용언 - 어휘 빈도 조사에 의하면 보조용언에서 연결어미 ‘-아/아, - 게, - 지, - 고’는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므로 학습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 (5) 접속어미 - 접속어미 중에는 ‘-고’의 빈도가 매우 높다. 나머지 어미들은 특히 구어 상황에서의 빈도수가 낮으므로 본 교육내용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 (6) 내포어미 - 내포 어미의 경우에도 주로 구어 빈도수에 의존할 수 있다.
인과 : 인과의 의미를 가지는 어미 중에서는 ‘-어(서)’, ‘-(으)니까’의 빈도수가 높으므로 학습내용에 포함하고 나머지 어미들은 제외한다.
양보 : ‘-어도’의 경우만 빈도수가 높아서 학습내용에 포함시키고. 나머지는 빈도수가 낮으므로 제외한다.
- (7) 관형사형 어미 : 관형사형 어미는 시제와 연관시켜서 학습내용에 포함한다. 이 항목은 빈도수가 높을 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 시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학습내용으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 (8) 격조사 : 격조사는 생략되는 경우가 많으나 위에서 제시한 정도의 격조사는 모두 포함한다. 이는 한국어에서 매우 중요한 항목이다. 다만 구어 상황에서는 자주 생략될 수 있으므로 이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¹⁸⁾.
- (9) 보조사 : 보조사는 체언에 특정한 의미를 더하는 역할을 하므로 생략하기 어렵고,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기 위해 필요하므로 중요한 학습 내용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중요하게 다루되 출현 빈도가 높은 것을 잘 추출해서 선정한다. 선정 항목은 ‘-도, -은/는, -만’을 우선 선정하고, 빈도수가 높지는 않지만 학교 학습 상황에서 자주 사용할 수 있는 ‘-부터, -까지’는 포함한다.
- (10) 부정문 : 안 부정문과 못 부정문의 경우 자신의 의지와 능력을 표현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학습 내용이 된다. 또한 금지를 나타내는 ‘말다’ 금지 부정문은 실제 학교 교실 상황에서 많이 사용되므로 학습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18) 이정희(2002)에서는 한국어 학습자들이 보조사보다는 격조사 사용에 더 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2) 어휘 항목

문법 항목에 대한 학습은 학습자의 특성과 무관하게 비교적 보편적이지만 어휘 항목의 경우에는 학습자 특성에 따라 다소 특수성을 띠게 된다. 세종학당에서는 어휘 선정에서 고려할 점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첫째, 어휘 항목 선정에 있어 어휘가 학습자들에게 유용하고 적절한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어휘들의 문화적인 적절성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둘째, 학생용 교재 혹은 교사용 지침서 각 단원의 끝에 혹은 교재의 맨 뒷부분에 새 어휘 목록이 있어야 한다.
- 셋째, 교재가 학습을 촉진시키기 위한 어휘 분류 방법을 고려하여, 이러한 유형의 분류법을 사용하고 있어야 한다.
- 넷째,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할 때 수업 당 습득되어야 할 ‘생산적’ 어휘의 양과 ‘수용적’ 어휘의 양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 다섯째, 표현 어휘와 이해 어휘 선정의 차별성을 고려해야 한다.
- 여섯째, 구 단위의 고정적 표현 어휘(관용 표현, 연어, 숙어, 속담 등)도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어휘 항목의 선정에서 위의 사항을 고려하여 영어 원어민 교사들에게 적용한다면 학습자 상황에 맞게 몇 가지를 조정해야 한다. 즉 본 교육과정의 학습자의 특징은 대부분 한국어에 대한 기초가 거의 부족하고, 또한 1년에서 2년 정도 머무르며, 생활범위도 대부분 개인 생활과 학교생활이 주를 이루고 있고, 한국에 온 가장 일반적인 이유가 한국 문화를 경험하고 싶어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본 교육 과정에서 어휘 선정 시 고려할 점을 재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어휘 항목 선정에 있어 문화적 적절성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외국인의 경우 표현으로 허용되는 범위가 매우 넓기는 하지만 허용될 수 없는 표현들도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의 경우 사람 수에 사용하기 곤란한 ‘개’ (“나는 아들 한 개가 있어요”. 등), 호칭 등에 대한 것, 또한 학생들이 호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어휘 선정이 필요하다.
- 둘째, 학습용 교재에 새 어휘 항목을 제공해야 한다. 의사소통의 가장 기본이 어휘라고 한다면 이는 매우 중요하다. 이때 학습자의 어휘 습득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서는 제공되는 각 어휘에 충분한 공간을 두어서 학습할 때 발생하는 새로운 어휘(교사와 학생들의 상호작용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표출되는)를 습득하도록 한다.
- 셋째, 표현 어휘와 이해 어휘를 구분하되 최대한 표현 어휘에 초점을 맞춘다. 일반적으로는 이해 어휘도 중요하지만 본 학습자들의 경우에는 충분한 학습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우선은 적절한 표현에 중점을 두어 학습하도록 하는 것이 유용하다.
- 넷째, 학습할 어휘는 ‘생산적’인 것으로 선택한다. 이때 ‘백과사전식’ 어휘¹⁹⁾ 또는 의미장을 활용하여 선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는 하나의 어휘로 몇 가지의 어휘를 습득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19) 김재욱(2003)에서는 그 예로 ‘월요일’이라는 단어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월요일’은 그 자체로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더 큰 단위로 월, 년 개념까지 이해하고 있어야 그 단어의 의미를 이해했다고 한다는 것이다.

이상을 고려하면 본 학습자들에게 학습할 어휘 항목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이들은 K1과 K2 수준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K1 수준은 한국에 온지 1년 이내, K2수준은 한국에 온 지 1년 이상이 되어서 한국 생활에 최소한의 적응이 된 상태로 인식할 수 있다²⁰⁾.

(1) 기본적인 인칭 표현

2인칭 - 너, 당신, 선생님, 아버지, 사장님, 아가씨, 학생 등의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2인칭 표현들을 용례별로 설명.

3인칭 - 000선생님, 그 사람, 그 분 등

1인칭 - 나, 저, 우리 등

(2) 지시대명사 - 이것, 그것, 저것, 여기, 거기, 저기 등

(3) 의문대명사 - 누구, 무엇, 어디, 언제, 왜 등

(4) 수사와 단위 명사 - 수사(하나, 둘, 셋, 넷스물, 서른, 마흔, 원 정도까지)
 단위 명사 - 명, 개, 마리 등

(5) 고빈도 명사 - 개인 의식주의 기본 생활과 학교 생활 속에서의 고빈도 명사
 의미장별 - 집안, 가게, 음식점, 교실, 교무실, 시간, 위치 등

3) 발음

발음의 경우는 특별하게 학습자 특성을 고려할 필요는 없다. 다만 학습자가 모두 영어를 모국어로 하므로 영어 발음을 고려하는 학습에 초점을 맞춘다.

일반적으로 기초 단계에서의 발음 학습은 비교적 단순하고 규칙체계적인 기본적인 발음 규칙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자음과 모음의 발음

- 단모음과 이중모음의 발음

- 초성 자음 : 경구개음 /ㅈ/, /ㅊ/, /ㅉ/ 발음과 /ㄱ/, /ㅋ/, /ㆁ/²¹⁾

중성 모음 : ㅓ/ㅏ, ㅓ/ㅡ, ㅓ/ㅓ

종성 자음 : 불파음 (ㅂ, ㄷ, ㄱ)

(2) 받침의 발음

- 홑받침의 발음

- 겹받침의 발음

(3) ㅎ의 발음

(4) 연음

(5) 된소리, 거센소리 발음

4) 문화

영어 원어민 보조교사들은 대다수가 한국 문화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경제적인 문제까지 해결하면서 이국의 문화를 경험할

20) 김정선(2004)에서는 원어민 교사를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할 때 그 내용은 기초적인 수준이 될 것으로 보았다.

21) 이정희(2002)에서는 실제 학습자의 오류를 조사하였는데, 발음의 경우 기초 단계에서 특히 학습자들이 언어권에 관계없이 구개음 발음에 많은 어려움을 느낀다고 보고하고 있다.

수 있다는 개인적 경험 차원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들이 한국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기본적인 생활문화를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화교육은 단순히 학습자들의 요구대로 시행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는 그들의 교육 대상이 한국의 학생들이라는 사실 때문이다. 따라서 문화교육의 경우에는 그들의 요구뿐만 아니라 한국 학생들과 동료교사들의 요구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요구분석에 의하면 영어 원어민 교사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문화적인 문제이다. 학생들 통제 능력 부족이나, 학생들이 영어 원어민과의 수업을 희망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극소수 학생들과만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은 문화간 의사소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화교육 항목은 영어권 문화와 한국문화의 차이를 기반으로 하는 문화항목을 설정한다. 이는 매우 중요한데 원어민 교사의 경우 그들의 한국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영어권 문화와 한국 문화의 차이는 그들이 교육하고 있는 한국 학생들에게도 필요한 것이고, 이에 따라 문화간 의사소통이라는 교육 목표와도 부합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문화 교육의 항목은 따로 제시하지 않고 교수요목에 반영하여 정리한다.

4.5. 내용 배열

세종학당 교육과정에서는 내용의 등급을 제시하고 있으나, 본 교육과정의 학습자는 단기 체류자가 대부분이고 주로 학교에서의 문제가 주를 이루고 있으므로 학교 현장을 중심으로 필요도에 따라 제시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본고의 주된 목표가 교육과정 개발의 방향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내용 배열의 연구는 후속 연구로 미루어둔다.

4.6. 교수요목

본 교육 과정은 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내용 중심의 교수요목으로 적절하다. 문화는 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에 많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선정된 문법 항목은 특히 문화적 의미를 고려하고 그에 수반되는 기본 문법 항목을 연결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교육과정의 구성주의 모형에 따라 교사와 학습자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근접발달영역을 두어 새로운 학습내용의 여지를 둔다. 본 교육과정의 교수요목의 방향에 대한 간단한 예를 제시한다.

표 원어민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 교수요목 예시

기능	문법	어휘, 발음	근접발달영역	문화간 의사소통
인사하기	높임법, N+ 이다	교 실, 교 무 실 등 학교시설물 명칭		약수 영어권-짧은 약수 한국-긴 약수
질문하기	의문문, 인칭대명사, -아/어서, -니까	가족관계 어휘		영어권-사적 질문 안함 한국-사적 질문 있음
요청하기	명령문, -해 주세요, -해 보세요, -아/어 보세요, '으'탈락,	읽다, 쓰다, 말 하다, 듣다 단위 의존명사		영어권-동시 동작 드물 한국-동시 동작 있음

5. 결론 - 연구의 의의와 한계

본고가 목표로 하는 것은 구체적인 교육과정을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표준교육과정이라는 큰 틀을 어떤 단계로, 어떻게 마련해 가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다. 즉 표준교육과정의 기본 모델과 하위 교육과정의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표준교육과정 구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 하위 교육과정 중에서 원어민 교사의 경우 그 규모가 매우 크므로 그들을 한국어 학습자 집단으로 하는 교육과정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 교육과정 개발과정이 세종학당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육과정 모델과의 대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데 의미를 둔다.

다만 본 연구가 교육과정을 구체적으로 완성하지 않으므로 해서, 의도하는 바를 분명하게 드러내지 못했다는 문제를 지니고 있다. 이 문제는 충분한 지면을 확보해서 논의해야 할 영역이므로 후속 연구과제로 남겨 둔다.

■ 참고문헌

- 강인애(2005), 『왜 구성주의인가?』, 문음사
- 김명광(2007), 한국어 교육과정의 표준화에서 고려되어야 할 몇 문제, 새국어교육76호
- 김명광(2006), 국어과 교육과정과 한국어과 교육과정의 비교와 대조, 한국초등국어교육 34집
- 김민선(2008), 공교육기관 원어민 영어교사의 한국문화와 영어교육에 대한 인식 조사, 석사학위논문, 한국외대
- 김승환(2007),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석사학위, 상명대
- 김재욱(2007), 국어문법과 한국어 문법의 체계 분석, 한민족어문학 제51집
- 김재욱(2002), 재외동포 아동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회화 교재의 구성원리 및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어 교육 13-2
- 김재욱(2007), 한국어 수업에서의 교사 발화 연구, 이중언어학 제34호
- 김재욱(2009), 한국어교육 전공 학과 교육과정 분석 연구, 언어와 문화 5-1
- 김정렬(2009), 『영어과 원어민 협력수업, 한국문화사
- 김지영(2007),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 연구, 석사학위 논문, 동국대
- 김윤자(2007), 원어민 영어교사들에 대한 영어교사들과 학생들의 인식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북대
- 민현식(2004),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기술 방안, 한국어 교육 15-1
- 민현식(2006), 한국어 교육을 위한 문법 기반 언어 기능의 통합 교육과정 구조화 방법론 연구, 국어교육연구 제22집
- 박기화(1996), 원어민 영어교사 활용을 위한 제언, Foreign Language Education
- 박소란(2008), 원어민 교사에 대한 한국인 영어교사와 학생들의 태도 연구, 석사학위 논문, 인하대
- 박정진(2008),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 전략 탐색, 국어교육 127
- 배두분(2006), 『외국어교육과정론』, 한국문화사
- 서은미, 곽향림(2008), EFL상황에서 구성주의의 영어교육으로의 전환, 현대영어영문학 제 52권 4호
- 서종학 · 이미향(2007), 『한국어 교재론』, 태학사
- 안경화, 김정화, 최은규(2000), 학습자 중심의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 방향에 대하여
- 엄성희(2009), 영어 원어민 보조 교사 제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강원대
- 이동현(2006), 비원어민 교사가 세계어 교육에 최적, 중등 우리교육
- 이은희(1998),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연구, 한국어 교육 9-2
- 이정희, 김지영(2003), 내용중심 한국어 교육과정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어교육 14-1
- 이종선(2009),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 교수요목 개발방안, 석사학위 논문
- 이혜영(2004), 학문목적 한국어 교육과정 설계 연구
- 임서연(2009), 한국어 교육과정 설계 방안 연구, 박사학위 논문, 충북대
- 전은주(2008), 다문화 사회의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교육과정의 목표 설정 방향, 국어교육학 연구 제33집
- 정매라(2009),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를 위한 한국어 문화 교육 연구. 석사학위 논문, 경희대

- 최정순(2006), 학문목적 한국어교육의 교육과정과 평가, 이중언어학
한국교육과정학회편(2007), 『교육과정: 이론과 실제』, 교육과학사
허용 외(2007), 세종학당 교육과정 개발 연구, 국립국어원
홍성심, 정양수(2006), 효과적인 영어교육을 위한 원어민 영어교사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연구, 한국현대영어영문학회
Alan Cunningsworth(1995), *Choosing your Coursebook*, 1995
David Nunan(1993), *Syllabus Design*, Oxford University Press
Jacqueline G. Brooks · Martin G Brooks(2005), 추병완·최근순 옮김, 『구성주의 교수 학
습론』, 백의
Patrick R. Moran(2004), 정동빈 외 옮김, *Teaching Culture*, 경문사
Richards, Jack C(2001), *Curriculum Development in Language Teachi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 토론 □

표준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방법론 기초 연구

-영어 원어민 보조교사를 대상으로-

김경주(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 논문은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과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자 하는 논문이다. 국내외적으로 한국어 교육의 저변이 넓어지고 실제 한국 내에서도 다양한 기관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기에 한국어 교육을 위한 표준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논의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 다양한 만큼 각 상황에서 요구되는 한국어 교육의 내용이나 양상도 다양하다. 이런 다양한 상황에서 한국어 교육의 기본틀로서의 표준 교육과정 개발은 연구자의 기대대로 한국어 교육의 안정적 도약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어 교육이 워낙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표준화된 한국어 교육과정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개발되어야 할 것인가를 가늠하기란 쉽지 않다.

이 연구는 이런 점을 한국어 교육의 표준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방법론적 기초로서 ‘학습자 요구 분석, 교육목표 설정, 학습 내용 선정, 학습 내용 배열, 교수요목 개발 평가’라는 일련의 과정으로 한국어 교육의 표준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것을 상정하고 이를 영어 원어민 보조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과정에 적용해 보고 있다. 표준적인 다시 말해 일반적인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를 위해 특수한, 또 매우 개별적인 교육과정을 대상으로 논의를 시도해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표준화된 교육과정과 개별화된 교육과정을 한데 놓고, 결과적으로 일반적인 교육과정으로 논의를 귀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결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토론자는 이를 중심으로 연구자가 상정하고 있는 표준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 놓는 것으로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고자 한다.

먼저, 한국어 표준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논의에서 ‘영어 원어민 보조교사’의 한국어에 대한 요구 조건이 다른 ‘한국어 학습자’들의 요구와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가이다. ‘영어 원어민 보조 교사’는 ‘일반적인 한국어 학습자’들과는 많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들이 종사하고 있는 업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단순하게 한국어나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것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필요로 하는 한국어가 일반적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필요로 하는 한국어와 여러 측면에서 다를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연구가 제시하고 있는 ‘(한국어) 학습자 요구’에 대한 논의의 특성과 의의는 무엇인가?

둘째는 연구자가 제시한 것처럼 요구 분석의 결과 교육 목표 설정이 이루어진다고 할 때, 이 연구를 통해 얻어진 요구 분석 결과는 일반적인 한국어 교육의 요구 결과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이다. 이는 협력교사나 한국 학생의 요구는 원어민 보조 교사의 요구와 어떻게 연계되면 또한 그들의 요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협력교사나 한국 학생의 요구는 단순하게 한국어를 모르는 외국인에 대한 요구와는 다를 것이다. 또 (원어민 교사와 함께 영어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 협력 교사, (원어민 교사의) 한국 학생 등 한국어 교육을 필요로 하는 원어민 교사와 관련된 인적 요소

들의 요구가 표준 교육과정 개발에 고려되는 것이 좋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원어민 교사의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핵심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원어민 영어 교사의 한국어 교육과정의 특징적 사항이 무엇인가?

셋째, 원어민 교사의 한국어 교육의 ‘목표 설정’에 제시된 네 가지 사항이 앞에서 제시한 여러 인적 구성원들의 요구와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제시된 교육 목표는 ‘원어민 보조 교사’의 개인적 필요 혹은 요구만을 상정하고 있는데 이들이 ‘한국인의 영어 교육에 종사하는 원어민 보조 교사’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이들의 공적인 필요, 혹은 업무에서 요구되는 목표가 충분히 포괄되어 있는가?

넷째, ‘내용 선정’에 있어서 ‘원어민 교사’에게 제시되는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내용은 일반적인 한국어 교육과정과 어떤 점에서 다른가? 이 연구에 제시된 교육과정의 내용은 문법, 어휘, 발음, 문화 등에 있어서 이들의 업무적 특수성을 보여주기 어렵다. 이들에게 한국어 교육의 표준 교육과정을 이들의 특수화된 목적에 맞춰 재구성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한다 하더라도 이들의 한국어 교육의 내용이 어떤 특성을 가져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의문은 ‘내용 배열’이나 ‘교수요목’의 선정에서도 여전히 동일하게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언어의 교육에 있어서 상황(context)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속해있는 상황에는 그의 개인적, 문화적 특징, 그의 공적, 사적 요구 등 여러 가지 것들이 관련된다. 이러한 다양한 상황을 적절하게 범주화하고, 이 범주화한 것으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인 것과 특수한 것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표준화’라는 거대한 틀을 구성하는 데에도, 또 이 틀을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는 데에도 필수적이다.

토론자는 연구자가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개발’을 위해 구체적인 사례로서 ‘원어민 보조 교사를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을 논의한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특수한 사례를 통해 일반적인 수준의 논의를 이끌어 가고자 할 때, 특수한 것에 함몰하여 일반적인 것에 대한 목표를 잃어버리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다루는 현상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분석을 제시하지 않고 일반론만 제시하는 것 역시 문제가 된다. 즉 ‘영어 원어민 보조 교사를 위한 한국어 교육’에 대하여 이 교육의 특수성과 일반성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토대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 토론자는 연구자가 교육과정의 개발과 교육과정의 적용을 같은 방식으로 설명하고자 한 데서 이들의 전후 관계의 혼동을 우려한다.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 요구되는 요구 분석은 교육과정에서 교육 목표를 결정하고, 교육내용, 방법을 결정하는 중요한 준거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요구 분석을 엄밀히 하는 것은 이후 그 교육과정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학습자에게 적용될 것인지를 미리 밝히는 것이기도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요구 분석의 결과와 이후의 내용이 논리적으로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연구는 이 부분은 기존의 한국어 교육과정의 내용 배열이나 교수요목의 설정에서 강조된 내용을 되풀이하는 데 그쳤다. 이에 대하여 연구자는 후속 연구를 언급하였지만 기본적인 방향 정도는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토론자는 연구자가 특별히 의도한 것이 아니라면 논문의 제목에 ‘한국어 교육’이라는 점을 드러내고 ‘영어 원어민 보조교사를 대상으로’라는 부제 역시 ‘영어 원어민 보조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을 대상으로’라고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어떻겠는지 여쭙는다.

한국어교육에서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글쓰기 치료적 접근

정성미(강원대학교)

□ 차 례 □

1. 서론
2. 여성 결혼이민자에 대한 이해
3. 글쓰기 치료의 효용성과 적용 가능성
4.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교육에서의 쓰기교육
5. 결론

1. 서론

이 논문의 목적은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교육에서 글쓰기 치료의 필요성과 적용 가능성을 살피는 데 있다.

한국어교육이 대학을 중심으로 학문목적의 한국어교육에 대한 교육과 연구에 활발한 것에 비해서 한국인과의 결혼으로 한국에서 살아가야 하는 잠재적 한국인인 여성결혼이민자들에 대한 교육과 연구는 부족하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을 위한 한국어교육은 보건복지가족부나 법무부 등 정부부처의 지원을 통해 자원봉사자 중심의 한국어교사(한글지도사)와 대학의 한국어 교사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자원봉사자 한국어교사들의 문제점으로는 한국어와 한국어교육에 대한 전문지식의 부족을 한계로 들 수 있고 대학의 한국어 교사들은 여성결혼이민자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점을 한계로 들 수 있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을 위한 한국어교육에 있어서 학습자인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처해있는 상황과 현실을 고려하면서도 한국어와 한국어교육에 대한 전문지식에 바탕으로 이루어질 때 효율적인 한국어교육이 될 것이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은 가족 중심의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 외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한국어 교사와 긴밀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한국어교사는 한국어교육 시간을 통해 한국어에 대한 정보뿐 아니라, 한국사회, 한국문화에 대해서도 많은 정보를 주게 된다. 더 나아가 여성결혼이민자와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친근한 관계 형성을 이루면서 직간접적으로 상담의 역할도 하게 된다. 그렇다면 한국어교육에 상담과 글쓰기를 접목한 글쓰기 치료의 방법을 활용해서 학습자인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처한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을 가르치는 한글지도사들의 인식을 통해 여성결혼이민자들의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요구되거나, 교사 스스로 인식되는 한국어교사의 역할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 해결방법으로서의 글쓰기 치료와 기존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교재에서 쓰기 주

제에 대한 검토를 통해 글쓰기 치료의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여성 결혼이민자에 대한 이해

한국에 들어오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국적은 다양하다. 2000년 이전에는 주로 중국과 통일교를 통한 일본 여성, 필리핀 여성, 태국 여성들이 주로 이주했다면 2000년 초부터는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몽골, 캄보디아, 미얀마, 러시아 등 더 많은 나라의 여성들이 국제결혼을 하였다.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연간 입국자 수가 44.3% 증가한 것에 비해 여성이주자는 150.5% 증가하여서 이주의 여성화 현상이 극명하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수는 2006년 12월 기준으로 82,828명으로 추산되었다(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7: 18). 이주 목적에서도 남성은 취업, 여성은 결혼인 것도 뚜렷하다¹⁾. 결혼으로 한국인이 된 이주여성들의 처해있는 어려움 또한 복잡한 양상을 띤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의사소통의 어려움, 한국음식 적응 및 문화차이에서 오는 갈등, 시부모 및 남편과의 갈등, 경제적인 어려움, 가정 내에서 정체성, 언어폭력, 물리적 폭력의 가정폭력, 자녀양육과 교육문제, 부모자녀관계, 자녀의 정체성 확립, 보육시설과 학교생활 적응 등의 문제들을 안고 있다. (양옥경·김연수, 2007:80 ; 정기선·한지은, 2009:88)

이러한 문제들이 지속되게 되면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인 문제를 가질 수밖에 없다. 특히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인 배우자들보다 우울증을 더 자주 경험하는 경향이 있으며 (정기선·한지은, 2009:110), 여성들은 남성보다 더 높은 수준의 우울증을 경험한다²⁾.

또한 새로운 문화권에 적응해야 하는 이민 자체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있다. 특히 한국은 오랜 세월 단일국가, 단일문화를 지니고 있어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모국어와 모국의 문화를 인정해 주기보다는 우리 문화에 적응하도록 강조한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은 여성결혼이민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여성을 둘러싸고 있는 가정, 사회의 문제라는 데에 심각성이 있다. 양옥경·김연수(2007:81)에서는 한국남성과 결혼하여 한국사회에 정착한 여성결혼이민자는 한 가정의 주부로서, 아내로서, 그리고 어머니로서 그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이 우울증 등의 주요 정신질환을 앓게 되거나 정신건강상의 문제에 직면하게 될 때 그 가족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 또한 상당할 것이라고 했다.

여성결혼이민자와 그 가족들이 처해있는 문제들에 대한 사회적인 지지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집합교육과 방문교육을 통한 한국어교육과 한국문화교육, 아동양육 서비스와 각종 상담서비스, 그 외에 한국음식 만들기, 컴퓨터 교육, 취미 활동 등의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한국어교육은 가장 많은 시간과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집합교육의 한국어교사나 방문교육의 한글지도사는 여성결혼이민자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한국어교육을 하게 된다. 이주 초기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은 가족 외에 타인들과의 관계 형성

1) 임은희(2008). “여성결혼이민자의 정신건강 문제에 관한 시론적 연구.” 『한영논총12』. 한영신학대학교. 임은희(2008:217)

2) 양옥경·김연수(2007:85)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은 수준의 우울증상을 경험하는데 이는 남성과 여성이 처한 삶의 상황이 서로 다름을 반영하는 결과라는 해석이 제시되기도 하였다.(Gove and Tudor , 1973; Weissman and Klerman, 1977; Salgado de Snyder, 1987: 477-478)”

이 어려우므로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한국에 적응하는 데에 한국어교사에게 갖는 심적인 신뢰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므로 여성결혼이민자들을 지도하는 한국어교사가 이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어떤 태도로 한국어 교육에 임하고 있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춘천 다문화센터에서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한글을 방문해서 지도하는 한글지도사 22명에게 설문조사를 하였다. 설문조사의 내용은 첫째 한글지도사가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와 한글지도사가 생각하는 여성결혼이민자가 지닌 삶의 문제는 무엇인가이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글지도사가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삶의 만족도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살펴서 기존연구에서 제시된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자신에 삶에 대한 만족도와 비교해 보는 것이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삶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되니까?
아주 만족한다	1(0%)
조금 만족한다	10(48%)
그냥 그렇다	8(38%)
조금 불만이다	2(9%)
아주 불만이다	1(5%)

그 결과, ‘아주 만족한다’가 0%, ‘조금 만족한다’가 48%, ‘그냥 그렇다’가 38%, ‘조금 불만이다’가 9%, ‘아주 불만이다’가 5%로 나왔고 응답자 중 한 명이 응답을 하지 않았다. 이 설문조사는 기존연구에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삶의 만족도 결과에 비해서는 좀 더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기존연구에서 조사된 ‘조금 불만이다’의 결과도 주로 센터나 기관의 이민자 서비스를 받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센터나 기관의 교육 서비스에 참여할 수 없는 사각지대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 아니라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정신적인 문제들은 우리가 예측하는 것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

또 두 번째 설문내용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갈등을 느끼는 항목에 대한 것이다. 갈등요소는 기존연구를 통해 갈등항목으로 언급되었던 4 항목과 기타항목으로 구성하였다. 4 항목은 경제적인 면, 남편과의 갈등, 시어머니와의 갈등, 자녀문제이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가장 갈등을 느끼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면	9(36%)
남편과의 갈등	2(8%)
시어머니와의 갈등	12(48%)
자녀문제	1(4%)
기타	1(4%)

설문결과 3명이 두 항목을 선택한 것을 포함해서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48%, 경제적인 면이

36%, 남편과의 갈등 8%, 자녀문제에 대한 고민이 4%, 기타가 4%이다. 기타항목은 경제적인 면에서부터 자녀문제에 이르기까지 복합적으로 나타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가난한 나라의 여성들이 한국으로 결혼을 통해 이주를 하게 된 점을 고려하면 경제적인 면에 대한 부분은 큰 갈등요소라고 볼 수 있고, 이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잘 사는 나라로서 한국에 대한 허상과 남편에 대한 허상이 현실과의 차이에서 괴리감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인 문제보다 더 높은 퍼센트의 갈등항목은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 48%에 해당한다. 의사소통과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시어머니들의 가사에 대한 개입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스트레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이 남편과의 갈등이 8%, 자녀문제가 4%로 나타났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주로 가정 내에서의 대인관계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고려하면 그 스트레스의 정도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이러한 갈등은 한계상황에 오게 되면 상담을 받게 된다.

상담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전문 상담사를 만날 수 있는 횟수를 조사하였다.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상담사를 만날 기회가 일 년에 몇 번 됩니까?	
원할 때마다	7(37%)
일 년에 4회	0(0%)
일 년에 3회	4(21%)
일 년에 1회	4(21%)
전혀 없음	4(21%)

결과는 22명 중 3명이 응답하지 않아서 19명이 설문조사에 응했다.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상담사를 만날 기회가 일 년에 몇 번 되는가’의 질문에 ‘원할 때마다’가 37%, ‘일 년에 2회’가 0%, ‘일 년에 3회’가 21%, ‘일 년에 1회’가 21%, ‘전혀 없음’이 21%였다. 설문조사의 결과로 볼 때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원할 때마다 상담을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다문화센터의 공동사업 안에는 개인상담, 가족상담, 집단상담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다(한국여성 개발원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 경험과 소통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그러나 여성결혼이민자들을 상담하는 인력들이 다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별도의 교육이 없고, 이중 언어사용 전문상담인력이 아니어서 기존 상담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였다(임은희 2008:234). 또한 상담이 ‘전혀 없음’도 21%이어서 여성결혼이민자들에 대한 상담 서비스에 대한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삶의 문제를 한국어교육을 통해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치료적 글쓰기의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학문적 목적의 한국어 교사는 한국어 교육에서 한국어 교사의 전문성을 강조하게 된다. 그러나 전문성만으로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처한 현실과 괴리감이 크다. 또한 현실적으로 여성결혼이민자와 접촉이 빈번하고 용이한 사람이 한국어교사이다. 한국어교사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만나는 타인 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절실한 의사소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여성결혼이민자의 신뢰가 높다. 그러므로 여성결혼이민

자들과의 라포가 형성되어 있어서, 한국어교사는 한국어교육 시간이나 그 외 시간에 예방차원의 상담이 실제로 이루어진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한국어교사가 예방적인 차원의 상담가적인 자질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정기선, 한지은(2009:98)에서 사회적 지원과 관련 변인으로 ‘속마음을 터놓을 사람’은 한국에 속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있다면 누구인지를 배우자, 자녀, 시부모, 한국인 이웃이나 친구, 한국에 있는 친정식구, 한국에 있는 본국인 친구나 동료, 한국에 있는 제3국인 친구나 동료, 외국인 지원 단체 활동가, 성직자, 한국어교실 교사, 기타 등에서 선택하게 하고 이를 합산하여 측정하였다고 했으나, 그 결과에 대해 명시하지 않았다. 그래서 한국어교사가 한국어교육을 하면서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 실제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상담이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해 두 항목의 질문을 통해 설문조사하였다.

	여성 결혼이민자들에게 고민이 있을 때 가족 외에 고민을 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옆집 아주머니	1(0.5%)
한국어 선생님	21(95.5%)
종교 지도사	0(0%)
학교 선생님	0(0%)
없음	0(0%)

첫 번째 질문은 ‘여성 결혼이민자들에게 고민이 있을 때 가족 외에 고민을 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이다. 상담에 대한 교사의 역할을 인지하고 있는가 또는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실제 상담이 이루어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이다. ‘옆집 아주머니’ 0.5% , ‘종교 지도사, 학교 선생님, 없음’ 항목이 0%, 한국어선생님이 95.5%이다. 이는 한글지도사들의 수업에서 실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 알 수 있었다.

마지막 질문은 여성결혼이민자를 가르치는 한국어교사 스스로 자기의 역할을 어떻게 인지하는지에 대한 것으로 정체성과 연관되는 부분이다. 두 가지 항목을 선택하게 했다. 22명 응시해서 2 항목씩 44개이고 두 명이 하나씩을 더 선택한 것도 그대로 반영하였다.

	여성결혼이민자를 가르치는 한국어교사의 역할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2가지를 찾아 쓰십시오.
전문가 역할	8(17%)
친구 역할	6(13%)
상담가 역할	18(39%)
한국문화전달자 역할	10(22%)
친정식구 역할	4(9%)

그 결과, 전문가 역할을 선택한 사람은 17%, 친구 역할은 13%, 상담가 역할은 39%, 한국 문화 전달자 역할은 22%, 친정식구 역할은 9%이다. 설문조사를 통해 한글지도사는 상담가의 역할>한국문화전달자 역할>전문가 역할>친구 역할>친정식구 역할 순으로 자신의 역할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

설문결과를 통해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삶의 만족도가 크지 않은 상태로, 경제적 문제, 가족 내의 갈등과 이민에서 오는 문화적 충격의 스트레스 등 심각한 정신적인 문제를 갖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여성결혼이민자와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한국어교육시간에 한국어교사가 현실적으로 상담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고, 한국어교사 스스로 한국어교사로서의 전문성에 상담가적인 역할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3. 글쓰기 치료의 효용성과 적용 가능성

글쓰기 치료의 가치에 대한 연구는 1980년 중반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글쓰기 치료는 감정적 글쓰기(emotional writing) 또는 표현적 글쓰기(expressive writing)라고도 하며,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기 위한 감정표현 글쓰기라고 한다(James W. Pennebaker, 2007:21-22).

글쓰기 치료의 효과는 글쓰기 워크숍에 참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험한 내용을 근거로 한다. 글쓰기 치료의 효과가 육체적으로 어떤 이로운 점을 주는가에 대한 연구로 Pennebaker & Susman(1988)가 있다. Pennebaker & Susman(1988)에서는 심리적 외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심리적 외상을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것의 효용성의 근거로 의사를 찾는 횟수를 조사하였는데, 심리적 외상이 있는 사람의 경우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병원을 찾는 횟수가 2배 정도 많았으며, 심리적 외상을 비밀로 간직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공개한 사람의 비해 40% 이상 더 많이 의사를 찾았다고 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정리된 글쓰기 치료의 이점은 연구자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글쓰기가 심리적인 외상과 인간관계 어려움 등 어려움 삶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했다는 결과는 동일하다. 글쓰기 치료의 이론서에 정리된 글쓰기 치료의 이점이다.

	제임스 페니베이커(2007) ³⁾	Sheppard Kominars(2008) ⁴⁾
육체적인 이점	면역기능의 전반적인 향상 ⁵⁾ 천식환자들의 심폐기능 향진과 관절염 환자들의 통증 완화(Smyth, Stone, Hurewitz, et al., 1999)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반응. 안면 근육긴장이 완화되고 손의 발한 정도가 낮아짐. 사람들의 혈압과 심장박동수가 떨어짐.	스트레스와 긴장 해소.
정신적, 정서적 이점	장기적 기분의 변화 표현적 글쓰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글쓰기 전보다 행복했고, 부정적	자기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안전 지대 역할. 미지의 것에 대한 공포에 당당히

	<p>감정을 덜 느꼈다고 보고. 우울증, 반추, 일반적인 불안감도 감소 경향.</p>	<p>맞설 용기. 삶의 온갖 경험들이 나중에 의욕 과반성의 시간을 제공한다. 생각의 혼돈을 정리. 자아통찰을 통해 더욱 폭넓은 관점에서 자기행동을 바라볼 수 있게 함. 문제 식별 능력을 주어 스스로 해결책을 모색하게 함. 직관으로 나가는 통로를 열어줌. 자신이 성취한 것들을 가치 있게 받아들이게 함. 인생의 전환기를 더 주의 깊게 성찰. 과거를 탐구하는 데 도움을 주고, 좀 더 창조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도와줌. 자기배려를 통해 인생을 내다보게 함. 고립감에서 벗어나게 함.</p>
<p>행동양식의 변화</p>	<p>학교 또는 직장에서의 업무수행 글쓰기 경험한 학생들이 더 높은 점수를 받았음을 발견하였다.(Cameron & Nicholls, 1998; Lumley & Provenzano, 2003; Pennebaker, Coler & Sharp, 1990)</p>	
<p>사회생활</p>	<p>사람들의 사회적 삶의 질을 향상. 몇 주 후 다른 사람들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더 자주 웃고 긍정적 감정에 연관된 단어들을 더 많이 사용. 표현적 글쓰기는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더 안정되고 말을 더 잘하게 만들며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더 잘 들어주고 실제로 더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게 해준다고 볼 수 있다.(Pennebaker & Graybeal, 2001) 너그럽고 수용적인 인격체로 변화</p>	<p>의사소통이라는 지속적인 자원을 확보. 세상과의 조화를 통해 원만한 삶.</p>

글쓰기 치료의 이점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의 현실을 고려할 때 매우 필요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 특히 정서적 정신적 측면에서 우울증, 일반적인 불안감이 감소되는 점이라든가 자기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안전지대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점. 미지의 것에 맞설 용기, 삶의 경험에 대한 의욕과 반성, 자아통찰을 통해 자기 행동 관찰하고, 문제식별능력을 주어 해결책을 모색해 가는 것 등이다. 또한 자신이 성취한 것들을 가치 있게 받아들이고 인생의 전환기를 더 주의 깊게 성찰하고 과거를 탐구하는 데 도움을 주며, 좀 더 창조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도와줌으로써 자기배려를 통해 인생을 내다보게 한다는 점은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을 정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치료적 글쓰기는 학교 또는 직장에서의 업무수행력을 높인다고 한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한국어를 배우거나 취업을 해서 일을 하게 되는 경우 업무수행력을 더 증강시키는 결과를 준다. 또한 치료적 글쓰기를 통해 고립감에서 벗어나서 의사소통을 적극적으로 하며 세상과의 조화를 통해 원만한 삶을 살게 하는 점은 가족 내의 갈등으로 힘들어 하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을 도울 수 있다.

글쓰기 치료의 방법은 어떤 형식을 갖고 있지 않다. 자유롭게 쓰는 일기(저널) 형태의 글이다. 이를 돕기 위한 다양한 기법들이 고안되어 있다. James W. Pennebaker(2007:22)의 가장 기본적인 글쓰기 방법은 3-4일 동안 계속해서 심리적 외상, 대인관계에서 오는 갈등 등에 대한 주제에 대하여 하루 15분 내지 20분간 글로 쓰는 것이다. Kathleen Adams⁶⁾는 일주일에 세 번 정도 일기(저널)을 쓰는 것인데, 30분 정도 쓰게 된다(Kathleen Adam, 2006:77). Sheppard B. Kominars(2008)에서 기본적인 글쓰기의 제시는 없고, 다양한 기법을 제시하는데, 강조하는 것은 일만큼 쓰느냐가 아니라, 꾸준히 쓰는 것을 강조한다.

글쓰기 치료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아무도 그 글에 대해 평가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자기 스스로도 자기 글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고 (Sheppard Kominars, 2008:32), 자기 감정을 배설하는 것(Kathleen Adams, 2006:36), 즉 정직하게 쓰는 것이다(Sheppard Kominars, 2008:40).

그러면 한국어교육의 쓰기 교육에서 치료적 글쓰기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성결혼이민자들을 위한 네 권의 교재를 중심으로 쓰기의 주제들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4.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교육에서의 쓰기교육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어교육에서는 말하기, 듣기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초급에서 말하기 듣기 읽기 교육이 강조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쓰기 교육이 이루어질 때 한국어능력이 완성될 수 있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사고, 심리를 표현하도록 독려하는 글쓰기는 상담, 치료적인 기능까지 할 수 있게 돕는다.

그러면 기존 교재의 쓰기주제를 살펴보고 치료적 글쓰기의 접근이 가능한가를 살펴보았다⁷⁾.

3) James W. Pennebaker. 이봉희 역. 글쓰기치료. 학지사. 2007.

4) Sheppard. 치유의 글쓰기. 임옥희 역. 홍익출판사. 2008.

5) 오하이오 주의 한 실험실, 마이애미 대학교, 뉴질랜드의 오클랜드 메디컬 스쿨 그리고 그 밖의 곳에서의 연구와 실험을 통해 사람들은 감정적인 글쓰기가 면역기능의 전반적인 향상과 관련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Lepore & Smyth, 2002)

6) Kathleen Adams. 저널치료. 강은주이봉희역. 학지사. 2006.

7) 여성가족부.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교재(초급).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2005.

과	초급	중급
2과 어느 나라 사람이예요?	저는 ___이예요/예요	
6과 지금 몇 시예요?	3회가 몇 시에 시작이에요? _____	
9과 김치찌개를 제일 좋아해요.	한국 음식 좋아해요? 뭘 제일 좋아해요? 저는 _____ 제일 좋아해요. 그리고 _____ 제일 싫어해요	
12과 여보세요?	란이 취친의 집에 전화를 걸어요. 그런데 취친이 집에 없어요. 취친의 남편 : 여보세요? 란 : <u>취친 씨네 집이지요?</u>	
14과 신설동역에 어떻게 가요?	종로 3가역에서 신설동까지 어떻게 가요? _____	
17과 우리 집에 올 수 있어요?	저는 <u>운전을 못 해요.</u> 저는 <u>매운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u> 저는 <u>수영을</u> _____	
19과 주말에 뭐 할 거예요?	주말에 한 일 쓰기 <보기> 제시	
21과 동대문 시장에 봤어요?	대전의 날씨는 어때요? <일기 예보 그림> <u>눈이 와요.</u>	
22과 모자를 쓰고 있어요.	아이를 찾고 있어요.	

여성가족부(2005)에서는 초급에서 쓰기가 문자 쓰기 정도이고 작문 쓰기(composition)는 아니다. 9과에서만 쓰기를 제시했고 중급에서는 쓰기교육은 없다.

최근에 나온 여성결혼이민자들을 위한 한국어교재에서는 쓰기교육이 보완되었다. 쓰기의 주제도 초급, 중급 모두 매과마다 제시되었다.

과	초급	중급
1	받아쓰기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예요? 고향을 소개하는 글을 쓰세요.
2	사진보고 쓰기	아이와 함께 아이의 생일 초대장을 써보세요.
3	여러분의 방을 소개하세요	여러분은 무엇을 할 줄 알아요? 무엇을 할 줄 몰라요? 글로 써 보세요.- 언어, 음식, 운동, 악기, 노래, 춤
4	문장 만들어 쓰기	여러분은 어떤 여행 계획이 있어요? 다음과 같이 교통편 예매 정보를 메모하세요.
5	여러분의 가족을 소개하세요	여러분의 결심은 뭐예요? 자신의 결심을 써 보세요.
6	일주일 계획을 문장으로 쓰기	은행의 지급표를 써 보세요.
7	여러분은 주말에 무엇을 해요?	여러분은 이 사람에게 어떻게 조언하겠어요? 인터넷 댓글을 써 보세요.
8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사요?	여러분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산 옷을 반품하고 싶어요. 다음에 반품 이유를 써 보세요.
9	여러분은 지난 주말에 무엇을 했어요?	여러분도 전자제품을 사용한 다음에 상품 사용 후기를 써 보세요.
10	그림을 보고 쓰세요(예:수잔 씨는 아침에 집에서 청소와 빨래를 하고-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장을 써 보세요.
11	여러분은 주말에 무엇을 할 거예요? <보기>와 같이 쓰세요	한국에서 배워 본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배운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써 보세요.
12	어디에 살아요? 집에 어떻게 가요? 글로 쓰세요.	고향의 요리나 여러분이 잘하는 요리를 소개해 보세요.
13	다음 <보기>의 상황을 읽고 남편에게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쓰세요.	여러분은 어떤 머리를 하고 싶어요? 써 보세요.
14	친구의 생일 파티에 초대를 받았어요. 축하카드를 쓰세요.	몸이 많이 아파서 남편이 약국에서 약을 사 오려고 합니다. 메모지에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써 보세요.
15	여러분 나라 사람들은 무슨 음식을 좋아합니까? 그 음식을 소개해 주세요.	여러분의 옷차림에 대해 위의 글과 같이 써 보세요.
16	여러분 나라의 날씨는 어때요? 표를 완성하고 글로 쓰세요.	여러분의 옷에 있는 세탁 방법 표시를 그려 보세요. 그리고 알맞은 세탁 방법을 써 보세요.
17	여러분은 어떤 영화를 보았어요? 다음 표를 완성하고 글로 쓰세요.	여러분이 아는 생활의 지혜를 써 보세요.

18	여러분 나라에서는 특별한 날 무슨 옷을 입어요? 옷을 그리고 위의 글과 같이 쓰세요.	여러분 나라의 명절(명절이름, 음식, 놀이 등)을 소개해 주세요.
19	편지를 보내려고 해요. 주소와 우편번호를 쓰세요.	여러분도 가족이나 친구에게 하고 싶은 말을 써 보세요.
20	여러분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해요? <보기>와 같이 표를 완성하고 글로 쓰세요.	여러분 나라의 유명한 곳을 소개하는 글을 써 보세요.

1과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예요?, 5과 여러분의 결심은 뭐예요? 자신의 결심을 써 보세요. 12과 고향의 요리나 여러분이 잘하는 요리를 소개해 보세요, 19 과 여러분도 가족이나 친구에게 하고 싶은 말을 써 보세요 등 중급의 글쓰기 주제는 치료적 글쓰기가 가능한 주제들이다. 20과 중에 4과인데 이 4과 주제마저도 한국어교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수업을 운영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를 수 있다. 한국어교사의 치료적 글쓰기에 대한 이해가 수업운영의 질을 좌우하게 된다. 한국어 쓰기교육에서 기능위주의 쓰기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여기에 치료적 글쓰기를 적용하게 되면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정신적, 정서적, 행동변화, 사회관계 등의 안정을 꾀하고 한국어교육에 있어서의 동기부여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다.

치료적 글쓰기를 적용한 교재개발을 통해 한국어 수업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치료적 글쓰기는 초급단계에서도 단어와 그림 등을 이용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중급 이상의 한국어 능력을 갖춰야 되는 건 아니지만, 중급 이상의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적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 생각된다.

5. 결론

글쓰기를 통해 육체적, 정신적, 정서적, 사회적 건강에 효용성이 있는 치료적 글쓰기를 여성결혼이민자들의 한국어교육에 적용해야 하는 필요성과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교재의 글쓰기 주제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글쓰기치료가 학습자의 한국어 능력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한 근거는 분명치 않다. 게다가 글쓰기치료가 비밀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학습자의 한국어능력을 분석할 자료 확보가 용이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한국어교육에서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글쓰기 치료적 접근

고석주(연세대학교)

이 발표문은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에서 글쓰기 치료의 필요성과 적용 가능성을 살피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한국어 교육이 단순히 언어 교육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움을 줄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문제 설정이라고 판단된다. 그런데 토론자가 ‘한국어교육’과 ‘글쓰기 치료’ 분야의 전공자는 아니기에 심층적이고 발전적인 비판보다는 논문에 제시된 내용을 중심으로 몇 가지 의문점들을 질문하는 것으로 그 소임을 다하고자 한다.

먼저, 이 발표에서 제시한 여성결혼이민자가 지닌 삶의 문제 혹은 정신적인 문제가 여성결혼이민자만의 문제인지에 대한 의문이다. 일반적으로 우울증은 여성의 발병율이 남성보다 2배 이상이다.¹⁾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 역시 낮은 편이다.²⁾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이 발표에서 제시한 설문 항목들은 한국어 교육이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문제 혹은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떠한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로, 이 발표에서 제시된 기존의 ‘글쓰기 치료’ 연구들이 제2언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다. 모국어 화자에게도 “3-4일 동안 계속해서 심리적 외상, 대인관계에서 오는 갈등 등에 대한 주제에 대하여 하루 15분 내지 20분간 글로 쓰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 “삶의 경험에 대한 의욕과 반성, 자아통찰을 통해 자기 행동 관찰하고, 문제식별능력을 주어 해결책을 모색해 가는 것 등”을 제2언어/외국어로 실행하려면 어느 정도의 언어능력이 되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글쓰기 치료보다는 말하기(상담) 치료가 우선되어야 하는 것 아닐지, 그리고 그에 적절한 한국어 교육의 내용과 교수법은 무엇일지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어쩌면 오히려, 모국어로 자기 치유적 글쓰기를 하도록 격려하는 것이 여성결혼이주민에게는 현실적으로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사고, 심리를 표현하도록 독려하는 글쓰기는 상담, 치료적인 기능까지 할 수 있게 돕는다.”고 했는데, 발표문에서 “치료적 글쓰기”가 가능한 것으로 제시된, “1과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예요?, 5과 여러분의 결심은 뭐예요? 자신의 결심을 써 보세요. 12과 고향의 요리나 여러분이 잘하는 요리를 소개해 보세요, 19과 여러분도 가족이나 친구에게 하고 싶은 말을 써 보세요 등 중급의 글쓰기 주제”가, 여성결혼이민자가 자신의 삶의 문제 혹은 정신적 문제에 대해 어떤 사고를 하고 어떤 심리를 갖게 되는지에

1)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2009년 6월 24일 지난 4년간(04~08년)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우울증 환자의 남녀 비율은 9세 이하에서는 남자가 많지만 10대부터는 여성이 많아져 이런 양상이 70대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특히 30대에서는 여성의 발병률이 남성의 2.7배까지 벌어지면서 남녀 차이가 가장 컸다. 남성 환자에 대한 여성 환자의 비율은 40대 2.4배, 50대 2.5배였다. <http://www.kormedi.com/news/article/1189861_2892.html>

2) 우리나라 국민 10명 가운데 4명만이 삶의 질에 만족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씨티은행이 한국인 5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43%가 "현재 삶의 질에 대해 다소 또는 매우 만족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11개 나라 평균인 67%보다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http://www.ytn.co.kr/_ln/0102_201001311114558767>

대해 “감정적 글쓰기 또는 표현적 글쓰기”를 할 수 있는 주제인지 의문이 든다. 토론자의 판단으로는 3과, 7과, 11과, 17과 등도 글쓰기 치료의 주제로 나쁘지 않다. 오히려, 한국어 교육에서 글쓰기 치료와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교재의 과별 주제가 아니라, ‘사고와 심리, 감정 등’을 적확하게 드러내는 어휘 교육이 아닐까 생각한다.

교육이 단순히 지식 전달 기능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님은, 교사가 지식 전달의 기능인만은 아님은 자명하다. 한국어교육 분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이라면, 그들이 겪는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언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어야 할 것이다. 모국어 화자(한국인)가 겪는 삶의 문제나 정신적 문제와 동일한 것인지, 다른 것인지, 한국어가 그러한 문제들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필수적 사항들(needs)을 조사·분석하는 연구가 수반되기를 기대한다.

대학 교양수업에서 수행되는 발표의 피드백 방안

김남미(서강대학교)

□ 차례 □

1. 연구 목적과 필요성
 2. 기존논의 검토 및 개념의 확인
 3. 발표 전 피드백 방안
 4. 발표 중 피드백 방안
 5. 발표 후 피드백 방안
 6. 정리 및 남은 문제
- 참고문헌

1. 연구 목적과 필요성

대학 교육과정이 전문화, 체계화되고 있다. 변화되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교양교육 자체가 변신해야 한다는 각성에 따른 반응이다. 그 변화의 일환으로 사고와 표현 영역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고 있고 이 관심의 성과들을 교과과정에 반영하려는 전문가의 노력들이 지속되어 간다. 대학별로 의사소통 교육을 위한 전문 조직을 운영하고 있거나 전문 조직을 구성하려는 절차를 밟는 중이다. 또한, 이들 조직 내에서 새로운 교과 과정을 구성하고 이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주력하고 있다.

현대사회가 사고력과 구성력, 문제해결력을 갖춘 인재를 요구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변화는 고무적인 일이다. 이런 변화의 시점에서 교양교육 담당자들이 수업과정에서 얻어낸 성과들을 귀납적으로 모아내어 보다 더 개선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 그 장에서 논의되는 과정을 통해서 해당 과목의 이론이 강화되고 현장교육을 위한 지침이나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논의되어야 할 이론이란 사고와 표현 영역에 해당되는 ‘말하기, 쓰기, 읽기, 듣기’ 등에 대한 포괄적 논의도 포함된다. 이들 각 분야에 대한 현장 수업의 경험들을 모아내고 이를 이론적으로 심화 확대하는 과정은 대학이 담당해야 할 인재양성을 통해 사회적인 기여를 이루는 과정 중의 하나로 해석될 수 있다.

이 논문은 효과적인 현장교육을 위한 지침이나 방법을 모색하는 각론 중의 하나이다. 구체적으로 이 논문의 대상이 되는 것은 대학교양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발표와 그 피드백이다. 즉 이 논문은 교양 교육과정에서 수행되는 ‘발표’에 대한 피드백 방안 어떤 것이 있는가를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발표는 대학교양과정 수업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말하기 유형이다. 수업현장에서 다른 학습자를 청중으로 하여 정보를 전달하거나 자신의 주장을 표명하는 발표는 교양교

과뿐 아니라 다른 교과에서도 일반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활동이다.¹⁾ 때문에 교양교과에서 학생들의 발표력을 신장하는 교수법을 활용한다면 교양교육의 목표뿐만 아니라 다른 교과의 성취도를 높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

발표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실습을 통해 함목적적인 말하기를 훈련하는 과정을 끊임없이 거쳐야 한다. 15~16주차 동안 다수의 학생들의 훈련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른 장치를 통해서 발표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식적 말하기를 내재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피드백활동을 체계화함으로써 그 내재화 과정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려 한다. 대학교양과정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피드백 과정을 제안하기 위해 실제 현장에서 축적된 수업 자료와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자료는 서울 소재 S, H대학에서 수행된 것들이다. 이 자료들은 2005년 1학기에서 2009년 2학기까지 총 10학기에 걸쳐 축적된 것이다.

2. 기존논의 검토 및 개념의 확인

발표력 신장을 위한 효과적 피드백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학 내 발표 수업이 지향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수업 내 이루어지는 피드백 방안은 목적과 연계하여 설계되기 때문이다. 이에 관련된 기존논의의 성과를 살피고 이 논문에서 말하고 있는 발표와 피드백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려 한다.

대학 교양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에 관련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중이다. 대학교양과정에 관련된 학회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성과가 집적되고 있다. 그러나 그 연구 경향과 깊이에서는 영역별로 차이가 있어 보인다. 글쓰기와 읽기 영역에 대한 논의는 심층화 다각화되고 있으며 초학제적 간학제적 접근방식으로까지 확대되어가는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대학 교양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발표 자체에 대한 이론은 아직 심층적인 연구 토대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 말하기 영역에 대한 논의는 토론 분야에서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학교양 과정에 수행되는 발표에 대한 연구는 대학 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제 수업 사례와 교재 및 교수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이루어지는 논의에서 부분적으로 논의되고 있을 뿐이다.²⁾

여기서 교육학적 입장에서 발표가 속한 범주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 관련 영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대학 교양과정의 발표를 논의하는데 필요한 기존 논의의 성과들을 추려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발표는 화법의 담화 유형 중 하나이다.³⁾ 화법의 담화 유형에는 대화, 면접, 토의 토론, 협상, 발표, 연설 등 유형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면 말하기

-
- 1) 일반적으로 사고와 표현 관련 과목에는 발표와 토론, 작문과 독서 등 다양한 영역이 포함된다. 대학별로 그 중점 영역에는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성균관대학교에서는 스피치와 토론 영역을 숙명여자대학교에서는 토론과 글쓰기 영역에 집중하여 교과목을 구성하고 있다. 현재는 이들 영역을 하나의 교과 내에서 통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는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황성근(2009:3-4)에서는 말하기와 글쓰기의 연계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 2) 박만엽(2007), 백미숙(2009) 등의 논의가 대표적인 예이다. 대학 교양과정 이외의 '발표'에 대한 연구는 초·중·등교육과정의 말하기의 하위 영역으로 논의된다. 이와 관련된 기존 논의는 목적, 교과과정 연구, 교수법, 평가에 이르기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연구의 전반적 동향을 확인하고 지향점을 살핀 한철우·전은주·김명순·박영민(2005)을 참조할 수 있다.
 - 3) 화법 이외에 '발표'와 관련된 또 다른 영역은 교육공학적 입자에서의 '프리젠테이션'과 관련된 논의가 있을 수 있다.

의 일반적인 목표는 발표의 목표 중 일부가 될 수 있을 것이다.⁴⁾

화법의 일반적인 목적을 효율적인 의사소통에 있다. 효율적 의사소통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는 관점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최근에는 의사소통 참여자에 대한 이해와 의사소통 상황에 대한 이해가 효율적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한다는 상호교섭적 입장(the transitional theory)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Mayers & Mayers(1992)는 대화참여자가 각각의 상대를 고려하고 역할 관계의 차이를 알며 서로 합의된 일련의 규칙에 따라 대인행동을 할 때 상대방과 상호교섭적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⁵⁾

대학 교양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발표의 목적 또한 효과적 의사소통에 두어야 할 것이다. 이를 구체화한다면 발표 상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상황에 관련된 사람들을 명확하게 이해하면서 자기 활동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자기 활동의 목적이란 발표를 하는 의도와 목적이 된다. 발표에 관련된 사람들은 발표를 수행하는 주체와 발표를 듣는 청중을 포함하는 내용이 된다. 또 발표 상황이란 발표에 주어진 시간, 청중의 특성, 발표 시기 등이 포함된다. 학습자들이 이러한 요소들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발표 내용을 논리적으로 구조화하며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 효율적 의사소통에 접근하는 것, 또는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교양수업 내의 발표활동의 목적이 된다.

또한 발표는 공식적 말하기의 일부이기도 하다.⁶⁾ 일상 대화가 화자와 청자의 역할이 전환되는 말하기라면 발표는 적어도 주어진 시간 안에서는 발표자가 화자의 역할을 지속해야 한다는 특성을 지닌다. 화자는 일반 대화보다 청자와 객관적 거리를 가지며, 그 청자를 자신의 의도와 목적에 부합하는 말하기를 통해서 설득하거나 이해시키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이 시간 지속성과, 청중과의 거리라는 특성으로 인해서 발표는 다른 말하기에 비해 논리적으로 구조화 체계화 되어야 한다는 특성을 지닌다.

지금까지 일반 화법에서 추출된 발표의 목적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러한 일반 목적 이외에 대학 교육과정 내에서의 발표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생기는 목적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대학의 교양과정의 일반 목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교양과정의 일반 목적은 비판적 사고와 창의적 사고를 기르고 대학생들이 알아야 할 일반 원칙과 개념을 알게 하는 것에 있다.⁷⁾ 이 중 비판적 사고와 창의적 사고는 앞에서 논의한 일반적 화법의 목적과도 연관될 수 있는 영역이다. 그러므로 일반원칙과 개념에 관련된 목적에 대해서만 논의해 보기로 하자.

대학 교양과정의 발표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은 대학생이 알아야 할 일반원칙과 개념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발표를 통해 대학생으로서의 지성, 가치관, 역할 등을 기를 수 있어야 한다. 또, 이 일반원칙에는 지식의 측면만이 아니라 대학의 수업을 위한 방법이 포함된다는 측면을 고려하였을 때, 지식을 이해하고 이에 대해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획득하는 것 또한 목적의 하나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4) 화법 교과서의 일반적 목표에 대한 논의로는 전은주(1999:135-158), 김도영(2006:350) 등을 참조할 수 있다.

전은주(1999:135-158)에서는 말하기의 일반적 목적으로 아래의 4가지를 보이고 있다.

- ① 담화 상황과 목적에 맞게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말할 수 있다.
- ② 담화 과정을 통해 의사소통의 언행적 목적과 관계적 목적을 이룰 수 있다.
- ③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다.
- ④ 말하기 과정에서 자신의 사고 과정을 조절할 수 있다.

5) 한철우 외 2005:43 재인용

6) 공식적 말하기의 특성에 대해서는 김윤옥(2006:8-9)을 참조할 수 있다.

7) 이 대학교양 과정의 일반 목적은 줄고(2007:56)에서 재인용한 것이다.

지금까지 논의한 목적들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⁸⁾

- ① 효과적인 의사소통 과정
 - 발표의 특성 이해, 발표 상황의 이해, 화자와 청자의 관계 이해,
 - 자기표현 방법의 내재화
- ② 대학생으로서의 일반원칙과 개념의 이해
 - 지성, 가치관, 역할 등의 이해와 확장
 - 자기 표현 방법의 이해와 내재화

이 논문에서는 위에 제시된 발표의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피드백에 관심을 갖는다. 피드백이란 포괄적으로 학습상황 속의 학습자의 성취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는 모든 의사소통 행위라 정의할 수 있다.⁹⁾ 피드백이 학습을 증진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것은 다수의 논문에 의해 이미 검증된 바 있다. 발표 또한 예외일 수 없다. 때문에 발표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피드백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학생 발표의 피드백을 위해서 다양한 평가지가 활용되고 있으며, 몇몇 평가지가 기존 논문을 통해서 소개된 바 있다. 아래 <표-1>과 <표-2>의 예는 평가지의 유형이다.

<표-1> 정혜영(2006:150) 프리젠테이션 평가지

발표자	내용(4)				전달(4)				기타의견 (2)	총점 (10)
	논리성	주제 선정과 준비	자료 제시의 구체성	창의성	자세 시선	언어 전달의 명확성	청중 반응	질의 응답		

<표-2> 백미숙(2009:332) 발표 평가지

발표자	착상(5)	배열(5)	언어(5)	음성(5)	태도(5)	기타의견	총점 (25)
	주제/내용의 창의성, 적절성, 진실성, 유용성	서론, 본론, 결론의 논리적 구성	적절성, 정확성, 명확성, 선명성	발음, 속도, 강조, 키포인트, 균소리	시선, 표정, 제스처, 자세		

8) 김대행(1997:3-51)은 Leach(2000:790-791)의 모어 교육의 지향에 대한 관점을 소개한 바 있다. 이들은 관점의 측면에서 소개된 것이지만, 대학교육과정에서 중시해야 할 목적과도 일치하는 바가 있다. 그 관점들은 아래와 같다.

- ① 성인의 요구 중시(adult needs view)
- ② 개인의 성장을 중시(personal growth view)
- ③ 문화의 이해와 분석을 중시하는 관점(cultural analysis view)
- ④ 언어적 유산을 중시하는 관점(cultural heritage view)
- ⑤ 범교과적 도구성을 강조하는 관점(cross curricular view)

발표가 말하기를 응용한 수업활동이라는 측면에서는 ⑤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궁극적으로 교양과 지성의 증진이라는 측면으로 해석한다면 ①~④의 영역 또한 중시되어야 할 것이다.

9) 기존 논의의 피드백의 유형과 종류에 대한 정리는 김형진(2004:116)를 참조할 수 있다. 피드백에 대한 논의 중 초기 논문의 하나인 Ausubel(1968)은 피드백을 학업 수행에 관한 정보로 규정하고 의미와 연합 확충하는 과정으로서, 오답반응을 교정하고, 숙달 여부를 확인하면서 학습자의 확신의 증진하는 과정이라 말하였다.

<표-1>과 <표-2>의 공통 특성은 각각의 평가 항목을 점수화하여 나타내고 있다는 점과 발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교수자나 동료들이 평가를 한다는 점이다. 학생들이 발표 과정에서 동료의 발표를 평가해 보는 과정은 자신의 발표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이 된다는 점에서 유효한 과정이다. 문제는 평가 대상 항목들이 점수로 환산하기 어려운 대상들이라는 데 있다. 최근 글쓰기 평가에 대한 논의에서는 평가가 결과만이 아니라 과정까지 평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숫자로 등급이 매겨지는 것보다 부족한 점을 지적하는 문장 형태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말한다.¹⁰⁾ 발표에서 제시되는 평가 또한 마찬가지이다. 발표의 결과에 대한 점수화보다는 발표 이전, 발표 수행 중, 발표 이후에 자신의 발표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개선할 점을 제시할 수 있는 정보를 제시하는 피드백이 발표자 자신에게 유용한 방안이 될 수 있다.

때문에 이 논문에서 주로서 다루고 있는 피드백의 유형은 평가적 피드백이 아니라 언어적 피드백이며, 정보적 피드백이며, 설명적 피드백에 해당된다.¹¹⁾ 또한 이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피드백은 발표 결과에 대한 피드백만이 아니라 발표 이전, 발표 과정, 발표 이후에 이루어지는 피드백을 모두 포함한다. 교수자는 학생들이 발표를 준비하고 시행하는 과정 전체에서 피드백을 줌으로써 학습자들의 성취도를 확대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 제공하는 피드백의 목적은 학습자를 동기를 강화하고 발표 방향의 수정, 확대하거나 심화시킬 수 있으며 발표 중 나타난 학습자들의 특성의 확인하고, 발표의 성취도의 확인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이 논문에서 피드백의 대상으로 삼는 발표는 개별 발표와 조별 발표 모두를 아우르는 것이며 평가 주체에 따라 교수 평가, 동료 평가, 자체 평가로 나뉠 수 있으나 피드백 항목은 일치할 수도 있다. 이 논문에서는 피드백 시기에 따라 발표 전/ 발표 중/ 발표 이후의 피드백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시기에 어떤 피드백 방안을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해 나갈 것이다.

3. 발표 전 피드백 방안

일반적으로 ‘발표’라는 과제를 처음 접할 때 대학 교양과정의 학습자들은 부담스러워하고 불안해 한다. 이러한 불안감은 교양과정을 수강하는 학생들이 1~2학년생이라는 특성에서 생기는 측면도 있으나 이전 교육시기에서 발표를 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다는 것에서 기인하기도 한다. 이러한 발표 불안증(speech anxiety)은 대학생들이 극복해야 하는 여러 과제들 중의 하나이다. 앞서 교양과정의 목적의 비판적 사고와 창의적 사고를 기르는 것이라 논의한 바 있다. 그리고 개별적이든 조별활동이든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비판적 사고와 창의적 사고를 기를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서라도 대학생들은 지속적으로 발표 기회를 가지는 과정을 통해서 발표 불안증을 극복해야만 한다.

학생들이 발표라는 과제에 대해 불안해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방법론적 절차에 대해 잘 모른다는 점이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막연함이 학생들을 불안하게 하는 것이다. 발표 전에 이루어지는 피드백은 방법론적 절차에 대한 학생들의 불안을 감소할 수 있는 방

10) 글쓰기 평가의 방향에 대한 이 논의는 줄고(2009s:154-155)에서 인용한 것이다.

11) 학습의 종류에 따른 피드백 방안은 Smith & Ragan(1993)을 참조할 수 있다. 학습자의 내적 성취도에 따른 피드백과 교수자를 포함한 청중이 제공하는 피드백을 겸하였다는 측면에서는 Colo & Chan(1987)의 내적 피드백과 외적 피드백이 포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동시에 Smith(1989) 동기 강화 피드백과 정보적 교정 피드백을 포함하고 있다.

안이 될 수 있다.

발표 전 피드백에서 가장 중요시되어야 하는 항목은 담화 상황에 대한 분석이다. 담화 상황에 대한 분석이란 교과 내에서 발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 어떤 전략이 필요한가를 분석하는 과정이다. 어떤 유형의 발표이든 간에 대학 교양과정에서 수행되는 발표는 3~4주의 준비기간을 주어야 한다. 이 시기 동안 학습자들은 과제에 대한 충분한 이해하는 과정을 거치고 이를 바탕으로 자료를 모으고 구성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교수자 등의 피드백 주체는 이 과정에 학습자들의 발표 준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 확인하고 그에 대한 피드백을 줄 수 있다.

발표 전 피드백의 방안은 세 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학생들의 발표의 기반이 되는 ‘발표 계획서’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주는 것이고 둘째는 발표의 준비과정을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드백을 주는 방법이다. 마지막 하나는 발표자나 발표조에 피드백을 줄 다른 학습자나 조를 미리 정하여 발표 준비 과정을 확인하고 피드백을 주는 방식이다. 먼저 발표 계획서에 기반한 피드백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자.

일반적인 발표 수업에서 교수는 발표주체들에게 적어도 발표 수행 2~3주 전까지 발표의 밑그림을 그리게 하고 이를 발표계획서에 반영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교수는 제출된 발표계획서를 중심으로 발표 전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 아래의 그림들은 발표 전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발표계획서 양식을 보인 것이다.

<그림-1> 발표계획서 양식 1

<그림-2> 발표계획서 양식 2

발표 계획서	
조이름	발표일자
발표 주제	
조원이름	
발표 목적	
발표 내용	
개요	
발표 준비 일정	
로드맵	
발표 방법	
분담현황 및	
참고 자료	

위의 <그림-1>,<그림-2>에서 보듯이 발표계획서에는 ‘발표의 목적’, ‘전체 발표의 구성’, ‘발표 준비를 위한 로드맵’, ‘자료 조사 방법 및 참고문헌’ 등이 반영되어야 한다. 대학의 학습자라 할지라도 자신의 발표의 목적과 의도를 분명히 하고 이를 부각하기 위한 전략을 중심으로 전체 구성이 짜여야 한다는 일반 원리가 제대로 훈련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때문에 주제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는지, 전체 개요를 일관하는 기혹 의도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 주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주제의 의미와 가치를 명확히 하고 이를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타진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 구성과 로드맵을 통해서 발표주체를 부각하는데 적절하고 유효한 방식인지, 다른 방식의 확장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한 논의도 가능하다.

발표계획서를 활용한 발표 전 피드백은 조별 발표일 경우 조장과 대면 첨삭의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발표 주체가 입으로 자신의 계획의 의도와 목적을 말함으로써 계획의 타당성에 대해 스스로 점검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수자는 발표주체의 의도와 목적에 충분히 귀를 기울이며, 심층성과 다각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의 조언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조별 발표인 경우에는 ‘발표 분담 상황’이 반영되도록 하고 효율성과 조직력을 피드백 과정에서 확인하여 무임승차(free-riding)를 방지해야 한다.

다수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별 발표수업에서는 개별 면담이 어려울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온라인을 통한 피드백이나, 발표계획서에 피드백 사항을 기술하여 학생에게 되돌려 주는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축적된 수업을 통해 기술된 피드백을 줄 때는 정.오를 기술하는 방식보다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주제와 의도와 의 관련성에 주목한 피드백이 유효하다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학습자들은 교수의 피드백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자신의 최초 목적이나 의도를 포기하는 경향이 짙기 때문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학생들과 합의된 기호를 활용하거나 이니셜을 활용하여 의문사항이 생길 때, 교수에게 피드백을 요청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유효했다.

둘째는 발표의 준비과정을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드백을 주는 방법이다. 이미 대학별로 수업의 보조매체로서의 사이버 강의실이 활용되고 있다.¹²⁾ 교수는 학생들의 발표 준비를 위해 사이버 강의실 내의 공간을 마련해 주고 이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확인하면서 피드백을 줄 수 있다. 아래 <그림-3>은 발표 준비 과정에서 조별 학생들 간의 논의가 이루어지는 토론실의 모습이다.

<그림-3> 조별 토론방¹³⁾



12) 대학별로 class-net, 강의지원, 사이버 캠퍼스 등의 사이버 강의실이 지원되고 있다. 이를 교육공학적 입장에서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3) 소개된 사이트는 2009년 2학기 서강대학교 계열별 글쓰기 강좌의 사이버 캠퍼스 내의 조별 토론방이다.

조별 발표의 경우에는 조원들만이 출입할 수 있는 토론방을 활용하여 발표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효하다. 교수는 조별 논의 과정을 확인하면서 발표 준비과정이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각각의 사안들에 대해 댓글 형식이나 글쓰기를 통해 피드백을 줄 수 있다. 개별 발표의 경우는 사이버 강의실 내에 쓰기과 읽기 자격을 달리 줌으로써 동일한 방식의 피드백을 할 수 있다. 학습자들이 사이트 내에 특정 글을 올리는 데는 모두 참여할 수 있으나 읽기는 교수와 탑재한 사람으로 한정함으로써 대면 피드백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식이다.

토론방을 활용한 피드백은 발표 준비 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한 긍정적 피드백과 부정적 피드백이 포함된다. 피드백을 하는 과정에서 전략의 적절성과 실효성에 대해 타진해 줌으로써 학습자들의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피드백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이 과정에서는 실제 발표 상황과의 연계에 주목한 피드백이 유효하다. 학습자들은 자신이 실제 발표에서 소요되는 시간과 발표 준비에서 연상하는 시간을 일치시키는 것을 어려워하는 일이 많다. 또 동영상이나 기타 그림 자료 등을 활용할 때, 기자재 연동 문제에 대해 훈련되지 못한 경우도 많다. 때문에 피드백 과정에서 시간 비중의 문제, 기자재의 연동 문제 등에 대한 언급을 해 줄 필요가 있다.

교양수업에서 이루어지는 발표는 개인 발표와 더불어 다양한 크기의 조별 발표가 모두 이루어지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러나 교과목의 목적이나 구성원의 수 등에서 생기는 제한 때문에 15내지 16주의 수업기간 동안 다양한 방식의 발표를 수행하는 것에 장애가 따른다. 특히 개별 발표 시행의 경우 발표 전, 발표 과정, 발표 후의 과정에 대면 피드백이나 기술 피드백을 하기에는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도울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가 동료 피드백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동료 피드백이란 교실 내의 다른 학습자나 다른 조가 발표에 대해 피드백을 주는 수업활동을 말한다. 발표에 대한 동료 피드백의 유용성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¹⁴⁾

- ① 동료 피드백을 통해 자신의 발표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
- ② 경험을 공유하는 또래 발표를 평가¹⁵⁾함으로써 발표에 대한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다.
- ③ 동료 피드백을 수행함으로써 화자와 청자의 입장을 모두 경험할 수 있다.
- ④ 동료로부터 받은 피드백을 통해 발표가 갖추어야 할 조건들을 확인할 수 있다.
- ⑤ 동료의 발표를 피드백 하는 과정에서 비판적 사고와 창의적 사고를 훈련할 수 있다.
- ⑥ 학생 피드백에 대한 교수자의 부담을 덜 수 있다.

발표전 피드백 방안은 학습자와 학습자 간을 상호 피드백 대상으로 묶어 주는 방법이다. 각각의 구성원들은 상대방의 발표 계획 단계에서부터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을 서로 확인하고 피드백을 주는 관계가 된다. 교수는 각각의 상황을 피드백 보고서를 받거나, 상호 피드백 조원의 토론방의 활동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새로운 피드백을 줌

14) 동료평가가 유용성에 대한 논의는 줄고(2009:155-156)을 참조할 수 있다. 이 논문은 ‘글쓰기’에서 이루어지는 동료 평가에 대한 논의이지만, 이를 발표에 대한 동료 피드백 방안으로 확장해 해석하는 것도 의미있다. 글쓰기와 발표는 사고를 조직화하고 표현하는 과정에서는 그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확장하여 동료 피드백의 유용성으로 해석해 본 것이 본문에 밝힌 유용성이다.

15) 이 논문에서 사용하는 평가라는 용어는 학습의 성취도를 등급화하는 평가(evaluation)의 개념이라기보다는 발표 전반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피드백을 거치는 과정을 지시하는 개념으로 포괄적 평가(review)에 가까움을 밝혀둔다.

써 발표 준비나 과정 이후를 살필 수 있게 된다. 아래의 <그림-4>는 사이버 강의실 내의 동료 피드백 방의 모습을 보인 것이다.

<그림-4> 동료 피드백 토론방16)



수업과정에서 확인한 학생들의 동료 피드백에 대한 관심과 참여는 주목할 만한 것이었다. 동료의 발표 전략에 대해 언어적 요소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요소들에까지 긍정적, 부정적 피드백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뿐만 아니라 함께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창의적이고 다각적인 사고를 활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동료 피드백 활동은 과정 내의 첫 발표에서는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수업 내에서 발표의 구성과 요건에 대한 이론 수업이 이루어지고, 조별 발표와 이에 대한 전체 피드백 등의 과정을 통해 이미 발표의 구성과 효과에 대한 습득이 이루어진 단계에서 수행되는 것이 이 피드백 방안의 강점이 발휘될 수 있다.¹⁷⁾ 그런 단계에 이르지 않은 시기에서 이 방법을 사용할 경우 발표 자체의 방법론에 낯설어 하는 학생들의 발표 불안증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때문에 동료 피드백 활동 이전에 교수가 동료 피드백의 가치와 방법들에 대해 충분히 언급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상에서 보인 세 가지의 발표 전 피드백 활동을 통해 전략적으로 충분한 준비가 이루어지도록 발표자를 돕는 과정은 학습자들의 발표력을 신장하는 방안인 동시에, 준비과정에서 창의적 사고와 비판적 사고를 활용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16) 위의 사이트는 2009년 2학기에 시행된 서강대학교 '리더십과 화법' 과목에서 운용된 동료피드백 방안이다. 좌측 상단의 '사운드보더 10'이라는 명칭은 동료피드백을 주는 학습자들의 관계를 지칭하기 위해 시험적으로 사용한 용어이다. 소리를 되돌려주는 무대 장치인 'soundboard'에서 원용한 용어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주체들을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한다. 학술적 용어는 아니어서 명확한 출처를 밝히지는 않는다.

17) 그림 4에서 보인 동료 피드백 과정은 동료 피드백 이전에 학습자 모두 3번 이상의 발표를 수행한 이후에 이루어졌다. 발표를 위한 이론적 실제적 내용이 이미 내재화되어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효과가 높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이전의 2회 이상의 조별 발표를 통해 교실 내의 학습자들의 관계가 긴밀해진 상태라는 점 또한 피드백 활동이 원활하게 만든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림-5>는 발표 수행 중 청중 역할이 되는 학습자들이 피드백을 적는 평가지 양식이다. 상단의 ‘흥미도, 창의성, 지성도, 참여도’는 대학에서 발표가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제시된 항목이다. 흥미도는 주제의 흥미도, 구성의 흥미도, 프리젠테이션의 흥미도 등을 평가하는 항목이다. 이 흥미성은 단순히 재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제에 접근하는 방식이나 발표자가 청중을 이끄는 방식을 포함한 것이다. 창의성 역시 주제의 창의성, 구성의 창의성 등을 포함한다. 지성도란, 발표 내용과 방식이 대학생들이 다룰 만한 가치를 가진 것인지, 심층적, 논리적 가치를 갖는 것인지에 대한 평가 항목이다. 참여도는 조원들 간의 참여도 청중의 참여도 등을 의미한다. 이들 네 가지 항목에 대한 논의는 발표의 의미와 가치를 위한 이론 수업에서 학생들과 합의된다. 점수화되는 이들 네 가지 요소들의 점수는 발표를 듣는 학생들이 발표와 발표 간의 상대적 위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 발표를 들은 후 이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단의 항목들은 ‘발표의 요약’, ‘발표의 장점’, ‘발표의 맹점’으로 나누어 발표들 들으면서 생기는 피드백 정보들을 설명적으로 기술하도록 하였다. 발표를 수행하는 발표자들의 피드백 용지는 교수가 모아서, 발표에 대한 피드백 사항을 적는 용지로 활용된다. 그림 5의 우측의 ㉠은 교수가 발표자들에게 줄 피드백 내용을 기술한 것이다. 교수는 발표 순서를 따라 설명적, 정보적 피드백을 주는데 여기는 언어적 수행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반언어적 요인에 대한 내용도 포함된다. 거시적인 틀에서 주제의 부각, 구성의 유기성, 긴밀성, 통일성에 대한 피드백을 중심으로 기술하되, 발표를 수행하는 학습장의 태도, 몸짓 등에 대한 정보도 제시할 수 있다. 아래 <표-3>은 발표 조원들에게 ㉠와 같은 교수 피드백 사항을 모아 사이버 강의실에 올리도록 한 것들 중 하나이다.

<표-3> 교수 피드백 통합

교수 피드백 사항의 통합본 ²⁰⁾
<p>1. 재미를 별도로 정하여 청중의 흥미를 유발하였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문에서 시작한 것도 흥미유발에 기여하였다. * 이를 시각화 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할 것 - 피피티에 반영된다면 더 좋을 것 <p>2. 슬라이드 내용을 간략히 항목화 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문의 경우 외곽선을 둘 수 있도록 할 것 * 식당메뉴를 보고서라고 파악한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 일반적인 홍보인쇄물에서 확장을 시도한 것이 좋다 * 알리기 위한 모든 것. 보고. * 정보의 가치 -> 이에 대한 심층적 접근 필요 * 독창성의 설명이 부족한 이유는? * 교재의 5항목의 연계에도 주목했으면... * 이 요건 "객관성"을 주목한 것은 좋다. 그런데 이에 주목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더 고려되어야 한다. <p>3. * 자체 동영상을 제작하다니 정말 놀랍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영상 화질이 좋구나. 아마추어가 찍은 것치고는... * 동영상이 아주 재미있다. 동시에 발표 주제에 대한 문제를 적절히 지적해 내었다. * 이 내용은 다른 글쓰기(시사적 글쓰기) 발표에도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일 수 있다. 이 조 발표만을 위한 것이 될 수 있도록 만들 것. * 독자의 판단재료 이를 확장한다면 * 그렇다면 동영상 속 그 사람의 보고는 잘못된 것일까?

- 잘못되었다면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이런 잘못된 보고서를 대하는 독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4. 시사적 글쓰기와 보고서의 관계를 볼 수 있는 좋은 자료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적절히 파악해 내지 못했다는 단점이 있다.
- * 어찌라고 화면 등은 외곽선을 넣을 수 있도록...
 - * 보고서의 위치를 잡고 나머지를 영향력과 여파로 보면 보고서와 다른 글 간의 차이를 볼 수 있다.
 - * 사실과 일치하는 보고란 도대체 무엇일까? 이것이 더 명확해져야 한다.
 - * 이유를 바라본 것이 좋다.
 - ① 기술적 한계 -> 자료의 한정 등도 포함할 것
 - ② 다른 의도의 개입 등
 - * 쟁점, 경제적 타당성, 9조 8천/ 3.3% 등이 발표조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5. '대립되는 보고서의 상존'이라는 소재목이 인상적이다.
- * 두 보고서를 적절히 대립하고 있다.
 - * 논란의 원인 - 정치적, 복잡한 이해, 선호정보 취사선택 등으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낸 것이 좋다.
 - * 언론의 기사를 보고서로 보았을 때 얻는 점/잃는 점을 고려할 것
 - * 언론 보도 행태 (최영재) -> 슬라이드에 반영
 - * 보도된 보고 중 46% ->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는가? 방법? 시각?
6. '원인' '영향' 분석 방식이 대운하와 다르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 성과 중심주의 등등을 언급해 준 것이 인상적이다
 - 인용 저널리즘 등등도 개념을 명확히 해 줄 것.
 - * 자신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확인할 것
 - * 시선처리, 손짓이 자신감을 드러내는데 효과적이었다.
7. 정보를 취사선택하려는 의도
- * 편향성 극복의 방안은?
 - * 정보의 한계를 설명할 때 정보 결핍분, 정보 노출성 등등에 대해서도 논의 가능
 - * 객관적이라 평판받는 우수연구보고서 -> 발표조의 주관이 많이 개입된 듯^^
 - * OO보고서. 연구보고서를 설명하기 위해 목차를 통해 보여준 것이 좋다.
 - * 정의의 정확성 여부는 이 자료에서 알 수 없다.
 - * 다각성/ 심층성의 측면에 대해 고려할 것.
 - * 편향적 보고서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강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더 심화된 논의가 가능해진다.)
 - * 기타항목 등등의 정보를 활용한 것이 적절하다.
 - * '정보를 취사선택하려는'이 아니라 '사실을 왜곡하려는'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8. 사회기능의 문제... 왜곡/혼란
- * 시선을 청중에게 돌리고 있으면서도 가끔 독백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 * 의도를 ①과 ②로 나누어 ②에 초점화.
 - * 조명을 조정하여 표정이 보이면 더 좋겠다
 - * 주관적 변용
 - 객관화 시도 -> 구체화 -> 보다 객관적 가능
 - 그러면 무엇이 좋은가?
 - * 발표가 진행되면서 차츰 웃음을 띠니까 훨씬 자신감 있어 보인다.
 - * 전반적으로 잘 기획된 발표다.
9. Q&A를 둔 것도 좋다.

- Q1 : 하○빈 : 보고서가 발전적 글쓰기라면 생각 피력의 수단이라면 주관적?
 Q2 : 최○주: 정보발원지 -> 객관적 정보라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
 * 정보의 한계라는 용어문제도 더 고려할 것!
 * "너무"를 판단하는 기준
 * 주장과 보고의 차이에 주목해 답한 것이 좋다
10. * 이○은(84) : 미래와 관련된 요소 객관성이 문제라기 보다, 관점의 문제가 아닌가.
 * 이○혜 : 보고서 정의 부분. 보고서의 범위 문제. "~에 따르면" 이것이 중요하다
 * 광○호 : 보고서가 소통적 글쓰기인 이유가 무엇인가?
 * 박○영 : '어쩔 수 없는가?'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한 조의 견해는?

개별 발표를 진행할 경우에는 <그림-5>와는 다른 피드백 유인물이 필요하다. <그림-6>은 개별 발표가 수행될 때 활용할 수 있는 유인물이다.

<그림-6> 학생별 발표 피드백 용지(개별 발표)²¹⁾

개인발표 평가표			
2009. 12. 1			
발표자	박●기 □	발표자	●●라 □
<p>발표자</p> <p>조연</p> <p>작성한 주제!!! PPT 주제 객관적이지만 진짜적인 반론과 반박점이 함께 반영된다. 약은 중론과 함께 다루어야</p>	<p>발표자</p> <p>조연</p> <p>선호한 방식의 PPT. 직접 경험한 해답을 찾고 싶어. 문제해결 책소개법. 유용한 정보이다.</p> <p>청중들에게 유익한 정보는 느낌이 난다. (혹시 내용이 재미없어?) 영이 중론의 실용성을 중요하게 생각해!!</p>	<p>발표자</p> <p>박●영 □</p> <p>발표자의 주관으로 선고 결과. 그외면서 ~등 주려는 발표를 하고자 발표 이전다의 차별성을 드러내 졌다는 선고를 했다. 첫 번째 * FASHION - 100% ~ 자신의 장 안고 있는 분야라는 것을 청중에게 어필하는데 성공했다. * 청중에게는 구별점 조연 자신관 불에게도 도움이 되는 왜냐하면 공인 한성의 (30~50) 같은 학생의 손에 맡겼다. 다 나 배로 ~ 선언인: 공정한 등의 개입도 좋다. 모던: 일반인의 구분은 노하우를 보여준 것이 좋다. ACCIDENT (부류) + 관성 노하우였다. 무언과 관련된 것이 영역</p> <p>* 예속 배의 청중을 듣게 되는 것이 좋다. 재미있다. * 제시하고자 하는 라인 - 분해해 * 파산관리 100% ~ * 권의 준행자가 골짜기해 보인다. * 스코의 규칙을 만들어라 는 방식이 좋다 * How? 발표 받은 ~ * 3선 전략에 대하여 (상) 등 추진했다는 것이 신의를 표어준다. 100% 열한 * 스텝이의 vision을 덧붙여 라야 좋았다.</p>	
<p>발표자</p> <p>조연</p> <p>실용적인 것이어서 유익 스레다. 주제를 잘 처리하지 않은 것인데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준다. 발표가 재미있고 유익하다.</p> <p>작성한 주제가 중요한 것 같다. 작성한 주제가 중요한 것 같다.</p>	<p>발표자</p> <p>조연</p> <p>주제와 관련 있고, 발표 내용도 재미있고 유익하다. 작성한 주제가 중요한 것 같다. 작성한 주제가 중요한 것 같다.</p>	<p>발표자</p> <p>박●영 □</p> <p>발표자의 주관으로 선고 결과. 그외면서 ~등 주려는 발표를 하고자 발표 이전다의 차별성을 드러내 졌다는 선고를 했다. 첫 번째 * FASHION - 100% ~ 자신의 장 안고 있는 분야라는 것을 청중에게 어필하는데 성공했다. * 청중에게는 구별점 조연 자신관 불에게도 도움이 되는 왜냐하면 공인 한성의 (30~50) 같은 학생의 손에 맡겼다. 다 나 배로 ~ 선언인: 공정한 등의 개입도 좋다. 모던: 일반인의 구분은 노하우를 보여준 것이 좋다. ACCIDENT (부류) + 관성 노하우였다. 무언과 관련된 것이 영역</p>	
<p>작성 이름</p> <p>박●기</p>	<p>작성 이름</p> <p>이●영</p>	<p>작성 이름</p> <p>박●영</p>	<p>작성 이름</p> <p>박●영</p>

활용 방식은 <그림-5>와 동일하다. <그림-6>의 ① 역시 발표자의 피드백 용지에 교수가 기록한 것이다. <그림-6>과 같은 피드백 용지의 활용은 발표자의 개인적 특성에 대해 더 자세히 논의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갖는다.

20) 표 3은 교수 그림 5와 같은 유인물에서 교수 피드백 부분만을 학생들이 총합한 문서이다. 표 3은 2009년 계열별 글쓰기 '연설문 쓰기'에 대한 발표의 피드백 내용이다.

21) 이 그림은 2009년 2학기의 서강대학교 '리더십과 화법' 과목에서 활용되었던 유인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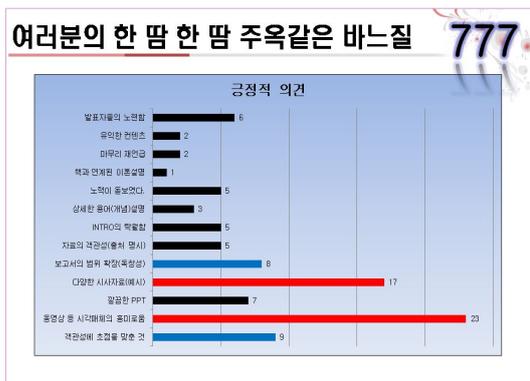
5. 발표 후 피드백 방안

발표가 끝난 이후에 발표자들은 자신의 발표에 대한 전반적인 피드백을 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피드백은 세 가지로 나뉠 수 있다. 첫째는 발표 중에 이루어진 피드백을 바탕으로 발표자와 교수 간에 이루어지는 피드백이고 둘째는 발표를 들은 청중 중 일부 학생들에 의해 구성된 피드백 발표이다. 셋째는 조별로 이루어지는 피드백 활동으로 전체 활동의 평가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다. 먼저 발표가 끝난 후 발표자들에게 교수가 피드백을 주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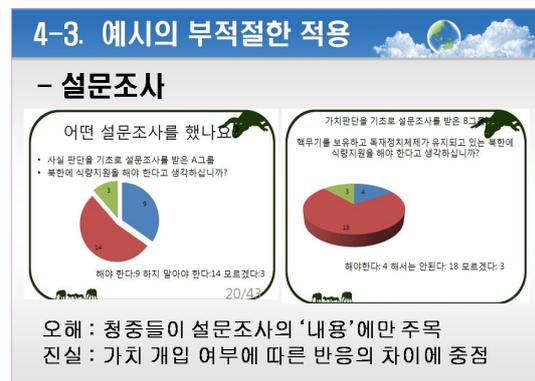
조별 발표자들은 발표가 끝난 이후에 교수와 대면 피드백을 받게 된다. 이때, 각 발표자의 피드백 용지에 기술된 내용을 중심으로 피드백이 이루어진다. 이는 그림 5의 ㉠ 부분을 조원의 수만큼 모아낸 것이다(4장의 표 3 참조). 먼저 발표자에게 이 발표의 주제가 무엇인지 기획 의도는 무엇인지를 말하도록 하고 그것이 발표를 통해 제대로 수행되었는가에 대해 듣는 과정이 이루어진다. 제대로 된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고 그것을 이루어내게 된 요인이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하고 그 반대 급부에 대해서도 스스로 말하게 하는 과정도 교수 피드백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말하기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특성인 적절성(adequacy), 정상성(normality), 정확성(accuracy), 자기 통제력(self-monitoring) 등²²⁾이 제대로 수행되었는가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다.

발표 후 피드백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발표를 더욱 개선하기 위해 어떤 전략이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발표의 개선에 대한 논의는 발표조의 논의에 대한 토론 피드백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조별 발표를 구성할 때에는 발표의 피드백을 전담할 다른 발표조를 선정해 주는 것이 유용하다. 발표가 끝난 다음 차시에는 발표의 피드백을 전담한 토론조가 발표 전체를 개괄하고 이에 대해 전체가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피드백 담당조는 발표 중에 이루어진 피드백 평가를 참고로 발표의 장점과 단점 개선할 점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게 된다. 아래의 슬라이드는 피드백 담당조가 발표를 위해 사용한 것들이다.

<그림-7> 피드백 담당조 슬라이드 123)



<그림-8> 피드백 담당조 슬라이드 2



22) 이 5가지 항목들은 R. Wardhaugh(1985:28)에서 논의된 것들로 윤희원(1986:18)에서 재인용하였다.

23) 피드백 담당조 발표 역시 발표에 대한 피드백과 마찬가지로 피드백을 받는다. 이 슬라이드에 대해서는 통계 주제와 연도를 밝히고 기초자료를 밝혀서 자신의 성과와 다른 사람의 성과를 명확히 구분하라는 피드백을 주었다.

<그림-7>은 피드백 담당자가 피드백 용지의 결과를 통계치로 환산하여 보여준 것이다. 이 러한 유형의 발표에서 학생들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모아내는 과정에서, 어떤 것이 일반 적이고 어떤 것이 특수한 것인지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훈련을 하게 된다. 또한 발표조 의 발표와 피드백 발표 과정에서의 차별성에 대해서도 모색할 수 있다. <그림-8>의 슬라이 드는 발표조의 통계자료의 해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슬라이드이다. 다른 해석가능성에 대해 진단함으로써 다각적인 사고를 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피드백 담당조 는 발표를 통해서 발표를 위해 자신들이 지켜야 할 규칙과 방안들에 대해 모색할 수 있게 된다. 즉, 다른 조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자신의 활동의 방식들을 배울 수 있게 된 다.

피드백 담당조가 발표를 통해 얻을 수 있게 되는 강점은 문제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다 가가는 방식들을 익히게 된다는 점이다. 피드백의 대상이 되는 조의 ‘주제’와 ‘의도’를 부각 하기 위한 전략들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확장 가능성을 모색하고, 그 가능성 중에서 발표조가 다른 부분과 다루지 못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 자체가 심층성에 접근 하게 되는 시발점이다. 아래는 그 시작의 단면을 보여주는 슬라이드의 하나이다.

<그림-9> 피드백 담당조 슬라이드 324)



<그림-9>의 슬라이드로 시작된 피드백 발표는 발표 전체의 비중의 문제와 글의 구조를 다잡는 방법, 반복과 강조를 통한 주제의 부각에 대해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심화과정이 나 타났다. 창의성의 하위 영역이 심층성과 다각성, 영역전이성이라 할 때 이러한 피드백 과정 들은 학생들이 창의성을 내재화하는 과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아래의 그림은 조별 발 표의 마지막에 활용할 수 있는 유인물이다.

24) 그림 9의 슬라이드에 대해 교수는 4가지 항목의 동등성 문제, 순서 배열의 문제, 용어 사용의 적절성, 정확 성 등에 대한 피드백을 주었다.

<그림-10> 발표 정리 피드백 용지

조이름	2조	
조원 이름	오유, 하유, 전영	
우리 조 발표를 기억나게 할 한 마디	당안,	
우리 조 발표의 강점	흥미 ↑, 영영 영기 good, 권영 good, 팀원 good 여러문구체를 잘 포함함. 마무리의 정리 좋음. (명확·채택)	
우리 조 발표의 약점	신만함, 경음이 변태된 판자가 없음, 주객전도 (상행주에 치음) 영성이 깊다, 영항 설명이 부족 → 이해도 ↓	
발표를 통해 배운 점	팀원의 중요성, 철저한 준비의 필요성 (우리도 발표에서 볼 수 있듯) 여러번의 리허설이 필요성 (시간 맞추기 중요함) 당안의 질과 같은 모든 것들이 사용해야 함. '흥미'의 중요성 (청취자들이 집중력이 올라간다.) "리더는 리허설의 '여거리'가 지켜야 한다."	
강중 해결을 위한 화법을 간단히 정리한다면?	평정 없이 강중 설명이 많음. (시공을 이해하려는 노력 때문). 경청, 두조 방법 : 참고 예제하자.	
가장 인상적인 코멘트와 인상적인 이유	긍정적 코멘트	(발표 참 잘했어!) 조원도 화음이 좋았다는 전이 더가 많다. (이전 준비가 잘 돼서?)
	부정적 코멘트	가볍네임. 오글거려네임. 너무 더가 강해서 원과 내용이 잡음을 못했어.
2차 조 발표 최고의 조 2개 (우리 조 제외)	8조, 4조	
소원의 창	예) 선생님 힘들어요. -- 발문량 ↑, 친목도모를 위한 팀 구성을 부탁드립니다.	

<그림-10>은 조별 발표가 모두 끝난 이후에 발표조들은 교수와 동료들이 준 피드백 유인물들을 제공받고 이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유인물이다. 이 과정에서 발표조는 자신의 조에 대한 평가를 이루어 내고, 다른 조의 피드백에 대한 수용과정을 거치게 된다. 유인물을 작성하는 과정과 이를 발표하는 과정을 통해서 조별발표를 통해 얻은 성과와 이를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개진할 수 있게 된다.

이후 스스로의 성과에 대한 피드백은 교수가 제시하는 과제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들 피드백은 조별 성과에 대한 피드백과 개인별 성과에 대한 피드백으로 나누어진다

하나의 발표가 이루어지고 이에 대해 수업 내의 피드백과 수업 외의 피드백이 이루어지고 이후 다시 이에 대한 평가와 피드백이 이어지는 과정은 학습자들이 발표의 구성에 필요한 원리와 규칙들을 내재화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6. 정리 및 남은 문제

이 논문은 교양수업에서 이루어지는 발표를 피드백하는 방법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실제 수업에서 수행된 피드백의 방법을 소개하고 이들이 학생들의 발표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기여하는가를 살펴보았다. 또한 각각의 피드백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피드백 유인물을 소개하고 실제 수업 사례의 결과들을 분석하였다.

피드백의 방법은 피드백 시기에 따라 또한 피드백의 주체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시기에 따라 발표 이전 피드백, 발표 중 피드백, 발표 후 피드백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시기에 수행될 수 있는 피드백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피드백을 주체에 따라 구분하면 교수 피드백, 동료 피드백, 자체 피드백이다.

발표 이전에는 발표자가 작성한 발표계획서를 기반으로 피드백을 하는 방법과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서 발표 과정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피드백을 하는 방법을 제안할 수 있다. 발표 과정에서는 발표를 하지 않는 학습자들에게 제시된 과제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더불어 발표 과정에서 교수가 할 수 있는 피드백 방안에도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발표 후 교수가 주는 대면적 피드백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다각적으로 대상에 접근하는 방식을 익히고 사고 내용을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하였다. 발표 후 피드백의 또다른 방안으로 피드백 담당조의 역할과 발표가 발표자와 피드백 조의 창의적 사고를 신장할 수 있음에 대해 논의하였다. 동시에 발표와 피드백 과정을 통해 학습자들이 발표의 원리와 규칙을 내재화할 수 있음을 밝혔다. 각각의 피드백의 목적과 방법을 명료하게 정하고 이 목적과 방법을 학습자와 공유하는 과정은 학생들의 발표력을 증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발표의 과정과 피드백 과정에서 축적된 자료들을 분석하여 일반화하는 과정이 남은 과제가 될 것이다. 이 분석 과정은 학생들이 발표에서 보이는 일반적인 오류 상황과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론을 모색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또한 학년 별 특성에 따른 발표와 피드백의 심층화 단계화에 대한 연구도 남은 과제가 된다.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교수법을 제안할 수 있으리라 보인다. 마지막으로 글쓰기와 발표를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앞으로 더 연구되어야 할 과제가 된다.

- 김남미(2007), 「재외국민반 학생을 위한 교양국어 수업 방안」, 『국어교육』 124, 한국어교육학회, pp.55-83.
- 김남미(2009), 「대학 글쓰기수업에서의 동료평가 결과 연구」, 『한민족문화연구』 30, 한민족문화학회, pp.151-180.
- 김도영(2006), 「말하기 교육목표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국어교육학연구』 25, 한국어교육학회, pp.341-363.
- 김대행(1997), 「국어교육의 목표와 영역」, 『선청어문』 25, 서울대학교국어교육과, pp.31-51.
- 김윤옥(2006), 「공식적 말하기 교육내용 고찰」, 『새국어교육』 72, 한국국어교육학회, pp.5-26.
- 김형진(2004), 「국어과 읽기 평가에서의 피드백 제시전략 모형 개발」, 『독서연구』 11, 한국독서학회, pp.113-140.
- 노명완 외(1988), 『국어과 교육론』, 을지출판사.
- 박만엽(2007), 「서울 시립대학교 “발표와 토론” 수업 운영에 대한 사례보고」, 『한국사고와 표현학회학술대회 논문집』, 사고와 표현학회, pp.10-36.
- 백미숙(2009), 「교양교육으로서의 말하기 교육의 현황과 방향」, 『수사학』 9, 한국수사학회, pp.323-348.
- 손용주(1995), 「교양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대학교양국어와 어문정책의 방안」, 『한국어문연구』 9, 한국어문연구학회, pp.67-91.
- 전은주(1999), 『말하기·듣기 교육론』 박이정.
- 전은주(2002), 「말하기 학습 활동의 특성과 유형」, 『국어교과교육연구』 3, 국어교과교육학회, pp.13-41.
- 정혜영(2007), 「말하기 듣기 교육의 현황과 발전 방향에 대한 연구」, 『수사학』 6, 한국수사학회, pp.145-164.
- 윤희원(1986), 「말하기 교육에 관련된 수삼의 과제」, 『국어교육』 57, 한국국어교육연구회, pp.15-28.
- 윤희원(2002), 「말하기·듣기 교수-학습의 지향과 과제」, 『국어교과교육연구』 3, 국어교과교육학회, pp.1-11.
- 임철성(1997), 「국어 화법의 성격 고찰」, 『화법연구』 1, 한국화법학회, pp.23-46.
- 임철성(2009), 「화법과 작문의 교육내용 대비 고찰」, 『작문연구』 8, 한국작문학회, pp.9-46.
- 정희모(2008), 「글쓰기에서 수정(Revision)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연구」, 『현대문학연구』 34, 한국문학연구학회, pp.333-360.
- 한철우·전은주·김명순·박영민(2005), 「표현·이해 교육 연구의 방향과 과제」, 『국어교육학연구』 22, 한국어교육학회, pp.39-96.
- 황성근(2009), 「말하기 교육에서 글쓰기의 효과와 연계방안」, 『작문연구』 8, 한국작문학회, pp.111-137.
- Ausubel, D. P.(1968), *Educational Psychology: A Cognitive View*, N.Y.: Holt, Rinehart & Winston.

- Brumfit, C.(1984), *Communicative Methodology in Language Teaching*,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 Cole, P. G. & Chan, L. K.(1987), *Teaching Principles and Practice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Wardhaugh, R.(1985), *Conversation Works*, Oxford, B. Blackwell.
- Myers, G. & Myers, M.(1992), *The dynamics of Human Communication*, New York: McGraw-Hill.
- Smith, P. L. & Ragan, T. J.(1993), *Designing Instructional Feedback for Different Learning Outcomes*, ; Ed. Dempsey, J. V. & Sales G. C. *Interactive Instruction and feedback*, pp. 75-104, Educational Technology.

대학 교양수업에서 수행되는 발표의 피드백 방안

박동근(건국대학교)

2000년대 대학의 의사소통 교육은 기존의 국어과 교육 무용론에 대한 반성과 실용성을 지향하는 차원에서 교양 과정의 핵심 과목으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학교에 따라 시수 등 비중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대학에서 교양 교육으로 ‘말하기, 쓰기’ 관련 과목이 필수 과목으로 정착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이 길지 않고 상당수의 교수자 역시 이에 대한 수학 경험이 없어,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강의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 효율적인 교수 방법에 대한 이론이나 지침 없이 교수자의 개인적인 경험에 바탕을 둔 강의를 이루어지는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 발표는 효과적인 현장 교육을 위한 지침으로 교양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발표를 피드백하는 방법에 대해 의미 있는 제안을 해주셨고, 유사 과목을 강의하는 사람으로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대부분 선생님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토론자 역시 현장에서 경험한 바를 바탕으로 몇 가지 질문과 제 개인적인 소견에 대한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용어상의 문제입니다. 본 발표에서는 피드백의 방법을 시기에 따라 ‘발표 전 피드백’, ‘발표 중 피드백’, ‘발표 후 피드백’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발표 중 피드백’은 발표가 수행되는 과정에서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며, 대면 피드백을 위한 기반 자료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발표에 대한 평가는 그것이 평가지에 작성이 되든, 평가자의 머리 속에 기억되든 발표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평가 시점은 본 발표의 피드백 시점과는 관련이 적지 않나 합니다. 즉, 시간에 따른 피드백의 구분은 그것이 당사자에게 전달되는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발표 중 피드백’을 설정한다면 선생님께서 각주에서 제시한 ‘즉각적 피드백’이 더 적절한 범주가 아닐까 합니다.

둘째, 발표 계획서를 활용한 발표전 피드백에서 조별 발표의 경우 조장과 대면 첨삭의 방식을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대면 첨삭을 조장에 한정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상담 공간의 문제가 없다면 오히려 전체 조원을 대상으로 한 대면 첨삭이 전체 조원이 발표 과정을 이해하는 데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셋째, 발표자께서는 동료 피드백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주목할 만하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학생들의 참여 태도에 따라 변수가 있을 듯합니다.

넷째, 피드백 가운데 가장 비중 있는 단계는 역시 발표 후 피드백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발표 후 피드백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시간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발표하신 내용으로 보면 동료 피드백은 적어도 한 주 후에나 가능할 듯합니다. 교수 피드백은 언제 수행하는 것이(발표 직후 또는 한 주 후)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추가로 발표 후 피드백의 방법으로 발표 장면을 녹화한 동영상을 활용하는 방법은 어떨는지요?)

다섯째, 학습의 효과는 어느 정도 투자 시간과 상관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는 교수자나 학습자 모두에게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교수자나 학습자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게 마련입니다. 저희 대학의 경우 발표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는 높지만, 학생들이 다른 교양 과목에 비해 발표 준비에 따른 시간 부담감을 많이 호소합니다. 발표자께서 제안하신 온-오프라인을 통한 발표 준비나, 동료 평가 등이 학습자에게 지나치게 부담스러운 것은 아닌지, 마찬가지로 교수자 선생님께서 제안한 평가를 위해 다소 무리한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선생님의 경험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제 4 분 과 】

21세기 국어의 어두 경음화 실태

한명숙(건국대학교)

□ 차 례 □
1. 머리말
2. 앞선 연구
3. 어두 경음화 실태
3.1. 기초 조사
3.2. 설문 조사
3.3. 실태 분석
4. 맺음말
■ 참고문헌

1. 머리말

이 연구는 21세기 초기 현대국어의 어두 경음화 실태를 계량적으로 살펴보고, 그 실현 양상을 언어학적 방법으로 해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어에서 경음화 현상은 음운론의 주요 관심 대상 가운데 하나다. 국어의 경음화 현상에 대한 연구는 순수한 음운론적 접근에서부터 형태적, 통사적, 의미적, 사회언어학적 접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층위에서 시도된 바 있다. 그러나 다양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국어의 현상은 주로 어중 경음화 현상에 집중되어 있어서 이 논문에서 다룰 어두 경음화 현상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어두라는 언어 환경이 일반적으로 음운 현상이 일어나는 경계가 아니며, 어두 경음화 현상은 불규칙적이고 개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원인 분석은 물론 현상 자체에 대한 관찰도 적었다. 무엇보다 어두 경음화 현상을 언어학적 현상으로 인식하기 보다는 단순히 잘못된 발음으로 바로 잡아야 할 국어순화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태도는 다음 우인섭(1976)의 글에도 잘 드러나 있다.

이를테면, 구두담기 少年이 “구두 **뉘으세요!**”라고 외치는 것도 어린 몸으로 고달픔을 무릅쓰고 한푼이라도 남보다 더 벌어야겠다는 意志와 아울러 ‘이래도 안 뉘을 테냐?’하는 半强制性마저 띠고 있는 듯하다. 同時에 거기에는 ‘이렇게라도 하지 않고서는 … 누굴 믿고 살 것이냐?’하는 哀絶하고 切迫한 뜻이 스며 있는 것이다. 여복해야 그 언젠가는 “못 살겠다 갈아보자!”하는 무서운 標語가 世上을 風靡했던 터가 아닌가? 그러나 生活風土와 意識構造와 言語品度は 맞바로 通하는 것임을 다시금 切感하게 하는 바이다. (우인섭, 1976)

그러나 어두 경음화 현상을 단순히 심리적인 원인으로 이해하거나 특히 잘못된 발음 습관 정도로 치부해 언어 주변적인 현상으로 돌려 버리기에 현실 언어에서 어두 경음화 현상이 빈번히 나타나며, 사용 정도도 점점 더 확대되는 것으로 보인다.²⁵⁾

물론 기존에 어두 경음화 현상의 원인을 황폐화된 혹은 각박해진 우리 현대인의 심리를 반영한 것이라는 주장을 완전히 배제하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어두 경음화가 일어난 어휘들을 보면 그 원인을 어떠한 비통함이나 정신적 황폐화와 같은 심리적 원인에서 찾기 어려운 것들이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수세미’를 [쑤-]로, (힘이)‘세다’를 [썰-]로, ‘족집게’를 [쪽-]로 발음했다고 해서 자기 방어나 복잡한 인간의 심리를 느끼기는 어렵다. 오히려 경음화가 된 어휘들이 무표적인 자연스러운 발음으로 여겨지기까지 한다.

그러므로 어두 경음화에 대한 연구는 연구자의 단편적인 현상에 대해 연구자의 개인적 판단에 의해 수행할 것이 아니라, 어두 경음화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언어학적 원리를 규명하는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본 연구는 어두 경음화 실태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연령대의 화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에 의한 양적 분석 방법을 통해 21세기 초기 어두 경음화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앞선 연구

앞에서도 언급해듯이, 어두 경음화 현상은 어중 경음화 현상에 비해 주목 받지 못했다. 대개 단편적인 언급에 머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어두 경음화 현상을 최근 인간 정신의 각박화나 황폐화와 관련지으려는 태도가 적지 않지만, 이미 최현배(1937)에서도 어두 경음화 현상을 지적하고 있다. 최현배(1937:138-140)에서는 예사소리를 경음으로 바꾸어 발음하는 것을 ‘익음소리(慣習音)’로 다음과 같은 것을 들고 있다. 그 일부를 들면 (1)과 같다.

(1) (ㄱ) ㄱ 첫소리를 ㄱ으로 내는 것

「가마귀」→「까마귀」, 「검다」→「깎다」

(ㄴ) ㄴ 첫소리를 ㄷ으로 내는 것

「마루를 닦아라」→「마루를 땀아라」, 「독검이」→「뚝검이」의 따위.

(ㄷ) ㅈ 첫소리를 흔히 ㅊ으로 내는 것

「비둘기」→「뵤둘기」, 「버들」→「뵤들」, 「본」→「뵤」

(ㄹ) ㅅ 첫소리를 ㅆ으로 쓰는 것(慶尙道)

「사람」→「싸람」, 「사동(寺洞)」→「싸동」

(ㄱ) ㄷ 첫소리를 ㅌ으로 내는 것

「조각」→「쪼각」, 「자르다」→「짜르다」

25) 이미재(1989)는 경음화가 조선 초기 또는 그 이전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서 조선 중기 이후 그 출현 빈도가 잦아져 마침내 오늘날의 경음화로 정착되었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최현배(1937:140)에서는 경음으로 발음하는 것은 옛날보다 지금이 많으며, 말씨가 곱게 다음어진 서울말보다는 곱게 다듬어지지 못한 시골말이 더 많은 된소리를 쓴다고 하였다.²⁶⁾

본격적인 논의는 아니지만 어두 경음화 현상에 대해서 단편적인 지적들이 있었다. 이기문(1959)는 “격렬한 동작을 의미하는 동사가 심리적으로 강한 발음을 요함”이라 했고, 김형규(1961)은 “인간 사회 생활의 복잡화와 경쟁의 격화에 따라 인간의 언어도 차차 강한 발음을 가지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김민수(1964)는 어두 경음화를 무조건 변화, 본질 변화, 독립적 변화의 성격을 갖는 자생적 변화로 보았다. 오정관(1988)은 어두 경음화 현상을 사회심리적 기능의 차원에서 심리적인 강화 욕구에 의한 것으로 문명의 진보로 인간의 물질 문명은 급성장하였으나, 정신적인 공허감이 증가하였고 이러한 심리 상태를 표면에 드러내 보이지 않으려는 자기 방어의 노력이 언어 활동시에는 자기 과시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라 보았다.

이처럼 어두 경음화 현상은 앞선 연구에서 대부분 심리적인 실체로 바라보았다. 반면에 박동근(2000)은 어두 경음화 현상을 언어 내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경음화의 원인과 제약을 찾으려는 최초의 본격적인 논의이다. 현실 언어에서 어두에서 경음으로 실현되는 어휘들이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예측불가능한 잘못된 발음 습관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일정한 규칙이나 언어적 원리가 숨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어두 경음화는 주로 토박이말에서 일어나며, 형태 층위에서 실현되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박동근(2000)에서는 어두 경음화 현상의 의미 기능으로 ‘강조’의 의미를 실현하는 경우와 비하하거나 부정적인 의미를 더하는 경우, 새로운 의미를 갖는 경우, 의미 차이가 없는 경우 네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 | | |
|----------------|-------------------|
| (2) ㄱ. 진하다/찼하다 | [농도의 짙은 정도를 강조함] |
| 나. 베끼다/뻤끼다 | [부정적 의미를 더함] |
| 다. 건수/견수 | [일의 기회를 일컫는 속된 말] |
| 르. 번테기/뻤테기 | [의미 차이 없음] |

한편, 박동근(2000)은 어두 경음화의 원리로 다음과 같이 ‘동음충돌 회피 원리’와 ‘동음충돌 저지 원리’를 제시하였다.

(3) 동음충돌 회피 원리 (박동근, 2000)

된소리 쌍을 갖는 예사소리로 시작하는 낱말 가운데 뜻이 다른 같은 형태의 어형(동음이의어)이 존재하면 그 가운데 하나는 첫소리를 된소리로 교체하여 동음충돌을 회피하려 한다.

26) 어두 경음화에 대한 최현배(1937)의 자료는 어두 경음화 현상이 최근의 일이 아니며 중세국어 이래 꾸준히 영역을 확장해 온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충분한 고려 없이 단순히 근래에 황폐화된 인간성과 관련지으려는 태도는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4) 동음충돌 저지(blocking) 원리 (박동근, 2000)

첫소리를 된소리로 교체한 결과 이미 존재하는 다른 낱말과 동음충돌이 일어날 경우에는 된소리되기가 저지된다.

즉 다음과 같이 ‘세다’[算]와 ‘세다’[力]가 동음이의어였던 것이 동음충돌 회피 의식에 따라 ‘세다’[力]쪽을 된소리로 발음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가다(行)’가 ‘*까다’로 경음화되지 않는 것은 ‘까다(脫)’라는 동음의 단어가 이미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5) 수를 세다
힘이 세다 → 썰다 <동음충돌 회피>

(6) 길을 가다 → *까다
글을 까다 <동음충돌 저지>

어두 경음화 현상에 대해 사회언어학적으로 접근한 연구로는 송민석(1990), 이미재(1993ㄱ), 이선웅(2001), 김유권(2004) 등이 있다. 이들 모두 어두 경음화 현상이 사회언어학적인 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송민석(1990)은 현대국어의 어두에 나타나는 ‘과’와 ‘파’의 변이를 사회언어학적으로 분석한 것으로, 어두에서 실현되는 /과/와 /파/의 자유 변이를 살피기 위해 음성적, 어휘적, 사회적 조건을 제시하였다. 이미재(1993ㄱ)은 경음화의 여부에 따른 의미 변별이 화자의 심리적 실체에 의한 것이라 보고, 경음의 실체는 무성의 긴장된 휴식이며, 경음화 현상이 일어남으로써 그에 따른 사회적 가치와 본래의 언어 가치를 극대화하는 기능을 가졌다고 지적한다.

송민석(1990)과 이미재(1993)은 모두 어두에 나타나는 ‘과’의 변이 양상을 살펴보았다는 데 공통점이 있다. 송민석(1990)은 /과/와 /파/의 변이를 살피기 위해서 18개²⁷⁾의 단어 목록을 제시한 설문지를 주고 발음을 적도록 하였다. 그 가운데 ‘과장, 과대표, 과회장, 과총회, 과장선생님, 과일(학과의 일), 과회의, 과장실’처럼 ‘과’가 나타나는 단어를 대조하여 조사하였다.²⁸⁾ 이미재(1993ㄱ)은 19세에서 23세의 대학생 남녀 각각 10명이 65세 이상의 노인 20명을 대상으로 Labov의 방법을 이용하여 조사했다. 그 결과 노년층의 경우 ‘파’의 실현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고 대학생의 경우는 100% ‘파’로 실현된다고 하였다.

이선웅(2001)은 사회 집단에 따른 어두 경음화 양상을 살피기 위해 연령, 출신 지역, 어두 자음군의 세 가지로 변항을 설정하고, 60대의 경우 구두로, 20대와 40대는 질문지로 15개의 어휘 항목에 대해 설문 조사를 하였다. 연령별 조사 결과, 20대는 평음:경음의 비율이 60:90으로 경음의 비율이 상당히 높았으며, 40대의 경우는 84:66, 60대의 경우에는

27) 학과장, 산불, 본격적, 과장, 과대표, 효과, 과회장, 방법, 문자, 과총회, 과장선생님, 과일(먹는 과일), 과일(학과의 일), 다른일, 과자, 과회의, 과장실, 여과

28) 그러나 자료 수집 과정에서 단어 목록의 발음을 설문지에 적게 한 것은 자연스런 발음을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본인이 실제 발음으로 적지 않고 표준 발음으로 적으려는 의식이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이다.

100:46으로 나타나, 젊은 층으로 올수록 더욱 경음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연령별 차이는 어두 경음화에 대한 통시적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았다.

김유권(2004)는 어두 경음화 현상을 사회언어학적 측면에서 연구하였다. 경음화가 일어날 수 없는 수의적 조건에 있는 목록을 대상으로 ‘엿듣기 방식’과 ‘간접 체보 방식’으로 어두 경음이 실현되는 목록을 채록하였다. 그리고 [필연성]과 [급진성]의 정도성을 기준으로 경음화 현상에 대한 필연적 성격의 어휘들을 1등급,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되는 것을 3등급, 그 중간적 성격을 지니는 것을 2등급으로 설정하였다. 그 목록의 일부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7) 어두 경음화 등급(김유권, 2004)

<1등급>

용언 : 작다(작다), 볶다(볶다), 세다(세다), 굽다(굽다), 숙이다(숙이다) 등
체언 : 소주(쏘주), 삼치(쌘치), 새치기(쌘치기), 시장(씨장), 시치미(씨치미) 등
그 외 : 조금(쪼금), 거꾸로(꺼꾸로), 속속들이(쑥쑥들이), 슬쩍(쫄쩍) 등

<2등급>

용언 : 시끄럽다(씨끄럽다), 실수하다(썰수하다), 두껍다(뚜껍다) 등
체언 : 식빵(씩빵), 선물(썬물), 방학(뽕학), 생선(쌩선) 등
그 외 : 저번(찌번), 근데(끈데)

<3등급>

용언 : 죽다(쑤다), 궁하다(궁하다), 주다(쑤다) 등
체언 : 선생님(썬생님), 향수(향쑤), 사장님(싸장님), 성인(쌩인) 등
그 외 : 그때(끄때), 밖에(뿌에), 직접(쑤직), 제길(쑤길), 절대(쑤대)

김유권(2004)는 경음화 현상을 언어 변화의 한 단계로 진행 중인 모습을 띠고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1등급의 목록들은 지속적인 언어 변이로서의 결과이고 2등급의 목록들도 시간이 지나면 1등급의 단계로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²⁹⁾

3. 어두 경음화 실태

3.1. 기초 조사

앞 장에서 필자는 어두 경음화의 등급은 양적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본고에서는 현장에서 언중들이 어느 정도 어두 경음화를 받음하고 있는지 계량적으로 파악하고 이의 정도를 나타내는 말로 ‘수치’라는 용어를 쓰도록 하겠다.

29) 그러나 각 등급 간의 명확한 기준을 알기 어렵다. 경음화 등급을 논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어휘에 대한 경음 실현 비율이 통계적으로 조사되어야 하는데, 방법론상 그 비율을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필자의 경험적 판단으로는 위에서 ‘시장(씨장), 시치미(씨치미), 슬쩍(쫄쩍)’ 등이 위와 같이 <1등급>으로 분류할 수 있을 만큼 경음화가 분명한지 의심스럽다.

- (8) ㄱ. 경음화 수치 1 : 어두 경음 실현율 50% 이상
- ㄴ. 경음화 수치 2 : 어두 경음 실현율 10% 이상-50% 미만
- ㄷ. 경음화 수치 3 : 어두 경음 실현율 10% 미만

경음화 수치를 사용하는 것은 설문 조사를 통해 어두 경음화에 대한 명확한 목록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또한 어두 경음화 현상은 현재 진행 중인 변화로 경음화 수치를 통해 각 항목에 대한 변화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어두 경음화 실태에 대한 선행 작업으로 필자는 먼저 어두 경음화가 실현되는 390개의 어휘 목록을 수집하였다. 이 목록은 앞선 연구자들의 목록과 필자가 보충하여 찾은 목록이다. 이들을 품사별³⁰⁾로 보면 명사 196개, 동사 110개, 형용사 57개, 부사 22개, 관형사 2개, 대명사 2개, 감탄사 1개로 나타나는데, 품사에 따른 어두 경음화의 특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표 1> 어두 경음화의 품사별 빈도

품사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관형사	대명사	감탄사	총
빈도	196	110	57	22	2	2	1	390

어종별로 보면 고유어가 301개로 전체의 77.1%, 한자어에서 어두 경음화를 보이는 것은 41개로 전체 10.5%에 해당된다. 국어의 반 이상이 한자어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어두 경음화 현상은 주로 고유어에서 실현되는 현상이며, 한자어의 어두 경음화 현상은 오히려 예외적인 현상이라고 할만큼 그 수가 적다.

<표 2> 어두 경음화의 어종별 빈도

어종	고유어	한자어	혼종어	총
빈도	301	41	48	390

경음화 현상 자체는 언어학적 현상이다. 그러나 어두 경음화 현상의 경우 선행하는 음절도 없고 형태소가 이어나는 위치도 아니기 때문에 음운론적 조건이나 형태론적 조건을 설정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어두 경음화 현상에서 살펴볼 수 있는 음운론적 조건이나 형태적 조건이란 첫 음절 자체의 음성적 특성³¹⁾이나 형태적 자질이다. 첫 음절 자체의 음성적 특성을 살피기 위해 초성에 나타난 자음에 따라 분류하였다.

30) 박동근(2000), 김유권(2004)에서도 품사별, 어종별 어두 경음화 분포를 제시하고 있는데, 필자와 같다.

31) 엄태수(1985)는 어두 경음화 현상이 실현된 어휘들이 첫 음절의 초성과 둘째 음성의 초성이 관련을 맺고 있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cor], [+cor]일 때 [+cor], [-cor] 또는 [-cor], [+cor]일 때 어두 경음화가 빈번히 발생하고, 순음과 구개음이 연결될 때에는 경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즉 조음기관의 원인도 경음화 현상의 이유로 본 것이다.

<표 3> 초성 자음에 따른 어두 경음화 빈도

어종	ㅅ	ㄱ	ㅈ	ㅂ	ㄷ	총
빈도	101	100	99	46	44	390

그 결과 ‘ㅅ(101)>ㄱ(100)>ㅈ(99)>ㅂ(46)>ㄷ(44)’의 순서로 분포를 보였다. 경음의 짝을 가지고 있는 자음은 모두 어두 경음화가 실현되는데, 특히 ‘ㅅ, ㄱ, ㅈ’에서 어두 경음화가 많이 나타난다.

3.2. 설문 조사

어두 경음화 연구는 크게 어두 경음에 대한 연구자의 경험적 지식을 바탕으로 하거나, 구체적인 현장 조사에 의존할 수 있다. 연구자의 경험에 의한 방법은 앞서 여러 연구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잘못된 선입관이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잘못된 결론에 이를 수 있다. 특히 어두 경음에 대한 판단은 화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현장 조사 방법은 다시, ①언중들의 대화를 관찰하여 기록하거나, 대량의 ②구어 말뭉치를 구축하여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며, ③설문 조사를 통해 어두 경음화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①의 방법은 김유권(2004)의 방법으로, 평소 지속적인 엿듣기로 다양한 어두 경음화 어휘들을 수집할 수는 있으나 특정 어휘의 반복적인 사용을 확인하거나 특히 ‘평음:경음’의 실현 비율을 확인하기 어렵다. ②의 방법은 매우 이상적이긴 하나 구어 말뭉치는 특히 구축하는 것이 쉽지 않아, 선행 작업의 어려움이 있고, 특정한 어휘에 대해 집중적인 연구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③은 ①과 ②의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으나 조사 어휘가 제한될 수 밖에 없으며, 조사 과정에서 피실험자들이 표준어 발음을 의식하여 결과에 다소 왜곡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조사 방법을 보완하면 충분히 현실 언어와 가까운 결과를 낼 수 있다고 보고 본 연구에서는 ③의 설문 조사 방법을 통해 21세기 초기 현대국어의 어두 경음화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³²⁾

본 연구를 위해서, 연구자는 148명의 피실험자를 대상으로 2009년 10월부터 12월까지 두 달간 대면 조사 방법으로 일일이 직접 조사하였다.

조사 방법은 먼저, 피실험자의 선입관을 배제하기 위해 설문 조사 목적은 알리지 않고 시행하였다. 피실험자로부터 쉽게 해당 어휘를 이끌어 내기 위해, 그림과 빈칸이 있는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실험자는 피실험자에게 빈칸이나 그림에 대한 설명을 하고 설문 어휘를 대

32) 설문 조사 방법으로 어두 경음화를 연구한 논문으로는 이선웅(2001)이 있다. 이선웅은 보기와 같이 예문을 제시하고 그 가운데 실제 발음하는 문제에 동그라미로 표시하도록 하는 설문 조사 방법을 사용하였다.

보기: 몸을 {구부리지()} / 꾸부리지()} 말고 똑바로 걸어라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피실험자가 조사의 의도를 파악하고, 표준발음을 의식할 수 있으며, 개인의 ‘평음’과 ‘경음’의 선택이 늘 절대적인 것이 아니어서,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선택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답하도록 하였고 질문을 두 번씩 하여 피실험자가 두 번 발음하도록 하였다. 아래 그림은 피실험자용과 설문지의 일부를 보인 것이다.

설문 자료

- 밑줄을 친고 다음 그림을 참고하여 [] 안에 쓴어갈 적당한 말을 대입해 주십시오.
- 동사나 명동사는 '-다' 형태로 대입해 주십시오.
-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평소 가장 자연스럽게 하는 말로 답해 주십시오.
- 같은 밑줄을 두 번 드립니다.

번호	참고 사항
1	- <u>합</u> 이 [] - <u>고</u> 럼이 []
2	 []가 <u>너</u> 무 <u>웁</u> 다 [] <u>든</u> <u>따</u> 다
6	 - <u>똥</u> 이 <u>똥</u> [] - <u>인</u> <u>승</u> <u>똥</u> []

그림 1. 어두 경음화 피실험자용 자료

어두 경음화 실태 조사를 위해 다양한 제보자가 필요했다. 따라서 10대부터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까지 될 수 있는 한 많이 확보하려고 하였다. 설문 조사를 할 때 70대 이상의 제보자들도 있었다. 그러나 70대 이상의 피실험자들은 실험자가 질문하는 것을 잘 알아 듣지 못했고 글씨가 안 보인다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제대로 된 발음을 얻기가 쉽지 않았다. 그리하여 70대 이상의 제보자는 제외하고 10대부터 60대까지만 포함시켰다. 다음은 제보자들의 성별, 연령별 분포이다.

<표 4> 제보자들의 성별, 연령별 분포

성별 나이	남	여	합계
10대	10	8	18
20대	27	23	50
30대	12	17	29
40대	7	8	15
50대	9	12	21
60대	5	10	15
합계	70	78	148

조사 어휘 항목은 모두 30개로, 어종에 따라 고유어와 한자어, 품사에 따라 명사, 동사, 형용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선정한 어휘는 어두 경음이 분명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두루 포함하였고, 무엇보다 설문에서 연령에 관계없이 피실험자들이 쉽게 해당 어휘를 답할 수 있는 것들로 하였다.

3.3. 실태 분석

3.3.1. 전체적인 어두 경음화 경향

조사 항목 30개에 대해 148명의 피실험자에게 발음을 유도한 결과 어두 경음화 비율은 33.3%로 나타났다. 어두 경음화 비율이 가장 높은 단어는 ‘수세미(쭈세미)’로 피실험자 148명 가운데 두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경음으로 발음하였다(경음 실현율: 98.6%). 반면에 어두 경음화 실현율이 가장 낮은 단어는 ‘작다(짜다)’로 148명의 피실험자 중 9명만 ‘짜다’로 발음하였다(경음 실현율: 6.0%).

각 조사 항목에 대한 어두 경음화 실현율을 정리하면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분석 대상 전체 어휘와 어두 경음화 비율

설문 항목	빈도(148명중)	어두 경음 실현율(%)
수세미	146	98.6
세다	135	91.2
족집게	135	91.2
소주	118	79.7
득	108	73.0
번데기	107	72.3
쇠	95	64.2
소나기	95	64.2
생맥주	84	56.8
꽃감	80	54.1
감방	68	45.9
삶다	53	35.8
부러지다	49	33.1
뒹다	47	31.8
구기다	38	25.7
진하다	37	25.0
가시	32	21.6
감다	30	20.3
좁다	26	17.6
자르다	25	16.9
당기다	22	14.9
고추	21	14.2
줄다	19	12.8
질기다	19	12.8
동그라미	17	11.5
권투	14	9.5
중국	12	8.1
두드리다	12	8.1
고소하다	12	8.1
작다	9	6.0

설문 목록 중 어두 경음 실현율이 10% 미만인 단어는 5개, 10% 이상 50% 미만인 경우

는 15개, 50% 이상 경음 실현율이 나타난 것은 10개다. 30개 어휘 중 어두 경음 실현율이 50% 이상 나타난 어휘는 10개로 어두 경음화 비율은 33.3%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30개 조사 항목에 대해 어두 경음화 수치를 제시할 수 있다.

- (9) ㄱ. 경음화 수치 1 : 세다, 소주, 소나기, 생맥주, 번데기, 쇠, 수세미, 족집게, 독, 꽃감
- ㄴ. 경음화 수치 2 : 고추, 구기다, 좁다, 진하다, 가시, 삶다, 닭다, 감다, 질기다, 부러지다, 당기다, 동그라미, 감방, 자르다, 줄다
- ㄷ. 경음화 수치 3 : 권투, 작다, 중국, 두드리다, 고소하다

경음화 <수치 1>로 분류된 목록들은 어두 경음 실현율 50% 이상으로, 현재 언중들이 으레 경음으로 발음하고, 청자들 역시 이를 이상하게 듣지 않으며, 크게 거부감이 없는 단계이다. 경음화 <수치 2>에 해당하는 어휘는 어두 경음화로 실현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선택적이며, <수치 3>은 어두 경음 실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10% 미만으로 나타난 목록들이다.³³⁾

<표 6> 어두 경음 실현율과 개수

어두 경음 실현율	개수	비율(%)
50% 이상	10	33.3
10% 이상-50% 미만	15	50.0
10% 미만	5	16.7

어두 경음화 실현율이 10% 이상~50% 미만인 비율이 50%인 것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단어에 대해 2개의 발음을 선택적으로 실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9ㄱ)과 같이 어두 경음 실현율이 50%를 넘는 목록들이다. 지금까지 어두 경음화 현상은 국어 순화의 대상으로 여기며 잘못된 발음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언중들이 현실 언어 생활 속에서 한 어휘를 50% 이상, 특히 그 가운데 90% 이상이 어두 경음화로 발음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심리적 작용 때문에 나타나는 잘못된 발음으로 돌리기는 어렵다.

<표 5>에서 보면 ‘세다³⁴⁾, 수세미, 족집게’는 어두 경음 실현율이 90%를 넘는다. 이들

33) 조사 항목 가운데, ‘구기다/꾸기다’, ‘동그라미/똥그라미’, ‘두드리다/뚫드리다’는 평음과 경음이 이미 표준어로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말이다. 그런데 설문 조사에 따르면 ‘구기다’의 경우 어두 경음 실현율이 25.7%로 나타났다 ‘동그라미’는 11.5%, ‘두드리다’는 8.1%로 나타났다. 앞에서 제시한 경음화 수치로 이야기한다면 ‘구기다’와 ‘동그라미’는 경음화 <수치 2>이고 ‘두드리다’는 경음화 <수치 3>이다. 어떠한 기준으로 어두 경음화가 일어난 형태가 표제어로 올라가 있는지 의문스럽다. 실제 현실 속에서 어두 경음화가 굳어진 형태들의 많은 경우가 사전에 표준어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 앞으로 어두 경음화가 된 형태들이 표준어로 인정된다면 경음화 <수치 1>의 목록들이 우선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4) 이미재(1993)는 된소리가 감정의 극대화를 나타낸다고 본다. 따라서 ‘세다’가 [s'eda]로 될 때는 ‘count’의

어휘는 발음에서 경음이 실현될 뿐만 아니라, 표기면에서도 일반 언중들이 ‘세다, 쭈세미, 쪽집게’ 등으로 쓰는 경향이 높아, 이미 언중들은 오히려 경음 쪽을 표준발음으로 인식하는 경향마저 있다.

3.3.2. 성별

전체 제보자는 148명으로 남자는 70명, 여자는 78명이다. 각 항목별 성별에 따른 어두 경음 비율을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표 7> 제보자의 성별에 따른 어두 경음화 비율

어휘	성별	빈도 (남자: 70명 여자: 78명)	어두 경음 실현율(%)
세다	남성	62	88.6
	여성	73	93.6
고추	남성	10	14.3
	여성	11	14.1
구기다	남성	21	30.0
	여성	17	21.8
소주	남성	59	84.3
	여성	59	75.6
좁다	남성	13	18.6
	여성	13	16.7
권투	남성	8	11.4
	여성	6	7.7
작다	남성	6	8.6
	여성	3	3.8
진하다	남성	15	21.4
	여성	22	28.2
중국	남성	7	10.0
	여성	5	6.4
소나기	남성	41	58.6
	여성	54	69.2
생맥주	남성	40	57.1
	여성	44	56.4
가시	남성	16	22.9
	여성	16	20.5

미가 아니라 ‘very strong’ 또는 ‘strongest’이다. 된소리로 [s'eda]라고 하면 최상급의 의미를 대신한 것으로 보고 최대의 효과를 필요로 하는 감정을 된소리로 표현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21세기 현실 언어 속에서 ‘세다’를 [세-]로 발음한 것이 최상급의 의미를 대신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번데기	남성	56	80.0
	여성	51	65.4
쇠	남성	42	60.0
	여성	53	67.9
삶다	남성	30	42.9
	여성	23	29.5
수세미	남성	69	98.6
	여성	77	98.7
족집게	남성	63	90.0
	여성	72	92.3
뒹다	남성	20	28.6
	여성	27	34.6
감다	남성	12	17.1
	여성	18	23.1
득	남성	48	68.6
	여성	60	76.9
질기다	남성	11	15.7
	여성	8	10.3
부러지다	남성	21	30.0
	여성	28	35.9
꽃감	남성	40	57.1
	여성	40	51.3
당기다	남성	11	15.7
	여성	11	14.1
동그라미	남성	6	8.6
	여성	11	14.1
감방	남성	35	50.0
	여성	33	42.3
자르다	남성	14	20.0
	여성	11	14.1
두드리다	남성	8	11.4
	여성	4	5.1
고소하다	남성	6	8.6
	여성	6	7.7
즐다	남성	8	11.4
	여성	11	14.1

30개 설문 항목 중 남성이 어두 경험화 비율이 높은 경우는 18개로 경험 실현율이 60% 이고 여성이 어두 경험화 비율이 높게 나온 경우는 12개로 경험 실현율이 40%이다. 통상 적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거친 발음을 한다고 알려진 것처럼 설문 조사에서도 남성이 어 두 경험 실현율이 높게 나타났다.³⁵⁾

(10) 남녀에 따른 어두 경음화 선호 어휘

- ㄱ. 남성 선호: 고추, 구기다, 소주, 좁다, 권투, 작다, 중국, 생맥주, 가시, 번데기, 삶다, 질기다, 꽃감, 당기다, 감방, 자르다, 두드리다, 고소하다
- ㄴ. 여성 선호: 세다, 진하다, 소나기, 쇠, 수세미, 족집게, 뒹다, 감다, 독, 부러지다, 동그라미, 줄다

남녀에 따른 어두 경음화의 빈도 차이가 유의미할 만큼 크게 두드러지지는 않다. 또한 남녀에 따라 어두 경음화 선호 어휘가 다른 것이 사회적 역할과 관련³⁶⁾이 있는지의 여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3.3.3. 연령별

연령에 따른 어두 경음화의 차이는 경음화의 통시적 특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주목을 받았다. 전체 제보자는 148명 가운데 여자는 78명, 남자 7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연령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

<표 8> 연령별 제보자

	남	여	합계
10대	10	8	18
20대	27	23	50
30대	12	17	29
40대	7	8	15
50대	9	12	21
60대	5	10	15
합계	70	78	148

35) 김유권(2004)에서도 남성 65.9%, 여성 34.1%로 남성들이 경음화를 주로 많이 쓰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36) 남성과 여성의 언어적 차이를 이야기할 때 성선택적 차이에 따라 남성어와 여성어가 구분된다. 성선택적 차이란 남성어와 여성어가 같은 어휘나 표현을 사용하지만, 그것이 사용하는 상대적인 빈도수에 차이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구현정·전영옥(2005)은 성선택적 차이가 생기는 원인을 “첫째,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역할의 차이가 주된 원인이 된다. 주로 밖에서 활동하는 남성어는 혁신적이지만, 가정 생활을 주로 하는 여성어는 보수적이다. 둘째, 생활 영역의 차이가 원인이 된다. 남성어에는 운동이나 직업 용어가 많이 쓰이고 여성어에는 색채어나 감각어가 많이 쓰인다. 셋째, 문화적 원인이다. 농경 문화와 유교 문화의 영향으로 남성중심의 세계관이 형성되고, 남성 중심의 문화를 가지면서 언어도 남성을 나타내는 표현이 주가 되어 나타난다. 넷째, 기질적인 원인이다. 남성은 거칠고 딱딱하고 단호하지만, 여성은 부드럽고 온순하고 공손하다. 이러한 기질은 언어에도 반영되어 남성어에는 격식성과 직접성이 나타나고 여성어는 친화력과 간접성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표 8>에서 보듯이 연령별 분포가 고르지 못하고 20대와 30대에 치우쳐 있어서 연령별 어두 경음화의 차이를 정밀히 살피는 것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연령별 균형을 맞추고 나이에 따른 어두 경음화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각 연령별로 10명³⁷⁾을 선정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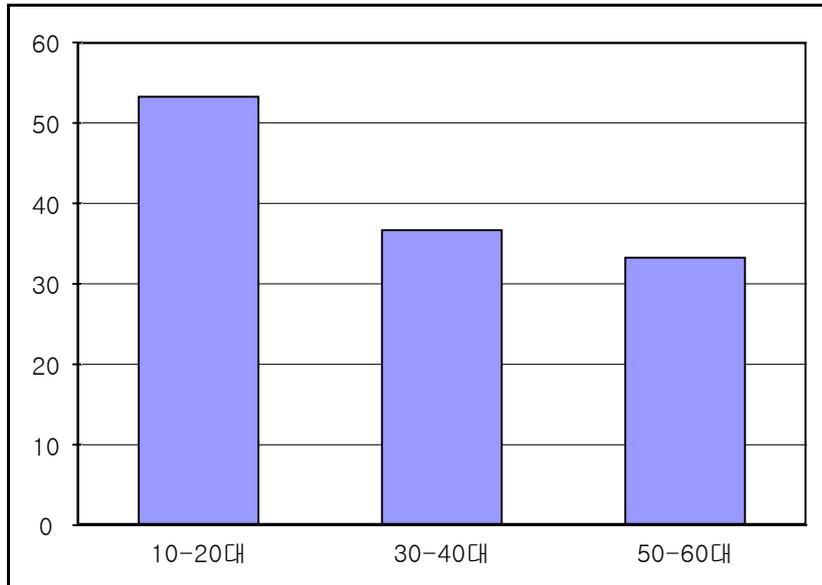


그림 2. 연령별 어두 경음화 비율

30개 조사 항목에 대해 연령에 따른 어두 경음화 비율은 위의 그래프와 같이 10-20대가 53.3%였고 30-40대가 36.7%였으며, 50-60대가 33.3%로 나타났다. 젊은 10-20대에서 어두 경음화 현상이 50-60대의 어두 경음화 비율과 확연히 구분되어 연령이 높아질수록 어두 경음화 현상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연령에 따른 어두 경음화 현상을 비교하는 것은 공시적 언어 현상을 통해 통시적인 음운 변동 과정을 살펴보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두 경음화 현상은 수의적이고 개별적이어서 단어마다 어두 경음화 실현 정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는 연령별 분포에서도 마찬가지로인데 전체 비율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9> 연령별 어두 경음화 비율(전체)

	10-20대		30-40대		50-60대	
	빈도(20명중)	비율(%)	빈도(20명중)	비율(%)	빈도(20명중)	비율(%)
세다	20	100	18	90	20	100
고추	3	15	4	20	6	30

37) 연령별로 남녀 각각 5명을 뽑아 각 연령별 10명을 선정하고 10-20대(20명), 30-40대(20명), 50-60대(20명)로 나누어 살펴본다.

구기다	8	40	7	35	7	35
소주	20	100	16	80	11	55
좁다	8	40	4	20	3	15
권투	6	30	2	10	0	0
작다	5	25	2	10	0	0
진하다	11	55	6	30	3	15
중국	5	25	4	20	2	10
소나기	13	65	13	65	12	60
생맥주	15	75	13	65	10	50
가시	8	40	6	30	1	5
번데기	18	90	14	70	12	60
쇠	17	85	12	60	12	60
삶다	11	55	8	40	7	35
수세미	20	100	20	100	20	100
족집게	18	90	17	85	19	95
뒹다	10	50	4	20	7	36
감다	13	65	3	15	4	20
독	16	80	15	75	16	80
질기다	7	35	2	10	4	20
부러지다	13	65	6	30	7	35
꽃감	11	55	18	90	12	60
당기다	7	35	3	15	5	25
동그라미	5	25	3	15	1	5
감방	17	85	10	50	4	20
차르다	8	40	3	15	6	30
두드리다	7	35	1	5	2	10
고소하다	6	30	0	0	0	0
줄다	9	45	3	15	1	5

<표 9>에서 보면 세대를 막론하고 모두 어두 경음화 현상이 나타나는 단어들이 있다. ‘세다, 소주, 소나기, 생맥주, 번데기, 쇠, 수세미, 족집게, 독, 꽃감’이다. 이들 단어는 연령에

상관없이 어두 경음화 실현율이 50%가 넘는다. 또한 10개의 목록은 전체 148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도 어두 경음화 비율이 높은 단어들이며 남녀 관계없이 높은 어두 경음 실현율이 나타났다. 앞에서 이러한 목록을 경음화 <수치1>로 분류하였다. 이들은 세대를 초월해 어두 경음이 완성되었다고 볼 만하다.

<표 10> 연령별 어두 경음화 비율(연령 차이가 적은 경우)

	10-20대	30대-40대	50대-60대
세다	100	90	100
족집게	90	85	90
수세미	100	100	100

반면에 세대에 따라 어두 경음 비율에 차이를 보이는 것들이 있다.

<표 11> 연령별 어두 경음화 비율(연령 차이가 큰 경우)

	10-20대	30-40대	50대-60대
소주	100	85	55
줄다	40	15	5
좁다	30	10	0
권투	30	10	0
진하다	55	30	15
가시	40	30	5

<표 11>의 보기들은 세대에 따라 어두 경음화의 차이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50-60대에서 10대로 내려올수록 경음화 비율이 높아지는 것들이다. 문제는 <표 11>과 같은 모습이 통시적으로 어두 경음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연령에 따른 공시적인 어두 경음화 선호도에 따른 차이인지는 더 두고 볼 일이다.³⁸⁾

대부분의 어휘들은 젊은 세대로 갈수록 어두 경음화 현상이 증가한다. 반면에 ‘고추’의 경우는 연령이 높을수록 어두 경음화 현상이 높게 나타났다. ‘고추’의 경우 10-20대는 15%, 30-40대는 20%, 50-60대는 30%로 실현되었다.

38) 이에 대한 분명한 결론은 20~30년 뒤에나 확인이 가능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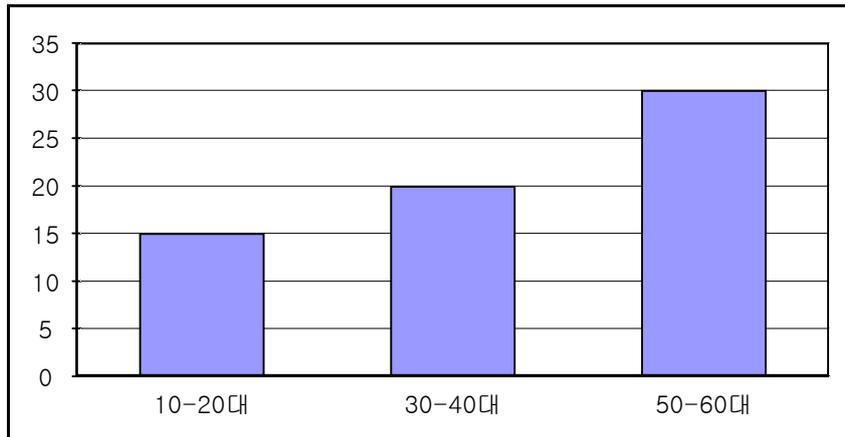


그림 3. '고추'의 연령별 어두 경음 비율

4. 맺음말

이 연구는 21세기 초기 현대국어의 어두 경음화 실태를 조사하고, 그 현상을 분석하기 위한 기초적 연구로 수행하였다. 먼저 연구사를 통해 어두 경음화 현상에 대한 논의가 이미 1930년대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어두 경음화 현상이 최근 국어의 모습이 아니며,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음운 변화의 한 과정임을 확인하였다. 그런 점에서 본 연구는 어두 경음화 현상이 개별적이고,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라, 현대국어에서 좀더 비중 있게 다루어야 할 핵심 과제로 인식하였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어두 경음화 실태를 파악하고 객관적으로 자료를 분석하는 일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현장에서 언중들이 어느 정도 어두 경음화를 실현하고 있는지 설문 조사를 통해 계량적으로 파악하고 <경음화 수치>라는 개념을 새로 세워 어두 경음화에 대한 명확한 목록 분류와 현재 진행 중인 어두 경음화에 대한 변화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었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어두 경음화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체적인 어두 경음화 선호도를 살펴보았다. 전체 체보자는 148명(남70, 여78)으로 30개 조사 항목에 대한 어두 경음화 비율은 33.3%로 나타났다. 어두 경음화 비율이 가장 높은 단어는 '수세미'로 경음 실현율이 98.6%였고 어두 경음화 비율이 가장 낮은 단어는 '작다'로 경음 실현율이 6%였다. 어두 경음 실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성별과 연령을 변항으로 보았다. 그 결과 남성이 여성에 비해 경음 실현율이 높았고 젊은 10-20대에서 어두 경음화 현상이 활발히 나타났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어두 경음화 현상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는 21세기 어두 경음화 실태를 현장 조사를 통해 경음화 정도를 명시적으로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다만 조사 어휘에 제한이 있었으며, 가능한 한 현실 발음을 이끌어 내려고 하였으나, 여전히 설문조사라는 한계가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어두 경음화 원인이나 경음화를 제약하는 원리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았다. 이는 어두 경음화의 실태에 대한 철저한 사전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구현정, 전영옥(2005), 의사소통의 기법, 박이정.
- 김민수(1964), 신국어학, 일조각.
- 김방한(1986), 언어 변화에 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한글 194, 한글학회.
- 김유권(2004), 경음화 현상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겨레어문학 32, 겨레어문학회.
- 김형규(1961), 국어 강음화 현상에 대한 고찰, 국어국문학 24, 국어국문학회.
- 박동근(2000), 말머리에 나타나는 이유 없는 된소리 현상 연구, 언어학 27, 한국언어학회
- 송민석(1990), 현대국어의 어두 “과”에 일어나는 경음화 현상 : 사회언어학적 분석, 이문논
총 9,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 엄태수(1985), 현대국어의 경음화 현상에 대한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오정란(1988), 경음의 국어사적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오정란(2002), 국어 경음화 연구의 과제와 전망, 한국어학 17, 한국어학회.
- 우인섭(1976), 경음화 현상과 감정의 경화, 어문연구 12.
- 이미재(1993ㄱ), 된소리 현상의 새 분석, 말소리 25, 대한음성학회.
- 이미재(1993ㄴ), 언어 변화의 사회적 요인 연구, 언어학 15, 한국언어학회.
- 이선웅(2001), 사회 집단에 따른 어두 경음화 양상, 계량언어학 1, 박이정.
- 이익섭(1994), 사회언어학, 민음사.
- 임지룡(1992), 국어 의미론, 탑출판사.
- 최현배(1937), 우리말본, 정음문화사.
- 허웅(1995), 국어 음운학, 샘문화사.

21세기 국어의 어두 경음화 실태

김유권(대진대학교)

1. 경음화 문제와 관련하여 최근 국어 음운 연구에서 활발히 일어나는 관심 가운데 하나는 언어 내적인 요인으로 설명되지 않는 어두 경음화 현상에 대한 규명이다. 언어 내적인 경음화 즉 된소리되기 현상은 이미 변동 규칙 등 앞선 학자들에 의해 충분히 논의되었지만 어두의 경음화 현상에 대해서는 실태 조사와 함께 원인 규명을 다각적인 방면에서 찾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계량 언어학적 접근이나 사회 언어학적 접근이 그렇다고 할 수 있다.

2. 이 연구는 '어두음이 경음화되는 현상'을 계량적 방법으로 살피고, 그 실현 양상에 대한 설명을 언어학적 방법으로 모색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의의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밝히고 있듯이, 정확한 실태 파악이 전제되지 않고는 그 원인 규명이 가능할 수 없다. 정확한 실태를 계량화하여 이해를 도모한 것은 이 연구가 경음화 실태에서 더 나아가 양상 내지 경향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니는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3. 연구사적인 관점에서 이 연구는 어두의 경음화에 대한 심리적인 접근에서부터 사회언어학적 접근까지 빠짐없이 정리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연구자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사회 언어학적인 측면에서의 경우, 어떠한 것을 사회 변이로 두고 연구했는가를 정확히 기술함으로써 흐름을 이해하는데 좋은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4. 다만 다음과 같이 생각되기도 한다. 첫째는 연구 목적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앞서 방법은 계량적으로 한다고 밝혔지만 그 해석을 언어학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 언어학적이란 것이 언어 내적인 관점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측면을 말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 연구의 중심은 어두 경음화의 실태 파악에 있지만 어떤 목적으로의 실태 파악인지가 명시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5. 둘째는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와 그 결과에 대한 분석의 방법이다. 우선 현장 조사 방법에서 설문지법만으로 정확한 자료 수집이 가능할 지에 대한 의문이다. 이 연구에서 제시했던 방법 모두를 연령에 따라 상황에 따라 적절히 응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 연구에서 연령만 조사했는데, 그 제보자의 지역과 교육 정도도 중요한 측면이리라고 생각한다.

6. 셋째로 계량화된 실태를 분석하는 방법에 있어서 빈도에 따른 비율만 수치로 파악했는데 각 연령별 추이를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는 시각자료나 크루스칼-월리스의 순위일원분산 분석(Kruskal-Wallis Test) 등의 방법으로 분석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7. 끝으로 경음화 실현율과 함께 선호율의 문제도 함께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떨까라고 제안해본다.

-좋은 발표해주신 한명숙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한국어 ㅎ구개음화에 대한 통시적 고찰

안대현(연세대학교)

□ 차례 □

1. 머리말
 2. 문헌 자료의 검토
 - 2.1. 자료의 정리
 - 2.2. 자료의 비판
 3. 음운사적 고찰
 - 3.1. 발생 시기 및 지역
 - 3.2. 발생 순서
 4. 맺음말
- 참고문헌

1. 머리말

구개음화(입천장소리되기)는 한국어 음운사 연구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지고 가장 많은 성과를 거둔 주제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평안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변화를 겪은 ㄷ구개음화가 가장 중심적으로 다루어졌고, 한반도의 남부와 동부에서 나타나 지역적 성격이 강한 ㄱ구개음화에 대한 연구도 적지 않다. 이에 비해 ㅎ구개음화를 면밀하게 고찰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편이다.

한국어에서 ‘ㅎ구개음화’로 부를 수 있는 현상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ㅎ(h)/가 /ㅣ(i)/나 /ㅈ/ 앞에서 경구개변이음 [ç]로 실현되는 공시적 음성 변이이고, 다른 하나는 /ㅎ/가 /ㅣ/나 /ㅈ/ 앞에서 /ㅅ/로 바뀌는 통시적 음운 변화이다.³⁹⁾ 이 발표의 연구 대상은 통시적 음운 변화로서의 ㅎ구개음화이다. 발표자는 안대현(2007)에서 ㄷ구개음화를, 그리고 안대현(2009)에서 ㄷ구개음화를 문헌 자료 중심으로 고찰한 바 있다. 이 발표에서는 주로 문헌 자료에 초점을 맞추어 ㅎ구개음화를 고찰하고자 한다.

2. 문헌 자료의 검토

2.1. 자료의 정리

앞선 연구에서 ㅎ구개음화의 반영으로 제시된 문헌 자료의 예들을 시기별로 정리하면 다

39) 배주채(1996)에서는 이들을 각각 ‘h구개음화’와 ‘ㅎ구개음화’라고 일컬어 구별하였다.

음과 같다. 각각 ㄱ은 흥구개음화의 예, ㄴ은 그 과도교정의 예로 제시된 것이다.

(1) 16세기

- ㄱ. 1567 몽산화상육도보설 : 흥 섯그티라 = 一舌頭 <38a>
 1577 사범어언해 : 有元老로成성兄성弟데, ㅍ든 兄성弟데 道도 일우니 <15a>
 15xx 순천김씨묘연간 : 너드려 니르다 속져리랴 슈지로다 <83번>⁴⁰⁾, 네 뵈는 내 일 잡
 디 못흥고 하 심심흥니 보내려 맞더더니 <9번>, 내 맛슴 먹는 뜯과 이리 다르니
 지극 심심흥예라 <61번> 기두리다가 못흥여 ㄱ장 심심흥여 흥벼 <72번>
 15xx 구황촬요(을해자번각본) : 유포의 상일흥문 느낌이니 = 榆皮郷名於乙邑 <3a>
 15xx 치문경훈(석륜암판) 기입 구결 : 선화 喧譁 <7b>
 1597 선조연간 : 왜적도 ㄱ올히 전라도 티려 흥다 흥는 (꺀)별도 이시니 더욱 심심흥야
 흥노라
 ㄴ. 1576 백련초해 : 上 마디 향 <14b>
 15xx 신증유합 목활자본 : 椽 현 연 <상:23a>, 轡 혁 비 <상:31b>

(2) 17세기

- ㄱ. 1632 두시언해(중간본) : 길흥로 셔 가고 = 引徑 <14:39a>⁴¹⁾
 16xx 진주하씨묘연간 : 드러간느니라 세고 이시니 <140번>⁴²⁾, 주금 살물 세지 아니흥
 라, 명지 선 것 <145번>, 명지 설 거시나 <150번>, 명지 설 거순, 명지 설 디 업
 서, 세 대를 설 디 주매 <163번>, 심심이 너기실 거시니 <8번>, 심심흥 이리 하
 만하 <27번>, 하 심심흥여 이만 <43번>, 녕산 아기는 오늘 장재골로 가니 혼자서
 더욱 심심흥여 흥벼 <41번>, 하 심심흥 이리 만흥니, 고단코 심심흥여 민망흥여
 흥벼 <49번>, 설마 도타 흥시고 아니흥 동싱 들러다가 마옵쇼셔 <126번>
 1664 유합(칠장사판) : 縣 고을 선 <12a>, 胸 가슴 슌, 力 심 녁 <13b>, 料 셔아닐 료
 <16b>, 勤 심슬 근 <27a>, 携 자블 슌, 狹 조을 설 <29a>, 凶 슌홀 슌 <31a>
 1674이전 인선왕후연간 : 슈지도 못 덕스오물 섭섭흥와 흥옵느이다 <52번>⁴³⁾, 숙경이
 는 돌림니질을 어덧흥가 시브니 그런 심심 민망흥 이리 업서 흥노라 <59번>, 더
 리 민망 심심흥 일이 업서 흥노라 <89번>, 심심 둥 소일흥가 든든 깃벼흥노라
 <73번>, 부마도 혼자 심심이 디내흥가 시브매 <117번>
 1676 첩해신어 : 어제는 하 심심흥매 = さくしつわあまりとせんさに <9:6b>, 館中도
심심흥매 = くわんちうもことさひしに <9:11b>, 엇디흥야 우리 늙는 일은 다 슌
지 사르시고 = などしてこちの申ことわみなほうくにめされて <4:19b>
 1690 역어유해 : 揜揜 실흥흥다, 迭揜 실흥흥다 <하:23a>, 擲揜 실흥흥다 <하:23b>
 1700 유합(영장사판) : 胸 가슴 슌 <13b>, 料 셔이닐 료 <16b>, 凶 구을 슌 <31a>
 ㄴ. 1617 동국신속삼강행실도 : 혁을 잡고 노티 아니흥대 = 執轡不放 <삼강충:2b>, 앞꺀
 시둥의 혁을 자바 곶오티 = 前執侍中馬轡曰 <신속효1:62b>
 1670 노걸대언해 : 혁 바구레 밋마기 다흥혁 = 接絡 籠頭 包糞 編纏 <하:27a>
 1677 박통사언해 : 현 = 椽 <하:12b>, 헛가래 = 椽子 <하:46a>
 1690 역어유해 : 椽 현 <상:17a>, 擺椽 혁 거다 <상:19a>, 接絡 혁 <하:20a>, 編纏 다
 흥현 <하:20a>

40) 연간의 번호는 조항범(1998)의 것이다.

41) 도수희(1994)에서 “즈조 쇼근 나라해 가뭇 놀라노니 <7:32a>”도 들었으나, 원문에는 “효근”으로 되어 있
 다.

42) 연간의 번호는 백두현(2003)의 것이다.

43) 연간의 번호는 김일근(1986)의 것이다.

1682 마경초집언해(현종실록자본) : 혈련골 = 舌連骨 <상:56b>

1700 유합(영장사판) : 舌 혀 혈 <13a>

(3) 18세기

ㄱ. 1704 엽불보권문(예천용문사판) : 부모 쇼양허거나 = 孝養父母 <7a>, 불 셔고 = 燈燭 <9a, 20b, 21a>, 불 셔고 <20b>, 충신 쇼직 아니라 허신니 = 豈可名爲忠孝者哉 <13a>, 쇼양과 <29b, 31a>, 눈와 코와 셔와 <39a>, 눈과 코과 셔과 <39b>, 셔 빼며, 셔여 보소 <42b>

17xx 마경초집언해(무신자본, 목판본) : 숭당혈 = 胸堂穴 <58a>⁴⁴⁾

1748 동문유해 : 歪靠 시즈리다 <상:27b>, 揜揜 실흠하다 <하:33a>

1764 엽불보권문(동화사판) : 설령 벼슬 = 縣令 <23b>, 도로셔 <왕낭전:26a>

1775 역어유해보 : 歪靠 시즐이다 <26a>

1776 엽불보권문(해인사판 규장각본) : 션씨 = 玄氏 <49a, 49b, 51a>, 샹을 쏘고 = 燒香 <50a>, 부체임 심으로, 션전 아미타블리 = 現前阿彌陀佛 <50b>

1776 엽불보권문(해인사판 계명대본) : 세알님이 업는 고로 <50a>, 상허야 = 尙 <50b>, 아미타블 심으로 <51a>

1778 방언유석 : 歪靠 시즐이다 <申部方言:22a>

1790 몽어유해 : 歪靠 시즈리다 <상:21a>, 揜揜 실흠하다 <하:26b>, 牛筋 쇠심 <하:32a>, 蟻子 셔 <하:35b>

1790 첩해몽어 : 다만 시즈려 눕고 시분지라 <2:5b>

ㄴ. 1704 엽불보권문(예천용문사판) : 현왕지 <30b>

1748 동문유해 : 扯手 혁 <하:20a>

1776 엽불보권문(해인사판 계명대본) : 인간 헤케이라 <40b>, 형은 현씨요 <49a>, 각형(覺聖) <51a>

1778 방언유석 : 扯手 혁 <亥部方言:6b>, 椽子 혁 <西部方言:19a>

2.2. 자료의 비판

ㅎ구개음화의 예나 그 과도교정의 예로 제시된 것은 대체로 남부방언을 반영한 문헌에 나타나는데, 이러한 경향에서 벗어나는 것으로는 16세기의 예 가운데에서 (1ㄱ)의 ‘슈지’와 ‘심심하다’와 ‘샹일흠’, 그리고 17세기의 예 가운데 ‘실흠’이 있다.

우선 ‘슈지’는 17세기 문헌 가운데 (2ㄱ) 『첩해신어』 초간본에도 나타나는데, 같은 책의 다른 곳에 ‘휴지’로도 나타나고,⁴⁵⁾ 후대의 『중간첩해신어』에 ‘휴디’로 바뀌어져 있으므로,⁴⁶⁾ ㅎ구개음화의 예가 분명하다. 그리고 일본어 ‘ほうく’와 대응되는 점,⁴⁷⁾ 문맥으로도 ‘슈지 삼다’가 ‘쓰레기 취급하다’의 의미라는 점도 근거가 된다. 『첩해신어』의 저자인 강우성이 경상도 진주 출신이고 부산에서 여러 차례 왜학 훈도를 지냈으므로, 『첩해신어』 초간본의 ‘휴지>슈지’는 경상방언의 영향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순천김씨묘연간」의 ‘슈지’는 서울

44) 17세기 자료로 제시된 경우도 있으나, 1682년에 간행된 현종실록자본 『마경초집언해』에는 구개음화의 예가 나타나지 않고 (2ㄴ)처럼 ㅎ구개음화의 과도교정 ‘혈련골’만 나타난다. 최근에 목판본의 저본으로 추정되는 무신자본이 발견되었는데, 18세기 전반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ㄱ구개음화와 ㅎ구개음화의 예가 나타나는 점도 목판본과 같다. 따라서 목판본은 그 이후에 간행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5) 이리 슬오믈 휴지 삼디 마음소 = こう申おほうくにさしらるな <9:15b>

46) 언디허여 우리 늙는 일은 다 휴디 삼으시고 = なせにこのほうの申ことわみなほくにさつしやれて <4:25b>

47) 일본어의 ほうく(反古·反故)는 ‘글씨나 그림이 쓰인 종이로 못쓰게 된 것’을 의미한다.

출신인 김훈(金燾)의 인간에만 나타나고, 대역 자료가 아니라서 문맥적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⁴⁸⁾ (2ㄱ) 「인선왕후언간」의 ‘슈지’처럼 ‘편지’를 가리키는 단어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학중앙연구원 편(2005, 2009a, 2009b)에 실린 인간에서도 (4)처럼 ‘슈지’는 편지를 가리킬 때만 사용되고 이러한 문맥에 ‘휴지’가 사용된 경우는 발견되지 않으므로, 『첩해신어』의 ‘슈지~휴지’와 별개의 단어일 가능성이 있다.

(4) ㄱ. 이 습장동 마노라 슈지 내 관 속의 녀흐라 <총암공수목내간 6번>⁴⁹⁾

ㄴ. 이 편지 슈지로는 보아라 즈즈히 정을 머곰으신 말씀이오 말씀마다 괴특호오시니 <임창계선생목보 18번>

ㄷ. 이 슈지는 천 번은 보아도 습마다 울니니 <임창계선생목보 18번>

ㄹ. 우리 아우님 옥슈 친필을 바다 보니 이 문득 인간 사인인 듯 회역 반기고 직삼 살오니 형제 일석 상봉호여 그리고 서린 정희 온 듯호나 슈지 허스라 <초계정씨언간 25번>

ㅁ. 하셔 밧즈와 탐탐 회한 반갑습기 달포 그리웁던 부녀 만나온 듯 반갑스오나 노호니 슈지라 섭섭 굿부오며 <의성김씨 김성일과 종택언간 99번>

‘심심하다’도 17세기 (2ㄱ) 『첩해신어』 초간본의 ‘심심하다’는 일본어 ‘とせんさに’과 ‘さひしに’에 대응되어 ‘한가하다, 무료하다’의 의미로 사용되므로,⁵⁰⁾ ‘힘힘하다’에서 ㅎ구개음화를 겪어 변화한 형태임이 틀림없다. 이 역시 경상방언의 영향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에 비해 16세기 「순천김씨묘언간」, 「선조언간」은 남부방언의 영향을 생각하기 어렵다. 「순천김씨묘언간」의 ‘심심하다’는 김훈(金燾)이 쓴 언간, 강씨(康氏)가 쓴 언간, 채무이(蔡無易)가 쓴 언간에 두루 나타나기 때문이다.⁵¹⁾ 또 의미적으로도 이들과 17세기의 (2ㄱ) 「진주하씨묘언간」의 ‘심심하다’는 ‘답답하다, 심란하다’의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한가하다, 무료하다’의 의미를 가진 ‘심심하다’와 별개의 단어일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조항범(1998)과 백두현(2003)에서는 「순천김씨묘언간」과 「진주하씨묘언간」의 ‘심심하다’를 ㅎ구개음화의 예로 다루지 않았다. (2ㄱ) 「인선왕후언간」의 경우, 앞의 두 예는 ‘답답하다, 심란하다’의 의미로 파악되고, 뒤의 두 예는 ‘한가하다, 무료하다’의 의미로 파악된다. 안대현(2009:131)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인선왕후가 중앙어 화자라고 단정할 근거가 없으므로,⁵²⁾ 16~17세기 왕실 언간 가운데 오직 인선왕후의 언간에서만 ㄷ구개음화와 ㅎ구개음화의 명확한 예가 발견되는 것은 인선왕후의 언어가 남부방언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은 아닐까 한다.

‘상일흙’은 김주원(1997a)에서 ㅎ구개음화의 예로 제시되었으나, 김동소(1998:183 주13)에서 『구황촬요』가 남부방언을 반영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鄉일흙’이 아니라 ‘常일흙’일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을해자본을 번각한 『구황촬요』는 16세기 중

48) 김주원(1997a, 2000)에서 “이 단어가 휴지(休紙)에서 왔다면”이라는 신중한 표현을 사용한 것도 문맥적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일 것이다.

49) 인간의 번호는 한국학중앙연구원 편(2005, 2009a, 2009b)의 것이다.

50) 일본어 ‘とせん(徒然)’은 ‘무료함, 심심함’의 의미를 가진 말이고, ‘さびしい(寂しい)’는 ‘한적하다, 허전하다, 쓸쓸하다’의 의미를 가진 말이다.

51) 김주원(1997a, 2000)에서 “이 예는 16세기 중엽의 충북방언에서 ㅎ구개음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된다”라고 하였으나, 「순천김씨묘언간」을 충북방언의 반영으로 보기는 어렵다. 조항범(1998)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순천김씨의 아버지 김훈은 서울 출신, 어머니 신천 강씨는 경상도 선산 출신, 남편 채무이는 서울 출신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안대현(2009)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순천김씨묘언간」에서 ㄷ구개음화의 예는 신천 강씨가 쓴 언간에만 나타나므로 경상방언의 반영으로 볼 수 있다.

52) 『현종실록』 개수본의 지문(誌文)에 따르면, 인선왕후는 6세 때부터 조모인 밀양 박씨의 슬하에서 자라다가 13세 때 입궐하게 된다. 따라서 밀양 박씨의 언어가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양어를 반영한 것으로 추정되는데,⁵³⁾ 16세기에 중앙에서 간행된 『소학언해』에도 (5)처럼 ‘鄉人’을 ‘상사름’으로 언해한 예들이 나타난다. 따라서 ‘상일흙’과 ‘상사름’을 ‘鄉일흙’과 ‘鄉사름’의 ㅎ구개음화형으로 보기보다 ‘常일흙’과 ‘常사름’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 (5) ㄱ. ㅅ.오.히려 상:사:름 되.음.을 免.티 :뎡.ㅎ.얏노.니 = 猶未免爲鄉人也 <4:1b>
 ㄴ. ㅅ.을 상:사:름.으로븐.터 = 自鄉人 <6:12b>

17세기의 예 가운데는 (2ㄱ) 『역어유해』의 ‘실흙’이 문제가 된다. 『역어유해』의 삼엽본은 17세기말의 중앙어를 반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실흙’은 홍윤표(1985), 이명규(1992), 김주필(1994) 등에서 ㅎ구개음화의 예로 제시되었는데, 이는 15세기의 ‘입힐흙’을 현대국어의 ‘입씨름’과 관련시켰기 때문인 듯하다. 그러나 (6)과 같이 15세기부터 ‘실흙, 실흙’으로 나타나므로, ‘힐흙’과 ‘실흙’은 별개의 단어로 보아야 할 것이다.

- (6) ㄱ. 調達이와 難陁왜 서르 실흙ㅎ니 돌회 히미 곤거늘 <1447 석보상절(번각본) 3:13a>
 ㄴ. 相攄는 븐들씨오 相撲은 실흙이라 <1463 법화경언해 5:13b>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1ㄱ)의 ‘슈지’와 ‘심심ㅎ다’와 ‘상일흙’, 그리고 (2ㄱ)의 ‘실흙’은 다른 ㅎ구개음화의 예들과 달리 ‘휴지’, ‘힘힘ㅎ다’, ‘鄉’, ‘힐흙’의 변화형이라는 명확한 근거를 찾기 힘들다. 또 이 예들은 모두 중앙어를 반영한 문헌에 나타난다는 점도 공통적이다. 17세기에도 남부방언을 반영한 자료에만 ㅎ구개음화의 예가 나타난다는 점, ㄱ구개음화나 ㄱ구개음화의 예가 중앙어를 반영한 16~17세기 문헌 자료에서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은 ㅎ구개음화의 예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한편, 김주원(1997b: 283)에서 제시한 (1ㄱ)의 ‘선화’는 한자의 자형(字形)이 비슷해서 한자음이 바뀐 것을 ㅎ구개음화로 잘못 파악한 경우이다. ‘暄’의 16세기 현실한자음은 (7)과 같이 구개음화의 환경이 아닌 ‘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暄’을 ‘선’으로 주음한 것은 자형이 유사한 ‘宣’의 현실한자음에 이끌린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7) ㄱ. 暄 지저궐 훤 <1576 신증유합 하:7a>, 暄 지저궐 훤 <1664 유합(칠장사판) 22a>
 ㄴ. 宣 베플 선 <1576 신증유합 상:3b>, 宣 베플 선 <1664 유합(칠장사판) 2b>

이처럼 비슷한 한자에 이끌려 아예 한자음이 바뀌어 버린 예도 있다. 다음의 한자들은 16세기 현실한자음이 모두 ‘혈’이었으나, 『전운옥편(全韻玉篇)』에 속음 ‘설’이 나타났고, 『한영사전(韓英字典)』의 ‘설’ 이후로 현재에는 ‘설’로 정착되었다.

- (8) ㄱ. 囁 ㅁ 혈 <1527 훈몽자회 하:4b>, 齧 ㅁ 혈 <1576 신증유합 하:25a>, 掣 자블 혈 <1576 신증유합 하:28a>
 ㄴ. 囁 ㄴ 설 <1897 한영사전 367>, 齧 ㅅ 설 <1897 한영사전 588>, 齧 ㄹ 俗설 <18xx 전운옥편 하:76b>, 掣 ㄱ 俗설 <18xx 전운옥편 상:39a>
 ㄷ. 楔 쇠야기 설 <1527 훈몽자회 중:9b>

53) 『구향촬요』의 원간본은 1554년에 간행되었으나 전하지 않고, 을해자본의 번각본은 충남대에 소장되어 있다. 번각본에 방점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번각본의 저본인 을해자본은 『간이벽은방』이나 『우마양저염역병치료방』처럼 선조 때에 중간된 것일 가능성이 있다. 어쨌든 을해자본은 중앙에서 간행된 것이 분명하다.

이들을 ㅎ구개음화의 예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왜 이들만 ㅎ구개음화를 일으키고 다른 ㅎ구개음화 환경의 한자음들은 ㅎ구개음화를 일으키지 않았는지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한자음들은 모두 자형이 ‘楔’과 공통점을 갖고 있으며, ‘楔’의 현실한자음이 16세기부터 ‘설’로 나타남을 고려하면 자형상의 유사성으로 인해 이끌린 한자음이라고 판단된다.⁵⁴⁾

한편, 과도교정으로 제시된 예들 가운데 (3ㄴ)의 ‘현왕직’도 문제가 된다. 『염불보권문』의 이본 가운데 예천 용문사판과 흥륜사판에는 ‘현왕직’로 나타나고, 동화사판과 해인사판에는 ‘선왕직’로 나타난다. 백두현(1992), 김주필(1994), 김주원(2000) 등에서는 ‘善往齋’의 과도교정으로 보았으나, 『표준국어대사전』에는 ‘善往齋’와 ‘現往齋’가 모두 나와 있기 때문에 간단히 처리할 수 없다. 역사적으로는 한국의 불교 문헌에서 16세기에 ‘聖王齋’, 17세기에 ‘現王齋’로 나타나고 있으므로(김윤희 2008 참조), 18세기의 ‘현왕직’은 ‘現王齋’의 표기이고 ‘선왕직’가 오히려 ㅎ구개음화형일 가능성이 높다.⁵⁵⁾

3. 음운사적 고찰

3.1. 발생 시기 및 지역

먼저 한국어에서 ㅎ구개음화가 발생한 방언은 남부방언으로 추정된다. 특히 16세기의 ㅎ구개음화와 그 과도교정을 보여주는 문헌 자료는 모두 전라방언을 반영한 것들이다. 『몽산화상육도보설(蒙山和尚六道普說)』은 전북 순창 취암사판이고 『사범어언해(四法語諺解)』는 전남 순천 송광사판이다. 또 『신증유합』은 전남 해남 출신의 미암(眉巖) 유희춘(柳希春)이 지은 책이고,⁵⁶⁾ 『백련초해』는 전남 장성 출신의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가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⁵⁷⁾ 한편 17세기의 ㅎ구개음화를 보여주는 『두시언해』 중간본, 『진주하씨묘언간』, 『유합』 칠장사판⁵⁸⁾과 영장사판, 『첩해신어』 초간본 등은 경상방언을 반영한 것들이다. ㅎ구개음화 과도교정의 예는 1670년대부터 중앙어를 반영한 문헌에 나타나는데, 이는 ㄷ구개음화 과도교정의 예와 동일한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중앙어에서 ㅎ구개음화의 명확한 예가 『마경초집언해』 무신자본이나 『동문유해』, 『역어유해보』 등 18세기 문헌부터 발견된다는 점도 ㄷ구개음화와 동일한 양상이다.

ㅎ구개음화를 ㄷ구개음화와 대비해 보면, 18세기 이후의 중앙어에서 어휘적 확산이 더더 현재까지도 소수의 어휘만 경험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 ㅎ구개음화를 ㄱ구개음화와 대비해 보면, 중앙어나 평안방언에서도 ㅎ구개음화의 예를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54) 중국어 중고음의 성모를 보면 ‘齧, 嚙’은 의모(疑母)이고 ‘挈’는 ‘契’와 마찬가지로 계모(溪母)여서 아음에 속한다. 이와 달리 ‘楔’의 성모는 심모(心母)로서 치음에 속한다.

55) ‘선왕직’을 ‘聖王齋’에서의 변화형으로 보아 ‘현왕직’과 별개의 어형일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언해본끼리의 영향 관계를 고려하면 ‘선왕직’을 ‘현왕직’의 ㅎ구개음화형으로 보는 것이 가장 좋을 듯하다.

56) 기록에 따르면, 유희춘이 처음 『신증유합』을 진상했을 때 이튿날 선조가 방언적 요소[土俚]를 지적하였다. 이후 유희춘이 이암(頤庵) 송인(宋寅)에게 상의하여 백수십 자의 새김[釋]을 수정한 뒤 다시 진상하자, 선조가 교서관에서 간행하도록 하였다(안병희 1972b 참고). 사적으로 교정한 진상본을 교서관에서 다시 교정하지 않고 바로 간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방언적 요소가 남아 있을 수 있다.

57) 백련초해의 가장 오래된 간본인 동경대 도서관 소장본은 광주판 『천자문』과 같은 새김을 보여주어 『고사촬요』에 책판이 기록된 전라도 장흥판으로 추정되기도 한다(안병희 1979 참고).

58) 『유합』 칠장사판은 경기도 안성에서 간행되었지만, ‘ㄹ→ㄴ’의 자음군단순화, ‘△>ㅅ’, ㅎ구개음화, ㄱ구개음화와 ㄷ구개음화와 관련한 오교정 등 경상방언의 특징이 많이 나타난다. 위진(1998)에서는 표기자가 경상방언 화자였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있다. 김동소(1998, 2003)에서는 동일한 음운론적 환경에서 일제히 일어나지 않고 소수의 단어에만 일어났다는 점과, ㄱ구개음화와 달리 중앙어에서 나타난다는 점을 근거로 ㅎ구개음화가 아니라 고대형을 유지해 오던 남부방언의 ‘ㅅ’형이 중앙어로 세력을 확장한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이러한 견해는 ‘ㅅ’형의 세력 확장이 왜 /l/나 /j/ 앞에서만 일어나는지를 설명할 수 없다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힘들다. 김동소(1998, 2003)의 견해는 어휘 확산의 점진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이다. 예컨대 이익섭 외(2008)에 따르면, ‘결’은 경기 전역 외에 강원이나 충남 지역에도 적지 않게 분포한다. 이에 비해 ‘결두리’는 경기 북부 정도에만 분포하고 ㄱ구개음화형인 ‘젓두리’나 ‘제누리’가 경기 동부에 적지 않게 분포한다. 따라서 ㄱ구개음화가 중앙어에서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기술은 언어 사실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것이다.⁵⁹⁾ ㅎ구개음화가 소수의 단어에만 일어났다는 기술도 중앙방언이나 평안방언 등 ㅎ구개음화가 나중에 확산된 표준어 사용 지역에만 한정된다. ㅎ구개음화가 활발한 남부방언에서는 대부분의 단어가 ㅎ구개음화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3.2. 발생 순서

ㄷ구개음화, ㄱ구개음화, ㅎ구개음화의 발생 순서는 문헌상의 출현 순서만 가지고는 추정하기 어렵다. 모두 1560년대에 전라도에서 간행된 문헌에서 처음 발견되기 때문이다. 홍운표(1985)에서는 ㄷ구개음화→ㄱ구개음화→ㅎ구개음화의 순서로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한편으로는 /l/나 /j/의 발음위치에서 가까운 곳에서부터 구개음화가 일어났을 것으로 보았고, 다른 한편으로는 ㄷ구개음화가 비어두 위치에서 시작되어 어두 위치로 확산된 단계에서 ㄱ구개음화와 ㅎ구개음화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ㄱ구개음화와 ㅎ구개음화의 적용 영역이 어두 위치에 한정될 수밖에 없었다고 본 것이다. 김주필(1994)에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구개음화규칙과 이른바 ‘구개성 반모음 첨가 현상’ 규칙을 출혈(bleeding) 관계로 규정하였다. ㄷ구개음화가 적용되면 구개성 반모음 첨가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ㄷ구개음화는 구개성 반모음 첨가 현상보다 이른 시기에 일어났고, ㄱ구개음화와 ㅎ구개음화는 구개성 반모음 첨가 현상보다 늦은 시기에 일어나 비어두로의 확산이 저지되었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역시 ㄷ구개음화→ㄱ구개음화→ㅎ구개음화의 순서가 된다. 김주원(1997a)에서는 과도교정을 근거로 ㄷ구개음화와 ㄱ구개음화의 상대적 발생 순서를 논의하였다. ‘듀화’와 같은 ㄱ>ㄷ의 과도교정이 ㄷ>ㄱ의 과도교정보다 훨씬 많이 발견되는 것은 ㄷ구개음화가 ㄱ구개음화보다 먼저 발생하여 상당히 진행되었으므로 거부감이 덜했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하였다.

발표자는 안대현(2007)에서 ㅅ구개음화를 반영한 /j/ 탈락 또는 /j/ 첨가가 ㅅ구개음화를 반영한 /j/ 탈락 또는 /j/ 첨가보다 일찍 발견된다는 점을 논의하였다. ㅅ구개음화가 ㄷ구개음화나 ㄱ구개음화의 조건이 되고 ㅅ구개음화가 ㅎ구개음화의 조건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소한 육진방언을 제외한 동북방언과 남부방언의 ㅎ구개음화는 ㄷ구개음화나 ㄱ구개음화보다 나중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한다.

이와 달리, 곽충구(2001)에서는 20세기초 함북 육진방언 자료에는 ㅎ구개음화가 가장 왕성하게 진전되어 있었고 ㄷ구개음화와 ㄱ구개음화는 극소수의 예만 발견된다는 것을 근거로 현대의 북부방언에서 ㅎ구개음화가 ㄱ구개음화보다 먼저 발생하였다고 보고, ㅎ구개음화→

59) ㄱ구개음화형인 ‘젓두리’가 표준어인 점, 황대화(2007)에서 오늘날의 황해방언에 ㅎ구개음화가 아주 생산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과 ㄱ구개음화가 꽤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힌 점도 ㅎ구개음화와 ㄱ구개음화의 차이를 지나치게 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ㄷ구개음화→ㄱ구개음화의 순서로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곽충구(2001)에서는 ㄱ구개음화가 어두에서만 일어나는 이유가 움라우트보다 늦게 발생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은 받아들이지만, ㅎ구개음화가 어두에서만 일어나는 이유는 달리 설명한다. 어중의 /ㅎ/는 유기음화되거나 탈락하여 ㅎ구개음화가 발생할 환경을 가진 예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동화주와 피동화주의 거리가 가까운 순서대로 구개음화가 일어났다는 논의를 받아들이면서도, 음소의 조음위치가 아닌 변이음의 조음위치로는 /ㅎ/[çi]가 /l/나 /j/와의 거리가 가장 가깝기 때문에 가장 먼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곽충구(2001)의 논의는 기존의 문헌 자료를 중심으로 한 음운사 연구에 대해 방언 자료의 중요성을 일깨웠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ㅎ구개음화가 중앙어를 반영한 문헌 자료에서 일찍 발견된다는 주장은, 앞에서 살펴본 ‘슈지’, ‘상일흙’ 등의 불명확한 예나 ‘숨당혈’이 발견되는 『마경초집언해』 목판본을 17세기 자료로 보는 잘못된 판단에 근거한 것이다. 무엇보다 어떤 음운 변화의 발생 순서와 확산 순서가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현대의 일부 방언 자료만을 근거로 다른 방언의 발생 순서까지 판단하는 것은 문헌 자료만을 근거로 발생 순서를 판단하는 것과 정반대의 또 다른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발표자는 함북 육진방언이나 평안방언, 황해방언, 경기방언 등 구개음화를 뒤늦게 받아들인 방언에서는 ㅎ구개음화가 먼저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곽충구(2001)에서는 평안방언에 ㄷ구개음화, ㄱ구개음화, ㅎ구개음화가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김병제(1980)에는 (9)과 같은 ㅎ구개음화형이 제시되어 있다.

- (9) ㄱ. 성[兄] : 평남(남포·온천·룡강), 평북(염주·룡천·철산·태천), 량강(후창), 자강(희천·동신)
 ㄴ. 송하다[凶] : 평남(문덕·안주), 평북(정주)

한편, 문헌 자료 가운데서도 다음의 (10ㄱ)과 같은 예가 발견된다.

- (10) ㄱ. 可히 그 主를 심드러이 보디 못홀디라 = 不可虛視其主 <1632 가례언해 10:15a>
 ㄴ. 淡然(힘드렁흐 양이라) <1588 소학언해 6:121b>
 等閑 족절업시 又 힘드렁이 <1657 어록해(초간본) 11a>

(10ㄱ)의 ‘심드러이’는 기존 연구에서 ㅎ구개음화의 예로 제시된 적이 없었던 듯하다. 그러나 (10ㄴ)과 비교할 때 ㅎ구개음화의 예임이 확실하다. 『가례언해(家禮諺解)』는 강원도 원주에서 간행된 책으로 홍운표(1991)나 김주원(2000)에서 원주지역어를 반영한 방언사 자료로 분류되었다. 그런데 이 문헌은 10권 4책의 적지 않은 분량에도 불구하고 ㄷ구개음화나 ㄱ구개음화의 예는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하나뿐이지만 ㄷ구개음화나 ㄱ구개음화보다 ㅎ구개음화가 먼저 원주지역으로 확산된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아닌가 한다.

4. 맺음말

■ 참고문헌

- 곽충구(1994), 『함북 육진 방언의 음운론』, 태학사.
- 곽충구(2001), 「구개음화 규칙의 발생과 그 확산」, 『진단학보』 92, 진단학회, 237-268.
- 김동소(1998), 『한국어 변천사』, 형설출판사.
- 김동소(2003), 「한국어 음운사 연구에서의 몇 가지 주요 논점」, 『문학과 언어』 25, 문학과 언어연구회, 1-18.
- 김병제(1980), 『방언사전』,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김윤희(2008), 「조선 후기 명계불화 현왕도 연구」, 홍익대 석사논문.
- 김일근(1986), 『인간의 연구』, 건국대 출판부.
- 김주원(1984), 「18세기 경상도 방언의 음운현상 - 몇몇 불서를 중심으로」, 『인문연구』 6, 영남대.
- 김주원(1997a), 「구개음화와 과도교정」, 『국어학』 29, 국어학회, 33-49.
- 김주원(1997b), 「『緇門警訓』(石崙菴本)의 기입토에 나타난 16세기 경상도 방언」, 『구결연구』 2, 구결학회, 265-289.
- 김주원(2000), 「국어의 방언 분화와 발달 - 국어 방언 음운사 서술을 위한 기초적 연구」, 『한국문화사상대계』,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151-185.
- 김주필(1985), 「구개음화에 대한 통시론적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 김주필(1994), 「17·8세기 국어의 구개음화와 관련 음운현상에 대한 통시론적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 도수희(1994), 「‘ㅎ, ㅎ’의 구개음화에 관한 몇 문제」, 『언어』 15, 충남대 어학연구소, 369-383.
- 배주채(1996), 「구개음화의 음운론적 성격에 대하여」, 『이기문 교수 정년퇴임기념논총』, 신구문화사, 313-322.
- 백두현(1991), 「몽산화상육도보설의 국어학적 연구」, 『어문논총』 25, 경북대학교, 75-98.
- 백두현(1992), 『영남 문헌어의 음운사 연구』, 태학사.
- 백두현(2003), 『현풍곽씨연간 주해』, 태학사.
- 안대현(2007), 「한국어 ㄱ구개음화의 발생 시기와 발생 지역」, 『구결연구』 18, 구결학회, 317-357.
- 안대현(2009), 「한국어 중앙어 ㄷ구개음화의 발생 시기」, 『국어학』 54, 국어학회, 109-136.
- 안병희(1972a), 「임진란직전 국어사자료에 관한二三 문제에 대하여」, 『진단학보』 33, 진단학회, 81-102.
- 안병희(1972b), 「신증유합 해제」, 『신증유합』, 단국대동양학연구소.
- 안병희(1979), 「중세어의 한글 자료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 『규장각』 3, 서울대 도서관.
- 위진(1998), 「칠장사본 『유합』의 표기와 음운에 대한 고찰」, 『한국언어문학』 41, 한국언어학회, 299-320.
- 이명규(1974), 「구개음화에 대한 문헌적 고찰」, 서울대 석사논문.
- 이명규(1992), 「구개음화에 대한 통시적 연구」, 숭실대 박사논문.
- 이익섭 외(2008), 『한국언어지도』, 태학사.
- 이준환(2007), 「근대국어 한자음의 체계와 변화」, 성균관대 박사논문.
- 조항범(1998), 『주해 순천김씨묘 출토 간찰』, 태학사.

- 한국학중앙연구원 편(2005), 『조선 후기 한글 간찰(언간)의 역주 연구 3』, 태학사.
- 한국학중앙연구원 편(2009a), 『의성김씨 김성일과 종택 한글 간찰』, 태학사.
- 한국학중앙연구원 편(2009b), 『의성김씨 천전파·초계정씨 한글 간찰』, 태학사.
- 홍윤표(1985), 「구개음화에 대한 역사적 연구」, 『진단학보』 60, 진단학회, 143-157.
- 홍윤표(1991), 「방언사 관계 문헌자료에 대하여」, 『김영배 선생 회갑기념논총』, 경운출판사, 665-684.
- 홍윤표(1994), 『근대국어 연구(Ⅰ)』, 태학사.
- 황대화(2007), 『황해도방언연구』, 한국문화사.

한국어 ㅎ구개음화에 대한 통시적 고찰

이준환(성균관대학교)

이 논문은 국어음운사 연구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인 ㅎ구개음화 현상을 문헌 자료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재해석한 것을 바탕으로 기존 논의를 비판하는 과정을 통해 음운사적 고찰을 행한 것으로서 치밀함이 돋보이는 연구입니다. 몇 가지 질문 혹은 논평을 통해 선생님의 의견을 듣는 것은 물론 논의에 의견을 보태고자 합니다.

1. 논문에서는 자료의 비판적 검토를 통해서 ‘슈지, 심심하다, 상일흙, 실흙’이 각각 ‘휴지, 힘힘하다, 향(鄕), 힐흙’이 변화한 형태라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점을 논의하였습니다. 이 중 ‘슈지’는 1)김훈의 편지에만 나타나고, 2)문맥적 의미가 명확하지 않고, 3)편지를 가리키는 것일 수 있다고 보고 ㅎ구개음화의 예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슈지’가 쓰인 문맥을 보면 “……늬도 붓그러워 ㅎ노라 너드려 니르다 속저리랴 슈지로다 건티 두 마리 머거라……”에서와 같이 한탄에 가까운 내용 다음에 어쩔 도리가 있을까 형태로 반문을 하고 난 이후에 ‘슈지로다’가 나오고 이후에 꿩 두 마리를 보내니 먹으라는 내용이 이어짐을 볼 때에 『첩해신어』나 한국학중앙연구원 편의 연간에 나오는 ‘슈지’와는 달리 ‘편지’의 의미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관한 논의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상일흙, 상사름’을 ‘鄕’에서 온 것이 아닌 ‘常일흙, 常사름’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 하였는데 ‘常’의 의미가 무엇이기에 ‘常’이 ‘鄕’에 대응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에 관한 논의가 좀 보충이 되었으면 합니다.

2. 논문에서는 원주에서 간행된 『가례언해』(1632)에 나오는 ‘심드러이’를 ‘힘드렁-’의 ㅎ구개음화의 예로 보고 비록 하나뿐이지만 ㄷ구개음화나 ㄱ구개음화보다도 ㅎ구개음화가 원주 지역에 먼저 확산된 것으로 해석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불명확한 성격을 지닌 ‘슈지, 상일흙’의 예나 시대를 잘못 판정한 ‘슌당혈’과 같은 예들을 ㅎ구개음화의 예에서 제외한다면 ‘심드러이’가 구개음화를 본고의 논지를 전개하는 데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시는지요? 이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예들이 좀 더 보충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평안 방언의 ㅎ구개음화형을 제시하며 경기 방언과 마찬가지로 ㅎ구개음화가 먼저 시작되었을 것이라는 논의를 펼치고 있는데 김병제의 예들이 국어사적으로 어떤 시기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 것들을 반영한 것인지가 분명해지기 이전에 이들의 국어사적 의미를 동일하게 해석하기에는 위험하지 않나 판단됩니다. 평안 방언의 구개음화가 어떤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 보다 명확히 하고서 논의를 전개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 ‘暄譁’가 『치문경훈』에서 ‘선화’로 표기되어 ‘暄’이 ‘선’으로 나타나는 것을 ‘宣선’에 이 끌린 유추음으로 보셨는데 그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暄’은 물론이고 ‘暄, 槿, 萱’ 등의 글자가 ‘暄’으로 읽히던 글자라는 점을 생각하여 보면 다른 이유는 없을지 좀 더 검토해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齧, 嚙, 挈’이 ‘楔’에 이끌려 ‘설’이 된 예를 드셨는데, ‘楔’보다는 ‘契’이 순임금의 신하를 이르는 의미로 쓰일 때에는 그 음이 ‘설’이므로 이 글자에 의한 유추의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15세기 변동평성 동사의 성조변동

최영미(호서대학교)

□ 차례 □

1. 머리말
 2. 선행연구
 3. 변동평성 동사어간의 기저성조에 대한 재론
 4. 변동평성 동사어간의 성조변동
 - 4.1. 변동평성 동사어간의 성조변동 비교 방법
 - 4.2. 변동평성 동사어간의 성조변동
 - 4.3. 변동평성 동사어간의 표면성조 도출과정
 5. 맺음말
- 참고문헌

1. 머리말

이 연구의 목적은 변동평성 동사어간의 기저성조를 재론하고, 15세기 변동평성 동사어간의 성조변동이 어간말음인 모음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변동평성 동사는 {가다, 사다, 자다, 오다, 보다, 주다, 두다, 혀다(點火), 피다, 셔다(立), 하다(多), 흐다} 등을 말한다. 이들의 동사어간은 어간의 말음이 모음으로 끝나는 점과 어간의 성조가 뒤따르는 어미에 따라 거성과 상성으로 변동한다는 점을 공통점으로 가지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변동평성 동사어간의 기저성조를 정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성조를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 이견이 존재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성조 변화를 기술하는 입장에서 15·16세기의 성조변동 실현이 동질적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왜냐하면, 현대 성조방언에서 변동평성 동사어간은 어간말음인 모음에 따라 성조의 변동하는 모습이 약간씩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15세기 변동평성 동사어간의 성조변동이 동사어간의 모음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볼 것이다.

이 연구의 대상은 15세기 문헌 <석보상절>(1449), <월인천강지곡>(1449), <두시언해>(1481) 등에 나타나는 변동평성 동사어간의 성조이다. 이들 문헌에서 나타나는 변동평성 동사어간의 활용형을 어절별로 자료를 분류하고, 어절의 표면 성조형을 빈도수와 출처에 따라 정리하여, 기저형, 최빈방점형, 출전을 밝혔다¹⁾.

이 연구의 방법은 변동평성 동사어간의 기저성조에 대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변동평성 동사어간의 기저성조를 재론하여 확정하고, 변동평성 동사어간이 어간말음인 모음에 따라 실현되는 성조변동을 비교하는 것이다.

1) 최영미(2009:322-325) 참조.

2. 선행연구

{가-, 사-, 자-, 오-, 보-, 주-, 두-, 혀(點火)-, 퍼-, 셔(立)-, 하(多)-, 흐-} 등의 동사어간의 기저성조에 대한 선행연구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변동평성 동사어간의 기저성조를 평성으로 설정한 연구들로, 허용(1963), 김차균(1984) 등이 있다. 허용(1963)은 변동평성 동사어간을 “평성 B형”으로 분류하여 고정적인 평성과 구분하고, 동사어간의 성조는 동사어간에 특정어미나 보조어간이 붙을 때, 기저성조인 평성이 거성과 상성으로 변한다고 설명하였다. 김차균(1984)은 단모음 또는 상향적인 이중모음을 가지는 동사어간의 성조가 거성화하거나 상성화하는 어미를 분류하여 동사어간의 성조변동을 설명했다.

둘째, 변동평성 동사어간의 기저성조를 람다성조($\lambda=1^*$)로 설정한 연구로, 김완진(1977), 김성규(1992)가 있다. 김완진(1977)은 뒤따르는 어미를 강어미와 약어미로 구분하여, 강어미들에는 “*”로 표시될 수 있는 모종의 힘이 부존되어 있어서 이 특질의 작용으로 선행어간의 성조를 거성으로 실현시키고, 약어미에는 “*”이 결여되어 어간성간 성조가 평성으로 실현되는 것으로 설명했다. 또한, 람다성조를 가진 동사어간이 복합용언을 형성할 때, 어간의 람다는 어김없이 거성으로 실현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견해는 김성규(1994)에서 수용된다. 그러나 김영만(1989)은 어간의 기저성조가 추상적인 성조소로 설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셋째, 변동평성 동사어간의 기저성조를 거성으로 설정한 연구로, 정연찬(1963), 이상억(1978), 차재은(1996) 등이 있다. 정연찬(1976)은 “하다”류 동사어간의 성조가 평성~거성~상성으로 이동하는 것은 특별하고, 평성이나 상성으로 실현되는 것보다 빈도수에서 훨씬 우세하기 때문에, “하다”류 동사어간의 기저성조를 거성으로 설정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상억(1978)은 어미를 lowering suffixes와 raising suffixes로 구분하고, “하다”류 동사어간에 lowering suffixes가 결합될 때에는 성조규칙(TR1)이 적용되어 동사어간의 성조가 평성으로 변동하고, 동사어간에 raising suffixes가 결합될 때에는 성조규칙(TR1)과 성조규칙(TR2)이 적용되어 동사어간의 성조가 거성으로 실현된다고 설명했다²⁾. 차재은(1996)은 복합어 “·하니·디”에서 첫 번째 동사어간의 성조와 부사어간 “·하”의 성조를 근거로 제시하여 변동평성 동사어간의 기저성조를 거성으로 설정했다. 즉, “·하니·디[HLH]<석상 서2>”는 ‘·흐-’와 ‘·니(行)-’의 결합으로 복합어를 형성할 때, 어간 “·하-”의 성조[H]가 변동하지 않고 그대로 실현되고 있는 점과 “·하 갖가·바·면”<석상 6:23b>에서 “·하(多)-”에서 영과생한 어간부사의 성조[H]가 거성으로 실현된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중세국어 성조를 유형론적 측면에서 볼 때, 성조언어 혹은 고저악센트언어로 분류하고 있다.³⁾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한 어절을 구성하는 각 음절에는 성조체계 속에 존재하는 성조소인 기저성조가 있어야 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이에, 김완진(1977), 김성규(1944)에서 변동평성 동사어간의 기저성조를 추상적인 람다성조($\lambda=1^*$)로 설정한 것은 논의에서 수용하지 않기로 한다. 물론, 람다성조는 엄밀히 말하면 동사어간의 기저성조를 평성에 근거를 둔

2) 성조규칙(TR1)은 $H \rightarrow L / \# ______]_{PNY} [+ \text{lowering}, -L]_{\text{Suf}}$ Condition: P, N and V are marked with diacritic features in the Lexicon. 이고, 성조규칙(TR2)-Copying은 $\emptyset \rightarrow [aL] / \# (T) [aL] [+ \text{toneless}]_{\text{Suf}}$ Condition : Suf. is marked as [+toneless] in the lexicon이다. 이상억(1978:109-126) 참조.

3) 김차균(2006)은 성조언어와 악센트언어의 중간상태 정도로 판단하고 있다.

점에서 허웅(1963), 김차균(1984)과 공통성을 갖지만, 동사어간의 기저성조에 후의적 특성을 부여하는 점은 큰 차이점을 갖는다.

3. 변동평성 동사어간의 기저성조에 대한 재론

변동평성 동사어간의 기저성조를 논할 때, 뒤따르는 어미의 종류에 따라 동사어간의 성조 변동이 일어나는 점과 어미의 분류에 소소한 차이⁴⁾는 있을지언정 큰 차이를 가지지 않는다. 어미의 분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ㄱ. I 류 어미 (약어미, lowering suffixes)

·개, ·고, ·고·라, ·고·려, ·고·셔, ·과·다, ·과·더, ·과·이·다, ·기, ·ㄴ, ·니, ·노, ·니·라, ·니·오, ·나, ·다, ·디, ·르, ·르·가, ·르, ·르·다, ·르·셔, ·르·시, ·라, ·락, ·려, ·료, ·리·니, ·리·라, ·리어·니·와, ·리오, ·리·이·다, ·며, ·면, ·져…….

ㄴ. II 류 어미 (강어미, raising suffixes)

·아, ·아·셔, ·아·늘, ·아·시·늘, ·거·늘, ·거·시·늘, ·거·든, ·거·샤, ·건·마·룬, ·거·나, ·나·늘, ·시·, ·쇼·셔, ·느·니, ·느·다, ·논, ·논·다, ·뜻·다, ·논·가, ·노·니, ·술·, ·다·가, ·도·다…….

변동평성 동사어간의 기저성조를 평성으로 설정하거나 거성으로 설정하거나 모두 동사어간에 (1)ㄱ의 어미가 결합하면 동사어간의 성조가 평성으로 실현되고, 동사어간에 (1)ㄴ의 어미가 결합하면 동사어간의 성조가 거성으로 실현된다⁵⁾고 설명했다. 이러한 성조변동 현상에 대해, 기저성조를 평성으로 설정한 경우는 동사어간에 (1)ㄴ의 어미가 결합하여 거성으로 상승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기저성조를 거성으로 설정한 경우는 동사어간에 (1)ㄱ의 어미가 결합하여 평성으로 하강하는 것⁶⁾을 설명하고 있다.

변동평성 동사어간의 기저성조를 논의에서 쟁점을 일으키는 지점은 기저성조를 설정하는 근거인 복합어의 성조실현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을 것이다. 즉, 동사어간의 기저성조를 평성으로 설정하는 경우는 “·나·가·다”에서 동사어간 사이에 어미 “·아”가 개입되어 성조가 변동한 것으로 파악한다. 반면, 동사어간의 기저성조를 거성으로 설정하는 경우는 어미가 개입할 때 성조의 변동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변동평성 동사어간의 기저성조를 논의할 때 “죽살-, 빌떡-” 등과 같은 비통사적 복합어만을 고려해야 한다고 파악한다.

15세기 중세국어에서 “·나·가-”는 어미와 결합하여 하나의 어절을 이룰 때, 아래 (2)와 같은 성조실현을 보인다.

(2) 15세기 “·나·가-”의 일반적인 성조실현

- ㄱ. ·나가·니(2번) 《·나가·니(두시16:03b)》
- 나가·디(2번) 《·나가·디(두시11:20b)》
- 나가·고져(2번) 《·나가·고져(두시22:34a)》

4) 분류한 각 어미를 지칭하는 명칭이 다르고, 몇몇 어미 ‘-거-’의 기저성조 설정에 대한 이견을 가지고 있다.

5) 김성규(1994:52) 참조.

6) 이상억(1978:109-126), 차재은(1996:92-93) 참조.

- ㄴ. ·나·가(4번) 《·나·가(석상24:29b)》
- 나·가·낫·다(4번) 《·나·가·낫·다(두시10:11a)》
- 나·가·늑·니(3번) 《·나·가·늑·니(두시11:41b)》

(2)ㄱ, ㄴ의 “·나·가-”는 비통사적 복합어로 볼 경우와 통사적 복합어로 볼 경우에 따라 성조변동의 설명을 다르게 할 수 있다. 비통사적 복합어로 볼 경우는 기저성조 평성에 상승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성조규칙을 설정해야 하나 평성 앞에서 평성이 거성으로 변동되는 성조규칙을 설정해야 한다. 통사적 복합어로 볼 경우는 동사어간과 동사어간 사이에 어미 “-아”가 개입된 것으로 어미 “-아” 앞에서 “나-”의 성조가 거성으로 변동한 것으로 설명하면 된다. 김완진(1977)과 김성규(1994)는 통사적 복합어로 파악하여 설명하고 있고, 차재은(1996)에서는 “-아”의 개입으로 성조변동의 가능성이 있어 변동평성 동사어간의 기저성조를 올바르게 파악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3) 15세기 “·나·가-”의 예외적인 성조실현

- ㄱ. ·나:가·딛(1번) 《·나:가·딛(두시11:44b)》
- 나:가·물(1번) 《·나:가·물(두시25:17b)》
- 나:가·리·라(1번) 《·나:가·리·라(두시20:20a)》
- ㄴ. 나·가(1번) 《나·가(두시24:19a)》
- 나·가·늑·다(1번) 《나·가·늑·다(두시24:44b)》
- ㄷ. 나가·고·져(1번) 《나가·고·져(두시23:32a)》

(3)의 예들은 그 빈도수가 매우 빈약하기에 예외적이라는 성조실현으로 보았다. (3)ㄱ의 “·나:가·딛”는 {·나--+(-아)#가--+(-오)+·딛} > {·나--+ :가--+·딛}로 어절의 재구조화가 일어날 때, 선행 어절은 모음 “-아”와 그에 얽힌 성조가 탈락하고, 후행 어절은 모음 “-오-”만 탈락하고 그에 얽힌 성조는 동사어간의 성조와 축약되어 동사어간 “:가-”의 성조가 상승으로 변동한 것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3)ㄴ의 “나·가”는 {나--+가--+·아} > {나--+가+(-아)} > {나·가}로 어절의 재구조화가 일어날 때, 선행 동사어간은 평성으로 실현되고, 후행 동사어간은 뒤따르는 어미의 “-아” 앞에서 거성으로 실현되고, 어미와 그에 얽힌 성조가 탈락하였다. 이현희(2007)는 (3)ㄴ과 같이 선행 동사어간이 평성으로 실현되면 비통사적 복합어로 파악하고, 선행 동사어간이 거성으로 실현되면 통사적 복합어로 구분하고 있다⁷⁾. (3)ㄷ도 동사어간과 동사어간이 결합되는 비통사적 복합어이다. 이때 두 동사의 동사어간의 성조가 평성으로 실현되고 있다. (3)ㄷ은 기저성조를 거성으로 설정해서, 동사어간의 성조가 하강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힘들다. 따라서 (3)ㄷ이 오기나 오각의 오류가 아니라면, 동사어간이 어미 “-고·져” 앞에서 성조변동이 없이 기저층위의 “나가·고·져”/LLHH/에서 중화규칙이 적용되어 표면층위의 성조형 [LLHL]로 실현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반면에 “·하니·디[HLH]”의 경우, 동사어간과 동사어간 사이에 어미 ‘-아’의 개입을 생각하지 않고, 기저성조를 평성으로 설정해서, 올바른 표면성조형을 도출하기가 힘들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변동평성 동사어간의 기저성조가 평성이냐 거성이냐의 쟁점은 하나

7) 김성규(2007:38)에서 재인용한 것이다. (3)ㄴ과 같이 비통사적 복합어의 예로 제시한 예는 나·들·음·이<소학 6:33>, 나·들·어<소학6:33>, 나·들·며<번노하48-49>, 나·드·리<번노 하71>, 나·드·논<능엄 9:17>, 나·오·디<소학 6:6> 등이 있다.

의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라고 조심스러운 판단을 해본다. 다만, 성조변화를 기술하는 입장에서, 현대 성조방언에서 변동평성 동사어간의 성조실현을 고려할 때, {가-, 사-, 자-, 오-, 보-, 주-, 두-, 혀(點火)-, 꺾-, 셔(立)-, 하(多)-, 흐-} 등의 동사어간의 기저성조를 평성을 설정하는 것이 더 설득력을 갖는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현대 성조방언인 창원방언과 안동방언에서 1음절 변동평성 동사어간⁸⁾이 /가·다(H_{M-1})/류이면, 2음절 변동평성 동사어간은 /나가·다(H_{L-1})/로 실현되는데, 1음절 변동평성 동사어간의 성조에 따라 2음절의 변동평성 동사어간의 성조변동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래의 (4)에 제시한 예는 김차균(2003: 158-235)에서 인용한 것이다.

(4) ㄱ. 창원방언		ㄴ. 안동방언	
가·다	나가·다	가·다	나가·다
가·고	나가·고	가·고	나가·고
·간·다	:나·간·다	·간·다	· ㄱ ·간·다
:갈·라·꼬	:나·갈·라·꼬	:갈·라·꼬	· ㄱ ·갈·라·꼬

(4)ㄱ은 창원방언의 예이다. 1음절 변동평성 동사의 활용형 ‘가·다’와 ‘가·고’가 평성형 /HM/[HM]으로 실현되면, 2음절 변동평성 동사의 활용형 ‘나가·다’와 ‘나가·고’는 평성형 /H²M/[MHM]으로 실현되고, 1음절 변동평성 동사의 활용형 ‘·간·다’와 ‘:갈·라·꼬’가 축성형 /M²/[HH/MM]와 /L³/[LM²]으로 실현되면, 2음절 변동평성 동사의 활용형 ‘:나·간·다’와 ‘:나·갈·라·꼬’는 축성형 /L³/[LMM]과 /L⁴/[LMM_M]으로 실현된다. (4)ㄴ은 안동방언의 예로, 1음절 변동평성 동사어간의 성조에 따라 2음절 변동평성 동사어간의 성조를 예측할 수 있는 점은 같다. 즉, 1음절 변동평성 동사의 활용형 ‘가·다’와 ‘가·고’가 /HM/[HM]으로 실현되면, 변동평성 동사의 활용형 ‘나가·다’와 ‘나가·고’는 평성형 /H²M/[MHM]으로 실현되지만, 1음절 변동평성 동사의 활용형 ‘·간·다’와 ‘:갈·라·꼬’가 축성형 /M²/[HH/MM]와 /L³/[LMM]으로 실현되면, 2음절 변동평성 동사의 활용형 ‘:나·간·다’와 ‘:나·갈·라·꼬’는 축성형 /L³/[LMM]과 /**ㄱ**⁴/[**ㄱ**MM_M]으로 실현된다. 한편, 현대 성조방언인 창원방언에서 2음절 변동평성 동사 ‘·나·가·다, ·나·가·고, ·나·간·다, ·나·갈·라·꼬’ 변동평성/M³/[HHM]과 /M⁴/[HHMM]실현되는 경우가 있는데, 2음절 변동평성 동사가 화자의 부정적인 심리를 반영할 때, 거성형으로 실현된다⁹⁾. 이에 따라 현대방언에서 2음절 변동평성 동사어간은 /나가·다(H_{L-1})/형과 /·나·가·다/[HHM]형이 공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¹⁰⁾. 만약 {가-, 사-, 자-, 오-, 보-, 주-, 두-, 혀(點火)-, 꺾-, 셔(立)-, 하(多)-, 흐-} 등의 동사어간의 성조를 거성을 설정한다면, 현대 성조방언에서 1음절 변동평성 동사어간의 성조에 따라 2음절 변동평성 동사어간의 성조실현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정리하면, {가-, 사-, 자-, 오-, 보-, 주-, 두-, 혀(點火)-, 꺾-, 셔(立)-, 하(多)-, 흐-} 등의 기저성조는 허용(1963), 김차균(1984)에서 설정한 것을 수용하여 평성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생각의 근거는 15세기 중세국어의 1음절 변동평성 동사어간의 기

8) 1음절 변동평성 동사어간은 가다, 나다, 지다, 서다, 보다, 오다, 주다, 켜다, 사다, 서다 등의 어간을 지칭한다.
 9) 부정적인 심리라 함은 화자가 청자에게 화를 내거나 꾸짖을 때의 심리 상태를 말한다. 창원방언에서 /·나·가·다/[HHM]형이 공존하는 사실은 충남대학교 김차균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다.
 10) Ramsey(1991)은 중세국어 이전 시기에 1음절 변동평성 동사어간이 고조(high pitch)였을 것이라고 파악하여, 2음절 변동평성 동사어간은 ‘나[H]+·가-[H]’ 결합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했다. 방점은 필자가 찍은 것이다.

저성조를 평성이나 거성 어느 한 성조로 설정하더라도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조변화를 기술하는 관점에서 1음절 변동평성 동사어간의 기저성조를 거성으로 잡을 때, 현대국어 성조방언에서 1음절 변동평성 동사 “가·다”의 동사어간의 성조실현에 따라 2음절 변동평성 동사 “나가·다”의 성조실현을 예측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4. 변동평성 동사어간의 성조변동

앞 장에서 허웅(1963)과 김차균(1984)의 관점을 수용하여 변동평성 동사어간의 기저성조를 평성으로 설정해야 함을 설명했다. 현대 성조방언에서는 변동평성 동사어간은 동사어간의 모음에 따라 성조가 변동하는 모습이 조금씩 차이를 가진다. 성조변화를 고려할 때, 중세국어의 변동평성 동사어간도 동사어간의 말음인 모음에 따라 성조의 변동이 다르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겠다.

4.1. 변동평성 동사어간의 성조변동 비교 방법

변동평성 동사어간은 {가-, 사-, 자-, 오-, 보-, 주-, 두-, 혀(點火)-, 썬-, 셔(立)-, 하(多)-, 흐- 등이 있다. 이들을 어간의 말음인 모음에 따라 분류하면, 아래와 같다.

(5) 어간 말음에 따른 변동평성 동사의 분류

- | | |
|--|--------------------------------|
| ㄱ. /아/ : 가·다, 나·다, 사·다,
자·다, {하·다(多)} | ㄴ. /오/ : 보·다, 오·다
/으/ : 흐·다 |
| /여/ : 셔·다, 썬·다, {혀·다} | /우/ : 주·다, 두·다 |

어간말음에 따라 변동평성 동사의 성조변동을 비교하기 위한 동사어간을 모두 제시해야 하나 논의의 편의상 (5)ㄴ에 제시한 동사는 모두 사용하고, (5)ㄱ에 제시한 동사들은 어간말 모음에 따른 성조변동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비교적 활용형의 용례가 많은 하나를 선택하고자 하고, (5)에서 { } 안에 들어 있는 동사어간은 활용형의 용례가 지극히 적게 존재하는 경우라 비교에서 제외한다.

(6) 어간 말음이 모음 /아/인 동사어간의 성조변동

- | | |
|--|--|
| ㄱ. ① 가·고(17번) 《가·고(두시06:34a)》
가·고·져(14번) 《가·고·져(두시08:19b)》
가·니(16번) 《가·니(월인기149)》
가·디(11번) 《가·디(두시07:19a)》
가·라(4번) 《가·라(두시07:35a)》
가·며(13번) 《가·며(석상23:25b)》
② ·가(31번) 《·가(월인기174)》
·가·거·늘(5번) 《·가·거·늘(두시17:21b)》
·가·늑·니(30번) 《·가·늑·니(석상13:33b)》
·가·눗·다(50번) 《·가·눗·다(두시06:15b)》
·가·던(5번) 《·가·던(두시11:09b)》 | ㄴ. ① 자·고(1번) 《자·고(두시11:46a)》
자·고·져(1번) 《자·고·져(두시07:30a)》
자·디(1번) 《자·디(두시06:14b)》
자·디(1번) 《자·디(두시08:66a)》
자·려·뇨(1번) 《자·려·뇨(두시25:19b)》
자·며(4번) 《자·며(두시08:08a)》
② ·자(1번) 《·자(두시21:27b)》
·자·거·뇨(1번) 《·자·거·뇨(두시17:12a)》
·자·늑(7번) 《·자·늑(석보24:30b)》
·자·눗·다(2번) 《·자·눗·다(두시11:51a)》
·자·던(2번) 《·자·던(두시07:07a)》 |
|--|--|

- 가시·니(4번) 《·가시·니(월인기17)》
- 가도·다(1번) 《·가도·다(두시20:17b)》
- ③ :가매(32번) 《:가매(두시25:13a)》
- :가미(15번) 《:가미(석상13:33b)》
- :가딛(2번) 《:가딛(석상24:11b, 24:11b)》
- :가물(43번) 《:가물(두시25:38a)》
- ㄷ.① 나·고(10번) 《나·고(월인기188)》
- 나·니(20번) 《나·니(석상24:49a)》
- 나·디(6번) 《나·디(석상24:14b)》
- 나·라(2번) 《나·라(석상24:12a)》
- 나·며(13번) 《나·며(석상19:10a)》
- 나·면(3번) 《나·면(두시17:13b)》
- 나·나라(5번) 《나·나라(두시08:49a)》
- ② ·나(30번) 《·나(두시07:05b)》
- 나·아(19번) 《·나·아(석상13:10b)》
- 나·거·늘(6번) 《·나·거·늘(석상24:12a)》
- 나·늑·니(17번) 《·나·늑·니(두시07:32b)》
- 나·더·니·라(2번) 《·나·더·니·라(두시06:12a)》
- 나·시·며(4번) 《·나·시·며(석상13:48b)》
- ③ :나미(11번) 《:나미(두시06:53a)》
- :나·딛(2번) 《:나·딛(월인기185)》
- :나·물(2번) 《:나·물(두시16:38b)》
- :나·리·라(1번) 《:나·리·라(월인기63)》
- 자시·며(1번) 《·자시·며(석보6:8b)》
- 자·다·가(2번) 《·자·다·가(석보23:27a)》
- ③ :자매(1번) 《:자매(두시25:44a)》
- :자미(1번) 《:자미(두시17:19b)》
- :자딛(1번) 《:자딛(두시07:23a)》
- :자물(4번) 《:자물(두시08:27b)》
- ㄹ.① 사·고(4번) 《사·고(두시06:40a)》
- 사·디(1번) 《사·디(두시21:03a)》
- 사·리오(1번) 《사·리오(두시07:07a)》
- ② ·사(4번) 《·사(두시10:04b)》
- 사·아(4번) 《·사·아(석상24:48b)》
- 사·아(1번) 《·사·아(석상6:8a)》
- 사·늦·다(1번) 《·사·늦·다(두시17:33a)》

(6)은 변동평성 동사어간의 말음이 /아/인 /가·다, 나·다, 자·다, 사·다¹¹⁾/의 활용형들이다. (6) ㄱ①, ㄴ①, ㄷ①, ㄹ①을 보면, 동사어간 {가-, 자-, 사-}의 성조가 어미 {-고, -니, -디, -라……}와 결합해서 기저성조인 평성으로 실현되고, (6) ㄱ②, ㄴ②, ㄷ②, ㄹ②를 보면, 동사어간 {가-, 자-, 사-}의 성조가 어미 {-아, -거-, -늑-, -시……}와 결합해서 평성이 거성으로 변동하고 있으며, (6) ㄱ③, ㄴ③, ㄷ③, ㄹ③을 보면, 동사어간 {가-, 자-, 사-}의 성조가 어미 {-·(오)ㅁ, -·(오)ㄹ-, -·(오)딛……}와 결합해서 평성이 상성으로 변동하는 것을 볼 수 있다. (6)을 통해서 변동평성 동사어간 {가-, 나-, 자-, 사-}의 성조변동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7) 어간 말음이 모음 /여/인 동사어간의 성조변동

- ㄱ.① 셔·고(1번) 《셔·고(두시08:23a)》
- 셔·니(3번) 《셔·니(석상6:3a)》
- 셔·니(1번) 《셔·니(두시24:40b)》
- 셔·다(1번) 《셔·다(석상19:13a)》
- 셔·며(2번) 《셔·며(두시25:51b)》
- ㄴ.① 꺾·고(2번) 《꺾·고(월인기117)》
- 꺾·니·라(4번) 《꺾·니·라(두시16:05a)》
- 꺾·디(5번) 《꺾·디(두시08:04b)》
- 꺾·리오(1번) 《꺾·리오(두시24:05a)》
- 꺾·며(1번) 《꺾·며(두시16:55a)》

11) 동사어간 {사-}에 -(오)+ㄴ, ㅁ, ㅅ, ㅅ, -리·라, -마 등의 어간이 결합되면, 동사어간의 성조인 평성이 상성으로 변화할 것이나 해당 예를 발견하지 못했다.

- | | |
|-----------------------------------|-----------------------------|
| 셔·면(1번) 《셔·면(석상19:13a)》 | 펴·면(1번) 《펴·면(두시22:43a)》 |
| ② ·셔(10번) 《·셔(두시06:25a)》 | ② ·펴·아(8번) 《·펴·아(월인기188)》 |
| ·셔셔(6번) 《·셔셔(두시10:08a)》 | ·팻고(6번) 《·팻고(두시08:34b)》 |
| ·셔·아·셔(1번) 《·셔·아·셔(석상19:31a)》 | ·팻도·다(2번) 《·팻도·다(두시15:42a)》 |
| ·셔·엣더·니(1번) 《·셔·엣더·니(석상23:17b)》 | ·펴거·늘(1번) 《·펴거·늘(월인기75)》 |
| ·셋눈(2번) 《·셋눈(두시08:47a)》 | ·펴노·라(4번) 《·펴노·라(두시06:36a)》 |
| ·셋늑·니(3번) 《·셋늑·니(두시16:15b)》 | ·펴·사(5번) 《·펴·사(석상13:13b)》 |
| ·셔·스·뵈·며(1번) 《·셔·스·뵈·며(석상23:49b)》 | ·펴습·고(1번) 《·펴습·고(월인기191)》 |
| ·세도다(6번) 《·세도다(두시23:28a)》 | ·펴도·다(1번) 《·펴도·다(두시20:44a)》 |
| | ③ :펴메(1번) 《:펴메(두시08:69b)》 |
| | :펴믈(2번) 《:펴믈(두시14:33b)》 |
| | :펴미(1번) 《:펴미(두시16:24b)》 |

(7)은 변동평성 동사어간의 말이 /여/인 /셔·다, 펴·다/의 활용형들이다. (7)ㄱ①, ㄴ①에서 동사어간 {셔-, 펴-}의 성조가 특정한 어미와 결합해서 기저성조인 평성으로 실현되고, (7)ㄱ②, ㄴ②에서 동사어간 {셔-, 펴-}의 성조가 특정한 어미와 결합해서 평성이 거성으로 변동하고 있다. 또한, (7)ㄴ③에서 동사어간 {펴-}의 성조가 특정한 어미와 결합해서 평성이 상성으로 변동하는 것을 볼 수 있다. (7)을 보면, 변동평성 동사어간 {셔-, 펴-}가 특정어미와 결합할 때, 성조변동이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셔-}의 활용형 중에서 기저성조인 평성이 상성으로 변동한 것이 없어서 다른 동사와 비교할 때는 동사어간 {펴-}의 활용형을 사용하여 비교를 하겠다.

따라서 (6)과 (7)을 토대로 변동평성 동사어간의 말이 /아/인 동사 중에서 활용형의 용례가 많은 {가·다, 나·다}를 선택하고, 변동평성 동사어간의 말이 /여/인 동사 중에서 활용형의 용례가 적지만 상대적으로 많은 {펴·다}를 선택하여서, 다른 변동평성 동사어간과 성조변동을 비교하겠다. 결국, 어간 말음에 따른 변동평성 동사어간의 성조변동을 고찰하기 위해서 {가·다, 나·다, 펴·다, 흐·다, 보·다, 오·다, 주·다, 두·다} 등의 8개 동사어간의 성조변동을 살펴보겠다.

4.2. 변동평성 동사어간의 성조변동

4.2.1. 변동평성 동사어간의 거성화

{가-, 나-, 펴-, 흐-, 보-, 오-, 주-, 두-} 등의 변동평성 동사어간은 {-·아X}계, {-·(·)거X}계, {-·늑X}, {-·시X}, {-·습X}계, 종결어미{-·다·가, -·도·다} 등과 같은 어미구조체와 결합할 때 기저성조인 평성이 거성으로 변동한다. 어미구조체에 따라 각 동사어간의 성조변동이 일어나는 예를 살펴보자.

(8) {가-, 나-, 펴-, 흐-}+ {-·아X}계의 결합

- | | |
|--|--|
| ㄱ. ·가(31번) 《·가(월인기174)》 ¹²⁾ | ㄴ. ·나(30번) 《·나(두시07:05b)》 ¹³⁾ |
| ·가·도(1번) 《·가·도(두시10:25b)》 | ·나·아(19번) 《·나·아(석상13:10b)》 |

12) 예외 가·얏·도·다(1번) 《가·얏·도·다(두시14:19b)》, :가(1번) 《:가(두시22:12a)》

13) 예외 나(3번) 《나(두시07:02a)》

- 가·도(1번) 《·가·도(석상24:22a)》
- 가·아(7번) 《·가·아(석상6:15b)》
- 가·사(1번) 《·가·사(석상6:22b)》
- 가·사(1번) 《·가·사(두시16:44b)》
- ㄷ. ·펴(1번) 《·펴(두시06:19a)》
- 펴·아(8번) 《·펴·아(월인기188)》
- 펼·고(6번) 《·펼·고(두시08:34b)》
- 펼·고(3번) 《·펼·고(두시16:40b)》
- 펼·다·가(1번) 《·펼·다·가(두시08:27b)》
- 펼·도·다(2번) 《·펼·도·다(두시15:42a)》
- 낫·고(2번) 《·낫·고(두시11:23a)》
- 넛·고(4번) 《·넛·고(두시08:32b)》
- 넛·늘(4번) 《·넛·늘(두시07:35a)》
- 넛·도·다(2번) 《·넛·도·다(두시07:37a)》
- ㄹ. ·헉·야(84번) 《·헉·야(월인기135)》¹⁴⁾
- 헉·야·뇨(1번) 《·헉·야·뇨(석상19:29a)》
- 헉·야·도(7번) 《·헉·야·도(석상13:52a)》
- 헉·얏·도·다(2번) 《·헉·얏·도·다(두시08:11a)》
- 헉·야·늘(17번) 《·헉·야·늘(석상23:53b)》
- 헉·요·물(3번) 《·헉·요·물(두시07:18a)》

(8)은 변동평성 동사어간 {가-, 나-, 펴-, 헉-}에 모음 {-아}로 시작하는 어미구조체들이 결합되어, 변동평성 어간의 성조가 평성에서 거성으로 변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성조변동은 이들 동사어간의 차이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9) {보-, 오-, 두-, 주-}+ {-아X}계의 결합

- ㄱ. ·보·아(11번) 《·보·아(석상19:13b)》¹⁵⁾
- 보·아(16번) 《·보·아(두시06:17b)》
- 보·아·셔(5번) 《·보·아·셔(두시06:06b)》
- 보·아·든(1번) 《·보·아·든(두시15:48b)》
- 보·아·라(1번) 《·보·아·라(석상23:13a)》
- 보·아·져(1번) 《·보·아·져(석상6:14b)》
- 보·아·든(1번) 《·보·아·든(석상6:15b)》
- 보·아·사(1번) 《·보·아·사(석상9:2a)》
- 보·앗·느·나라(1번) 《·보·앗·느·나라(두시21:35b)》
- 보·얏·거·니와(1번) 《·보·얏·거·니와(두시08:31a)》
- 보·와(3번) 《·보·와(두시20:07a)》
- 보·와·셔(3번) 《·보·와·셔(두시24:16b)》
- 보·와·든(2번) 《·보·와·든(두시22:52b)》
- ㄷ. ·두·어(1번) 《·두·어(석상6:26a)》
- 두·어·셔(1번) 《·두·어·셔(두시16:14a)》
- 두·워(1번) 《·두·워(06:03a)》
- ㄴ. ·와(143번) 《·와(석상13:5b)》¹⁶⁾
- 와·셔(8번) 《·와·셔(두시06:52b)》
- 와·도(1번) 《·와·도(석상23:23b)》
- 와·셔·도(1번) 《·와·셔·도(두시24:41a)》
- 와·늘(3번) 《·와·늘(두시14:08b)》
- 와·노·니(1번) 《·와·노·니(두시11:15a)》
- 와·느·니아(1번) 《·와·느·니아(두시16:29b)》
- 와·더·나·라(1번) 《·와·더·나·라(두시17:20a)》
- 와·도·다(1번) 《·와·도·다(두시23:44b)》
- 와·늘(12번) 《·와·늘(두시06:51b)》
- 와·고(1번) 《·와·고(두시14:36a)》
- 와·느·니(3번) 《·와·느·니(두시08:38b)》
- 와·더·니(2번) 《·와·더·니(석상23:26a)》
- ㄹ. ·주·어(6번) 《·주·어(두시07:23b)》
- 주·어(2번) 《·주·어(석상23:48b)》

또한 (9)는 변동평성 동사어간 {보-, 오-, 두-, 주-}에 모음 {-아}로 시작하는 어미구조체가 결합되어, 변동평성 어간의 성조가 평성에서 거성으로 변동한다. 동사어간 {보-, 오-, 두-, 주-}도 {-아X}계와 결합할 때, 일어나는 성조변동이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8)과 (9)를 비교하면, 분절음 층위에서 동사어간 {가-, 나-, 펴-, 헉-}는 {-아X}와

14) 예외 헉야(6번) 《헉야(두시08:47b)》, 헉얏도·다(1번) 《헉얏도·다(두시14:33b)》, 헉얏·직·헉·니(1번) 《헉얏·직·헉·니(두시08:09a)》, 헉얏·더·니·라(1번) 《헉얏·더·니·라(두시24:12a)》

15) 예외 보아(2번) 《보아(두시07:23a)》, 보와(3번) 《보와(두시08:64b)》

16) 예외 와(11번) 《와(석상23:51b)》, 와·더·라(1번) 《와·더·라(두시16:32a)》, 와·다·가(1번) 《와·다·가(두시22:09b)》

결합하여 활용할 때, 어간이나 어미의 모음이 탈락한다. 반면, 동사어간 {보-, 오-, 두-, 주-}는 반모음 삽입되는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성조 층위에서 동사어간의 성조변동은 {가-, 나-, 꺾-, 헛-, 보-, 오-, 두-, 주-} 등이 다르지 않다.

다음은 변동평성 동사어간 {가-, 나-, 꺾-, 헛-, 보-, 오-, 두-, 주-}와 {-·거X}계류 어미구조체가 결합하여 어절을 이룰 때, 성조변동의 모습을 살펴보자.

(10) {가-, 나-, 꺾-, 헛-}+ {-·거X}계의 결합

- | | |
|-----------------------------------|---|
| ㄱ. ·가·거·늘(5번) 《·가·거·늘(두시17:21b)》 | ㄴ. ·나·거·나(1번) 《·나·거·나(두시17:38a)》 ¹⁷⁾ |
| ·가·거·늘(1번) 《·가·거·늘(두시14:17b)》 | ·나·거·든(4번) 《·나·거·든(두시17:24a)》 |
| ·가·거·늘(1번) 《·가·거·늘(두시14:08b)》 | ·나·거·늘(6번) 《·나·거·늘(석상24:12a)》 |
| ·가·거·든(1번) 《·가·거·든(두시23:11b)》 | ·나·거·사·든(1번) 《·나·거·사·든(석상24:31b)》 |
| ㄷ. ·꺾·거·늘(1번) 《·꺾·거·늘(월인기75)》 | ㄷ. ·헛·거·나(7번) 《·헛·거·나(석상13:52a)》 |
| ·꺾·거·사·뇨(1번) 《·꺾·거·사·뇨(석상13:25b)》 | ·헛·거·뇨(2번) 《·헛·거·뇨(두시23:04a)》 |
| | ·헛·거·늘(6번) 《·헛·거·늘(석상24:1a)》 |
| | ·헛·거·든(13번) 《·헛·거·든(석상13:18a)》 |

(11) {보-, 오-, 두-, 주-}+ {-·거X}계의 결합

- | | |
|-----------------------------------|--|
| ㄱ. ·보·거·니(1번) 《·보·거·니(두시08:66a)》 | ㄴ. ·오·거·나(1번) 《·오·거·나(석상9:24a)》 ¹⁸⁾ |
| ·보·거·나(1번) 《·보·거·나(석상9:24a)》 | ·오·거·늘(1번) 《·오·거·늘(두시14:07b)》 |
| ·보·거·늘(2번) 《·보·거·늘(석상23:48a)》 | ·오·거·든(1번) 《·오·거·든(두시17:24a)》 |
| ·보·건·덴(1번) 《·보·건·덴(석상6:6a)》 | ·오·거·늘(1번) 《·오·거·늘(석상23:40b)》 |
| ·보·간·마·룬(1번) 《·보·간·마·룬(두시08:61a)》 | |
| ㄷ. ·주·어·시·든<두시15:23b> | |
| ·주·어·시·늘<두시16:38b> | |
| ·주·어·시·든<석상6:22b, 6:44b> | |
| ·주·거·사·늘<두시23:22b> | |

(10)과 (11)을 보면, 변동평성 동사어간 {가-, 나-, 꺾-, 헛-, 보-, 오-, 두-, 주-}의 성조가 {-·거X}계류 어미구조체인 {-·거·나, -·거·늘, -·거·사·늘, -·거·든……} 등의 어미 앞에서 평성에서 거성으로 변동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변동평성 동사어간 {가-, 나-, 꺾-, 헛-, 보-, 오-, 두-, 주-}와 {-·낫X}계류 어미구조체가 결합하여 어절을 이룰 때, 성조변동의 모습을 살펴보자.

(12) {가-, 나-, 꺾-, 헛-}+ {-·낫X}계의 결합

- | | |
|--|---|
| ㄱ. ·가·낫(54번) 《·가·낫(두시06:44b)》 ¹⁹⁾ | ㄴ. ·나·낫(8번) 《·나·낫(석상23:36b)》 ²⁰⁾ |
| ·가·낫·니(30번) 《·가·낫·니(석상13:33b)》 | ·나·낫(12번) 《·나·낫(월인기77)》 |
| ·가·낫·다(11번) 《·가·낫·다(두시10:11b)》 | ·나·낫·니(17번) 《·나·낫·니(두시07:32b)》 |
| ·가·낫·나·라(6번) 《·가·낫·나·라(석상6:43b)》 | ·나·낫·다(4번) 《·나·낫·다(두시11:35a)》 |

17) 예외 나·거·늘(1번) 《나·거·늘(두시25:22b)》

18) 예외 오·거·늘(1번) 《오·거·늘(두시25:06b)》, 오·거·든(1번) 《오·거·든(두시10:43a)》

19) 예외 가·낫·다(1번) 《가·낫·다(두시16:35b)》, :가·낫·니(1번) 《:가·낫·니(두시15:32a)》

20) 예외 나·낫·다(1번) 《나·낫·다(두시25:18b)》

- 가·늑·니·오(2번) 《·가·늑·니·오(두시06:50a)》
- 가·늑·고(1번) 《·가·늑·고(두시08:60a)》
- ㄷ. ·팻·늑(1번) 《·팻·늑(두시14:09b)》²¹⁾
- 팻·늑(3번) 《·팻·늑(두시17:17b)》
- 팻·늑(1번) 《·팻·늑(두시10:08b)》
- 팻·늑·니(1번) 《·팻·늑·니(두시07:25a)》
- 펴·늑·니(1번) 《·펴·늑·니(두시22:53b)》
- 펴·늑·니(1번) 《·펴·늑·니(두시16:69b)》
- 펴·늑·라(4번) 《·펴·늑·라(두시06:36a)》
- 펴·늑·다(1번) 《·펴·늑·다(두시11:27b)》
- 나·늑·나·라(4번) 《·나·늑·나·라(석상13:10a)》
- 나·늑·나·오(1번) 《·나·늑·나·오(두시16:51a)》
- ㄹ. ·헉·늑(13번) 《·헉·늑(석상19:25a)》²²⁾
- 헉·늑·뇨(8번) 《·헉·늑·뇨(두시07:38b)》
- 헉·늑·니(46번) 《·헉·늑·니(석상13:39a)》
- 헉·늑·다(31번) 《·헉·늑·다(석상6:14b)》
- 헉·늑·니·라(20번) 《·헉·늑·니·라(석상13:17b)》
- 헉·늑·낫·가(2번) 《·헉·늑·낫·가(석상6:18a)》
- 헉·늑·녕·다(2번) 《·헉·늑·녕·다(석상6:18a)》
- 헉·늑·니·라(2번) 《·헉·늑·니·라(석상13:4a)》
- (13) {보-, 오-, 두-, 주-}+ {-·늑X}계의 결합
 - ㄱ. ·보·늑(6번) 《·보·늑(두시07:37a)》²³⁾
 - 보·늑·니(11번) 《·보·늑·니(석상13:25b)》
 - 보·늑·다(5번) 《·보·늑·다(두시08:15b)》
 - 보·늑·니·라(2번) 《·보·늑·니·라(두시22:20a)》
 - ㄷ. ·주·늑(4번) 《·주·늑(두시22:20a)》²⁵⁾
 - 주·늑·니(3번) 《·주·늑·니(두시20:48b)》
 - 주·늑·다(7번) 《·주·늑·다(두시08:61b)》
 - 주·늑·니(2번) 《·주·늑·니(두시23:36b)》
 - 주·늑·다(5번) 《·주·늑·다(두시10:14a)》
 - ㄴ. ·오·늑(31번) 《·오·늑(월인기138)》²⁴⁾
 - 오·늑·니(9번) 《·오·늑·니(두시06:49b)》
 - 오·늑·다(14번) 《·오·늑·다(두시06:40a)》
 - 오·늑·뇨(1번) 《·오·늑·뇨(석상6:29b)》
 - ㄹ. ·두·늑·다(1번) 《·두·늑·다(두시07:34b)》²⁶⁾

(12)와 (13)을 보면, 변동평성 동사어간 {가-, 나-, 펴-, 헉-, 보-, 오-, 두-, 주-}의 성조가 {-·늑X}계류 어미구조체인 {-·늑, --·늑·니, --·늑·니·이·다……} 등의 어미 앞에서 평성에서 거성으로 변동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변동평성 동사어간 {가-, 나-, 펴-, 헉-, 보-, 오-, 두-, 주-}와 {-·더X}계류 어미구조체가 결합하여 어절을 이룰 때, 성조변동의 모습을 살펴보자.

- (14) {가-, 나-, 펴-, 헉-}+ {-·더X}계의 결합
 - ㄱ. ·가·더(5번) 《·가·더(두시11:09b)》
 - 가·더·라(1번) 《·가·더·라(두시24:30a)》
 - ㄴ. ·나·더·라(1번) 《·나·더·라(두시16:26b)》²⁷⁾
 - 나·더·니·라(2번) 《·나·더·니·라(두시06:12a)》

21) 예외 팻·늑·니(1번) 《팻·늑·니(두시23:50a)》
 22) 예외 헉·늑(5번) 《헉·늑(두시08:58b)》, 헉·늑·라(3번) 《헉·늑·라(두시11:25b)》, 헉·늑·라(1번) 《헉·늑·라(두시10:23a)》, 헉·늑·니(1번) 《헉·늑·니(석상13:38b)》, 헉·늑·니(1번) 《헉·늑·니(두시23:15a)》, 헉·늑·다(2번) 《헉·늑·다(두시10:07a)》, 헉·늑(2번) 《헉·늑(두시14:31b)》, 헉·늑·니(1번) 《헉·늑·니(두시16:51b)》, 헉·늑·다(5번) 《헉·늑·다(두시11:15a)》, 헉·늑·니(1번) 《헉·늑·니(두시22:35a)》, :하·늑(1번) 《:하·늑(두시17:05a)》, :하·늑(1번) 《:하·늑(두시17:27b)》
 23) 예외 보·늑·니(3번) 《보·늑·니(두시10:39b)》, 보·늑·라(3번) 《보·늑·라(두시15:52b)》
 24) 예외 오·늑(3번) 《오·늑(두시06:08b)》, 오·늑·니(1번) 《오·늑·니(두시25:46a)》, 오·늑·니(1번) 《오·늑·니(두시14:07a)》, 오·늑·닌(1번) 《오·늑·닌(두시07:04a)》, 오·늑·다(1번) 《오·늑·다(두시14:27a)》, 오·늑·다(5번) 《오·늑·다(두시15:21b)》
 25) 예외 주·늑(2번) 《주·늑(두시23:38a)》
 26) 예외 :두·늑·니·오(1번) 《:두·늑·니·오(두시25:50b)》
 27) 예외 나·더(1번) 《나·더(두시16:74a)》, 나·더·라(1번) 《나·더·라(두시24:23b)》, 냇·더·라(1번) 《냇·더·라(두시24:32a)》

- 보사·교(8번) 《·보사·교(월인기44)》
- 보사·니(1번) 《·보사·니(두시16:26a)》
- 보쇼·셔(1번) 《·보쇼·셔(석상23:30a)》
- 보사·니(1번) 《·보사·니(월인기147)》
- 보신·들(1번) 《·보신·들(월인기43)》
- 보살·씩(1번) 《·보살·씩(월인기137)》
- 보·시놉·다(1번) 《·보·시놉·다(두시08:13a)》
- 보·시더·라(1번) 《·보·시더·라(두시24:24a)》
- ㄷ. 주산(4번) 《·주산(두시14:16b)》³⁵⁾
- 주사·교(3번) 《·주사·교(월인기90)》
- 주사·니(4번) 《·주사·니(석상24:38b)》
- 주사·늑(4번) 《·주사·늑(두시10:32b)》
- 주쇼·셔(4번) 《·주쇼·셔(석상23:55a)》
- 주사·며(1번) 《·주사·며(월인기55)》
- 주사·면(3번) 《·주사·면(석상23:54a)》
- 주·시놉·다(2번) 《·주·시놉·다(두시08:08a)》
- 주시나·라(2번) 《·주시나·라(석상23:47b)》
- 오시·니(6번) 《·오시·니(월인기108)》
- 오시·오(2번) 《·오시·오(두시06:20a)》
- 오샤·물(1번) 《·오샤·물(월인기29)》
- 오쇼·셔(1번) 《·오쇼·셔(석상6:29b)》
- 오시·며(1번) 《·오시·며(월인기16)》
- 오시·면(2번) 《·오시·면(석상24:33b)》
- 오·시거·나(1번) 《·오·시거·나(석상24:6b)》
- 오·시라·라(1번) 《·오·시라·라(석상24:41b)》
- ㄹ. 두쇼·셔(1번) 《·두쇼·셔(석상24:13b)》

(16)와 (17)을 보면, 변동평성 동사어간 {가-, 나-, 꺾-, 흐-, 보-, 오-, 두-, 주-}의 성조가 {-시X}계류 구조체인 {-·늑, -·늑·니, -·늑·니·아·다……} 등의 어미 앞에서 평성에서 거성으로 변동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변동평성 동사어간 {가-, 나-, 꺾-, 흐-, 보-, 오-, 두-, 주-}와 {-습X}계류 어미구조체가 결합하여 어절을 이룰 때, 성조변동의 모습을 살펴보자.

(18) {가-, 나-, 꺾-, 흐-}+ {-습X}계의 결합

- ㄱ. 가·스·바·사(1번) 《·가·스·바·사(석상23:40a)》
- ㄴ. 나·스·불·니(1번) 《·나·스·불·니(월인기189)》³⁶⁾
- ㄷ. 흐·스·바·늘(1번) 《·흐·스·바·늘(석상23:39a)》
- ㄹ. 꺾·습·교(1번) 《·꺾·습·교(월인기191)》
- 흐·스·보·딕(1번) 《·흐·스·보·딕(석상24:31b)》
- 흐·스·보·려(1번) 《·흐·스·보·려(월인기108)》
- 흐·스·불·니(1번) 《·흐·스·불·니(월인기65)》
- 흐·스·보·아·다(1번) 《·흐·스·보·아·다(석상24:31b)》

(19) {보-, 오-, 두-, 주-}+ {-습X}계의 결합

- ㄱ. 보·스·바(8번) 《·보·스·바(월인기65)》
- ㄴ. 오·스·바(1번) 《·오·스·바(석상23:42b)》
- 보·스·불(2번) 《·보·스·불(석상23:12a)》
- 오·스·불·며(1번) 《·오·스·불·며(월인기117)》
- 보·습·계(2번) 《·보·습·계(석상13:26a)》
- 오·습·더·니(1번) 《·오·습·더·니(월인기23)》
- 보·습·교(10번) 《·보·습·교(월인기103)》
- 오·습·불·니(1번) 《·오·습·불·니(월인기34)》
- 보·스·보·니(2번) 《·보·스·보·니(석상13:27a)》
- 보·스·불·며(4번) 《·보·스·불·며(석상13:13b)》

35) 예외 주사(1번) 《주사(두시24:03a)》, 주사·문(1번) 《주사·문(두시24:02a)》, 주사·며(1번) 《주사·며(두시24:31b)》, 주·시도·다(1번) 《주·시도·다(두시23:13a)》

36) 예외 나·스·불·씩(1번) 《나·스·불·씩(월인기52)》

·보스·뻐더·니(2번) 《·보스·뻐더·니(석상13:13a)》

(18)와 (19)에서도 변동평성 동사어간 {가-, 나-, 껀-, 껀-, 보-, 오-, 두-, 주-}과 {-습X} 계류 어미구조체인 {-·습·아, -·습·으·며, -·습·고, -·습·더·니……}가 결합하여 어절을 이룰 때, 평성이 거성으로 변동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변동평성 동사어간 {가-, 나-, 껀-, 껀-, 보-, 오-, 두-, 주-}와 종결어미 {-·다·가, -·도·다} 등의 어미들이 결합하여 어절을 이룰 때, 성조변동의 모습을 살펴보자.

(20) {가-, 나-, 껀-, 껀-}+ 종결어미{-·도·다, -·다·가}의 결합

- ㄱ. ·가·다·가(1번) 《·가다·가(두시16:64b)》³⁷⁾ ㄴ. ·나도·다(7번) 《·나도·다(두시11:09a)》
 ·가·도·다(1번) 《·가도·다(두시20:17b)》
- ㄷ. ·껀다·가(2번) 《·껀다·가(두시07:16b)》 ㄹ. ·껀도·다(1번) 《·껀도·다(두시20:44a)》
 ·껀도·다(10번) 《·껀도·다(두시06:24a)》

(21) {보-, 오-, 주-, 두-}+ 종결어미{-·도·다, -·다·가}의 결합

- ㄱ. ·보다·가(1번) 《·보다·가(월인기150)》 ㄴ. ·오다·가(1번) 《·오다·가(석상23:57b)》
 ·보도·다(2번) 《·보도·다(두시07:27a)》 ·오도·다(8번) 《·오도·다(두시08:53a)》
- ㄷ. ·주도·다(1번) 《·주도·다(두시16:20b)》 ㄹ. ·뵤다·가(1번) 《·뵤다·가(두시07:35b)》
 ·뵤다·가(1번) 《·뵤다·가(석상24:15a)》
 ·뵤도·다(1번) 《·뵤도·다(두시16:43b)》

(20)와 (21)을 보면, 변동평성 동사어간 {가-, 나-, 껀-, 껀-, 보-, 오-, 두-, 주-}의 성조가 {-·다·가, -·도·다} 계류 어미 앞에서 평성에서 거성으로 변동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4.2.2. 변동평성 동사어간의 상성화

{가-, 나-, 껀-, 껀-, 보-, 오-, 주-, 두-} 등의 변동평성 동사어간은 {-(·오/우)X}계와 {-(·으)X}의 어미구조체와 결합할 때 동사어간의 성조가 평성으로 실현되거나 상성으로 변동한다. 어미구조체에 따라 각 동사어간의 성조변동이 일어나는 예를 살펴보자.

다음은 변동평성 동사어간 {가-, 나-, 껀-, 껀-}와 {-·오X} 계류 어미구조체가 결합하여 어절을 이룰 때, 성조변동의 모습을 살펴보자.

(22) {가-, 나-, 껀-, 껀-}+ {-(·오)X}계의 결합

- ㄱ. ① :가·매(32번) 《:가매(두시25:13a)》 ㄴ. ① :나·미(1번) 《:나·미(석상19:23a)》
 :가·미(15번) 《:가미(석상13:33b)》 :나·미(11번) 《:나미(두시06:53a)》
 :가·문(6번) 《:가문(두시08:54a)》 :나·뵤(2번) 《:나·뵤(월인기185)》
 :가·물(43번) 《:가물(두시25:38a)》 :나·물(1번) 《:나·물(석상9:16b)》
 :가·뵤(2번) 《:가·뵤(석상24:11b)》 :나·물(2번) 《:나·물(두시16:38b)》
 :가·리·라(8번) 《:가리·라(월인기177)》 :나리·라(1번) 《:나리·라(월인기63)》
- ② :가·매(4번) 《:가매(두시15:48b)》 ② :나·미(1번) 《:나·미(두시14:37a)》
 :가·물(7번) 《:가·물(두시15:12b)》 :나·물(1번) 《:나·물(두시21:18a)》
- ㄷ. ① :껀·매(1번) 《:껀·매(두시08:69b)》 ㄹ. ① :호·미(1번) 《:호·미(두시08:08b)》

37) 예외 :가다·가(2번) 《:가다·가(두시06:34a)》

- | | |
|---------------------------|------------------------------|
| :펴믈(2번) 《:펴믈(두시14:33b)》 | ② 호니(2번) 《호니(두시15:50b)》 |
| :펴미(1번) 《:펴미(두시16:24b)》 | 호라(2번) 《호라(두시15:55a)》 |
| :펴·려(1번) 《:펴·려(석상13:26b)》 | 호믈(2번) 《호믈(두시20:12a)》 |
| :펴니(1번) 《:펴니(두시25:27a)》 | ③ ·흙(2번) 《·흙(두시17:14b)》 |
| :펴라(1번) 《:펴라(두시15:55a)》 | ·호미(22번) 《·호미(두시07:16b)》 |
| :펴리·라(3번) 《:펴리·라(월인기83)》 | ·호믈(49번) 《·호믈(두시06:37a)》 |
| ② 퍼믈(1번) 《퍼믈(두시24:33b)》 | ·호리·라(25번) 《·호리·라(석상13:10a)》 |

(22)를 보면, 변동평성 동사어간 {가-, 나-, 펴-, 흐-}의 성조가 {-·오/우}계류 어미구조체 앞에서 평성이나 상성으로 변동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2)ㄱ①과 ㄴ①에서 동사어간 {가-, 나-}의 성조는 {-·(오/우)ㄴ, ㅁ}과 결합하여 상성으로 실현되고 있으나 (22)ㄱ②과 ㄴ②와 같이 거성으로 실현된 예외도 있다. (22)ㄷ①과 ②에서 동사어간 {펴-}의 성조가 {-·(오/우)ㄴ, ㅁ}과 결합할 때, 동사어간의 기저성조인 평성이 표면형으로 도출하거나 상성으로 변동함을 알 수 있다. 한편, (22)ㄷ에서 동사어간 {흐-}와 {-·(오/우)ㄴ, ㅁ}가 결합할 때, 동사어간 {흐-}의 성조가 (22)ㄷ①과 같이 상성으로 실현되기도 하고, (22)ㄷ②와 같이 평성으로 실현되기도 하며, (22)ㄷ③과 같이 거성으로도 실현된다. 즉, 동사어간 {흐-}의 성조가 상성으로 변동하는 용례보다 거성으로 변동하는 용례가 압도적으로 그 수가 많다. 이러한 점에서 동사어간 {가-, 나-, 펴-}의 성조변동과 동사어간 {흐-}의 성조변동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변동평성 동사어간 {보-, 오-, 주-, 두-}와 {-·(오/우)X}계류 어미구조체가 결합하여 어절을 이룰 때, 성조변동의 모습을 살펴보자.

(23) {보-, 오-, 주-, 두-}+ {-·(우)X}계의 결합

- | | |
|-------------------------------|------------------------------|
| ㄱ.① :보매(5번) 《:보매(두시07:29a)》 | ㄴ.① :오믈(21번) 《:오믈(두시06:40a)》 |
| :보미(8번) 《:보미(두시07:21b)》 | :오매(47번) 《:오매(두시06:01b)》 |
| :보·딛(2번) 《:보·딛(석상13:23b)》 | :오미(13번) 《:오미(두시06:03a)》 |
| :봄·과(2번) 《:봄·과(석상13:38b)》 | :오니(9번) 《:오니(두시06:37b)》 |
| :보믈(7번) 《:보믈(두시07:24a)》 | :오딛(1번) 《:오딛(두시25:22b)》 |
| ② 보·믹(17번) 《보·믹(두시07:35a)》 | ② 오매(1번) 《오매(두시08:70a)》 |
| 보딛(1번) 《보딛(두시23:50a)》 | 오믈(1번) 《오믈(두시14:22a)》 |
| 보미(3번) 《보미(두시11:34a)》 | |
| 보믈(3번) 《보믈(두시23:38b)》 | |
| ③ ·보미(21번) 《·보미(두시08:39a)》 | ③ ·오매(5번) 《·오매(두시16:27b)》 |
| ·보믈(4번) 《·보믈(두시08:44a)》 | ·오미(1번) 《·오미(두시22:03a)》 |
| ·보믈(10번) 《·보믈(두시23:20b)》 | ·오믈(4번) 《·오믈(두시08:40b)》 |
| ·보미러·니(1번) 《·보미러·니(두시11:04b)》 | |
| ㄷ.① :주려(2번) 《:주려(두시15:37b)》 | ㄷ.① :두믈(3번) 《:두믈(두시24:25a)》 |
| :주·미(2번) 《:주·미(석상13:39b)》 | :두믈(1번) 《:두믈(두시17:36a)》 |
| :주믈(1번) 《:주믈(두시24:56b)》 | :두미(1번) 《:두미(두시06:02b)》 |
| :주마(1번) 《:주마(두시07:39a)》 | :듀미(1번) 《:듀미(두시08:53a)》 |
| :주리·라(2번) 《:주리·라(석상23:24a)》 | :듀믈(1번) 《:듀믈(두시10:39b)》 |
| :쥬·메(1번) 《:쥬·메(두시07:06b)》 | |

의 실현은 거성으로 변동하는 용례를 기본으로 하고 평성과 상성으로 실현되는 용례도 인정하기로 한다.

다음은 {가-, 나-, 꺾-, 흐-, 보-, 오-, 주-, 두-} 등의 변동평성 동사어간이 관형형어미 {-(-으)ㄴ, ㄹ}의 어미와 결합할 때, 동사어간의 성조변동을 살펴보자.

(24) {가-, 나-, 셔-, 흐-}+ {-(-으)ㄴ, ㄹ}계의 결합

- | | |
|--------------------------|----------------------------|
| ㄱ.① 갈(3번) 《갈(석상24:50a)》 | ㄴ.① 난(4번) 《난(두시06:52a)》 |
| ② ·갈(7번) 《·갈(두시11:25b)》 | 날(3번) 《날(두시21:20a)》 |
| ③ :간(2번) 《:간(석상24:52a)》 | ② :난(1번) 《:난(석상6:8b)》 |
| :갈(19번) 《:갈(석상6:33a)》 | :날(1번) 《:날(석상23:12a)》 |
| ㄷ.① 혼(4번) 《혼(두시06:12b)》 | ㄷ. ① :펼(2번) 《:펼(두시10:16b)》 |
| 훔(16번) 《훔(두시07:20b)》 | |
| 훈(1번) 《훈(두시07:34b)》 | |
| ② ·혼(37번) 《·혼(두시06:06b)》 | |
| ·훔(25번) 《·훔(석상24:11b)》 | |
| ·훔(5번) 《·훔(석상23:58b)》 | |

(24)는 동사어간 {가-, 나-, 꺾-, 흐-}와 {-은, -을}의 어미와 결합할 때, 동사어간의 활용형들이다. (24)ㄱ①②에서 동사어간 {가-}가 {-은, -을}의 어미와 결합할 때, 동사어간의 성조가 거성과 상성으로 변동하고 있고, (24)ㄴ①②에서 동사어간 {나-}가 {-은, -을}의 어미와 결합할 때, 동사어간의 성조가 평성과 상성으로 변동하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24)ㄷ①에서 동사어간 {꺾-}가 {-은, -을}의 어미와 결합할 때, 동사어간의 성조가 상성으로 변동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24)ㄷ②에서 동사어간 {흐-}가 {-은, -을}의 어미와 결합할 때, 동사어간의 성조가 평성과 거성으로 변동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동사어간 {하-}의 성조변동은 동사어간 {가-, 나-, 꺾-}와 다르다는 것이 특이하다.

(25) {보-, 오-, 주-}+ {-(-으)ㄴ, ㄹ}계의 결합

- | | |
|-------------------------------------|-------------------------|
| ㄱ.① 본(1번) 《본(석상9:26a)》 | ㄴ.① 온(8번) 《온(두시07:34a)》 |
| 볼(9번) 《볼(두시08:28b)》 | ② ·온(17번) 《·온(석상6:25b)》 |
| ② ·볼(1번) 《·볼(두시16:47b)》 | ③ :온(1번) 《:온(두시08:33a)》 |
| ③ :볼(3번) 《:볼(두시07:37b)》 | :을(2번) 《:을(두시15:11a)》 |
| ㄷ.① 줄(5번) 《줄(석상19:36b)》 | |
| ② ·주·니(1번) 《·주·니(두시15:23a)》 주+ ㄴ+ 이 | |
| ·줄(16번) 《·줄(석상13:62a)》 | |
| ③ :준(2번) 《:준(두시22:38b)》 | |
| :줄(2번) 《:줄(두시07:40a)》 | |

(25)는 동사어간 {보-, 오-, 주-, 두-}와 {-(-으)ㄴ, ㄹ}의 어미구조체와 결합할 때, 동사어간의 활용형들이다. (25)ㄱ, ㄴ, ㄷ에서 동사어간 {보-}가 {-(-으)ㄴ, ㄹ}의 어미구조체와 결합할 때, 동사어간의 성조가 (25)ㄱ①, ㄴ①, ㄷ①과 같이 평성으로 변동하고, (25)ㄱ②, ㄴ②, ㄷ②과 같이 거성으로 변동하며, (25)ㄱ③, ㄴ③, ㄷ③과 같이 상성으로 변동하고 있다.

{가-, 나-, 꺾-, ᄃ-, 보-, 오-, 주-, 두-} 등의 변동평성 동사어간은 {-(-으)ㄴ, ㄷ}의 어미와 결합할 때, 변동평성 동사어간의 예외 실현을 파악하기 위해, 변동평성 동사어간의 활용형 총 198개를 선별하여 어간에 따라 빈도수를 조사해 정리한 결과가 아래 <표-2>이다.

<표-2> 동사어간과 {-(-으)ㄴ, ㄷ} 어미의 결합에서 성조실현

어미구조체	표면형	동사어간								합 계
		가-	나-	꺾-	ᄃ-	보-	오-	주-	두-	
{-(-으)ㄴ, ㄷ}	평성	3	7	0	21	10	8	5	0	54
	거성	7	0	0	67	1	17	17	0	109
	상성	21	2	2	0	3	3	4	0	35
합	계	31	9	2	88	14	28	26	0	198

<표-2>³⁹⁾를 보면, 동사어간 {가-, 꺾-}가 관형형어미 {-은, -을}과 결합할 때, 동사어간의 성조는 주로 상성으로 변동하고, 동사어간 {나-, 보-}가 관형형어미 {-은, -을}과 결합할 때, 동사어간의 성조는 주로 평성으로 변동한다. 반면, 동사어간{보-, 오-}가 관형형어미 {-은, -을}과 결합할 때, 동사어간의 성조는 주로 거성으로 변동하나, 기저성조 평성이 표면형으로 도출되는 것과 상성으로 변동하는 것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실현된다. 특히, 동사어간 {ᄃ-}가 관형형어미 {-은, -을}과 결합할 때, 동사어간의 성조는 주로 거성으로 변동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따라서 동사어간 {가-, 나-, 꺾-, 보-, 오-, 주-}의 성조변동은 상성, 거성, 평성으로 변동되고, 그 변동의 기본을 정하기가 어렵지만, 동사어간 {ᄃ-}가 관형형어미 {-은, -을}과 결합할 때, 동사어간의 성조가 거성으로 변동하는 것을 기본으로 잡을 수 있다.

4.2.3. 변동평성 동사어간의 기저성조 실현

{가-, 나-, 꺾-, ᄃ-, 보-, 오-, 주-, 두-} 등의 변동평성 동사어간은 {-·게, -고, -디, -니라, -리라, -라, -며, -면……} 등과 같은 어미구조체들과 결합할 때 기저성조인 평성이 표면형으로 실현된다. 어미구조체에 따라 각 동사어간의 성조변동이 일어나는 예를 살펴보자.

(26) {가-, 나-, 꺾-, ᄃ-}+ {-·고, -·디, -·며……}계의 결합

- | | |
|---|---|
| ㄱ. 가·게(2번) 《가·게(두시17:33a)》 ⁴⁰⁾ | ㄴ. 나·게(3번) 《나·게(두시10:15b)》 ⁴¹⁾ |
| 가·고(17번) 《가·고(두시06:34a)》 | 나·고(10번) 《나·고(월인기188)》 |
| 가·고·져(14번) 《가·고·져(두시08:19b)》 | 나·디(20번) 《나·디(석상24:49a)》 |
| 가·나(3번) 《가·나(두시07:16b)》 | 나·니라(5번) 《나·니라(두시08:49a)》 |
| 가·니(16번) 《가·니(월인기149)》 | 나·디(6번) 《나·디(석상24:14b)》 |
| 가·나·라(4번) 《가·니라(두시06:25a)》 | 나·라(2번) 《나·라(석상24:12a)》 |

39) 이 표에서 숫자 0이라고 적은 난은 연구대상 문헌에서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지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40) 예외 ·가·게(1번) 《·가·게(두시25:54b)》, ·가·고·져(1번) 《·가·고·져(두시08:51b)》, ·가·리·라(1번) 《·가·리·라(두시16:31a)》, ·가·리·라(1번) 《·가·리라(두시21:31a)》, ·가·며(2번) 《·가·며(두시14:06b)》

41) 예외 ·나·고(1번) 《·나·고(두시08:69b)》, ·나·니(1번) 《·나·니(두시24:27a)》, ·나·도(1번) 《·나·도(두시07:27b)》, ·나·료(1번) 《·나·료(두시25:29a)》

- 가·나·오(3번) 《가·나·오(두시11:28b)》
가·디(11번) 《가·디(두시07:19a)》
가·라(4번) 《가·라(두시07:35a)》
가·려·뇨(3번) 《가·려·뇨(두시14:04b)》
가·며(13번) 《가·며(석상23:25b)》
가·면(6번) 《가·면(석상19:2a)》
ㄷ. 꺾·고(2번) 《꺾·고(월인기117)》⁴²⁾
꺾·고(1번) 《꺾·고(두시23:05b)》
꺾·고·져(1번) 《꺾·고·져(두시22:02b)》
꺾·곡(1번) 《꺾·곡(두시08:55b)》
꺾·나라(4번) 《꺾·나라(두시16:05a)》
꺾·디(5번) 《꺾·디(두시08:04b)》
꺾·락(1번) 《꺾·락(두시16:21b)》
꺾·리오(1번) 《꺾·리오(두시24:05a)》
꺾·리로·다(1번) 《꺾·리로·다(두시20:44b)》
꺾·며(1번) 《꺾·며(두시16:55a)》
꺾·면(1번) 《꺾·면(두시22:43a)》
나·며(13번) 《나·며(석상19:10a)》
나·면(3번) 《나·면(두시17:13b)》
날·가(1번) 《날·가(두시16:37a)》
나·나라(5번) 《나·나라(두시08:49a)》
나·리니(2번) 《나·리니(두시20:49b)》
나·니이·다(2번) 《나·니이·다(월인기24)》
ㄹ. ᄃ·고(99번) 《ᄃ·고(석상13:16b)》⁴³⁾
ᄃ·나(6번) 《ᄃ·나(두시07:15b)》
ᄃ·니(51번) 《ᄃ·니(월인기103)》
ᄃ·디(8번) 《ᄃ·디(두시07:05b)》
ᄃ·듯(5번) 《ᄃ·듯(석상13:45a)》
ᄃ·디·웨(1번) 《ᄃ·디·웨(두시24:59b)》
ᄃ·라(17번) 《ᄃ·라(석상23:11b)》
ᄃ·리·니(7번) 《ᄃ·리·니(석상13:40b)》
ᄃ·며(4번) 《ᄃ·며(두시20:17b)》
ᄃ·면(1번) 《ᄃ·면(두시08:32b)》
ᄃ·씩(5번) 《ᄃ·씩(석상19:36a)》

(27) {보-, 오-, 주-, 두-}+ {-·고, -·디, -·며...}계의 결합

- ㄱ. 보·게(3번) 《보·게(석상13:10a)》⁴⁴⁾
보·고(53번) 《보·고(월인기9)》
보·니(18번) 《보·니(석상19:29b)》
보·디(45번) 《보·디(석상13:57a)》
보·디·웨(1번) 《보·디·웨(두시21:16b)》
보·라(16번) 《보·라(월인기17)》
보·리라(5번) 《보·리라(두시08:38a)》
보·리로·다(20번) 《보·리로·다(석상13:20a)》
보·며(28번) 《보·며(석상13:13b)》
보·면(3번) 《보·면(두시15:21a)》
본·딛(3번) 《본·딛(두시17:19a)》
볼·씩(1번) 《볼·씩(석상19:9b)》
ㄷ. 두·게(4번) 《두·게(월인기168)》⁴⁵⁾
두·고(11번) 《두·고(석상24:42b)》
ㄴ. 오·고(8번) 《오·고(두시06:15a)》
오·나(2번) 《오·나(두시07:08a)》
오·니(32번) 《오·니(두시08:27b)》
오·디(8번) 《오·디(두시06:49a)》
오·라(4번) 《오·라(두시15:43a)》
오·며(9번) 《오·며(석상23:50b)》
오·면(1번) 《오·면(두시07:13a)》
오·나라(4번) 《오·나라(두시16:17a)》
온·가(1번) 《온·가(두시17:12a)》
올·가(1번) 《올·가(두시25:13a)》
올·고(1번) 《올·고(두시21:44a)》
올·다(3번) 《올·다(두시08:37b)》
ㄹ. 주·고(5번) 《주·고(두시06:11a)》⁴⁶⁾
주·니(2번) 《주·니(두시15:25b)》

42) 예외 :꺾고(1번) 《:꺾고(두시14:14b)》, :꺾도·다(1번) 《:꺾도·다(두시23:26a)》, :꺾노·라(1번) 《:꺾노·라(두시11:12b)》

43) 예외 ·ᄃ·라(1번) 《·ᄃ·라(두시17:13b)》, ·ᄃ·고(5번) 《·ᄃ·고(월인기125)》, ·ᄃ·니(1번) 《·ᄃ·니(두시16:68a)》, ·ᄃ·디(2번) 《·ᄃ·디(두시11:52a)》, ·ᄃ·나라(1번) 《·ᄃ·나라(두시14:27a)》, ·ᄃ·니오(1번) 《·ᄃ·니오(두시10:09a)》, ·ᄃ·니·며(1번) 《·ᄃ·니·며(석상23:31b)》

44) 예외 ·보·고(1번) 《·보·고(두시22:16a)》, ·보·곡(1번) 《·보·곡(두시16:57b)》, ·보·디(1번) 《·보·디(두시16:50b)》, ·보·니(4번) 《·보·니(두시14:32a)》, 보·라(1번) 《보·라(석상23:11b)》, ·보리로·다(1번) 《·보리로·다(두시07:16b)》, ·보리로·소·니(1번) 《·보리로·소·니(두시16:02a)》

45) 예외 ·두·도·다(1번) 《·두·도·다(두시20:09a)》

46) 예외 ·주리·며(1번) 《·주리·며(두시08:29a)》, ·주리·라(2번) 《·주리·라(석상23:44b)》

두·니(1번) 《두·니(석상24:20a)》
 두·디(2번) 《두·디(두시17:24b)》
 두·려(2번) 《두·려(두시16:56b)》
 두·며(1번) 《두·며(두시20:28a)》
 두·면(1번) 《두·면(두시22:19a)》
 두·려뇨(2번) 《두·려뇨(두시06:40a)》
 두·리오(1번) 《두·리오(두시11:19b)》
 둘·가(1번) 《둘·가(두시25:10b)》

주·라(1번) 《주·라(두시16:27a)》
 주·며(3번) 《주·며(두시24:28a)》
 주리·며(1번) 《주리·며(두시23:25a)》
 주·리로·다(1번) 《주·리로·다(두시22:43b)》
 주·리어·니(1번) 《주·리어·니(석상9:13a)》
 준·들(1번) 《준·들(두시14:12a)》

(26)과 (27)을 보면, 동사어간 {가-, 나-, 께-, 햏-, 보-, 오-, 주-, 두-}가 {-·게, --고, --디, --나라, --리·라, --라, --며, --면……} 등과 같은 어미구조체와 결합할 때, 동사어간의 기저성조인 평성이 표면형으로 도출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4.2.2절에서 논의했던 {가-, 나-, 께-, 햏-, 보-, 오-, 주-, 두-} 등의 변동평성 동사어간은 특정 어미 또는 어미구조체와 결합할 때, 동사어간의 성조변동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3> 변동평성 동사어간의 성조변동

동사어간	가 -	나 -	꿔-	햏-	보 -	오-	주-	두-
어미구조체	L _{R-1}	L _{R-1}	L _{R-1}	L _{H-1}	L _{R-1}	L _{R-1}	L _{R-1}	L _{R-1}
{-·아X계, --거X계, --늑X계, --더X계, --시X계, -습X계,} 종결어미 {-·다가, --도·다}	거(H)	거(H)	거(H)	거(H)	거(H)	거(H)	거(H)	거(H)
{-(·오/·우)X}계	상(R)	상(R)	상(R)	거(H)	상(R)	상(R)	상(R)	상(R)
관형형어미 {-·은, --을}47)	상(R)	평(L)	상(R)	거(H)	평(L)	거(H)	거(H)	용례 없음
종결어미 {-·게, --고, --꼭, --니, --디, --며, --면, --니·라, --니·오 -르·가, -르·다, -르·식, -르·고, -르·션·덩…… } }	평(L)	평(L)	평(L)	평(L)	평(L)	평(L)	평(L)	평(L)

<표-3>에서 중세국어의 변동평성 동사어간은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동사어간이 어미 또는 어미구조체와 결합할 때, 동사어간의 기저성조인 평성이 상성과 거성으로 변동하는 동사어간이다. 여기에는 동사어간 {가-, 나-, 께-, 보-, 오-, 주-, 두-}가 속하고, 이것을

47) 변동평성 동사어간과 관형형어미 {-·은/-을}이 결합할 때, 동사어간 {햏-}은 압도적으로 거성으로 변동한 것이 많지만, 다른 동사어간의 성조실현은 빈도수로 그 기본적인 변동을 정하기 어렵다. 이에, <표-3>에서는 빈도수가 가장 큰 것만을 취하여 표를 작성했다. 자세한 빈도수는 <표-2>를 참조하기 바란다.

/L_R-1/표시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동사어간이 어미 또는 어미구조체와 결합할 때, 동사어간의 기저성조인 평성이 거성으로 변동하는 동사어간이다. 여기에는 동사어간 {ㅎ-}가 속하고, 이것을 /L_R-1/표시할 수 있다. 참고로, 변동평성 동사어간의 분류에서 관형형어미가 결합할 때는 고려하지 않았다.

4.3. 변동평성 동사어간의 표면성조 도출과정

4.2절에서 변동평성 동사어간 {가-, 나-, 퍼-, ㅎ-, 보-, 오-, 주-, 두-}가 어미 또는 어미구조체와 결합할 때, 동사어간의 성조변동을 살펴, 우리는 변동평성 동사어간을 /L_R-1/과 /L_H-1/로 나누었다. 이 절에서는 동사어간의 기저성조인 평성이 표면성조로 도출되면서 거성과 상성으로 변동하는 도출과정을 설명할 것이다.

변동평성 동사어간의 성조변동은 두 가지로 일어나는데, 첫째는 변동평성 동사어간과 {-(·오/우)X}계와 {-(·오)X}의 어미구조체와 결합할 때 실현되는 상성화이다. 둘째, 변동평성 동사어간과 {-·아X}계, {-·(·)거X}계, {-·ㄴX}, {-·시X}, {-·습X}계, 종결어미{-·다·가, -·도·다} 등과 같은 어미구조체들과 결합할 때 실현되는 거성화이다.

먼저, 상성화의 도출과정을 “:가·딕<석상24:11b>”와 “:호·딕<석상13:19a>”를 이용해서, 기저성조인 평성이 상성으로 도출되는 그 과정을 살펴보자.

(28) “:가·딕”의 도출과정

/가- + ·오 + ·딕/	기저 표상
가·아·딕	/오/ → /아/
:가·딕	음절 축약 & L+H→R 성조규칙 적용
:가·딕	최종 방점표상

(29) “:호·딕”의 도출과정

/ㅎ- + ·오 + ·딕/	기저 표상
ㅎ·오·딕	/·/ 탈락
·호·딕	음절 축약
·호·딕	최종 방점표상

(28)은 동사어간 {가-}와 {-오+ 딕}가 결합되어, 동사어간의 성조가 기저성조인 평성에서 상성으로 변동하는 도출과정을 보인 것이다. 즉, 평성이 상성화하는 도출과정이다. “:가·딕”를 형태소분석을 하면, /ㅎ-+·오+·딕/로 분석할 수 있다. 선어말어미 /-오-/가 /-아-/로 바뀌고 음절이 축약할 때, 평성과 거성이 축약하여 상성으로 변한다(김차균1984:17 참고).

참고로, 동사어간 {ㅎ-}와 {-오+ 딕}가 결합할 때, 다른 변동평성 동사어간들과 달리, 동사어간 {ㅎ-}의 성조는 거성으로 변동한다. 그 도출과정은 (29)에 제시했다. 즉, 동사어간의 말음인 모음이 탈락하고, 음절이 축약되어 평성이 거성으로 변동한 것이다(김완진 1977:57-61 참고).

둘째, 거성화의 도출과정을 “:보아·셔<두시06:06b>”를 이용하여, 변동평성 동사어간 {보-}의

성조가 거성으로 변동하는 과정을 설명하겠다.

(30) “·보아·셔”의 도출과정	
/보- + -아·셔/	기저 표상
·보·아·셔	어간성조 상승(L→H)
·보아·셔	중화규칙
·보아·셔	최종 방점표상

(30)은 동사어간 {보-}와 {-아·셔}가 결합할 때, 동사어간의 성조가 기저성조인 평성에서 거성으로 변동하는 도출과정을 보인 것이다. 즉, 평성이 거성화하는 도출과정이다. “·보아·셔”를 형태소분석을 하면, /보-+·아·셔/로 분석할 수 있다. 동사어간의 성조가 어미 {-아·셔} 앞에서 거성으로 변동하고, 중간형 /·보·아·셔/에 중화규칙이 적용되어 최종방점형 /·보·아·셔/가 도출된다. 중세국어에서 한 어절 안에서 첫 측성(거성과 양성) 위치에 뒤따르는 성조는 중화규칙이 적용되어 변별적 기능을 잃는다(김차균:2006 참고).

5. 맺음말

이 연구에서는 변동평성 동사어간의 기저성조를 재론하고, 15세기 변동평성 동사어간의 성조변동이 어간말음인 모음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으며, 변동평성 동사어간의 성조변동의 도출과정을 살펴보았다. 본론에서 언급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결론을 대신하기로 한다.

첫째, 변동평성 동사어간의 기저성조를 재론하여, 동사어간의 기저성조를 평성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성조변화를 기술하는 입장에서, 현대 성조방언인 창원방언과 안동방언에서 2음절 변동평성 동사어간 “나가-”의 성조가 1음절 변동평성 동사어간“가-”의 성조에 따라 예측할 수 있는데, 변동평성 동사어간의 기저성조를 거성으로 설정할 때, 이것을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둘째, 변동평성 동사어간 {가-, 나-, 피-, ᄃ-, 보-, 오-, 주-, 두-}가 특정한 어미구조체와 결합할 때 어간말 모음에 따라 성조변동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 ① 변동평성 동사어간 {가-, 나-, 피-, ᄃ-, 보-, 오-, 주-, 두-}와 {-·이X}계, {-·(·)거X}계, {-·ㄴX}, {-·시X}, {-·습X}계, 종결어미{-·다·가, -·도·다} 등과 결합할 때, 동사어간의 성조가 동사어간의 모음과 관계없이 모두 거성으로 변동한다.
- ② 변동평성 동사어간과 {-·(·오/우)X}계가 결합할 때, 동사어간 {가-, 나-, 피-, 보-, 오-, 주-, 두-}의 성조는 주로 양성으로 변동하나 동사어간 {ᄃ-}의 성조는 주로 거성으로 변동한다.
- ③ 변동평성 동사어간과 관형형어미 {-은, 을}과 결합할 때, 동사어간 {가-, 나-, 피-, 보-, 오-, 주-, 두-}의 성조는 기본적인 변동을 정할 수 없을 정도로 평성으로 실현되거나 거성과 양성으로 변동한다. 그러나 동사어간 {ᄃ-}의 성조는 주로 거성으로 변화한다.
- ④ 변동평성 동사어간의 어간말 모음의 성조실현을 살펴, 동사어간을 /L_{R-1}/과 /L_{H-1}/

로 구분하였다. /L_{R-1}/에 속하는 동사어간은 {가-, 나-, 펴-, 보-, 오-, 주-, 두-}이고, /L_{H-1}/에 속하는 동사어간은 {ㅎ-}이다.

셋째, 변동평성 동사어간이 어미 혹은 어미구조체와 결합할 때, 동사어간의 성조가 거성화하거나 상성화한다. 그 도출과정을 살펴보았다.

- ① “:가·딛”는 선어말어미 /-오-/가 /-아-/로 바뀌고, 음절이 축약할 때, 평성과 거성이 축약하여 상성으로 변동한다.
- ② “·보아·셔”는 /보-+·아·셔/로 분석되며, 동사어간의 성조가 어미 {-·아·셔} 앞에서 거성으로 변동하고, 중간형 /·보·아·셔/에 중화규칙이 적용되어 /·보·아·셔/가 도출된다.

■ 참고문헌

- 강흥구(2005), 강릉방언 1음절 어간 풀이씨 성조, 『한글』 270, 한글학회.
- 김성규(1994), 중세국어의 성조 변화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성규(2007), 중세국어의 형태 분석과 성조, 『한국어학』 37, 한국어학회.
- 김세진(2006), 경남 서남부 방언의 성조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영만(1987), 국어초분절음소의 사적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완진(1977), 『중세국어성조의 연구』, 탑출판사.
- 김차균(1984), 15세기 국어의 음운 체계 (Ⅱ), 『논문집』 11,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김차균(1998), 『나랏말과 겨례의 슬기에 바탕을 둔 음운학강의』, 태학사.
- 김차균(2003), 『영남 방언 성조의 비교』, 역락.
- 김차균(2006ㄱ), 우리말 성조사 500년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국어사 어디까지 와 있는가?』, 태학사.
- 김차균(2006ㄴ), 『중부 동해안 방언의 성조 비교』, 글누림.
- 문효근(1974), 한국어 성조의 분석적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숙희(2005), 경북 동해안 방언의 성조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남호(2002), 『두시언해 어휘 색인』, 태학사.
- 차재은(1996), “하다류” 동사의 기저 성조 고찰, 『국어국문학』 117.
- 최계영(2007), 15세기 국어 용언 활용형의 성조,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영미(2000), 삼척지역어의 운소체계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영미(2001), 어중 된소리되기와 운율 구조, 『한말연구』 9, 한말연구학회.
- 최영미(2003ㄱ), 안면지역어 ‘니’, ‘기’의 음소 설정에 관한 연구, 『한말연구』 12, 한말연구학회.
- 최영미(2003ㄴ), 삼척지역어의 장단과 고저에 대한 청취 실험 연구, 『국어교육』 110, 한국국어교육연구학회.
- 최영미(2006), <소학언해>에 나타난 합성어 성조 변동, 『우리말 음운 연구의 실제』, 경진문화사.
- 최영미(2008), 강원도 고성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우리말의 텍스트 분석과 현상 연구』, 역락.
- 최영미(2009ㄱ), 정선방언과 그 역사적인 변천에 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영미(2009ㄴ), 중세국어 합성어의 성조규칙의 변천, 『한국어의 어제 그리고 오늘』, 역락.
- 허 웅(1955/1963), 『중세국어연구』, 정음사.
- 허 웅(1985), 『국어음운학』, 샘문화사.
- Lee, Sang-Oak. (1987), *Middle Korean Tonology*,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Illinois.
- Ramsey, S, Robert, (1978), *Accent and Morphology in Korean dialects : A Descriptive and Historical Study*, 탑출판사.

15세기 변동평성 동사의 성조변동

최중호(동의대학교)

최영미 선생님의 논문은 15세기 변동평성 동사어간의 기조 성조를 재론하고, 성조 변동의 도출 과정을 살펴보는 연구입니다. 연구자는 지금까지 성조 연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성과물들을 꾸준히 발표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분야에서 고생하는 발표자의 수고에 토론자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1. “이러한 생각의 근거는 15세기 중세국어의 1음절 변동평성 동사어간의 기저성조를 평성이나 거성 어느 한 성조로 설정하더라도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조변화를 기술하는 관점에서 1음절 변동평성 동사어간의 기저성조를 거성으로 잡을 때, 현대국어 성조방언에서 1음절 변동평성 동사 “가·다”의 동사어간의 성조실현에 따라 2음절 변동평성 동사 “나가·다”의 성조실현을 예측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우선 공통적으로 기술될 수 없는 부분을 가진다고 한다면 이것 역시 성조의 기저형을 평성으로 볼 수 없는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닌지요? 그리고 또 기본적인 질문입니다만 현대국어 성조방언과 15세기 국어의 성조를 동일한 범주에서 설정이 가능한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2. <표-3>에서 변동평성 동사 어간의 분류에서 관형형어미가 결합할 때는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논지를 주목해보면 관형형어미가 결합했을 때 복잡하게 성조가 변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변형되는 성조에 기본형을 잡기가 어렵다고 하였으며, 그렇지만 성조가 거성으로 변동하는 것을 기본으로 잡을 수 있다고도 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가적으로 관형형어미가 성조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이야기 패러디 광고의 텍스트성 고찰

-공주 이야기가 차용된 텔레비전 광고를 중심으로-

윤재연(건국대학교)

□ 차례 □

1. 패러디와 광고
 2. 이야기 패러디 광고의 텍스트성
 - 2.1. 의도성과 용인성
 - 2.2. 응집성, 응결성
 - 2.3. 정보성
 - 2.4. 상황성, 상호텍스트성
 3. 이야기 패러디 광고의 양상
 - 3.1. 이야기 패러디의 좋은 보기
 - 3.2. 이야기 패러디의 중간 보기
 - 3.3. 이야기 패러디의 나쁜 보기
 4. 맺음말
- 참고문헌

1. 패러디와 광고

인류의 예술은 모방의 역사이다. 문학, 미술, 음악, 영화 등 다양한 예술 작품의 창작은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는 작업이 아니라, 유(有)에서 유(有)를 창조하는 작업이다. 예술이란 결국 주변의 자연, 사물, 사건, 경험의 인용이자 응용이며 다른 작품을 모방하는 가운데서 탄생하기 때문이다. 모든 예술의 창작 과정이 다른 대상을 인용, 응용, 모방, 변용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예술의 창작은 넓은 의미의 ‘패러디’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원전 텍스트 전체를 비틀거나 변용시켜 재창조하는 패러디는 이미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 창작 기법으로 사용되어 왔고, 광고 분야에서도 수용자의 주목을 높이기 위한 광고 표현의 한 방식으로 정착되어가고 있다.

광고에서 패러디가 사용되는 것은 다음 두 가지 이유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광고는 일차적으로 수용자의 관심을 끌고, 강한 인상을 남겨야 하는데, 이러한 광고의 요구에 패러디의 방식은 잘 맞아 떨어진다. 친숙한 원전 텍스트가 광고에 대한 이해 부담감을 줄여 줄 뿐만 아니라, 낯익은 요소를 낯선 환경에 놓는다든지, 과거의 형식에 현재의 의미를 덧붙이는 패러디의 방식이 수용자들에게 텍스트에 대한 흥미를 높이기 때문이다. 이제영·권수미(2008)에 따르면, 수용자들은 패러디 기법이 사용된 광고를 긍정적으로 향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소재의 확대를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둘째, 현대 사회에서 패러디가 하나의 놀이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 것 또한 광고에서 패러디 기

법이 사용되는 긍정적인 이유로 작용한다. 현대 사회는 인터넷의 급속한 발달로 인하여 정보의 신속한 전달과 확산이 가능하고, 컴퓨터 기술의 발달로 사람들은 매우 간단하고 쉽게 원전을 복제, 변용할 수 있다. 동영상이나 그림, 사진 등의 수정, 합성, 편집 등은 더 이상 전문가들만의 고유 영역이 아니다.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아주 쉽게 이러한 기술에 대한 정보를 얻거나 여러 가지 기술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소프트웨어도 매우 발달되어 있어서 아주 편리하게 이러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사람들에게 패러디는 하나의 놀이 문화로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런데 광고에서 패러디가 사용될 경우 광고는 놀이 문화의 연장선상에서 수용될 가능성을 갖는다. 패러디 광고¹⁾는 수용자로 하여금 대상 광고가 얼마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원전을 패러디하고 있는가에 주목하도록 하고, 광고에 대한 기대치를 높인다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놀이 문화 속 패러디의 원전은 영화 포스터, 드라마의 한 장면, 광고 등이 주로 이용되는데, 패러디 광고의 패러디 방식이 독창적일수록 일반 광고 텍스트가 재생산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 다른 방식으로 확대, 재생산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해당 광고에 대한 잠재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패러디 광고가 완결된 텍스트로서의 가치를 얻기 위해 갖추어야 할 텍스트성을 제안하고, 이를 바탕으로 패러디 기법이 사용된 텔레비전 광고를 분석하여 잘된 광고와 그렇지 않은 광고, 즉 좋은 보기와 나쁜 보기를 나누어보도록 하겠다. 이는 궁극적으로 광고 텍스트의 본질을 구명(究明)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며, 패러디 광고가 완결된 텍스트로서 용인될 수 있는 패러디 광고의 생산과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이야기 패러디 광고의 텍스트성

R.de Beaugrande · W.Dressler(1981)에 따르면, 텍스트가 완전한 의사소통의 발화체가 되기 위해서는 의도성(intentionality), 용인성(acceptability), 응집성(coherence), 응결성(cohesion), 정보성(informativity), 상황성(situationality),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의 일곱 가지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제2장에서는 이러한 텍스트성의 관점에서 패러디 광고 텍스트가 원전 텍스트를 차용할 때 갖추어야 하는 기본 조건을 생각해보고, 원전 텍스트로서 ‘이야기’의 의의를 살필 것이다.

2.1. 의도성과 용인성

텍스트의 ‘의도성’이란, 텍스트 생산자가 어떤 의도로 텍스트를 구성하는가의 문제를 말한다. 어떤 말을 하는 이유나 방식은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관점에서 결정된다. 무한 경쟁 사회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품을 널리 알려 구매를 촉진해야 한다. 광고는 제품이나 기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궁극적으로 매출의 증대를 꾀하는 기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도구이다. 그러므로 광고 텍스트를 구성하는 생산자의 1차적 목적은 수용자의 시선을 붙드는 일이 된다. 광고 텍스트 생산자는 패러디가 소비자에게 어렵지 않게 다가갈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점에서 패러디 방식을 사용한다. 흥행에 성공했던 영화나 TV 드라마의 한 장면을 패러디하여 광고를 구성할 경우, 원전 텍스트의 친숙성(familiarity)이 수용자의 시선을 끌고, 광고에 대한 호의적 태도를 갖도록 하기 때문에 패러디를 사용하는 것이다. 광고의 효과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에 따르면, 패러디 광고가 일반 광고

1)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패러디 기법이 사용된 광고’를 간단히 ‘패러디 광고’라 부르겠다.

보다 광고 효과가 높고, 회상율도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났다.²⁾ 따라서 패러디가 되는 원전 텍스트는 기본적으로 ‘화제성’과 ‘대중성’을 지녀야 한다. 화제성은 수용자의 주목을 끄는 데 효과적인 역할을 하고, 대중성은 수용자에게 친근감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야기’는 패러디 광고에서 매우 적절한 원전 텍스트가 된다. <백설공주>, <신데렐라> 등의 동화나 <춘향전>, <심청전> 등의 고전소설은 대부분의 수용자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들로서 ‘대중성’을 지니기 때문이다.³⁾ 대부분의 수용자들이 이들 텍스트에 대해 느끼는 친숙함이 광고에 대한 호의를 쉽게 유발할 수 있다.

의사소통의 한쪽에 텍스트의 생산자가 있다면, 그 반대편에는 텍스트의 수용자가 있다. 텍스트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수용자의 마음이나 태도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잘 수용되기도 하고, 거부되기도 한다. 텍스트의 수용을 결정하는 수용자의 이러한 심리적 태도를 ‘용인성’이라 한다. 원전 텍스트의 친숙성에서 비롯되는 패러디 광고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텍스트 생산자는 반드시 패러디된 원전 텍스트를 노출해야 하고, 더불어 수용자가 원전 텍스트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는데, ‘이야기’는 수용자들에게 보편적으로 잘 알려진 텍스트라는 점에서 패러디되기에 좋은 조건을 갖는다. 또한 패러디 광고의 용인성을 높이는 문제는 텍스트 자체의 응결성 및 응집성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패러디 광고가 수용자에게 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원전 텍스트와의 긴밀성 및 필연성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러한 긴밀성 및 필연성은 텍스트가 형식적, 의미적으로 잘 구성되도록 하는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2.2. 응집성, 응결성

텔레비전 광고 텍스트는 환기부, 해석부, 확인부의 세 단계의 기본 구조를 갖는다. 환기부는 수용자의 주의를 환기하는 단계이고, 해석부는 환기부에서 유발된 궁금증을 해소하는 정보를 주는 단계이며, 확인부는 제시된 메시지를 반복, 요약하여 메시지를 강화하는 부분이다.⁴⁾ 이들 단계는 텍스트를 구성하고 있는 각 단계의 정보가 전체 텍스트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작용하는가 하는 의미 기능에 따라 단계를 구분한 것으로서 텔레비전 광고의 생산자는 이들 구성의 각 단계가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도록 텍스트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 때 텍스트의 각 단계에 제시된 정보들은 텍스트 내부에서 서로 조화하고 의존하는 의의의 연속성을 지녀야 하는데, 이러한 의의의 연속성을 ‘응집성’이라 한다. 한 텍스트가 ‘의미가 있다’는 것은 텍스트를 이루는 표현들 사이에 의의의 연속성(continuity of senses)이 존재한다는 뜻이며, 어떤 텍스트가 ‘무의미하다’는 것은 수용자가 의의의 연속성을 발견할 수 없거나, 텍스트가 수용자의 세계 지식 또는 인간적 기대와의 심각한 불일치가 일어나는 경우를 의미한다. 여기서 세계 지식 또는 인간적 기대라는 개념은 현실 세계의

2) 패러디 광고의 효과에 대한 논의는 김병태(2002), 조경섭·김일철(2002) 참고.

3) 윤재연(2009b)에서는 패러디 기법이 사용된 텔레비전 광고 150편을 대상으로 패러디된 원전 텍스트의 유형을 살펴본 바 있다. 연구 대상 150편 가운데 ‘이야기’를 패러디한 광고는 총 20편(13.33%)이었으며, ‘이야기’ 외에도 ‘영화, 드라마, 역사문화 텍스트, 보편인식 텍스트, 화제거리, 텔레비전 프로그램, CF, 특정 게임이나 문학작품, 명화(名畵)’ 등 매우 다양한 텍스트들이 패러디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편 이들 가운데 ‘역사문화 텍스트’란 역사, 사회, 문화적으로 유명한 인물이나 보편적으로 널리 알려진 역사적 사실과 관련되는 텍스트가 차용된 경우 해당 원전 텍스트를 가리키는 말이고, ‘보편인식 텍스트’란 정치인의 유세 현장, 영화제의 시상식, 대통령 연설 등 언제나 동일한 형식적 틀을 바탕으로 실현되기 때문에 수용자들이 이들을 반복적으로 접하는 과정을 통하여 대부분의 수용자들에게 보편적으로 인식되어 있는 텍스트를 말한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윤재연(2009b:77-103)을 참고하기 바란다.

4) 텔레비전 광고 텍스트의 기본 구조와 구성 원리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는 윤재연(2009a)를 참고하기 바란다.

모든 현상과 그 규칙을 인지하고 기정사실로 내면화하여 하나의 신념으로 굳어진 것들을 의미한다. 이러한 인간적 기대는 음운, 형태, 통사구조를 결합하는 언어의 구성에도 그대로 적용되며, 각 언어의 요소 또는 요소 집단이 갖는 정보성에 따라 언어 연쇄를 배열하는 기술과 관련된다. 개념들의 관계들로 형성된 응집성은 언어로 표현됨으로써 비로소 완결된 텍스트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 이처럼 텍스트로 실현된 언어의 연쇄를 ‘응결성’이라고 한다. 이들 ‘응집성’과 ‘응결성’은 페러디 광고가 텍스트다움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 요소이다.

페러디에 사용되는 ‘이야기’들은 응집성과 응결성이 이미 완결된 텍스트로 용인되는 것들이다. 따라서 ‘이야기’를 페러디할 때 광고 텍스트의 생산자는 ‘표현’과 ‘변용’에 대한 문제만 신경 쓰면 된다. 페러디의 원전 자체가 이미 텍스트로서의 완성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는 페러디하기에 가장 쉬운 원전 텍스트로 기능할 수 있다.

한편 페러디 광고에서 응집성과 응결성을 갖추도록 구성하는 것은 원전 텍스트가 어떠한 이유로 차용되었는가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문제와 관련이 된다. 이는 원전 텍스트의 의미 영역이 차용된 텍스트의 의미 영역으로 전이되는 과정을 수용자가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텍스트 사이의 전이 과정을 납득할 수 있는 근거가 쉽고 분명하게 드러날수록 페러디 광고는 수용자에게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다.

2.3. 정보성

텍스트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정보성’과 매우 긴밀하게 연관된다. 정보성이란 수용자에게 제시된 자료가 새롭거나 예측 불가능한 정도를 나타낸다.⁵⁾ 텍스트가 담고 있는 정보는 수용자에게 가치 있는 것일 수도 있고, 가치 없는 것일 수도 있다. 흥미로운 것일 수도 있고, 흥미롭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 그런데 수용자에게 가치 있거나 흥미로운 정보일수록 의사소통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또 정보의 노출 시점이나, 노출되는 정보의 양도 의사소통의 성패를 좌우한다. 따라서 텍스트 생산자가 어떤 정보를 얼마만큼, 어떤 방식으로 드러낼 것인가를 조절하는 문제는 의사소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며, 텍스트 생산자가 광고 텍스트를 구성할 때 이들 정보성을 조절하는 문제는 수용자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앞에서 페러디 광고의 생산자는 수용자에게 친숙한 최적의 원전 텍스트를 찾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수용자들에게 친숙한 텍스트일수록 수용자의 시선을 끌고, 광고에 대한 호의적 태도를 유발하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수용자에게 친숙한 원전 텍스트를 차용했다고 해서 모든 페러디 광고가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 수용자에게 친숙한 원전 텍스트는 정보성의 차원에서는 낮은 정보가 아니고 이 때문에 흥미롭지 못하다. 따라서 페러디 광고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친숙한 원전 텍스트를 차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원전 텍스트를 얼마나 낮설게 만드느냐 하는 것이 된다. 일반적으로 광고 텍스트를 생산할 때 생산자는 높은 단계의 정보성을 이용하여 낮섬을 유발하고, 이를 낮은 단계로 격하시킴으로써 브랜드에 대한 정보를 주는 방식으로 정

5) R.de Beaugrande · W.Dressler(1981)는 모든 텍스트는 정보적일 수 있다고 하면서, 수용자에게 제시된 바가 얼마나 새롭고 비예측적인가 하는 정도를 일반적 개연성의 높고 낮은 정도에 따라 3단계로 나누었다. 제1차 정보성을 지니는 발화체들은 대체로 자명한 것들이어서 흥미롭지 못하다. 제3차 정보성 발화체들은 수용자에게 가장 새롭고 비예측적인 것으로 느껴지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불연속성과 불일치성을 지닌다. 불연속성(discontinuity)이란, 언어 구성체에서 어떤 자료가 빠져 있는 듯한 것을 말하고, 불일치성(discrepancy)이란, 텍스트에 제시된 패턴들이 기준에 저장되어 있는 ‘지식 패턴’과 합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지식 패턴’은 ‘세계 지식’, ‘인간적 기대’, ‘맥락적 기대’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서 현실 세계의 모든 현상과 규칙을 인지하고 기정사실로 내면화하여 하나의 신념으로 굳어진 것들을 의미한다. 제2차 정보성을 지니는 발화체들은 1차 정보성과 3차 정보성의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사소통 단계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단계이다.

보성을 조절하는데, 패러디 광고의 원전 텍스트는 정보성의 수준이 낮으므로, 이를 높은 수준의 정보성을 지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다.

패러디 광고에서 원전 텍스트를 낮설게 하는 문제는 다음의 요소들과 관련이 된다. 첫째, 원전 텍스트에서의 서사 구조를 차용하는 과정에서 원래의 것과 패러디된 것 사이의 대응이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느냐, 의도적으로 감추어져 있느냐에 따라 패러디된 텍스트를 낮설게 느끼는 정도가 달라진다. 원래의 것과 패러디된 것 사이의 대응이 수용자들에게 쉽게 발견되지 않을수록 수용자들은 패러디를 더욱 새롭게 느끼게 된다. 둘째, 변용된 요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수용자들은 패러디 텍스트를 더욱 새롭게 느끼게 된다. 셋째, 변용의 정도가 수용자의 예측의 범위에서 벗어날수록 패러디된 텍스트는 수용자들에게 더욱 낯선 것이 된다.

2.4. 상황성, 상호텍스트성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시간, 공간, 역사, 문화, 풍습, 생활습관과 같은 사회·문화적 배경 및 그 속에 존재하는 사물과 사건, 이들의 진행 상태와 맥락 등은 정보의 수위나 완급, 배열 등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텍스트 생산과 수용에 작용하는 이러한 상황적 요인을 ‘상황성’이라 한다. 패러디 광고의 생산에 있어서 이러한 ‘상황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점은 원전 텍스트를 패러디하는 시점이 적절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전 텍스트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영화나 드라마, 텔레비전의 특정 프로그램, 화젯거리 등을 원전 텍스트로 삼는 경우, 이들을 패러디하는 시점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들 텍스트는 장기적 연속성 지닌 정보가 아니기 때문이다. 영화나 드라마가 수용자들에게 노출되는 시기는 넉넉하게 잡아야 한두 달이다. 끊임없이 새로운 영화와 드라마가 이어지고, 교체되기 때문에 수용자들이 처리해야 하는 정보의 양은 너무 많고, 따라서 이들이 장기 기억으로 저장될 확률은 그다지 높지 않다. 그러므로 이들 텍스트를 패러디할 경우에는 되도록 이들이 수용자의 관심 영역에 있는 시기에 패러디하는 것이 좋다. 이들 텍스트가 장기적 연속성을 지닌 정보가 아니라는 것은 고전 작품의 패러디가 언제 패러디되든지 간에 그 시간에 전혀 구애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예를 들어, 2000년~2010년의 패러디 광고 가운데, 영화 <올드보이>를 패러디한 광고는 2004년에만 무려 5편⁶⁾이나 되었던 것이 2004년 이후로는 단 한 편도 발견되지 않는다. 이에

6) <올드보이>가 패러디된 5편의 광고 텍스트를 간단히 보이면 다음과 같다.

				
2004.01. 지엠대우마이너스할부	2004.04. 현대카드 M	2004.09. 우체국 택배	2004.12. 처갓집 양념치킨	2004.12. 1577-5233

글쓴이가 ‘www.tvcf.co.kr’에서 패러디로 분류된 2000년에서 2010년까지의 패러디 광고 344편을 검토한 결과, 영화 <올드보이>의 패러디 광고는 2004년 한 해에만 5편이 발견되었다. 이는 2004년의 패러디 광고(총 46편)의 약 10.86%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 해에 나온 패러디 광고 중에서 MBC 드라마 <대장금>을 패러디한 4편을 제외하면 원전이 동일한 패러디는 단 한 편도 없다는 점에서 꽤 높은 수치라 하겠다. 한편, 패러디의 방식에 있어서 <대장금> 패러디 광고와 <올드보이> 패러디 광고는 차이가 있다. <대장금>을 패러디한 광고들은 단순히 드라마 속 주인공들이 나왔다는 점을 빼면 실질적으로 <대장금>과의 접점을 찾기 힘들지만, <올드보이>를 패러디한 광고들은 영화 속의 한 장면을 패러디하고 있다는 점에서 패러디 방식에 차이가 있는

비해 <백설공주>를 패러디한 광고는 2002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에 걸쳐 꾸준히 발견된다.⁷⁾ 이러한 차이는 ‘이야기’가 다른 원전 텍스트들에 비하여 시간적 제약에서 비교적 자유롭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야기’는 텍스트의 ‘상황성’ 조건을 만족시키기에 좋은 텍스트이다.⁸⁾

한편 텍스트 생산자는 다른 텍스트를 인용하거나 활용함으로써 하나의 텍스트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는 수용자가 텍스트를 수용하는 데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하나의 텍스트의 생산과 수용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또 다른 텍스트의 인용과 활용과 관련한 텍스트성을 ‘상호텍스트성’이라 하는데 패러디는 원전 텍스트와 차용된 텍스트 사이의 상호 관련성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상호텍스트성을 지니고 있다.

3. 이야기 패러디 광고의 양상

이야기 패러디란 패러디의 원전 텍스트가 이야기인 것을 말한다. 이야기가 패러디된다는 것은 이야기가 지닌 서사 구조가 패러디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야기의 서사 구조를 이루는 ‘인물, 사건, 배경’ 가운데 주로 ‘사건’이 패러디된다. 제3장에서는 패러디 광고에 요구되는 텍스트성의 조건에 따라 패러디 광고의 사례를 분석하고, 좋은 보기와 나쁜 보기를 가려보도록 하겠다. 분석 대상으로 삼은 패러디 광고는 <백설공주>, <신데렐라> 등의 공주 이야기가 패러디된 텔레비전 광고이다. 이야기 패러디 가운데서 공주 이야기가 패러디된 광고들을 살펴보는 이유는 이야기 패러디 광고 중에 이들을 원전 텍스트로 하는 광고가 상대적으로 많아서 좋은 보기와 나쁜 보기 사이의 차이가 보다 분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분석한 자료의 목록은 아래 [표 1]과 같다.

것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윤재연(2009b)에서 확인할 수 있다.

7) 2000년~2010년 사이에 <백설공주>가 패러디된 광고는 모두 7편을 찾았다. 이들의 목록만 간단히 보이면 다음과 같다.

식품	20020523	고칼슘오렌지100
기업/건설	20050901	한일건설 유앤아이
기타	20070405	옥션
식품	20070901	네네치킨
식품	20080601	서울우유 유기농 맑은 치즈
정보통신	20090905	올레KT
정보통신	20100101	한화손해보험

8) 물론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처럼 시간을 초월해서 패러디되는 예도 있다. 이 영화는 1939년 작품인데 2005년에 패러디된 것을 보면, 원전 텍스트가 패러디하는 시점에 구애받는다고 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흔히 고전이라 일컬어지는 영화에만 한정될 뿐, 모든 영화가 이러한 시간적 초월성을 갖지는 않는다.



05.03. | 요플레 스위벨

[표 1] 분석 대상 광고 6편 (본문 인용순)

<백설공주>를 패러디한 것			<신데렐라>를 패러디한 것		
금융/보험	201001	한화 손해보험	정보통신	200604	KTF 축구사랑 팩
기타	200704	옥션	정보통신	200706	KTFT EVER
기업/건설	200509	한일건설 유엔아이	식품	200803	솔라C

3.1. 이야기 패러디의 좋은 보기

[예 1] 한화 손해보험 (금융/보험 | 15초 | 2010.01.)

No.	I-Time (단위 :초)	시각이미지	음성 외 추가	음성언어	V-Time (단위 :초)
1	0			(BGM)	0-6
2	0-1			(자동차 리모컨으로 말을 주차하는(?) 왕자) (E) 자동차 리모컨 소리	1
3	3-4			M1: 같이 가실래요? M2: 흥! M1: (사과 바구니를 내밀며) 그럼, 이거라도.	1-2 / 3 / 4-5
4	5-6			(사과를 맛있게 한 입 베어 먹다가)	
5	7-8			(쓰러지며) M2: 음. 남자만 조심하면	7-9
6	8-9			M2: 되는 줄 알았지...	"

7	10-11			(자막: 발화 同) (돌다리를 건너듯이 튀어 오르며 화면에 나타남.) (BGM) N: 인생은 조심조심.	10-13 / 10-11
8	11-13			N: 마음 놓고 행복하세요.	12-13
9	13-15		자막 + 로그	(자막: 마음 놓고 행복하세요. 한화손해보험) N: 한화 손해 보험.	13-14

[예 1]은 <2010_한화손해보험>을 정리한 것으로, <백설공주>를 패러디하고 있다. 텍스트성의 관점에서 살필 때 [예 1]은 패러디의 매우 좋은 보기이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예 1]은 정보성의 차원에서 익숙함을 낮춤으로 잘 변용하고 있다. 궁을 떠나 숲 속 작은 집에 살고 있는 공주, 백마 타고 오는 왕자의 설정은 원전과 동일하다.⁹⁾ 다만 공주가 깨어있을 때 왕자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원전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런데 왕자를 만난 공주가 왕자에게 코웃음을 치는 상황은 원전과 크게 다른 부분이어서 수용자의 주의를 끈다. 공주와 왕자는 첫 만남에서부터 키스를 했던 사이이다. 그런데 공주가 왕자에게 코웃음을 치다니 수용자들에게 이러한 상황은 낯설고 의아한 것이 될 수밖에 없고, 수용자들은 이는 분명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 이유를 찾고자 광고에 주의를 집중하게 된다. 그런 과정에서 ‘마녀의 독 사과’는 잠시 수용자의 주의에서 벗어나게 된다. 공주가 사과를 먹고 쓰러지기 전까지 수용자들은 ‘왕자의 사과=마녀의 사과’라고 눈치챌 수 없다. 아직까지 ‘마녀’는 등장하지 않았으며, 공주에게 사과를 건넨 자는 ‘공주를 피려 온’ 왕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과를 먹는 행위는 원전과 동일한 사고(공주의 쓰러짐)를 유발한다. 이 때 비로소 수용자들은 ‘마녀의 사과’가 ‘왕자의 사과’로 패러디되었음을 눈치채고 이러한 낯선 변용에 감탄하게 되는 것이다. 즉 [예 1]은 원전 텍스트의 ‘마녀의 사과’를 ‘왕자의 사과’로 변용하였음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감춤으로써 패러디 텍스트를 낯선 것으로 만든다는 점에서 정보성을 매우 훌륭히 조절하고 있다고 하겠다.

둘째, [예 1]은 텍스트 응결성과 응집성이 매우 잘 갖추어진 텍스트이다. 장면3에서 왕자에게 코웃음을 치는 공주의 행동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여자가 남자에게 코웃음을 치는 행위는 남자가 맘에 들지 않아서 거절하거나, 한 번 튕겨보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해석은 “남자만 조심하면 되는 줄 알았지”라는 발화를 통해 하나의 의미로 구체화된다. “인생은 조심조심”이라는 발화는 장면7의 영상이 나타내고자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해석하도록 돕는다. 장면7의 ‘개울’과 ‘돌다리’, 그리고 “조심”이라는 글씨가 돌다리를 ‘통통’ 뛰어넘도록 표현되어 있는 것은 “인생은 조심조심”이라는 발화를 통해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9) 물론 여기서는 백마를 자동차 리모컨으로 조작하는 설정으로 잔잔한 재미를 주고 있는데, 이것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패러디라 하겠다. 그러나 왕자가 백마를 타고 온다는 기본 설정은 동일하므로 패러디의 논의에서는 배제하였다.

라는 뜻을 전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장면5~장면6에서 공주가 사과를 먹고 쓰러지는 장면은 ‘아무리 조심해도 사고는 생긴다.’라는 의미를 간접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남자만 조심하면 되는 줄 알았지.” 이후에 생략된 발화를 보충한다. 이처럼 [예 1]은 언어 표현의 생략은 영상으로 보충하고, 영상의 의미적 불명확성은 언어 표현으로 보충함으로써 각 단락을 의미적으로 완결함은 물론, ‘아무리 조심하며 살아도 사고는 생길 수 있다. → (한화손해보험이 있으니) 마음 놓고 행복하라.’는 광고 텍스트 전체의 의미를 완성하고 있다.

셋째, [예 1]은 원전 텍스트에서 패러디 텍스트로의 전이가 매우 긴밀히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보험 분야의 광고 텍스트는 ‘예측 불허의 사건이나 사고’를 언급하여 수용자의 주의를 환기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제품’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예 1]도 이러한 기본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예 1]의 ‘사고’는 ‘백설공주가 독 사과를 먹고 쓰러지는 상황’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는 [예 1]에서 <백설공주>가 차용되는 필연적인 이유를 부여해 준다. 백설공주는 독 사과를 먹고 쓰러지기 전에 이미 몇 차례 죽을 고비를 넘긴 바가 있어서 일곱 난장이들에게 여러 차례 주의를 당부 받은 상황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 사과를 먹고 쓰러지는 사고’는 공주에게 있어서는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결국은 맞닥뜨리게 되는 ‘예측 불허의 사고’이다. 원전 텍스트가 지닌 ‘사고’의 의미와 패러디 텍스트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사고’의 의미가 조화롭게 연결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수용자는 <백설공주>와 [예 1]이 매우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

[예 2] KTF 축구사랑 팩 (정보통신 20초 | 2006.04.)

No.	I-Time (단위 :초)	시각이미지	음성 외 추가	음성언어	V-Time (단위 :초)
1	0-3		고정 자막 (1-18)	M1: 근영아, 넌 집에서 TV나 봐. M2: 넌 이 옷 없지?	0-3
2	3-4				
3	4-6			M3: 나도 응원가고 싶다.	5-6
4	6-9			M3: 어머, 박 감독님?!	7-9

5	10-11			(BGM) N: 축구를 사랑하는 당신.	10-19 / 10-12
6	11-14		자막	(자막 : KTF 축구사랑팩) N: 마음껏 응원하시라고, KTF 축구사랑팩	13-15
7	15-17				
8	17-18			M4: 아, 집에 가야되는데.	17-18
9	18-20		로고	M3: KTF	19-20

[예 2]는 <2006_KTF 축구사랑팩>을 정리한 것으로, <신데렐라>를 패러디하고 있다. 텍스트성의 관점에서 살필 때 [예 2]는 패러디의 매우 좋은 보기이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예 2]는 정보성의 차원에서 익숙함을 낮춤으로 잘 변용하고 있다. 언니들은 파티를 가고 신데렐라는 집안일이나 해야 하는 설정은 원전과 동일하다. 물론 <신데렐라>와 [예 2]의 시대적 배경이 다르고, 두 언니가 무도회 대신 월드컵 응원을 하러 가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이러한 차이는 원전을 변용했다기보다는 단순히 차용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눈에 띄는 패러디라 하기 어렵다. 그런데 장면4의 ‘박항서’ 요정의 등장은 원전과 크게 다른 부분이어서 수용자의 주의를 끈다. <신데렐라>를 알고 있는 수용자들에게 장면1~장면3의 내용은 원전과 크게 다른 느낌을 주지 못하며, 장면3에 이어 아마도 곧 요정이 나타나 신데렐라를 도와줄 것이라는 것도 수용자의 예측의 범위 안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면4가 매우 신선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가 기대하고 예측하는 요정은 모두 ‘여자’라는 데 있다. 장면4에서 축구감독 ‘박항서’가 등장하는 것은 일단 ‘남자’ 요정이라는 점에서 신선한 발상으로 받아들여진다. 뿐만 아니라 그는 TV에서 만날 것이라고 기대하기조차 어려운 의외의 인물이라는 점에서 낯선 변용이 된다. 이제까지 축구 감독으로서 광고에 등장했던 인물은 차범근과 허딩크 정도였기 때문이다. 또한 장면8에서 요정이 직접 청소를 하고 있는 장면도 원전과는 크게 다른 점이어서 신선함을 느끼게 하고 더불어 웃음을 준다.

둘째, [예 2]는 텍스트 응결성과 응집성이 매우 잘 갖추어진 텍스트이다. 장면3의 “나도 응원

가고 싶다.”에서 생략된 응원의 대상이 ‘축구대표팀’이라는 점은 박항서 감독의 등장과 “축구를 사랑하는 당신”이라는 표현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보충된다. 장면3에서 주인공이 응원을 가지 못했던 이유가 ‘월드컵 응원 티셔츠가 없기 때문’이었다는 것은 장면6~장면7을 통해 분명해지며, 이러한 해석은 장면1의 생산자의 의도를 추론적으로 이해하도록 한다. 장면1에서 모델이 굳이 “넌 이 옷 없지.”라고 말했던 것은 주인공이 ‘월드컵 응원 티셔츠가 없는’ 상황임을 강조하려는 의도였다는 것이 보다 분명해지는 것이다. 이처럼 [예 2]는 언어 표현의 생략은 영상으로 보충하고, 영상의 의미적 불명확성은 언어 표현으로 보충함으로써 각 단락을 의미적으로 완결함은 물론, ‘월드컵 응원 티셔츠가 없어서 응원 못하는 당신을 위해 KTF가 응원물품을 선물로 준다.’는 광고 텍스트 전체의 의미를 완성하고 있다.

셋째, [예 2]는 원전 텍스트와 패러디 텍스트 사이의 전이가 매우 긴밀히 이루어진다. [예 2]는 ‘문제’와 ‘해결’의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예 2]의 ‘문제’는 ‘월드컵 응원 티셔츠가 없어서’ 응원을 가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의 상황은 입고 갈 드레스가 없어서 파티에 가기를 주저하는 <신데렐라> 이야기와 닮아 있다. 물론 신데렐라가 파티에 참석할 수 없었던 결정적 이유는 ‘드레스의 부재’가 아니라 계모와 언니들의 ‘구박과 따돌림’ 때문이었다. 그러나 요정이 나타나서 신데렐라를 파티에 보내주겠다고 했을 때, 기쁨에 넘치던 신데렐라를 다시 우울하게 만든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드레스가 없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원전 텍스트가 지닌 ‘드레스의 부재’와 패러디 텍스트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월드컵 응원 티셔츠의 부재’는 매우 조화롭게 연결되며, 수용자는 이들의 연결을 매우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3.2. 이야기 패러디의 중간 보기

[예 3] 옥션 (기타 | 15초 | 2007.04.)

No.	I-Time (단위 :초)	시각이미지	음성 외 추가	음성언어	V-Time (단위 :초)
1	0-5			(BGM) (음산한 분위기의 멜로디) N: 죽을지도 모르는데	0-8, 10-13 / 3-7
2	6-7			N: 왜 독 사과를 먹었을까?	"
3	7-13			M: (감았던 눈을 뜨며) 예뻐서. N: 예쁘면 용서가 되는 당신께.	9-10 / 11-13

4	13-15		(음악 소리에 맞춰 글씨가 생겨남) Jingle : (소리만)	13-15
---	-------	---	---------------------------------------	-------

[예 3]은 <2007_옥션>을 정리한 것으로, <백설공주>를 패러디한 광고이다. 텍스트성의 관점에서 살필 때 [예 3]은 패러디의 좋은 보기와 나쁜 보기의 중간 정도의 성격을 갖는 보기이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예 3]은 정보성의 차원에서 익숙한 것을 낯선 것으로 잘 변용하고 있다. <백설공주>와 [예 3]은 ‘백설공주가 독 사과를 먹었다.’는 동일한 사건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예 3]은 독 사과를 먹은 행위에 대한 새로운 전제를 도입함으로써 수용자의 주의를 끈다. <백설공주>에서 공주가 독 사과를 먹은 이유는 그것이 독 사과인 줄을 ‘몰랐기’ 때문이었다. 즉, 백설공주는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독 사과를 먹은 것이고 그래서 잠들게 된 것이다. 그러나 [예 3]에서는 ‘독 사과=죽음’에 대한 ‘무지’가 ‘앓’으로 변용되어 있다. “죽을 지도 모르는데 왜 독 사과를 먹었을까?”라는 발화는 백설공주가 독 사과를 정체를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백설공주>의 서사에 익숙한 수용자들에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보편적 인식에 대한 반전이라는 점에서 매우 신선한 느낌을 준다.

둘째, [예 3]은 정보성의 차원에서 매우 잘 된 패러디이지만, 광고 텍스트 전체의 의미 완결성에 있어서 의의의 연결이 다소 느슨하므로 완전한 좋은 보기라 하기 어렵다. 장면1의 “죽을 지도 모르는데 왜 독 사과를 먹었을까?”와 장면3의 “예뻐서.”는 질문과 대답이 대응쌍을 이루어 하나의 완결된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이로써 명확한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그런데 장면3~장면4의 발화 “예쁘면 용서가 되는 당신께. 옥션.”은 두 발화 사이의 의미적 연관성이 명시적으로 해석되지 않아서 의미적으로 불완전하다. ‘예쁘면 용서가 되는 것’과 ‘옥션’은 어떤 관계로 연결되는 것인지 텍스트 생산자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말이다. 장면1~장면3에서 주어진 ‘독 사과가 예뻐기 때문에 백설공주는 죽음을 각오하고 이것을 먹었다’는 정보는 “예쁘면 용서가 되는 당신께. 옥션.”을 해석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예 3]에서 수용자들이 생산자의 의도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텍스트 내에 주어진 정보 외에 필요한 정보의 빈자리를 반드시 채워야 한다. 이 빈자리는 ‘예쁘면 용서가 된다.’와 ‘옥션’의 외연적 의미를 바탕으로 한 추론을 통해 채워질 수 있다. ‘예쁘면 용서가 된다.’는 표현은 관용적으로 ‘예쁘면 제일이다.’, ‘예쁜 것을 제일 좋아한다.’, ‘무엇이든 예쁘기만 하면 된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그리고 ‘옥션’은 ‘인터넷 쇼핑몰’이다. 이들 외연을 바탕으로 할 때, “예쁘면 용서가 되는 당신께. 옥션.”은 ‘예쁜 것을 좋아하는 당신이라면 옥션’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며, 좀 더 구체적으로 ‘예쁜 것을 좋아하는 당신이라면 옥션(으로 오라.) / 옥션(을 선택하라.)’와 같이 숨은 서술어까지도 채워 넣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론의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예쁘면 용서가 되는 당신께. 옥션.”이 발화되는 3초~4초 정도의 짧은 시간에 처리하기에는 정보의 양도 너무 많다.

셋째, ‘텍스트 생산자의 의도를 표현하기 위해 굳이 <백설공주>라는 원전 텍스트가 필요했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때, [예 3]의 경우에는 “충분히 그렇다.”는 대답이 나오기 어렵다. [예 3]에서 표현된 ‘예쁜 것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걸 수 있는 용기’는 굳이 <백설공주>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표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예 1]의 ‘아무리 조심해도 맞닥뜨리게 되는 예측 불허의 사고’나 [예 2]의 ‘웃이 없어서 응원을 가지 못하는 상황’도 <백설공주>나 <신데렐라>를 패러디하는 방

법 외에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예 1]과 [예 2]의 경우, 표현하고자 하는 일련의 상황들이 모두 원전 텍스트의 서사 구조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내용을 변용한 것이라는 점에서 원전 텍스트와 패러디 텍스트 사이에 개연성과 긴밀성이 느껴진다. 반면, [예 3]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예쁜 것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걸 수 있는 용기’는 <백설공주>의 서사 구조 속에는 원래 존재하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원전 텍스트와 패러디 텍스트 사이의 개연성이나 긴밀성이 [예 1]이나 [예 2]에 비해 약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예 4] KTFT EVER (정보통신 | 20초 | 2007.06.)

No.	I-Time (단위 :초)	시각이미지	음성 外 추가	음성언어	V-Time (단위 :초)
1	0-3			(BGM) (급하게 뛰어가는 여자의 치맛자락 close-up)	0-20
2	3				
3	4-6				
4	7-8		고정자막 (5-20)		
5	9-10				
6	11-13				

7	14-15			M: 돌려주실 거죠?	14-16
8	16-18			N: 반짝이는 영상 통화폰	16-18
9	18-19		제품 + 자막	(자막: Need Something New?) N: EVER 크리스탈	19-20

[예 4]는 <2007 KTFT EVER>를 정리한 것으로, <신데렐라> 이야기를 패러디하고 있다. 텍스트성의 관점에서 살필 때 [예 4]는 패러디의 좋은 보기와 나쁜 보기의 중간 정도의 성격을 갖는 보기이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예 4]는 정보성의 차원에서 낮은 것으로의 변용이 수용자들에게 그다지 신선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급하게 무도회장을 빠져나오는 신데렐라, 이를 뒤쫓는 왕자, 호박 마차를 타고 사라진 공주, 남아 있는 유리 구두 한 짝을 손에 쥐고 아쉬워하는 왕자가 등장하는 설정은 원전과 동일하다. <신데렐라>와 [예 4]의 유일한 차이가 있다면 신데렐라의 ‘유리 구두’가 ‘핸드폰’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이는 원전 텍스트의 한 요소가 다른 요소로 변용되는 것이 단순히 일대일의 평면적인 대응을 한다는 점에서 그다지 잘된 패러디라 하기 어렵다.

둘째, [예 4]는 텍스트 응결성과 응집성이 매우 잘 갖추어진 텍스트이다. [예 4]는 ‘환기부-해석부’의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 장면1~장면4는 환기부로서 수용자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장면5~장면6은 해석부로서 수용자의 의문에 대한 해답을 주고 브랜드를 노출하여 유기적인 의미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반짝이는 영상 통화폰”과 “EVER 크리스탈”의 언어 표현은 ‘반짝임’의 속성을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셋째, [예 4]의 원전 텍스트와 패러디 텍스트가 긴밀하고 필연적으로 연결되었는가의 여부는 한마디로 단언하기 어렵다. 보는 각도에 따라 긴밀하다고 볼 수도, 그렇지 않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좋은 보기와 나쁜 보기의 중간 보기로 처리하였다. 원전 텍스트에서 신데렐라가 급하게 무도회장을 빠져나오는 이유는 마법이 풀릴 것으로 예고된 시간이 지났기 때문이었다. 이 때 ‘실수로’ 신데렐라의 유리 구두 한 짝이 벗겨지는 상황은 전체 스토리에서 모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필연적이고 의도적인 장치이다. 그러나 [예 4]에는 여자가 도망치는 상황만 제시되었을 뿐, 도망치는 이유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예 4]에서 핸드폰을 ‘떨어뜨려 두는’ 상황은 어떤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필연적이고 의도적인 장치로서 해석되기 어렵고, 이는 [예 4]의 생산자가 굳이 <신데렐라>를 원전 텍스트로 선택해야만 했는가 하는 물음에 답을 주지 못한다. 또한 장면7의 발화 “돌려주실 거죠.”를 통해 볼 때, [예 4]에서 여성이 핸드폰을 잃어버린 것은 ‘실수’가 아닌 ‘의도’일지도 모른다는 짐작이 가능하며 이는 수용자로 하여금 <신데렐라>와 [예 4] 간의 전이가 그다지 긴밀하지는 않다는 판단을 내리게 한다. 핸드폰을 ‘일부러’ 떨어뜨리고 간 여성의 행동

은 사람들의 보편적 인식에 비추어 볼 때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되기보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 남자를 ‘피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신데렐라의 긍정적 이미지를 부정적 이미지로 훼손하는 이러한 패러디를 보면서 수용자들이 원전 텍스트와 패러디 텍스트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신데렐라>가 [예 4]로 전이되는 과정이 긴밀하지 않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예 4]에서 신데렐라의 ‘유리 구두’는 ‘휴대폰’으로 바뀌어 있는데, 이러한 변용을 통해 생산자는 “이 휴대폰은 반짝이는 유리 구두만큼이나 반짝인다.”는 제품 특성에 대한 정보를 전달한다. ‘유리 구두’의 ‘반짝임’과 ‘아름다움’의 이미지를 제품으로 전이하고 있는 것이다. 수용자들은 원전 텍스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생산자의 이러한 의도를 보다 쉽게 해석해 낼 수 있다. 원전 텍스트가 이러한 해석에 맥락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신데렐라>의 ‘유리 구두’는 [예 4]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소재가 되므로, 원전과 패러디 텍스트 간의 전이가 매우 긴밀하다고 할 수 있다.

3.3. 이야기 패러디의 나쁜 보기

[예 5] 한일건설 유앤아이 (기업/건설 | 15초 | 2005.09.)

No.	I-Time (단위 :초)	시각이미지	음성 외 추가	음성언어	V-Time (단위 :초)
1	0-2		고정 자막 (2-13)	(BGM) M: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0-5 / 0-4
2	4-5			(사과가 놓인 테이블 옆으로 다가가 사과를 한 입 베어 무는 모델)	
3	5-6			(사과를 떨어뜨리며 쓰러지는 모델)	
4	6-8				
5	9-10			(BGM) M: 동화 속 주인공이 되세요.	8-13 / 9-10

6	11-13		자막	(자막: propose for you) N: 당신과 나의 설레는 이야기	11-13
7	13-15		로고	Jingle: 유 앤 아이	13-14

[예 5]는 <2005_한일건설 유앤아이>을 정리한 것으로, <백설공주> 이야기를 차용하고 있다. 그런데 텍스트성의 관점에서 살필 때 [예 5]는 패러디의 좋은 보기라 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예 5]는 ‘동화 속 주인공이 된 기분을 느낄 수 있는 설레는 집’이라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백설공주>를 차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용은 단순한 ‘모방’이라는 점에서 잘된 패러디라 하기 어렵다. [예 5]에서 모델이 거울에게 말을 건다든가, 사과를 먹고 쓰러진다는가 하는 것은 <백설공주>의 한 장면을 단순히 흉내 낸 것에 불과하다. 이는 원전 텍스트를 닮은 것으로 패러디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정보성을 조절하는 데 실패하였다고 하겠다.

둘째, [예 5]는 응집성, 응결성의 차원에서도 완결된 텍스트라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장면5의 발화는 장면1~장면4의 영상의 의미를 보충하여 의미적으로 완결된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한다. 장면1~장면4에서 보이는 주인공의 행동들이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장면5의 발화 “동화 속 주인공이 되세요.”로써 해소된다. 이 발화를 통해 모델의 행동이 ‘동화 속 주인공을 흉내 낸 것이었음’이 분명해지는 것이다. 그러나 장면6의 “당신과 나의 설레는 이야기”는 앞선 장면들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있지 않다. 광고 텍스트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해석부’는 ‘환기부’에서 제기된 수용자의 의문을 해소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주어야 한다.¹⁰⁾ 그런데 [예 5]의 “당신과 나의 설레는 이야기”는 ‘환기부’에서 제기되었던 의문의 해소를 바탕으로 한 제품의 정보라기보다는 오히려 또 다른 새로운 정보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해석부’로서 적절하게 기능하지 못한다. 따라서 “당신과 나의 설레는 이야기”의 내포적 의미는 수용자의 추론을 통해 채워질 수밖에 없다. [예 5]에서 ‘유앤아이’는 ‘아파트’이다. 그러므로 수용자는 “동화 속 주인공이 되세요.”를 “유앤아이’에서 살면 마치 동화 속 주인공이 된 기분을 느끼게 될 것이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을 바탕으로 할 때, “당신과 나의 설레는 이야기”는 ‘동화 속 주인공이 된다는 생각만으로도 설레지 않느냐?’하는 의미를 전달하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론은 수용자의 적극적인 의지가 있을 때 가능할 뿐이다.

셋째, [예 5]는 원전 텍스트와 패러디 텍스트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예 5]에서 ‘동화 속 주인공이 된 기분’을 표현하기 위해서 <백설공주>를 차용한 것은, 백설공주가 여러 공주들 가운데 보편적으로 잘 알려진 공주 중 하나이고, <백설공주>를 연상시키는 상징적인 장면이 있으며, 이러한 상징은 다른 공주 텍스트의 상징에 비해 표현하기 쉽기 때문이다.¹¹⁾ 그러나 ‘동

10) 텔레비전 광고 텍스트의 구조에 관한 문제는 윤재연 (2009a)를 참고하기 바란다.

11) 대부분의 동화나 소설들은 단 하나의 장면만으로도 이들을 연상시킬 수 있는 상징적인 장면을 가지고 있다. 수용자들은 ‘커다란 박을 타는’ 단 하나의 장면으로 <홍부놀부>를 연상할 수 있고, ‘자라 위에 올라탄 토끼의 모습’이나, ‘용왕 앞에 무릎을 꿇은 토끼의 모습’ 등으로 <별주부전>을 연상할 수 있다. 대부분의 공주 이야기

화 속 주인공이 된 기분'을 표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 대상이 <백설공주>여야만 하는 필연적 이유는 없다. 물론 [예 5]는 아파트 광고이고, 아파트 광고의 주요 설득 대상은 주부이며, 그들은 특히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 경제적 상류층이라는 점에서 이들 대상을 높이고 받들기 위해 동화 속 주인공을 반드시 '공주'로 선택해야 하는 필연성이 부여될 수는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공주'가 반드시 '백설공주'여야 하는 이유는 없다. '백설공주'가 아니더라도 동화 속 공주나 왕비는 매우 많기 때문이다.

[예 6] 쏘라C (식품 | 15초 | 2008.03.)

No.	I-Time (단위 :초)	시각이미지	음성 외 추가	음성언어	V-Time (단위 :초)
1	0-3			(CM에 맞춰 발랄하게 춤추며 청소를 하는 M1) CM: 신데렐라는 어려서~ (이후는 반주만 계속)	0-2 (3-15)
2	3-4			(거울을 보며 흠칫 놀람) N: 쏘라C를 먹었는데요.	3-5
3	4-5			(M1을 노려보고 있는 M2, M3) M2: 왜 저렇게 이뻐지지?	5-6
4	5-9			M2: 너 뭐 먹는 거 있지? M3: 너 뭐 먹냐구?!	6-7 / 7-8
5	10-11		제품	N: 쏘라쏘라 쏘라C M1: 맛있는 비타민 쏘라C	8-10 / 10-12

역시 이들을 연상시키는 상징적인 장면을 가지고 있다. <백설공주>는 '마법의 거울'이나 '독 사과'로, <신데렐라>는 '유리 구두'로, <잠자는 숲 속의 공주>는 '가시덤불 속에 잠들어 있는 공주'나 '누워있는 공주에게 키스하는 왕자'의 모습으로, <미녀와 야수>의 벨은 '야수와 춤추는 모습'으로, <알라딘>의 '자스민' 공주는 '알라딘과 함께 마법의 용단을 타고 나르는 모습' 등의 단 한 장면만으로도 해당 텍스트를 연상하도록 할 수 있다. 이처럼 한 장면만으로 특정 텍스트를 연상하도록 한다고 할 때, <알라딘>보다는 <백설공주>나 <신데렐라> 등이 상대적으로 표현하기 쉬운 것은 당연하다.

6	12-13			M2: 몰래 먹는 건	12-14
7	13-15		로고	M2: 옳지 않아!	"

[예 6]은 <2008_쏠라C>를 정리한 것으로, <신데렐라> 이야기를 차용하고 있다. 그런데 텍스트의 관점에서 살필 때 [예 6]은 패러디의 좋은 보기라 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예 6]에 등장하는 세 명의 인물 가운데 한 명은 다른 두 명에 비해 미모가 상당히 뛰어나고 청소를 하고 있으며 이 인물이 등장할 때 ‘신데렐라 송’이 나온다는 점, 나머지 두 인물은 얼굴이 못나고 일을 하고 있지 않으며 나머지 한 명을 함께 질투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 6]은 <신데렐라>의 인물 구도와 닮아 있다. 그런데 [예 6]은 <신데렐라>의 인물 구도를 단순히 ‘모방’하는데 그치고 있을 뿐, 이를 차용하는 과정에서 수용자의 시선을 사로잡을 만한 특이한 ‘변용’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잘된 패러디라 하기 어렵다.

둘째, [예 6]의 장면1~장면2에는 ‘신데렐라가 어려서 쏠라C를 먹었다.’고 직접적으로 전달하고 있는데, 이는 수용자의 세계 지식에 어긋나는 정보이므로 수용자의 시선을 끈다. 그러나 이는 텍스트 내의 정보들을 통해 증명될 수 있는 사실이 아니다. 구조적으로 잘 짜인 광고 텍스트는 ‘환기부’에서 수용자에게 의문을 유발하고, ‘해석부’에서 납득할 만한 근거들로 이들 의문을 해소시킬 수 있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확인부’는 환기부와 해석부에서 제공한 일련의 정보를 반복적으로 정리하여 제품에 대한 강한 인상을 남기거나 핵심 메시지와는 관계없는 부가적인 메시지를 추가하기도 한다. 그러나 [예 6]의 ‘신데렐라가 어려서 쏠라C를 먹었다’는 정보는 증명될 수 있는 사실이 아니며, [예 6]의 전체 의미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정보도 아니다. [예 6]은 오히려 장면3에서 시작하는 것이 의미적으로 더 완결된 구조를 가질 수 있다. 장면3이 환기부로, 장면5가 해석부로 장면6과 장면7이 확인부로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면3에서 ‘왜 저렇게 예뻐지는가?’하는 의문은 장면5에서 “맛있는 비타민C 쏠라C”로써 충분히 해소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 6]은 의미적으로 잘 조직된 텍스트라 하기 어렵다.

셋째, [예 6]은 원전 텍스트와 패러디 텍스트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예 6]은 ‘신데렐라가 쏠라C를 먹고서 예뻐졌다’는 의미 구조를 갖는다. 그런데 여기서 ‘신데렐라’는 다른 누군가로 대체된다 하더라도 [예 6]의 의미 구조는 전혀 손상을 입지 않는다. ‘쏠라C를 먹고 예뻐진’ 사람이 반드시 ‘신데렐라’여야만 하는 필연적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신데렐라’는 평소에 예쁘기로 소문난 어떤 친구여도 상관없고, 요즘 들어 부쩍 예뻐진 친구여도 상관없다.

4. 맺음말

이 글에서는 패러디 광고가 완결된 텍스트로서의 가치를 얻기 위해 갖추어야 할 텍스트성을 제안하고, 이를 바탕으로 패러디 기법이 사용된 텔레비전 광고를 분석하여 잘된 광고와 그렇지 않은

광고, 즉 좋은 보기와 나쁜 보기를 나누어 보았다.

패러디 광고 가운데서도 원전 텍스트가 <백설공주>, <신데렐라>인 6편을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살폈는데, 이들을 살핀 이유는 다른 텍스트에 비해 원전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서 상대적인 비교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각 텍스트의 텍스트성은 주로 정보성, 응집성, 응결성의 차원에서 검토하였는데, 정보성은 원전 텍스트를 얼마나 낮선 것으로 변용하고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응집성, 응결성은 패러디 광고 이전에 광고 텍스트로서 갖추어야 하는 응집성, 응결성을 검토하였다. 광고 텍스트로서 ‘환기부’, ‘해석부’, ‘확인부’의 기본 구조가 유기적으로 잘 조직되어 있는지, 언어와 영상이 상호 보완적으로 의미의 완결을 이루고 있는지 등을 중심으로 살폈다. 한편, 원전 텍스트와 패러디 텍스트 사이의 의미 전이 과정이 필연적인지의 여부도 검토하였는데, 이는 패러디 광고의 응결성, 응집성과 관련된 문제이다.

이야기 패러디 텍스트의 좋은 보기들은 원전 텍스트가 훌륭하게 낮선 텍스트로 ‘변용’되어 있으며, 광고 텍스트로서의 응집성과 응결성도 잘 갖추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원전 텍스트와 패러디 텍스트 사이의 의미 전이 과정에도 필연성을 부여받은 것들이다. 반면 나쁜 보기들은 원전 텍스트에서 패러디된 요소가 단순한 ‘인용’의 수준에 머무르고, 원전 텍스트와 패러디 텍스트 사이의 필연성이 부여되지 못하거나 광고 텍스트 자체로서의 응집성과 응결성이 잘 갖추지지 못한 것들이다. 이 밖에 원전 텍스트와 패러디 텍스트 사이에 긴밀도는 높아 안정감은 있지만, 수용자의 예측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낮섬의 정도가 비교적 낮다거나 전체적인 의미 구조가 느슨한 부분이 보이는 것들은 중간 보기로 처리하였다.

패러디 광고를 이렇게 살피는 것은 궁극적으로 광고 텍스트의 본질을 구명(究明)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며, 패러디 광고가 완결된 텍스트로서 용인될 수 있는 패러디 광고의 생산과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김영호 (2000), 『TV드라마 패러디 광고의 효과 연구』, 홍익대 광고홍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병태 (2002), 『광고 크리에이티브의 패러디 표현기법 특성과 효과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선영 (2002), 『패러디 광고의 소비자 선호도 연구: TV 광고를 중심으로』, 한양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재연 (2005), 「TV 광고 텍스트의 전략에 대한 연구」, 『겨레어문학』 34, 겨레어문학회, pp.59-114.
- _____ (2009a), 『텔레비전 광고 구조의 텍스트 언어학적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_____ (2009b), 「패러디 광고의 텍스트성 연구」, 『겨레어문학』 42, 겨레어문학회, pp.69-142.
- 이제영 · 권수미 (2008), 『방송광고의 패러디 소구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수용행태 유형 연구』, 『커뮤니케이션학』 16-3, 한국커뮤니케이션학회.
- 조경섭 · 김일철 (2002), 「TV광고의 패러디 효과에 관한 연구」, 『광고학연구』13-2, 한국광고학회, pp.7-25.
- Hutcheon, Linda (1985), *A Theory of Parody: The Teachings of Twentieth-Century Art Forms* NewYork&London:Muthuen. 김상구 · 윤여복(譯) (1992), 『패러디 이론』, 문예출판사.
- R. de Beaugrande · W.Dressler (1981), *Introduction to Text Linguistics*, London: Longman. 김태옥 · 이현호(譯)(1991), 『텍스트 언어학 입문』, 한신문화사.

■ 참고 사이트

- TVCF <http://www.tvcf.co.kr>
- 광고정보센터 <http://www.adic.co.kr>
- 한국방송광고공사 <http://www.kobaco.co.kr>

이야기 패러디 광고의 텍스트성 고찰

한성일(경원대학교)

이 연구의 목적은 ‘이야기 패러디 광고다운 텍스트’는 어떤 것인가를 찾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고뿐만 아니라 많은 텍스트에 활용되고 있는 패러디 기법의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아주 의미 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텍스트언어학의 중요한 목표가 텍스트의 유형화라고 볼 때, 이 연구는 ‘이야기 패러디 광고 텍스트’를 유형화하고 나아가 광고 텍스트를 유형화하는 데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1. 발표자는 이야기 패러디 광고의 텍스트성 분석을 통해 패러디 광고 텍스트가 원전 텍스트를 차용할 때 갖추어야 하는 기본조건을 보그랑드와 드레슬러(1981)가 제시한 일곱 가지 텍스트성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는데 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의도성과 용인성’- 광고 텍스트 생산자가 어떤 의도(전략)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의도에 부합하는 원텍스트를 적절히 선택했는가의 여부. 패러디된 광고 텍스트가 수용자에게 흥미를 유발시켜 광고 텍스트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느냐의 여부.

둘째, ‘응집성과 응결성’- 원전 텍스트가 차용된 동기의 문제, 즉 원텍스트가 패러디 텍스트로 전이되는 과정의 개연성을 수용자가 쉽게 납득할 수 있느냐의 여부.

셋째, ‘정보성’- 원텍스트를 드러내는 문제로, 원텍스트를 가시적으로 드러낼 것인가? 아니면 내재적으로 드러낼 것인가의 문제, 그리고 나아가 원전 텍스트를 얼마나 낮설게 만드느냐 하는 문제. 낮설음의 정도가 클수록 수용자들은 광고 텍스트를 더욱 새롭게 느끼며 흥미를 갖게 된다.

넷째, ‘상황성, 상호텍스트성’- 원전 텍스트를 패러디하는 시점이 적절해야 한다. 패러디는 본질적으로 상호텍스트성을 지닌다.

발표자는 이 네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는 텍스트가 좋은 ‘이야기 패러디 광고’라고 하면서 3장에서 이야기 패러디 광고의 좋은 보기와 나쁜 보기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발표자가 제시한 텍스트성은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텍스트다움’을 규명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준이라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토론자 역시 보그랑드와 드레슬러의 텍스트성을 통해 여러 텍스트를 분석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저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발표자가 제시한 텍스트성이 좋은 ‘패러디 텍스트’의 텍스트성인지? 아니면 좋은 ‘이야기 패러디 광고 텍스트’의 텍스트성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패러디스트의 의도, 그 의도에 부합하는 원텍스트를 선택하는 안목, 독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원텍스트를 드러내는 방법, 이 세 박자에 의해 패러디의 성패는 좌우된다. 독자가 패러디 텍

트에 담긴 원텍스트의 문맥과 패러디스트의 동기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패러디 효과는 물론 작품과 독자간의 미적 교류도 이루어질 수 없다.” (정끝별, 패러디 시학, 문학세계사, 1997. 34쪽)

위에 제시한 좋은 패러디의 기준과 발표자가 제시한 기준은 거의 일치하고 있어, 발표자가 제시한 기준이 좋은 패러디의 기준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텍스트인 ‘이야기’를 패러디한 텍스트가 ‘광고’라는 데 있습니다. 원텍스트와 패러디 텍스트의 장르가 무엇인지에 따라 좋은 패러디의 기준은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발표자는 연구 대상을 ‘이야기 패러디 광고’로 한정하고, 이야기 패러디 광고는 이야기의 서사, 그 중에서도 사건을 패러디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발표자가 나쁜 보기라고 제시한 [예5]와 [예6]의 광고의 경우는 생산자가 이야기의 서사와는 상관없이 ‘백설공주’와 ‘신데렐라’ 이야기의 한 장면만을 가져다가 변용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생산자 나름대로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고, 이러한 텍스트가 수용자(시청자)들에게 흥미를 주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광고 텍스트의 기능을 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 텍스트는 발표자가 지적한대로 ‘이야기 패러디 텍스트’로는 나쁜 보기일지 모르나, ‘패러디 광고 텍스트’로서의 효용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광고 텍스트의 나쁜 보기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2. 발표자는 이 연구가 ‘광고 텍스트’의 본질을 규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했는데, 광고 텍스트의 본질은 ‘설득’에 있고, 설득을 위해 수용자의 흥미를 유발하는 장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패러디 텍스트의 서사가 원텍스트의 서사와 긴밀하게 연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흥미를 유발시킬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전혀 다른 변용을 통해 ‘낯설게 하기’를 유발하며 이를 통해 흥미 유발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발표자가 중간 보기로 제시한 [예4]의 경우 발표자는 “핸드폰을 일부러 떨어뜨리고 간 여성의 행동은 사람들의 보편적인 인식에 비추어 볼 때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 남자를 ‘찌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신데렐라의 긍정적 이미지를 부정적 이미지로 훼손하는 이러한 패러디를 보면서 수용자들이 원전 텍스트와 패러디 텍스트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고 했습니다.

발표자의 이러한 견해는 ‘패러디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합니다. 왜냐하면 패러디는 단순한 형태가 아닌 다양한 유형으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생산자가 호감을 갖고 원텍스트를 계승하는 ‘모방적 패러디’가 있을 수 있고, 원텍스트를 비판적으로 해석하는 ‘비판적 패러디’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텍스트를 과감히 발췌하여 조합하는 ‘혼성모방적 패러디’ 등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예4]의 경우는 원텍스트에서 한없이 착하고 다소 수동적인 신데렐라의 모습을 비판적으로 해석해서 남자를 유혹하는 적극적인 현대적 여성의 모습으로 변용했다는 점에서 볼 때 오히려 패러디의 미학을 제대로 구현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 토론자가 앞에서 제기한 문제는 결국 텍스트의 의도성과 용인성의 문제를 어떻게 객관화할 것인가의 문제에 귀결된다고 봅니다. 생산자의 의도나 수용자의 용인 여부는 너무나 주관적이고 다양하기 때문에 발표자의 견해대로 쉽게 단정 지을 수만은 없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토론자인 저 역시 늘 고민하는 문제이기에 발표자의 고견을 듣고 싶은 마음에

서 질문을 드립니다. 장황하게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좋은 논문을 읽고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 준 발표자에게 감사드립니다.